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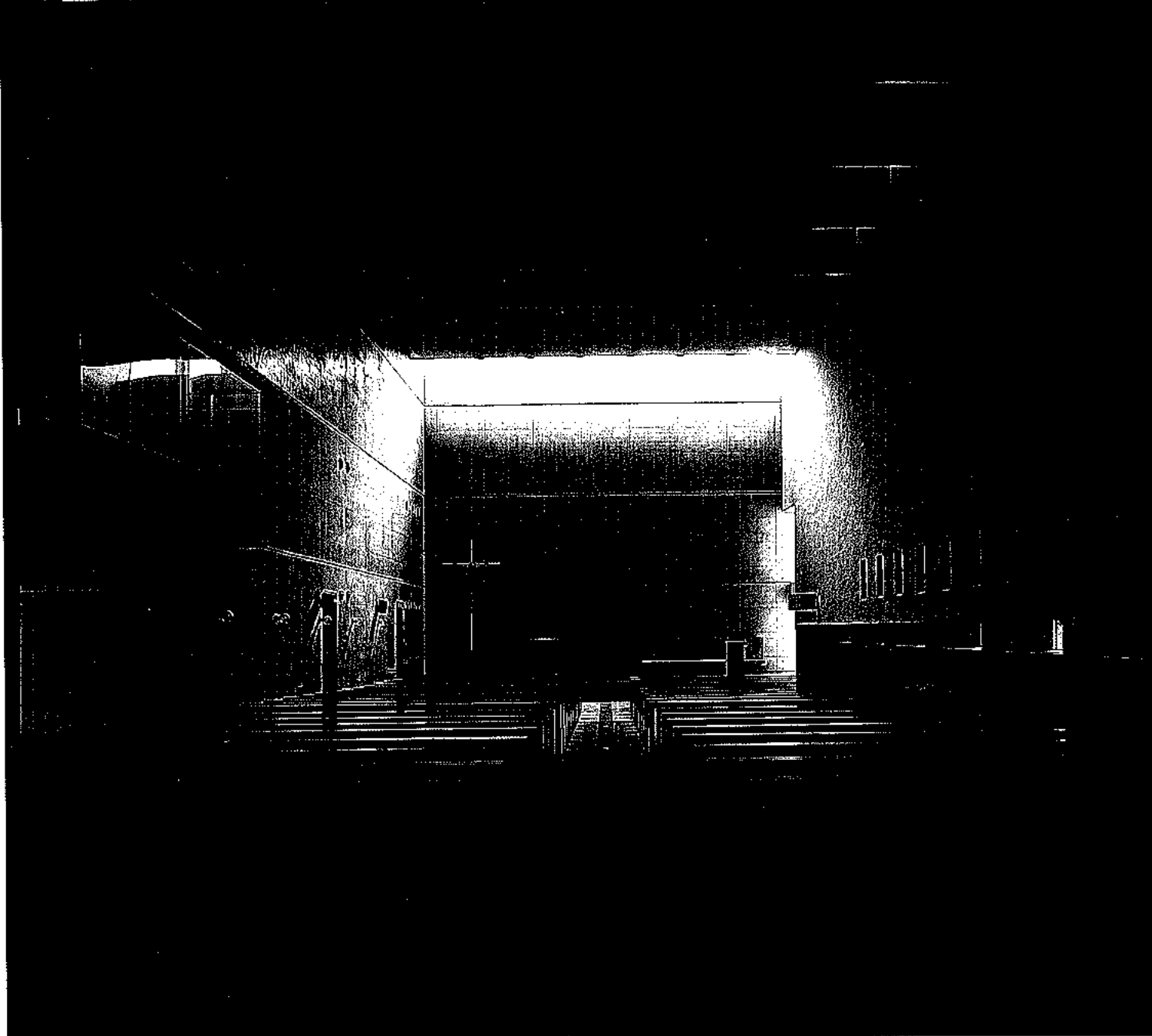
2001 **12** vol. 392

칼럼 _____ 주거환경계획을 위한 몇가지 아이디어

기획연재 _____ 중국 건설시장의 현황과 전망(2)

기고 _____ 건축사의 특별감시업무, 안전점검업무에 대해 할 말 있다

건축기행 _____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완)



여름철 냉방은 물론 영하 15℃ 혹한기 난방까지!

에너지 절약형 LG 인버터 냉난방기

LG 인버터 냉난방기, 이렇게 인정받았습니다!

- LG인버터 냉난방기는 조달청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제품으로 2001년 8월부터 전국 학교 및 관공서에 보급 중입니다
- 전국 초, 중, 고교에 2000년 12월부터 시범 설치 운영 중입니다
- 국책연구 (00.12) 인 '학교건물의 에너지절약형 냉난방시설 모형개발'에서 인버터 사이클 및 스크롤 압축기 기술이 표준냉난방기로 채용되었습니다

정부기관 인증 및 규격 획득

KT(Excellent Korea Technology) 마크 획득 LG전자의 인버터 신기술이 과학기술부와 한국 산업기술 진흥위원회로부터 기술의 우수성 및 제품의 신뢰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 밀레니엄 상품선정

LG전자의 환경친화적 인버터 신기술이 산업자원부의

영양과 받아 1997년 5월 밀레니엄 제품에 선정되었습니다



KS 규격 획득

LG전자는 국가공인 KS 제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LG 인버터 냉난방기, 이래서 더 좋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인버터 냉난방으로 전기료 걱정이 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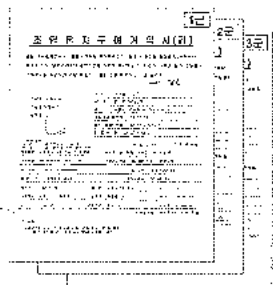
최첨단 절전 인버터 회로 및 국산 고효율 스크롤 압축기로 냉방은 28%, 난방은 32%의 절전효과가 있습니다 (저시 3.5 마력 정속형 히트펌프 대비, 저시 시험 기준)

영하 15℃의 추운겨울에도 43℃의 따뜻한 난방을!

인버터 기능이 있어 추운겨울에도 고온난방이 가능하여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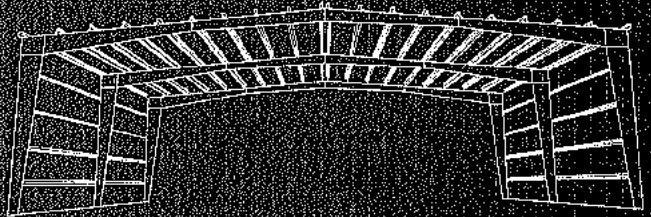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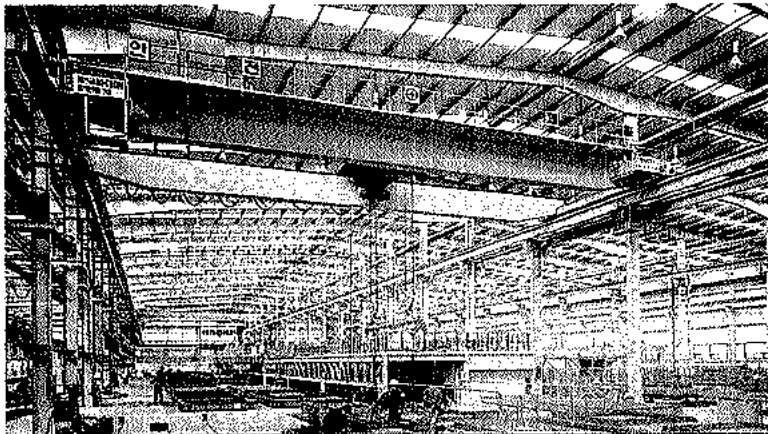
중앙공조 대비 초기 투자비용 34% 절감!

학교건물의 에너지절약형 냉난방 시설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 중앙냉난방 (냉온수기 방식 + FCU)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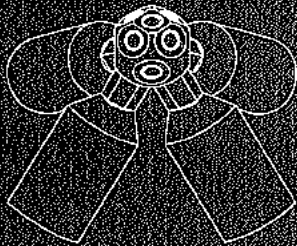


세계적인 한맥의 첨단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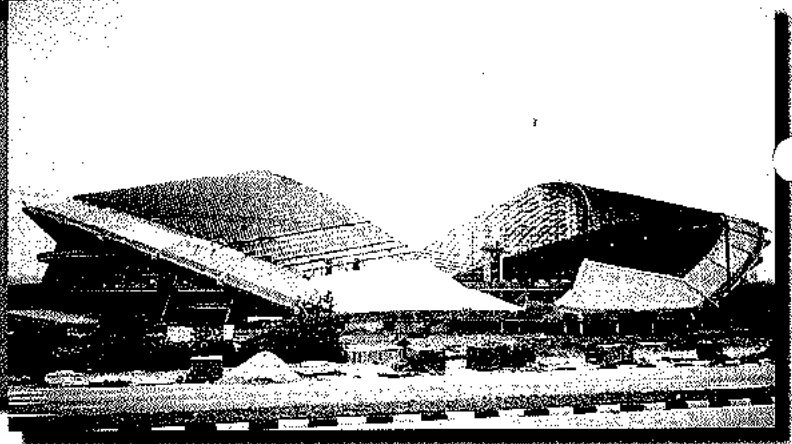
P.E.B & Space Frame



- P.E.B 용도 : 공장, 물류창고 등
- 주요실적 : 육군정비창 33개공장,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태국비료공장, 중국MOBIL석유, 베트남 HUY-HOANG공장 등 국내외 8000여개소



- Space Frame 용도 : 체육관, 공항, Dome 등
- 주요실적 : 말레이시아 Shah Alam종합경기장, 인도네시아 Dome, 일본 Ogawa, 미국 Lejeune Center, 대만 타이베이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신청사, 육동반상경기장 등 국내외 1,000여개소



지난 20여년간 특수철구조물만을 개발하여온 한맥기술진은 Computer Software를 응용하여 3차원 구조역학의 P. E. B(Pre-Engineered Building System)와 Space Frame System을 자체개발, 대규모 부주공간건축을 가능하게 하였고, 기존 철구조물에 비하여 30% 원가절감은 물론 현장조립공법으로 공기단축을 실현하였으며, 연간 7만여톤을 제작·시공할 수 있는 대규모 자동화 생산설비를 갖춘 Asia 최대의 특수철구조물 Maker로 외관이 미려한 혁신적인 철구조물을 세계각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기술영업상담 (02)783-9999

기술제휴 :



FOR
MORE
THAN

50

YEARS



특수철구조물의 개척자

한맥重工業株式會社
HANMAEK HEAVY IND. CO., LTD.

- 본사·공장 :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B-1 나 707
TEL: (031)499-0114(대), FAX: (031)498-0511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3 (교원공제빌딩 6층)
TEL: (02)783-9999(대), FAX: (02)785-0030
[http : //www.hanmeak.co.kr](http://www.hanmeak.co.kr)



ISO 9002



UL마크



한국소방협회

국내 최초 난연성 민테리어 신소재
소방신단 등록 제 02-8926호
특허출원 제 2000-30987호
특허출원 제 2000-20453호
실용신안 등록 제 2000-36132호

안타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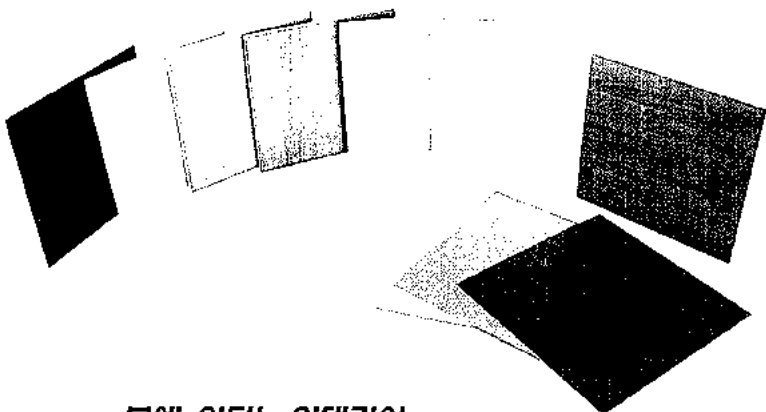
난연 1·2등급 / 방염성능 검증
소방시설 완비증명

이젠 소방법이냐 건축법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난연·방염재 사용 의무화!”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

공포 : 2001. 3. 20 / 시행 : 2001. 5. 20
소방법 제11조, 동시행령 제11조

500여종의 다양한 무늬와 칼라로 무한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창출하십시오



불에 안타는 인테리어

건축내장 마감재 - **안타민**

★규격 : 4×8ft×0.6T(13.1T)

| Antamine의 적용분야 |

- 관광호텔, 콘도, 여관의 일반 숙박시설
- 아파트, 기숙사, 단독 및 공동주택
- PC방, 호프집, 노래방의 위락시설
- 집회, 공연, 음식점의 문화·집회시설
- 종합병원, 학교의 의료·교육연구시설
- 공항, 항만, 여객터미널의 판매·영업시설
- 아동·노인의 복지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발전소, 방송국, 촬영소의 공공용시설
- 사무실, 오피스텔의 업무시설
- 생활권, 자연권의 수련시설
- 기타 다중이용시설

★건축용도 : 벽체, 천장, 바닥면의 실내마감재



주식회사 서한메라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41-8 (남동공단 165B-6L) TEL : 82-32-815-1674~7 FAX : 82-32-814-4155

<http://www.antamine.com>



건축사의 신용, 대출名家의 자존심을 약속합니다!!

보험으로 쌓은 신뢰, 대출로 이어가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희망을 위해
이젠, 보험뿐만 아니라 대출도 삼성생명과 상담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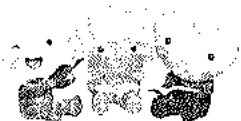
내일을 위한 희망설계 - 삼성생명 대출

신용대출 안내 (무담보 무보증 원칙)

대출자격 / 건축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교사, 기타 공무원
대출금액 / 1천만원~1억 5천만원
예상금리 / 연 7.0%~13.5%
기간 / 1년~5년 (수시상환, 연장,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가능)
대출기관 / 삼성생명, 제1금융(은행), 제2금융(보험사, 금고 등)

- 경락대금 : 90%까지 대출가능
- 담보대출, 창업자금대출 특별상담
- APT소유자, 구입예정자 : 6.5%~8.0%(10년, 15년, 20년, 30년형)
- APT, 단독주택 등 주거용 전세자금이면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상가, 빌딩 등 임대보증금을 담보(질권설정)로 설정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라이트 플러스 대출 : 최저 7.1%
- 스피드 학자금 대출
- 전세 자금 대출

삼성생명대출특선!!



최고액 대출

삼성생명

Seed Bank

신속한 처리

최저의 금리

상담문의

삼성생명 정책5부

팀장: 양승영

Tel (02) 545-8853~4

Fax (02) 545-4939

HP 011-9738-0087

내일을 지키는 힘

SAMSUNG

LIFE INSURANCE

1월 15일 이후엔

₩ 4,800,000 이상

1월 15일까지는

₩ 1,235,000

AutoCAD R14 업그레이드 마지막 기회!

2002년 1월 15일 이후에는 AutoCAD R14 및 AutoCAD R14 기반의 산업 전문 제품군에서 상위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없습니다. 1월 15일 이후엔 신제품 정품가로 새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대상 제품	업그레이드 가격
AutoCAD® 2002(한글버전) AutoCAD® Mechanical 6(한글버전) Autodesk® Mechanical Desktop® 6(한글버전) Autodesk® Architectural Desktop 3.3(한글버전) Autodesk® Map 5(한글버전) Autodesk® Land Desktop 3(영문버전)	₩1,235,000
Autodesk Inventor™ 5(한글버전)	₩2,580,000 (1년 무상업그레이드 비용 포함)

* 상기 가격은 두가제 별도입니다. * 상기 업그레이드 특별가는 정품 업그레이드 고객 대상입니다. (교육용 제외)
상기 AutoCAD 2002 기반의 산업분야별 전문제품에는 기본적으로 AutoCAD 2002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Autodesk Inventor™ 5 제외)



업그레이드 고객을 위한 보너스 더블 이벤트

Off-Line : 솔루션 하나 보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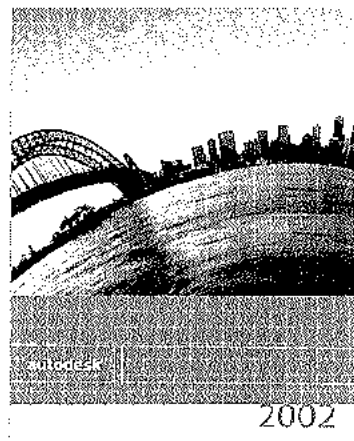
AutoCAD R14에서 Architectural Desktop 3.3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고객에 구조설계 애플리케이션인 ProStructure 무상 제공! (ADT 3.3에 탑재 사용)

On-Line : 배송비 무료로 무선마우스까지!

오토데스크 홈페이지(www.autodesk.co.kr/estore)에서 상기 업그레이드 제품을 구입하시면 배송비 무료로 무선 마우스까지 무상 제공!

▶업그레이드 상담 코너 :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의 업그레이드 센터에서 업그레이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일대일 상담에 드립니다. (www.autodesk.co.kr)

▶AutoCAD R14 시리얼 번호 확인서비스 : 2002년 1월 15일까지 매주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시리얼 번호를 확인해 드립니다. 문의 : (02)561-8329/568-8351



AutoCAD R14 업그레이드 종단! (2002년 1월 15일)

AutoCAD R14 및 AutoCAD R14기반의 베타릴 제품군(AutoCAD LT 98, Mechanical Desktop R3, Inventor R2, AutoCAD Map R2, AutoCAD Map R3, Architectural Desktop R1, MapGuide R4, Civil Design R1, CAD Overlay R14, Land Development Desktop R1, Genius R4, IGES R14, STEP R14)은 새로운 신제품 출시와 따라 더 이상 판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환버전 오류와 호환성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2002년 1월 15일부터는 AutoCAD R14 및 AutoCAD R14 기반의 베타릴 제품군에서 상환버전 또는 오토데스크 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및 크로스 업그레이드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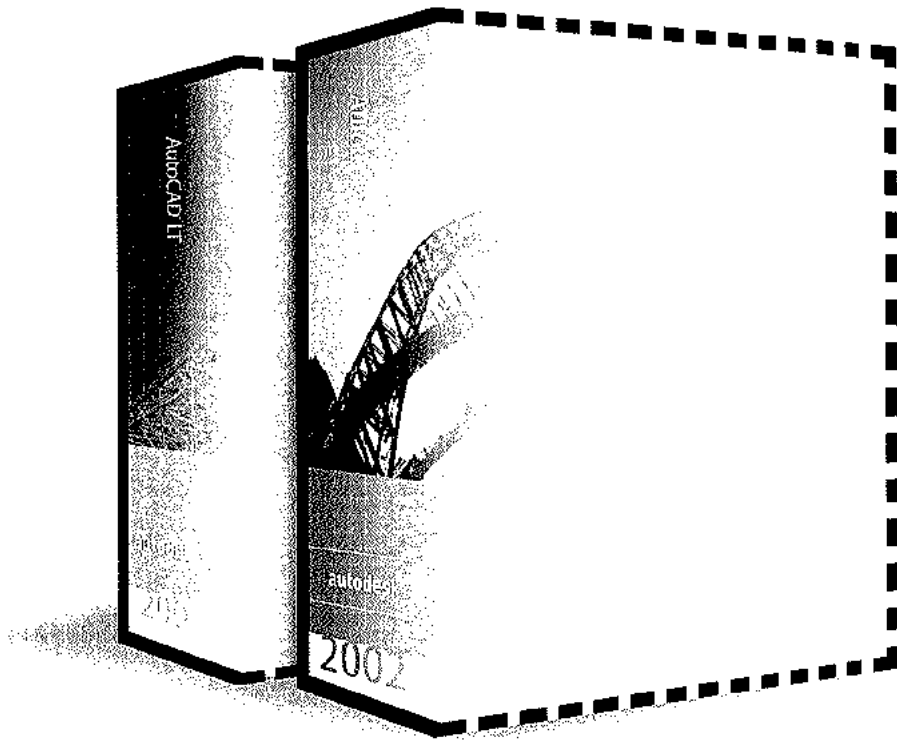
오토데스크의 디자인솔루션은 Autodesk Systems Center에서 만나실지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고객지원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 AutoCAD 제품 ASC : (주)덕영 (TEL: 02-561-8378) ● AutoCAD 교육용 ASC : (주)아이에이 (02-715-1235) ● 업그레이드 전문 ASC : (주)에스아이 (02-519-4821)
- AEC ASC : (주)에이치비시스템 (02-519-1214) (주)비트시스템 (033-562-1058) (주)코스텍시스템 (02-581-4830) (주)에이아이 (주)이 (02-515-3187)
- Manufacturing ASC : (주)시지시스템 (02-735-2107) (주)세이원 (02-462-8707) (주)에이치비시스템 (02-581-4830) (주)에이아이 (주)이 (02-515-3187) (주)에이아이 (02-514-4321)
- GIS ASC : (주)에이치비시스템 (02-561-5373) (주)에이치비시스템 (02-514-4321)

autodesk

(주)오토데스크코리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18 9층 (02)561-8329/568-8351
FAX (02)561-8329/568-8351 www.autodesk.co.kr

가격은 제 값인데 쓰는 것은 1/2?



다우데이터시스템 고객사은대잔치

AutoCAD

AutoCAD 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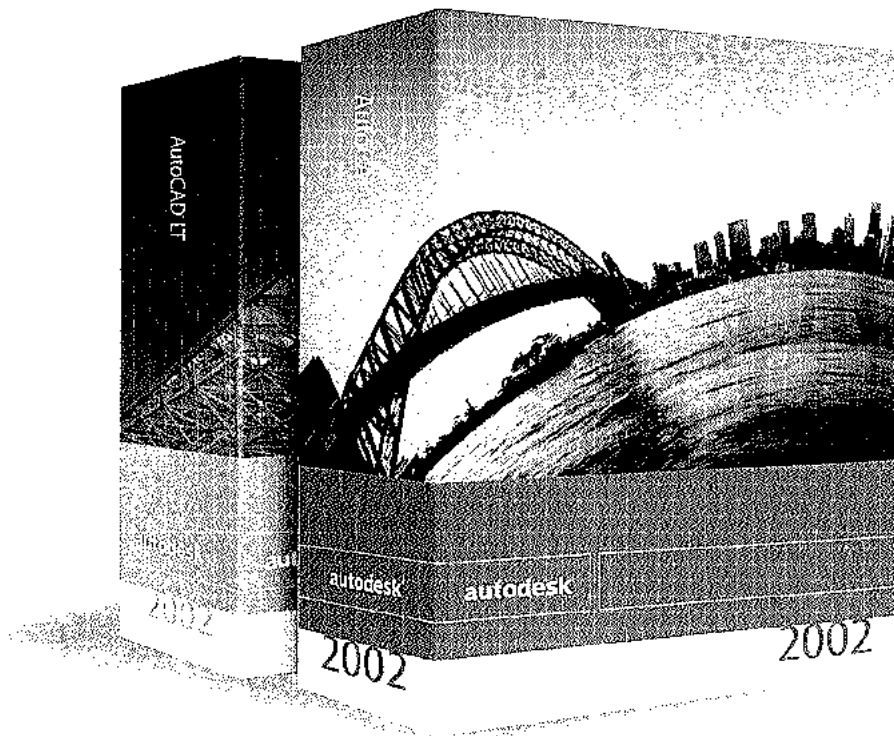
대 상	AutoCAD 2000, 2000i, 2002 상업용 제품 모든 구입고객 (신규고객 및 기존고객)	AutoCAD LT 2000, 2002 상업용 제품 모든 구입고객 (신규고객 및 기존고객)
등록기간	2001년 2월 1일 ~ 2002년 1월 25일	
고객등록방법	당시 홈페이지에 제품시리얼번호 및 고객정보 등록 (http://asc.daoudata.co.kr)	
당첨확인	등록과 동시에 발급되는 즉석복권으로 당첨 확인	
발 표	2002년 1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서 발표	
상 품	1등 1명 : 350만원 상당 HP 칼라 레이저프린터 1대 2등 2명 : 150만원 상당 Compaq PC 1대씩 3등 2명 : 100만원 상당 LCD 17"모니터 1대씩 그 외 100명 고객에게 사은품 증정 (10,000원 상당 스피커)	1등 2명 : 150만원 상당 Compaq PC 1대씩 2등 4명 : 100만원 상당 LCD 17"모니터 1대씩 3등 6명 : 50만원 상당 Compaq I-PaQ PDA 1대씩 그 외 500명 고객에게 사은품 증정 (10,000원 상당 스피커)

※ 상기제품은 모델과 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제공과금 본인부담

AutoCAD·LT 제 값어치만큼 다 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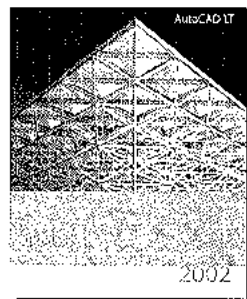
**AutoCAD 및 AutoCAD LT 구입고객은 등록만 하면
 경품에서 풍부한 고객지원까지!**

AutoCAD·LT 프로그램을 오토데스크 공인기술지원센터인 다우데이터시스템에서
 구입하셨다면 고객등록을 잊지 마십시오. 등록하시는 순간 큰 행운의 기회는 물론,
 소프트웨어를 늘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양질의 기술지원과 무료교육의 혜택까지.
 고객등록이 AutoCAD·LT를 제 값어치만큼 다 쓸 수 있는 비결입니다.



AutoCAD 2002

더욱 강력해진 설계 및 제도 소프트웨어로 뛰어난 협력 및 데이터 관리 성능을 보이며 향상된 라이선스 관리 기능을 통해 이미 생산적인 2000i 기능 세트에 더 높은 생산성을 추가한 최고의 일반 설계 응용프로그램입니다.



AutoCAD LT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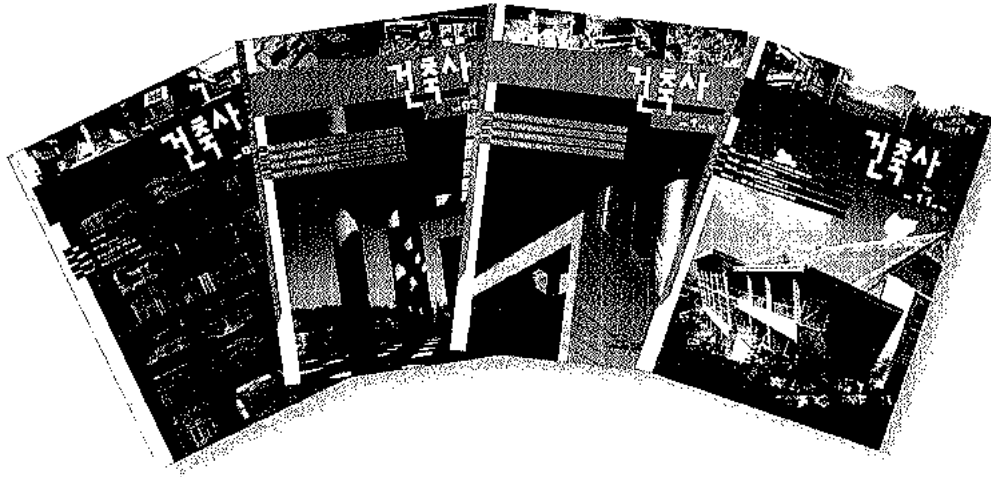
커뮤니케이션 및 공동 작업 도구,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는 도면 생산성 도구와 AutoCAD 2002 기반 제품과의 100% DWG 호환성을 제공하는 유일한 전문 2D CAD 프로그램으로 AutoCAD 2002와 같은 소프트웨어 구조와 기술을 사용합니다.

AutoCAD 2002 제품 교육

- 교육대상 : AutoCAD 2000i, 2002 제품을 구입한 신규 고객
- 교육신청 :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http://asc.daoudata.co.kr> ● 기간 : 1월 ● 교육시간 : 1일, 3일 교육

※ AutoCAD R14 및 AutoCAD LT R14 기반의 산업별 전문제품의 업그레이드가 2002년 1월 15일부터 중단됩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발행하는 월간 「건축사」의 광고는 국내 최초의 건축·건설 전문기획사인 (주)한마당21이 대행합니다.



〈단위:만원〉

광고 단가표

표지 4면	표지 2면	표지2 대면	표지3면	내지
250	120	120	100	70

월간「건축사」誌는 최고의 권위와 최대의 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가 직접 발행
- 전국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보 (약 50,000명)
-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건축사 약 8,000명)
- 건축관련 단체(협회등) 및 대학교
- 건축관련 정부기관·연구소
- 건축관련회사(건설회사, 자재회사, 정보통신회사 등)

**귀사 및 제품을
최대한 홍보·마케팅하는
최고의 광고효과**



광고문의 _____

전화 : 02-702-1871~2

팩스 : 02-702-1873

(121-05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50

강변한신코아빌딩 1503호 (주)한마당 21

세·계·최·초·의·특·자·모·텔·로·대·한·민·국·을·대·표·하·는·주·차·기·가·되·겠·습·니·다.

스카이파크

미니로타리식

SKY PARK

입체주차장치

인정번호 대구 제1-15호

인정번호 대구 제1-16호

실용신안등록 제0190325호

실용신안등록 제0190326호

適者生存의 無限競爭時代
“자신있습니다”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신을!!

“세계최초의 주차기폭 4.57m를 실현한
초슬림형”

세계적 특허방식인
메인체인 접속구동의 新메커니즘

■이렇게 다릅니다.

- 엄청나게 간단해진 구동부 만큼 가격은 대폭 내렸습니다.
- 자상자주식(2.3M×2대=4.6M)보다 좁게 폭(4.57M)을 대폭 줄였습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홈페이지 (www.Juchagi.com)에 있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자재정보 (www.Archidb.com)의 '주차'를 검색하십시오.

■ **자매품** Pit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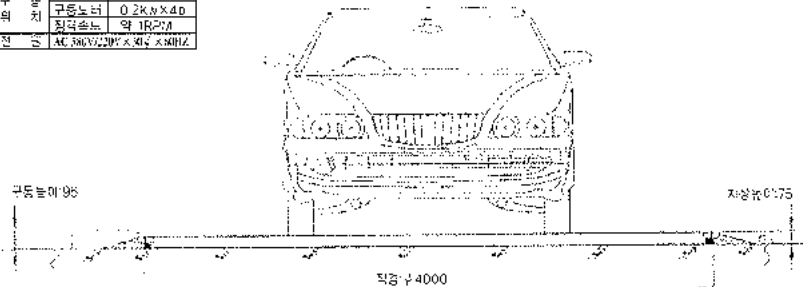
■ **신제품** 지상설치 턴테이블 - 피트(pit)를 파지 않고 지상높이 75mm!

■사양 (뉴그랜저급 진입가능)

모델명	수용대수	주차기 폭(最小)	주차기 길이(最小)	소요높이(最小)
SKY PARK-5	5대	4570	6090	6830
SKY PARK-6	6대	4570	6090	7720
SKY PARK-7	7대	4570	6090	8600
SKY PARK-8	8대	4570	6090	9380
SKY PARK-9	9대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대	4570	6090	13060

실용신안등록 제0233726호

모 순 시 양	
형 식	스카이파크타워형
구동지급	중·소형 전용차
구동방식	전동(CHA1)
구동노면	0.2kN×40
최적승차	약 1R2A
전 기	AC 200V/20A X 3상 X 50HZ



아주 특별한 주차기회사

창공駐車産業

since 1989

www.Juchagi.com

본사·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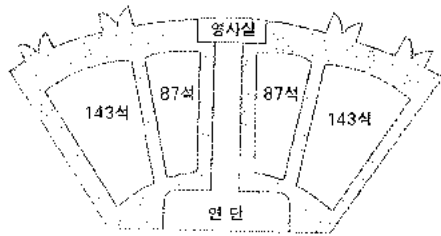
■TEL : (053)956-8838(대) ■P.P : 011-507-8838

■전국무료전화 : 080-567-7788 ■E-mail : cgp210@kornet.net

■서울A/S센터 : (02)3665-2723 ■부산A/S센터 : (051)784-6721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 대관 안내

대강당



대강당(460석)

- 기업 및 단체의 정기총회/세미나/강연회/교육/연수 등 대규모 회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면적 : 143평(계단식)
- 수용인원 : 460(좌석수)
- 부속설비 : 녹음/음악/영사실/무대/무대영사막/흑판/OHP/VPM/SP

1. 사용료

(단위: 원, VAT 별도)

구분	좌석수	사 용 료	
		기본요금(3시간)	초과요금(시간당)
대강당	460석	330,000	66,000

※ 사용기간 : 하절기(3월~10월)/09:00~18:00,

동절기(11월~2월)/09:00~17:00

※ 회원 및 관련단체와 장기사용

(연 30일 또는 연 10회 이상)의 경우 상기금액의 30%할인

※ 야간 및 토요일 오후, 공휴일의 경우 상기금액의 20%를 할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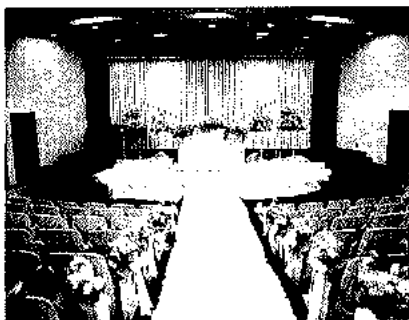
※ 예식행사 : 90,000원

2. 기타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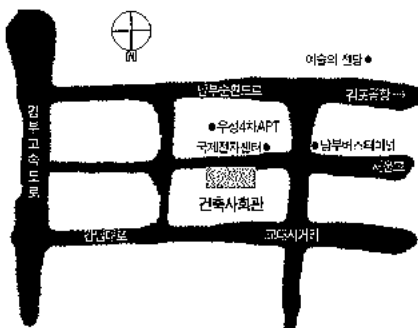
- 신청서 제출시 예약금으로 임대료의 10% 이상을 납부

- 현수막 규격

• 대강당 : (가로) 900cm × (세로) 90cm



약도



대관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건축사회관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

(전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동쪽방향 150m 좌측지점)

TEX : 581 - 57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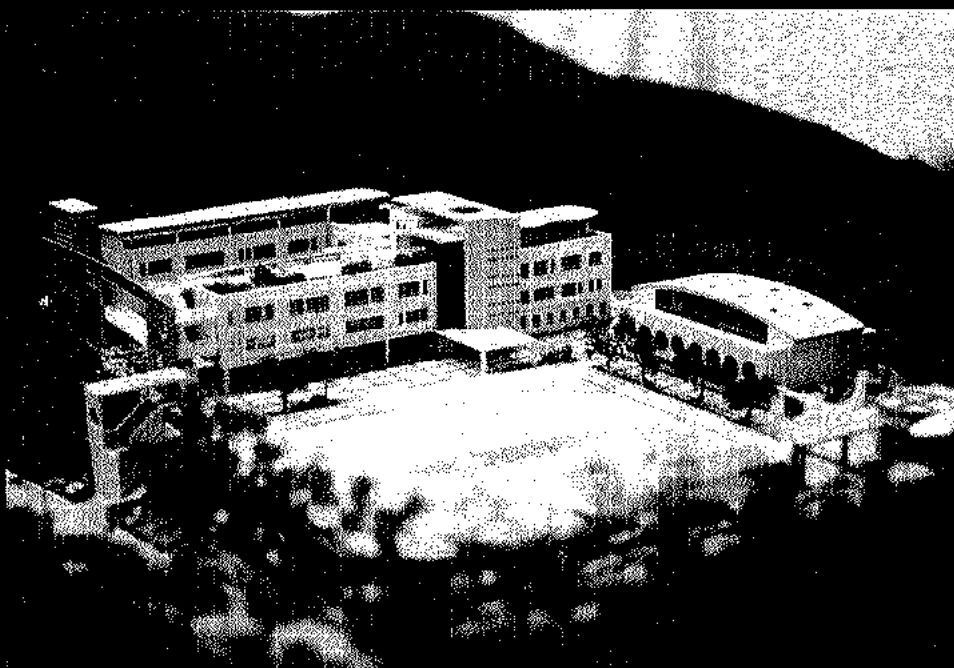
FAX : 586 - 8823

모형

그리고

사람

꿈이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건축모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건축모형

단위세대모형

아파트모형

현상모형

지역안내모형

플랜트모형

고건축모형

인테리어모형

기계작동모형

Model &
People
ARCHIMODEL

130-030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6-71 주상복합 303호

TEL 02)2217-5942~3 FAX 02)2217-5944

ARCHITECTURE



중곡동성당(승효상 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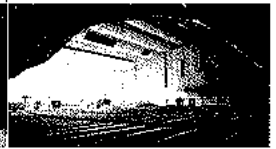
24



28



37



칼럼	주거환경계획을 위한 몇가지 아이디어	박연심	18
회원작품	중방성당	서보광	20
	영락 기도원	최동규	26
	강북제일교회	변 용	32
	현주컴퓨터사옥	김상길 · 김희옥	38
	발저스한국코팅(유) 코팅공장	이영옥	42
작품리뷰	중곡동 성당	승효상	46
	비평 : 보이드의 기호, 그 모호한 경계	구영민	56
건축기행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완)	김석환	60
기고	건축사의 특별검사업무, 안전점검업무에 대해 할 말 있다	조인철	68
기획연재	중국 건설시장의 현황과 전망(2)	안길원, 이승조	74
건축만평		유원재	79
건축마당	건축계소식		80
	해외잡지동향		84
	현상설계경기		90
	전시회(제10회 건축가 미술전 2001)		112

발행인: 우남웅
 편찬분과위원회: 위원장 / 박영식
 위 원 / 김석환, 김수경, 목대상, 최동규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인쇄인: 김중식/중앙미술인쇄공사 (02)2269-7619
 광고: (주)한미당21 (02)702-18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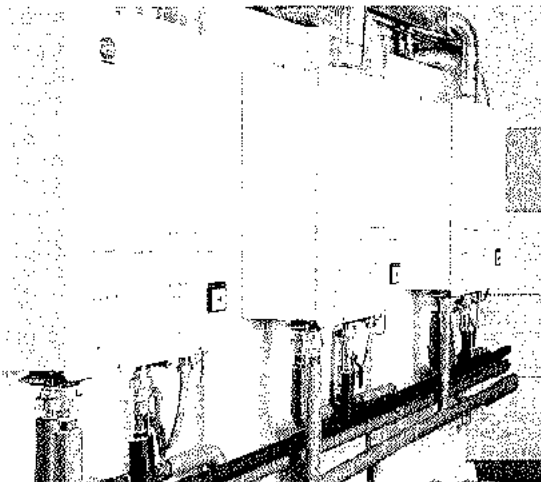
넓은 보일러실이 필요없는 공간절약형 병렬식 보일러 시스템(PBS)을 아십니까?

보일러 크기 때문에 벽까지 허물던 시절은 이제 옛말!
벽을 따라 폭25cm 내외의 가스보일러를 나란히 설치만 하면 되는
간단한 공사에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해드립니다

난방시공능력	50,000~200,000kcal
온수시공능력	50,000~200,000kcal

설치비 싸고, 난방비 아끼고, 관리사 필요없고!

린나이 병렬식 가스보일러 (PBS)



25,000kcal×3대 병렬

시공비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맞춤 제작으로 가정용 보일러를 필요한 만큼만 달 수 있어 기존의 대형 기종보일러에 비해
가격이 눈에 띄게 저렴합니다

연료비가 적게 듭니다

가스가 기름보다 싸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 걱정 안해도 되고 손님 등 방문 선별적으로 보일러를 가동시킬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수명이 2배는 더 깁니다

고상압고 A/S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 대형보일러와 달리 잔고장이 없고 수명이 오래갑니다.
또한 부분가동이 가능해 A/S중에도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어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관리기사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운전상태를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주는 리모콘으로 실내에서나 카운티에서 편리하게 콘트롤할 수 있어
관리사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보일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91

97

103



Column

A Few Good Ideas in Designing Residential Park Yeon-Sim 18

Works

Joong-bang Catholic Church Suh Bo-Kwang 20

Youngrak Church Choi Dong-Kyu 26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Gangbuk Byeon Yong 32

Hyunju Computer Building Kim Sang-gil & Kim Hee-Ok 38

Blazers Coating Production Lee Young-Wook 42

Review

Junggok Catholic Church Seung H-Sang 46

Critique : The Sign of Void: the Solid/Void Ambiguity Koo Young-Min 56

Architecture Travel

The Pleasant Feeling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Kim Suk-Hwan 60

Feature

A Note on the Architect's Special Examination and Safety Inspection Duties Zo In-Cheol 68

Serial

The Present and Prospect of Construction Market in China Ahn Gil-Won & Lee Seung-Jo 74

Cartoon Yoo Won-Jai 79

Architects' Plaza

Archi-Net 80

Overseas Journal 84

Competition 90

Exhibition 112

Publisher: Woo Nam-Yong

Editorial Member: Park Young-Sik, Kim Seok-Hwan, Kim Soo-Kyeong, Mok Dae-Sang,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ungang-art Printing Co.)

린나이 병렬식 가스보일러의 경제성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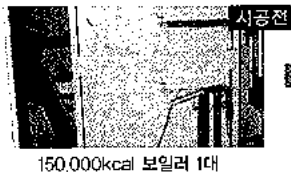
백문이불여일견!

대형 기름보일러에 비해 연비가30%이상 절감되는
병렬시스템의 놀라운 경제성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 서울 역삼동 소재 R사 사옥
- 연면적: 657평 ● 대지면적: 148.76평
- 설치보일러: 30,000kcal 모델 14대 병렬
- 난방면적: 536.5평
- 월난방비: ₩1,882,090
- 사용기간: 2009년1월



시공 사례



150,000kcal 보일러 1대



25,000kcal×6대 병렬

경기 유치원(대치동) 교체 시공

99년에 설치한 K사 제품의 누수 및 난방불량 등의
자은 이상으로 인해 린나이 병렬 시스템으로 교체한 사례.
충별 난방 및 온수 수도직결 TYPE으로 설치.



300,000kcal 보일러 1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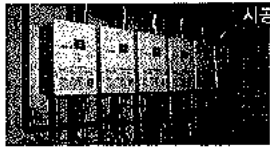
25,000kcal×9대 병렬

수녀원(대구) 교체 시공

93년 국내최초로 린나이 병렬시스템을 설치한 곳으로
뛰어난 경제성과 손쉬운 관리로 이 시스템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진다.
난방배관에 충별 LINE PUMP 설치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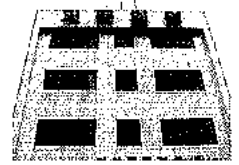
150,000kcal 보일러 1대
70,000kcal 온수보일러 1대



30,000kcal×6대 병렬

상계동 기독교병원

지하 및 5층 규모의 병원으로
난방을 라디에이터 구조로 병렬 시공.
온수탱크는 1톤 규모이며, 충별 Line Pump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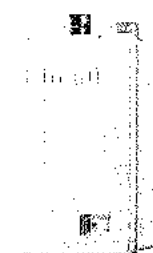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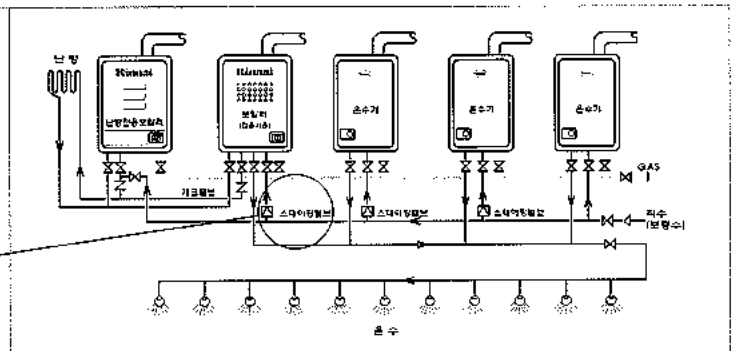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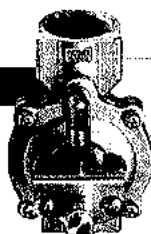


표준 시공 설계도 (난방, 온수 혼용 방식)

- 온수를 다량으로 사용하며, 일부 난방을 사용하는 스포츠 센터, 한식점 등 적용
- 온수 부분은 수도직결 및 Staging Valve(특허)를 적용
- 난방/온수 겸용 보일러는 보충용으로 사용 가능

린나이 코리아 만의 특허기술 「스테이징 밸브」

- 시스템 관련 특허출원
- 외부에서 설정압력을 임의로 조절가능
- 온수탱크 대체가능하며, 획기적인 연료절감 가능
- ※ 수압력 개폐 역할을 하는 밸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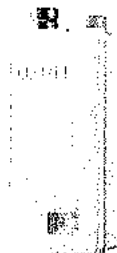


난방전용보일러(병렬전용)
RPB-366SME/F

난방: 36,000kcal/h
사이즈: 600(H)×440(W)×285(D)mm

디지털 가스보일러
RB-366SME/F

난방: 36,000kcal/h
온수: 36,000kcal/h
사이즈: 600(H)×440(W)×285(D)mm



순간온수기(RW-16AE/F)

사이즈: 600(H)×335(W)×180(D)mm
온수: 16ℓ /분(AT:25℃)

Rinnai 가스기구의 名家
린나이코리아

주거환경계획을 위한 몇가지 아이디어

A Few Good Ideas in Designing Residential Environment

박연심 / 건축사사무소 장원
by Park Yeon-Sim

작년, 그리고 금년 들어 서울시가 부쩍 서울의 도시환경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며 규제일변도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주상복합건축물에 있어서 주거와 상업시설의 비율에 따른 용적률 차등적용, 다가구법 중 지하세대와 주차장대수 강화, 오피스텔의 구조방법, 주차대수산정방법 등등. 이는 내년에 치를 월드컵경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동안 망쳐진 도시환경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런 규제들을 그때그때 일회용으로 강화시킨다고 해서 망쳐진 도시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건교부에서는 판교신도시를 신도시모델의 모범적 사례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 계획 속에 이미 국민의 삶을 결정하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국토의 발전계획을 확고하게 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국토의 지리적 환경과 지역개발, 환경, 관광, 교통, 물류, 주택, 토지 등에 따른 건설산업과 금융, 교육, 문화, 통일 등과 관련된 도시행정 및 지방행정의 문제 그리고 국제화에 따른 세계화, 동북아 등과의 상관관계가 얽혀져서 각 분야가 제휴(Interdisciplinary)되어진 방법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건축설계가 주 업무인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주택설계나 다가구, 연립 등 공동주택의 설계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갖고있는 특유의 주거, 주택문제에 비교적 많이 접한다고 생각한다. 몇 가지 열거해 보면 국민들의 주거개념, 주거환경의식, 주택의 자산가치에 대한 생각, 다가구의 문제 등등. 이들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새로운 모델 제시의 비전에서 보자면 특히 우리나라 주거형식의 획일화문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도시생활자중에는 2명중 1명이 아파트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의 수가 늘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평형의 차이만 있을 뿐 평면은 거의 같은 구조를 갖는다. 18평형 아파트나 55평형 아파트나 거실을 중심으로 방들이 붙어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잠실 주공5단지나 거실, 식당의 낮공간과 침실이 있는 낮공간이 복도를 중심으로 나뉘어 있는 복도형 평면과 거실을 중심으로 식당, 침실 등이 붙어 있는 마루형 평면이 공존하고 있는데, 복도의 면적이 실들을 작게 한다는 이유로 복도형 평면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부형태는 더욱 문제다. 발코니의 길이나 폭이 아파트의 프리미엄과 관계된다. 서울시는 이 문제 또한 규제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사업 주체자들이나 건설회사들도 나름대로의 연구나 추구하는 바가 없이 여기저기 사용되는 타일에 맞추는 식이다. 최근 분양가 자유화에 의해서 새로운 기법들을 기대하지만 기존의 주거형들을 손대지 않고 내부에 사이버아파트의 기능을 준다든지 외부에 조경, 주차방법 등에 신경을 쓰는 정도이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로렌스 듀렐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모든 장소는 사람들이 오래 머물

기만 하면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그 자체의 영혼(sprit)을 갖고 있다.” 획일화된 환경 속에서 머무는 사람들의 인간성에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행 상에서 디테일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방법으로 국토계획단계에서부터 예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토계획상에서 주거형식의 다양화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다.

첫째, 신도시개발에서 저밀도 주거지역을 많이 지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저밀도라하면 용적률 100%~200%이내로써 개발업자들의 사업적인 이윤추구에 반하는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어야 하겠다. 분당의 경우처럼 특별설계구역을 정해서 시행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밀도가 높아지면 어쩔 수 없이 적층형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신도시 단독주택지필지 구획에서 격자형으로 나누는 종래의 기법에서 단지형 기법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유한 토지소유 개념 때문에 시행하기 어려우나 21세기에는 그것을 뛰어 넘어야 한다. 일산의 경우처럼 주택 하나하나는 멋있지만 그것들의 모임은 마치 주택전시장 같아 보인다. 근린주구로써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여 단지내에서 어린이 놀이터와 주차장 등 제반시설들의 기능들이 서로 얹히지 않고 독자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셋째, 신도시개발에서 구릉지를 새로운 주거형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어디를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는 흔히 산을 깎아 내리는 것을 상상하게 된다. 요즘 용인의 구성지구나 수지 등을 가보면 바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도심지역의 재개발 또한 그렇다. 구릉지는 주거지역으로 최상의 조건을 갖는다. 왜냐하면 좋은 전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사지를 이용하여 각 세대에서 전망을 방해받지 않고 쾌적한 조건을 가질 수 있는 테라스하우스의 다양한 개발을 통하여 도시미관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넷째, 기존의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주거전용지역을 이용한 주거형의 다양한 방안이 있다. 현재 건축법은 주거전용지역에서 다세대를 지을 경우 동당 2층이하, 200평미만, 20가구미만으로 제한하는데 이를 양성화하고 2세대 연립(Detached house)으로 지을 경우 각각의 대지는 살리되 연점으로 지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주거지역의 경우 자금의 분류법은 1종지역, 2종지역, 3종지역으로 나뉜다. 각 구마다 용도지역의 지역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많으므로 지역을 지정할 때 1종지역을 확대하고 이들의 용적률 100%~200%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와 반대로 3종지역의 용적률은 현행의 400%에서 500%이상으로 올린다. 그래서 도시지역의 용적률을 높은 곳은 아주 높이고, 낮은 곳은 아주 낮추는 High-and-Low의 기법을 도입하도록 제안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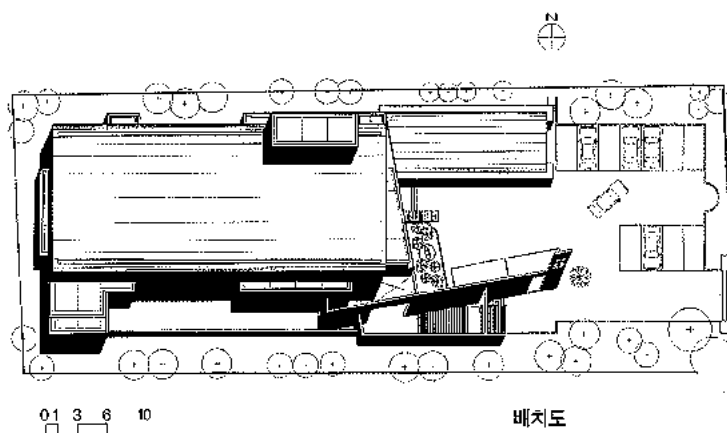
중방성당

Joong-bang Catholic Church

서보광 / (주)동성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Suh Bo-Kwang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185.00㎡ (660.96평)
건축면적	848.11㎡ (256.55평)
연면적	2,227.83㎡ (673.91평)
건폐율	38.82%
용적율	73.60%
주요용도	종교시설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주요마감	내부마감 - 적벽돌+화강석+유공금속판(천정) 외부마감 - 적벽돌+드라이비트+동판잇기(지붕)
건축주	천주교 대구대교구
주차대수	15대
설계기간	1999년 2월~1999년 9월
공사기간	1999년 9월~2000년 10월



배치도

따뜻한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중방성당의 예정 부지를 처음 찾아가는 날. 이런 날이면, 항상 설레임과 호기심으로 그 곳의 모습을 상상해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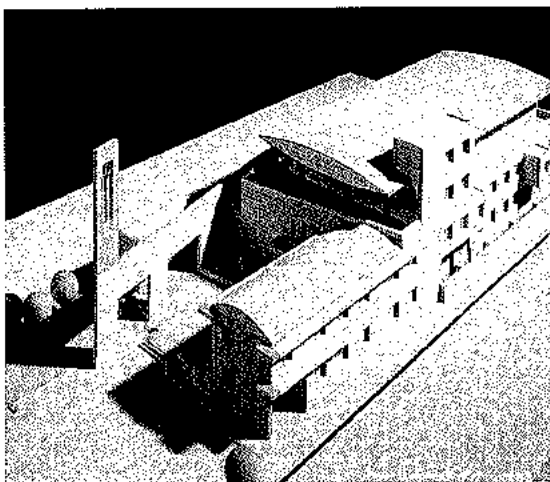
예정부지는 신혼 주거지에서 약간 벗어나 공장들과 농지가 혼재한 경산시 중방동에 위치하고 있었다. 긴 직사각형의 대지와 주변 경관은 성당의 입지로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들은 작업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중세시대의 성당처럼 중심적 공간이 아닌 도시의 한 모퉁이에서 가로와 어떻게 만나고, 조화를 이룰 것인가? 아직도 성당의 상징과 인지성으로 기호화 되어있는 첨탑을 건축화로 재해석하는 방법은 어디까지인가? Sky Line이 무너진 도시 속에서 원거리의 시각적 확보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종교전례를 위한 공간으로서뿐만 아니라 사람과 나눔의 공간에 대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이며, 조직할 것인가는 중방성당의 디자인 과정에 단초가 되었다.

예정부지의 답사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종교적인 축으로 상징되는 동·서의 축으로, 대지 축과도 일치하면서 강한 힘을 표

출하고 있었다. 이 힘은 직사각형의 주 Mass의 배치 및 대지로의 기능적인 접근과 건물 내부의 공간 질서를 지배하게 되었다.

여기에 성당을 향한 시각적이며 정신적인 축을 설정하여, 십자가 탑과 가벽, 계단 등의 상징적인 오브제 의 배치에 기준이 되게 하



면서, 대지내부에서 건물로의 경건한 심리적 접근을 유도하였다. 이 두 축의 차별성과 '연속성'은 디자인 개념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여, 현재의 건축 안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일상적인 도시 공간에서 「대성당」으로의 전이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이 과정은 극적인 전환을 수용해야 한다. 중방성당은 「대성당」을 2층에 배치하여 내·외부의 질서를 따르는 수직 동선을 각각 계획함으로써, 기능적인 이유 뿐 아니라 높은 곳으로 향하려는 '종교적 열망'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하였다. 또 1층은 「만남의 광장」을 중심으로 교리실과 부속실, 코어 등을 배치하여 기능에 충실하였고, 만남의광장은 여러 공간들의 완충적인 역할과 「대성당」에 이르기 위한 과도적 공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하층에는 대강당을 계획하여,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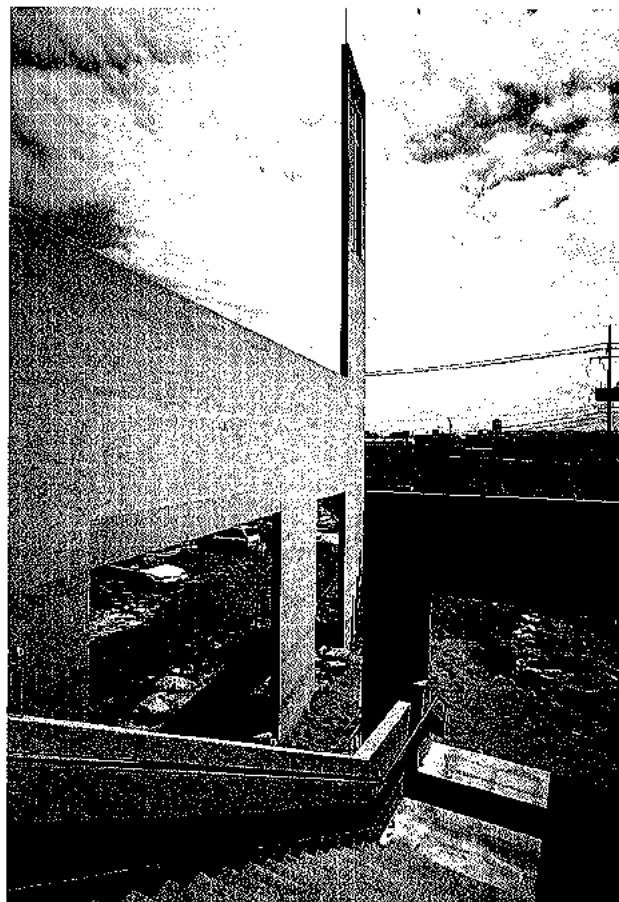
종교건축에 있어서 공간의 이미지는 열려있음과 닫혀있음에 좌우된다. 이것은 결국 빛을 어떻게 조각할 것이며,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해결하는 길이다.

지하층은 대강당의 좌우로 Sunken을 두어 지하공간의 지상화를 계획하고, 협소한 홀의 기능을 보조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높였다. 진입 층에서는 '4'자 형태로 빛을 끌어 들여 「만남의 광장」에서 모이게 함으로써 공간의 이미지를 극대화시켰다.

대성당에서는 진입 공간들에서 느껴졌던 빛의 이미지를 하나로 함축하려고 노력했다. 하단부의 소박하면서도 절제된 빛의 유입과는 대조적으로, 지붕을 살짝 들어올리고 들어난 뼈대 사이로 흘러드는 찬란한 빛과 천장의 반사는 성당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성스러운 하느님의 공간을 형상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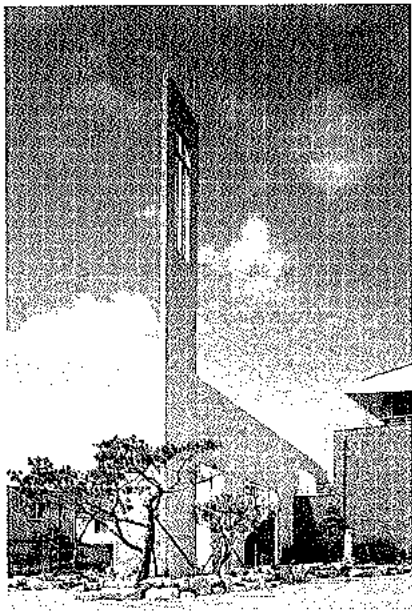
입면계획은 십자가 탑과 가벽, 외부계단은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선적구성요소'로서 평면과 동일하게 디자인했다. 반면에 주 매스는 벽들을 사용하여 중량감과 안정감을 가지고 '면적구성요소'로 쓰면서 차별화하였다.

하지만 두 요소들의 차이를 완화시키며, 중방성당의 Identity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과는 차별화 되는 창조적인 요소가 필요하였으며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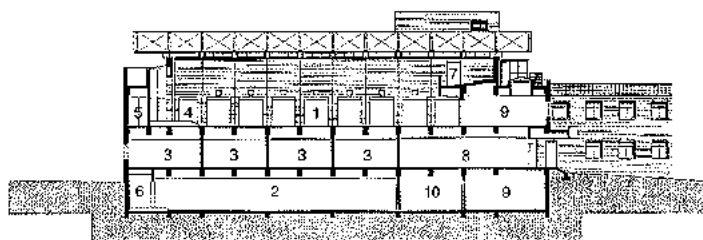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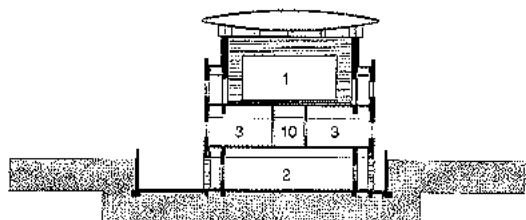


붕을 통해서 그 해결점을 찾게 되었다. 여기서 「지붕」은 Sky Line을 결정한다. 아래·위로 블록한 형태의 Mass는 내면의 솔직한 표출이면서도, 종교적 양고심과 상승감을 유도하는 성당의 지배적 이미지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부속동의 곡면지붕 역시 변화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다. 중방성당은 지금도 발판을 마주하며 하늘을 향해 날개 젖히고 있다. 그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또한 종교적 경건함과 사귄다 나눔의 공간으로서 모자람없이 사용되어지길 바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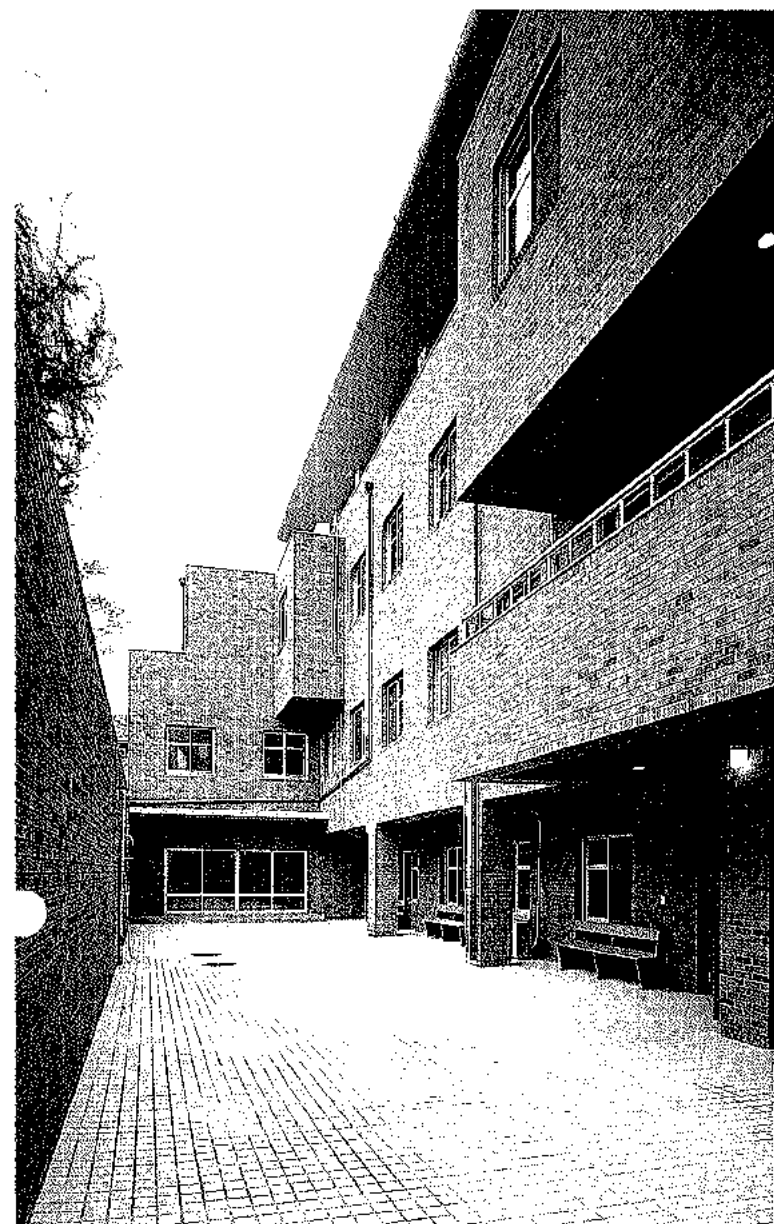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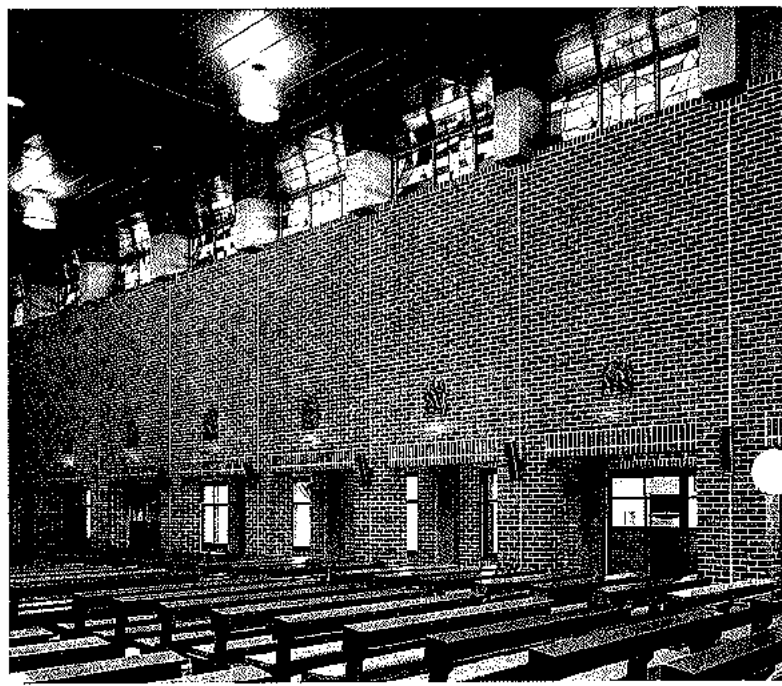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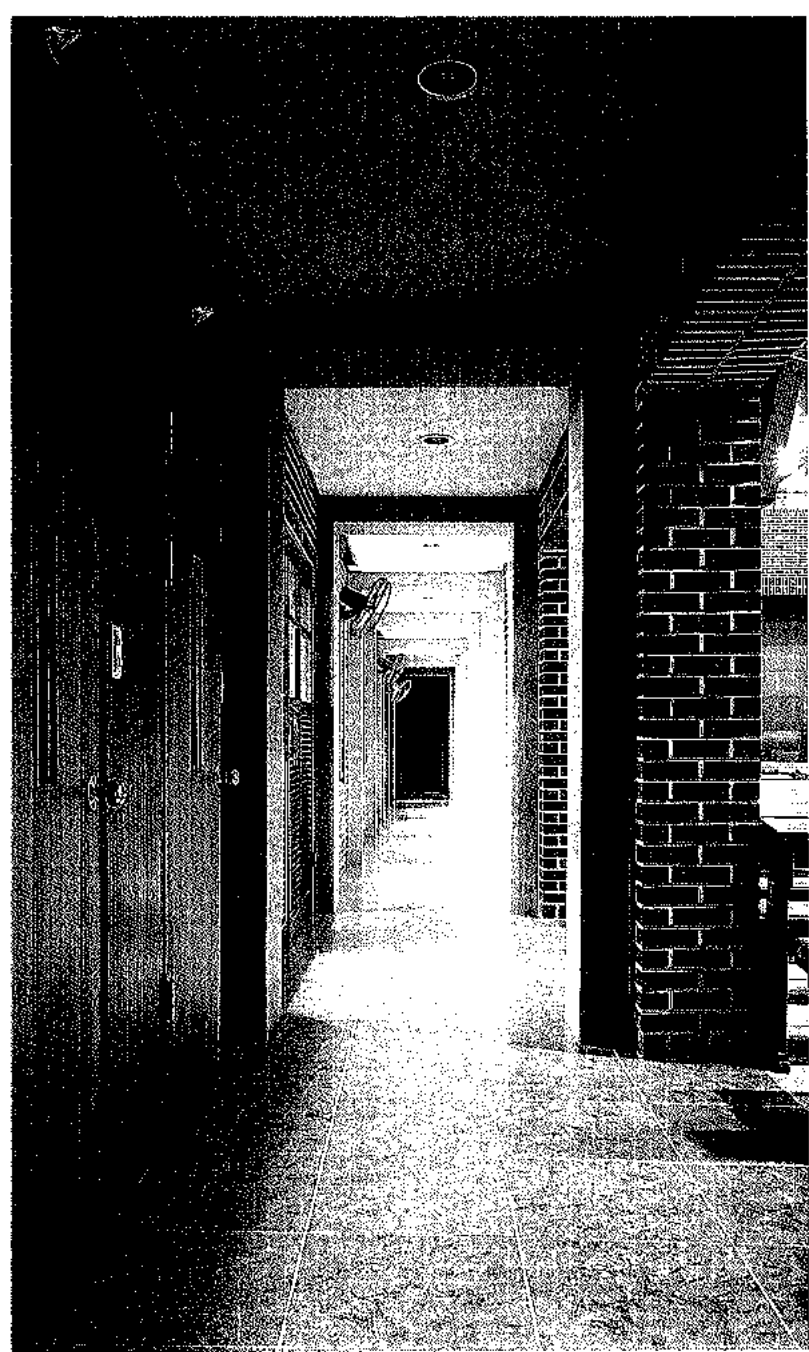
1. 대성당
2. 대강당
3. 교리실
4. 제대
5. 제의실
6. 무대
7. 삼가대석
8. 만남의 광장
9. 홀
10.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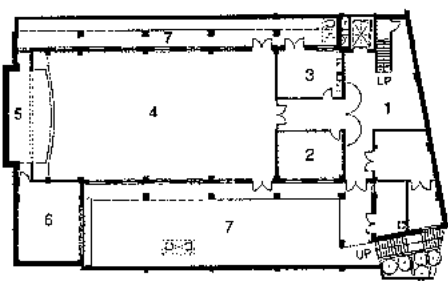
0 1 3 6 10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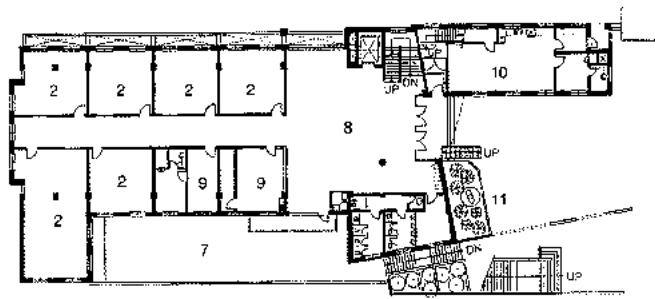


- | | | |
|-----------|-------------|------------|
| 1. 홀 | 9. 사우실 | 17. 침실 |
| 2. 교리실 | 10. 주방 및 식당 | 18. 성가대석 |
| 3. 주방 | 11. 설도상 | 19. 배린다 |
| 4. 대강당 | 12. 제단 | 20. 대성당 상부 |
| 5. 무대 | 13. 제의실 | |
| 6. 예배실 | 14. 교회실 | |
| 7. Sunken | 15. 객실 | |
| 8. 안남의 광장 | 16. 거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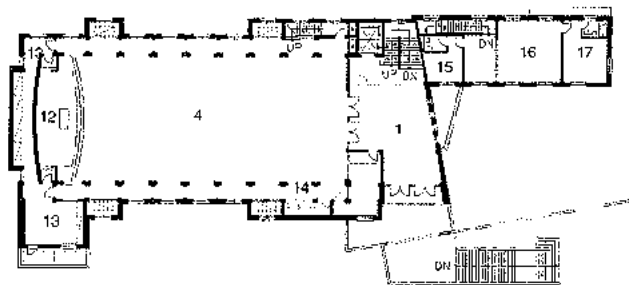


0.1 3 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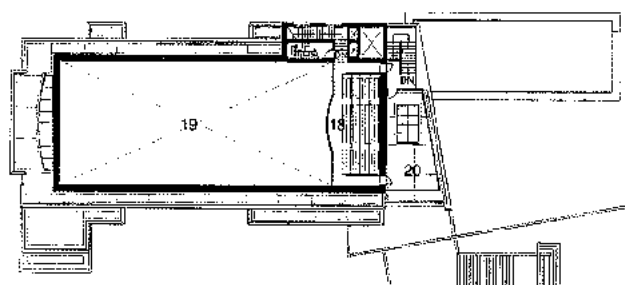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영락 기도원

Youngrak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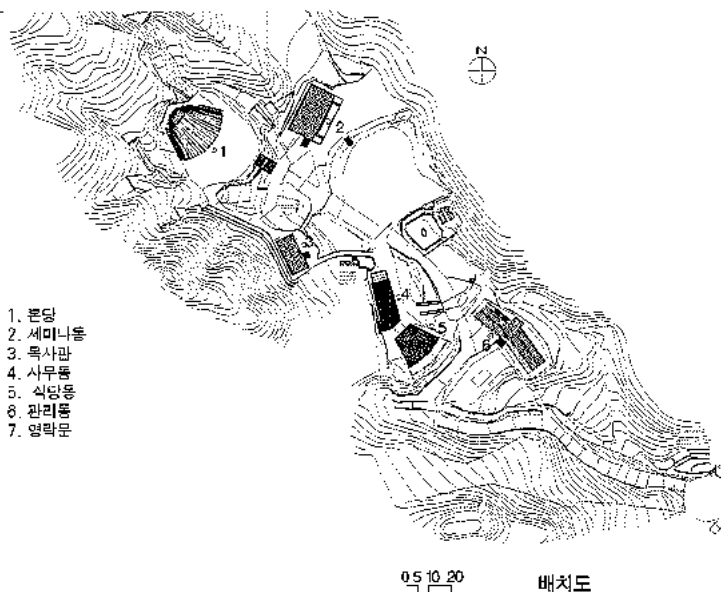
최동규 / (주)서인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Dong-Kyu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산 126-1번지 외 4필지
주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3251.02㎡
건축면적	본당 - 463.56㎡ / 세미나동 - 306.75㎡
연 면 적	본당 - 587.13㎡ / 세미나동 - 296.93㎡
건 폐 율	본당 - 14.25% / 세미나동 - 9.43%
용 적 륜	본당 - 13.82% / 세미나동 - 9.13%
규 모	본당 - 지하1층, 지상1층 / 최고높이: 9.8m 세미나동 - 지상1층 / 최고높이: 5.4m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 목구조
주요마감	외장 - THK0.7동판, 적벽돌, 커튼월 내장 - 적벽돌, 집성목, 수성페인트
인테리어	(주)서인건축 + 예담건축
구 조	산아구조
설 비	기원ENG
전 기	성일ENG
시 공	(주)대양건설
감 리	(주)서인종합건축사사무소 김은수
건 축 주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교회 유지재단
설계기간	2000년 3월~2000년 10월
시공기간	2000년 10월~2001년 8월
설계담당	조영학, 김상훈, 주원태, 김현삼

위치 :

북한산을 바라보며 수유리 쪽으로 가다보면 화계사와 4.19 기념탑 가는 도로 표시가 나온다. 도로 표시대로 화계사 쪽으로 가다보면 길모퉁이에 한신 대학교가 나오고 우회전해서 조금가다 보면 영락교회 기도원 표시가 보인다. 표시를 따라 2km정도 올라가면 갑작스레 도심에서 보기 힘든 깊은 숲 사이로 승용차 두 대가 겨우 교행 할 정도의 작은 길이 나타나는데 그 길 끝자락에 영락문이라는 목작한 철제문이 바로 영락기도원의 초입이다. 북한산 국립공원내에 자리 잡은 영락기도원은 인근의 도시적 어수선했음에서 격리된 깊은 숲속 분위기를 간직한 일만여 평의 규모로 구성되어있다. 국립공원내에서는 건축행위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건축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6개동의 연면적 780평을 넘지 못하게 되어있다. 일만여 평의 수려한 대지에



연면적 780평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25,000여명이 다니는 교회 수련원으로서의 규모가 너무 작다고 생각해서인지, 건축위원회에서는 끊임없이 많은 것을 요구했다. 6개의 건물은 관리동, 식당동, 사무동, 목사관, 세미나동, 교회 등이다.

경위 :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건물들은 6개로 분리되어 있었다. 필자가 설계를 맡기 전, 이미 6개의 건물을 3개동으로 계획하여 건축 허가까지 끝난 상태였고, 교회와 세미나동을 뺀 나머지 건물들은 일층까지 골조 공사가 진행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사공회사의 부도로 필자에게 설계의뢰가 온 것이다. 본당을 기존 교회가 있던 동산의 제일 높은 자리에 배치하였고, 세미나동은 교회의 우측에 배치했다. 이렇게 하다보니 교회의 위치가 기도원 영역의 최정상부에 배치된 셈이 되어 세미나동은 마치 임금님 옆에 었드린 신하의 모습과 같은 형국이 되었다.

교회 :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고딕식 교회의 위치는 풍수지리와 거리가 먼 필자가 보기에도 왕가의 묘택이 들어갈 만한 정도의 명당자리 같아 보였다. 그래서 기존의 교회를 허물고 세미나동 자리에 합쳐서 한동으로 계획 했던 것을 다시 원래 있던 대로 여섯 개의 건물을 분산

시키는 배치계획으로 복귀시켰다. 교회의 면적은 국립공원내의 건축제한으로 지상층 면적이 150평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건축위원회의 요구사항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예배실내에 앉아서 예배를 본다 해도 기껏해야 600명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전면 마당에 의자를 놓고 옥내와 옥외에서 동시에 많은 신자가 예배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흥미 있는 요구사항이었다. 교회가 원래 있던 자리의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부채꼴형태의 평면을 산 쪽으로 밀어 배치하여 앞마당을 넓게 확보하고 둥근 모습의 지붕을 덮는 것으로 구상했다.

구조 :

교회 지붕의 구조는 오래전부터 목재 집성보를 써보려 하던차에, 때마침 독일 목재 집성보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고, 엔지니어링이 뒷받침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목재보를 쓰게 되었다. 목재 집성보를 쓸 경우 이점은 별도의 이중천정이 필요 없어서, 더욱 솔직 간명한 내부공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에서 스판이 30M가 넘는 아이스스케이팅장 천정구조를 온통 목재 집성보로 해결한 것을 보았는데, 장스판을 목재보로 해결함과 동시에 천정모양이 아름다운 것에 놀랐다. 기도원의 교회 형태는 사실은 몇 년 전에 실시설계까지 끝내고 공사비 부족으로 지을 수 없었던 K교회 계획안을 실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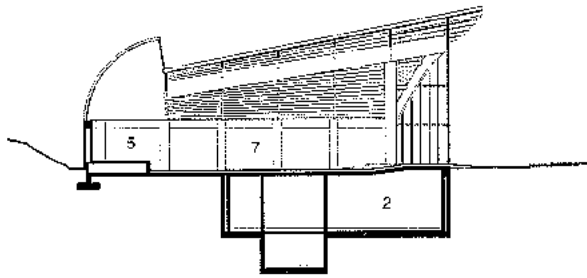
세미나동 :

기도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보면, 본당에서는 기도 및 설교를, 세미나동에서는 세미나와 선교 행위를, 그리고 숙소동에서는 휴식을 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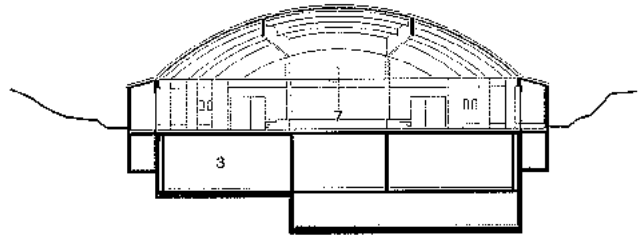


는 것으로 각 프로그램에 따른 행위들이 분절화 되어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세미나동의 법적 건축행위가 93평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전관을 모두 세미나실로 구성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전관을 세미나실로 구성하는 것이 절대적 공간의 부족함을 해소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오히려 절대적인 규모의 관점에서 벗어나 세미나와 선교 행위가 동시에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어렵사리 건축위원회의 승낙을 받았고, 선교 공간의 전면을 유리로 하여 외부의 수려한 공간과 내부 선교 공간이 서로 교통하게 함과 동시에 수공간을 조성하여 선교공간의 분위기를 극대화하였다. 그 결과 야간에 내부경관이 물에 투사된 이미지가 또 다른 입면을 형성하게 하였다.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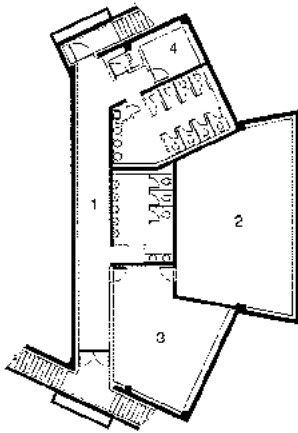


본당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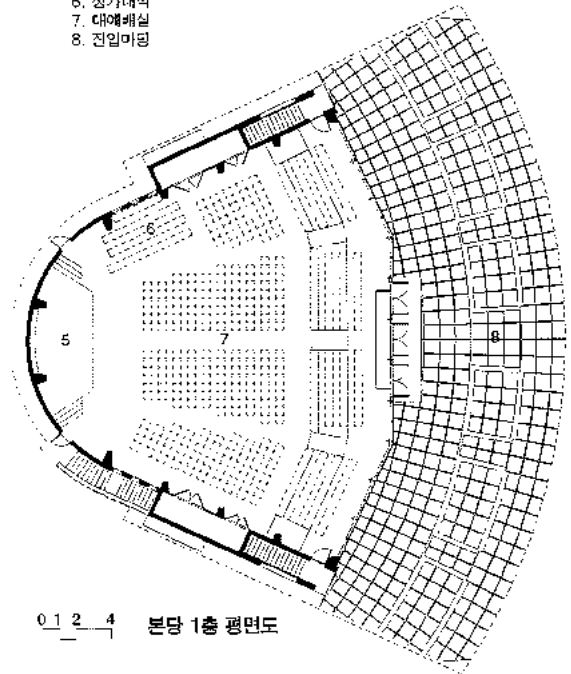


본당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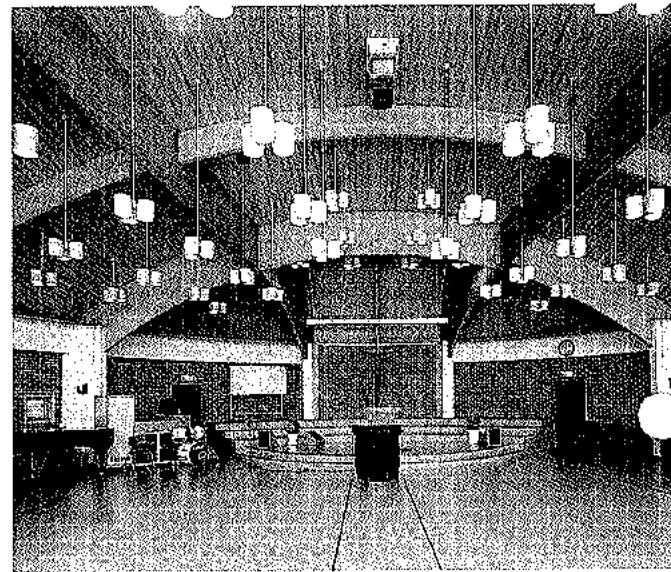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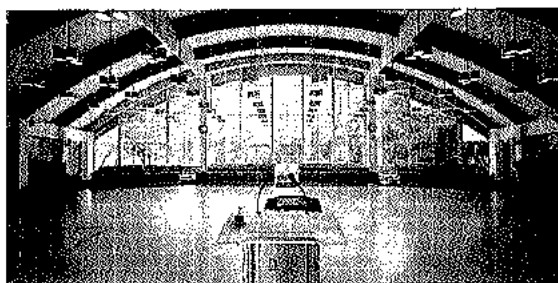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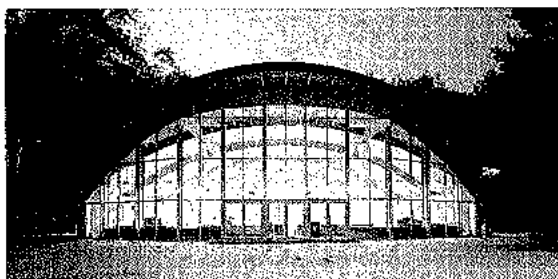
1. 복도
2. 뒤편크실
3. 유류저장창고
4. 창고
5. 강대
6. 성가대석
7. 대예배실
8. 전입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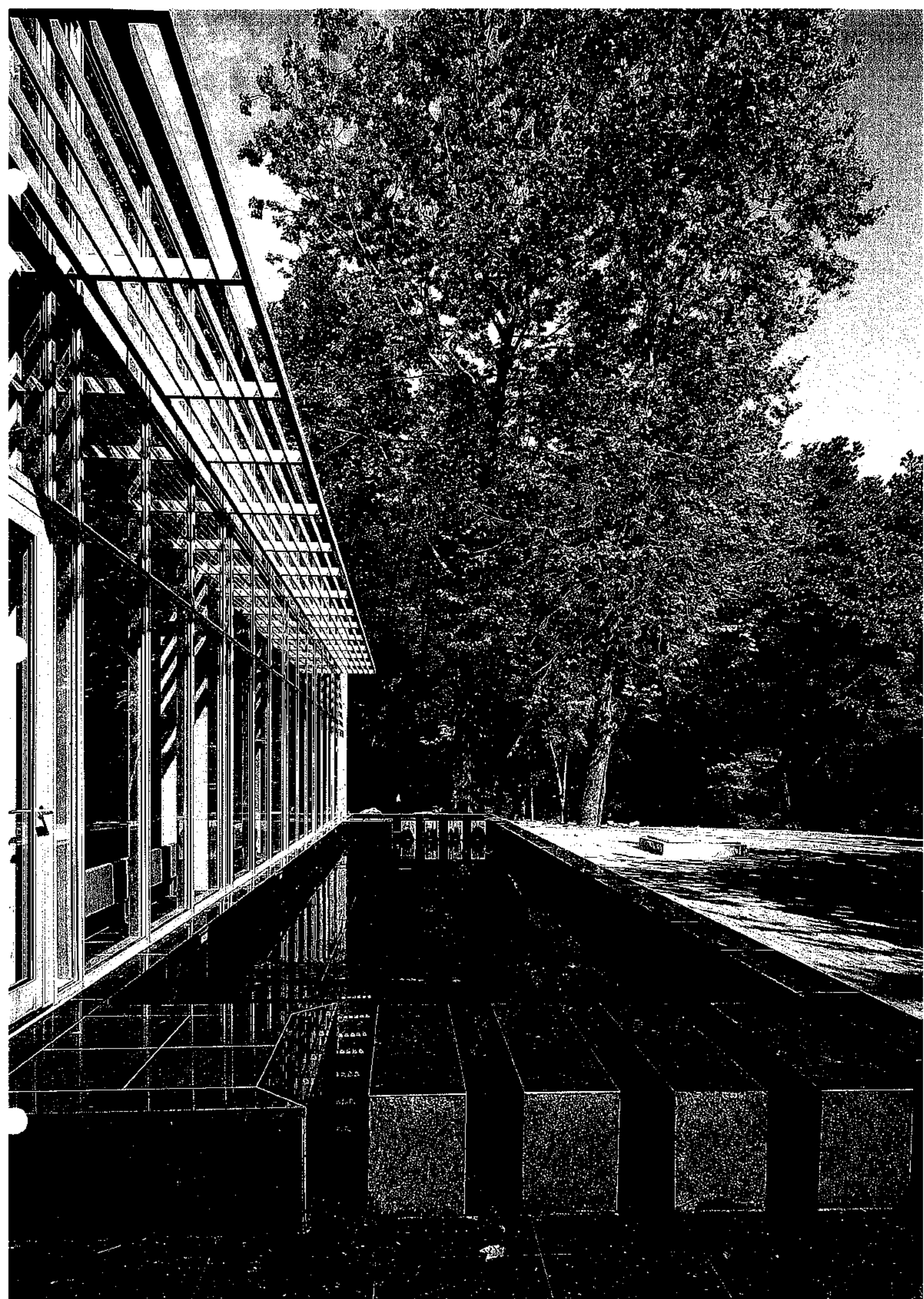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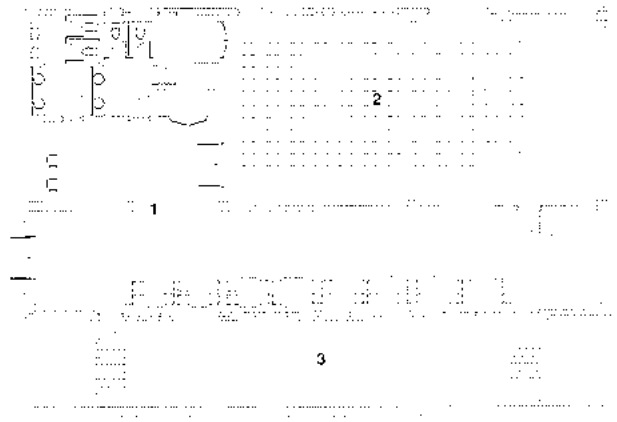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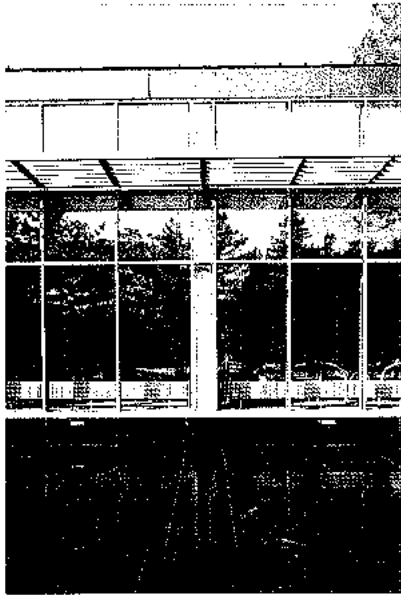
본당 지하 1층 평면도



0 1 2 4 본당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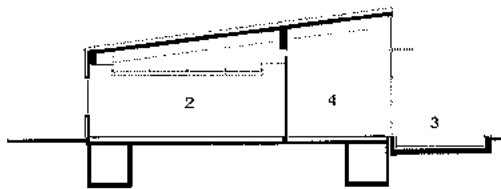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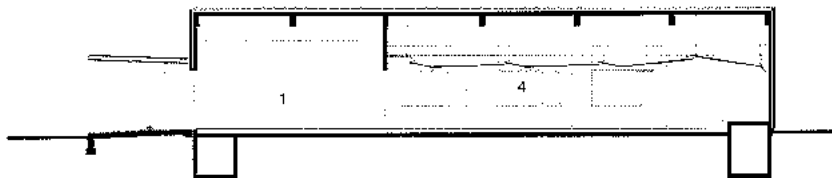


세미나동 1층 평면도





세미나동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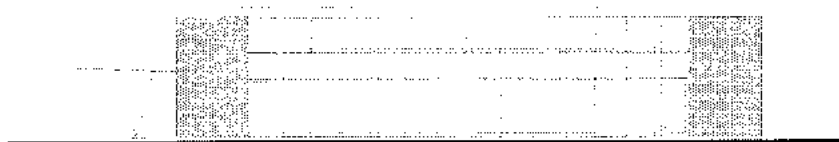
세미나동 횡단면도

- 1. 층
- 2. 대회의실
- 3. 안뜰
- 4.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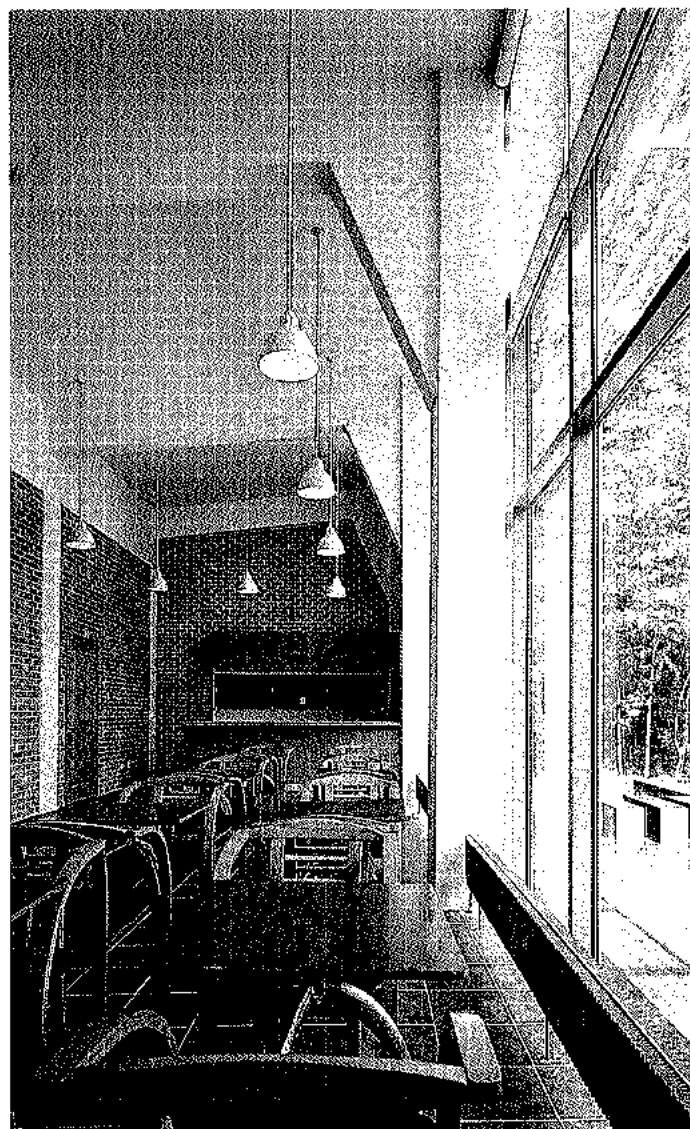


0 1 2 4

세미나동 좌측면도



세미나동 정면도



강북제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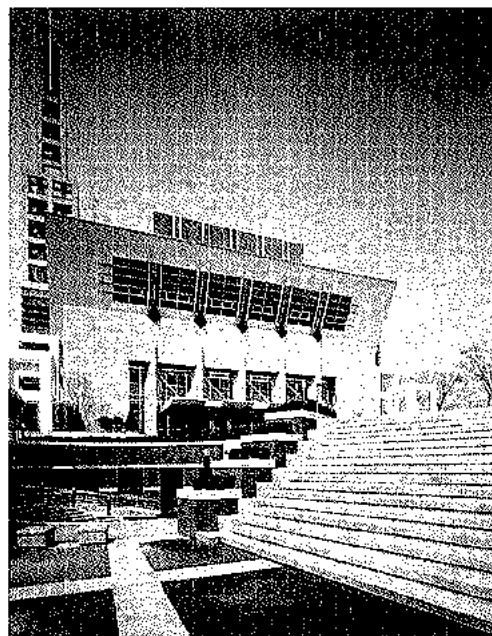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Gangbuk

변 용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
Designed by Byeon Yong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96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제2종 미관지구
대지면적	4,831.70㎡
건축면적	2,507.27㎡
연 면 적	21,835.00㎡
건 폐 율	51.89%
용 적 륜	76.15%
최고높이	31.27m
주요용도	종교시설
규 모	지하5층, 지상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주요마감	시멘트계블럭, 치장벽돌, 18mm복층유리 + 불소수지 AL-BAR
주차대수	190대

(2001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부문 입선)



예견하려 하지 않는 건축

지명현상을 통해 초대한 이 교회건축은 여러 해를 겪으면서 그저 '이 고저' 하는 알 수 없는 에너지로 지금 이러 저러한 경로로 관여했던 우리 앞에 서있다.

창고같이 검소한 교회, 3000석 분당이라는 요구 외에는 이 일이 겪어야 했던 5년여 세월이 만들어낸 프로그램들이라 하는 것이 옳다.

출애굽시대에 광야에 축조되고 해체되었던 그 성막개념이 근거가 되고 다소 역설스런 점을 감출 수 없지만 프로테스탄티즘에 매료된 생각이 이 건축을 만든다.

창고같은 건축은 이 건축을 종교건축이 갖는 상식적인 전형에 대한 고민을 일찍 접게 해주었고, 그저 이 건축이 가고자하는 데로 갈 수 있도록 건축가는 기다리기로 한다.

의도되거나, 의도될 수도 없는 것이 종교건축이 갖는 또 하나의 상식임을 알기 때문이다. 적어도 종교건축앞에선 건축가란 공리적 최소한의 따짐이 관여될 뿐 더 이상 의사하지 않음을 안다.

그래서 이 건축은 자연스런 모습이기 바란다.

전후면 한 개층의 고저차를 갖는 얇고 긴 대지는 3000석이라는 다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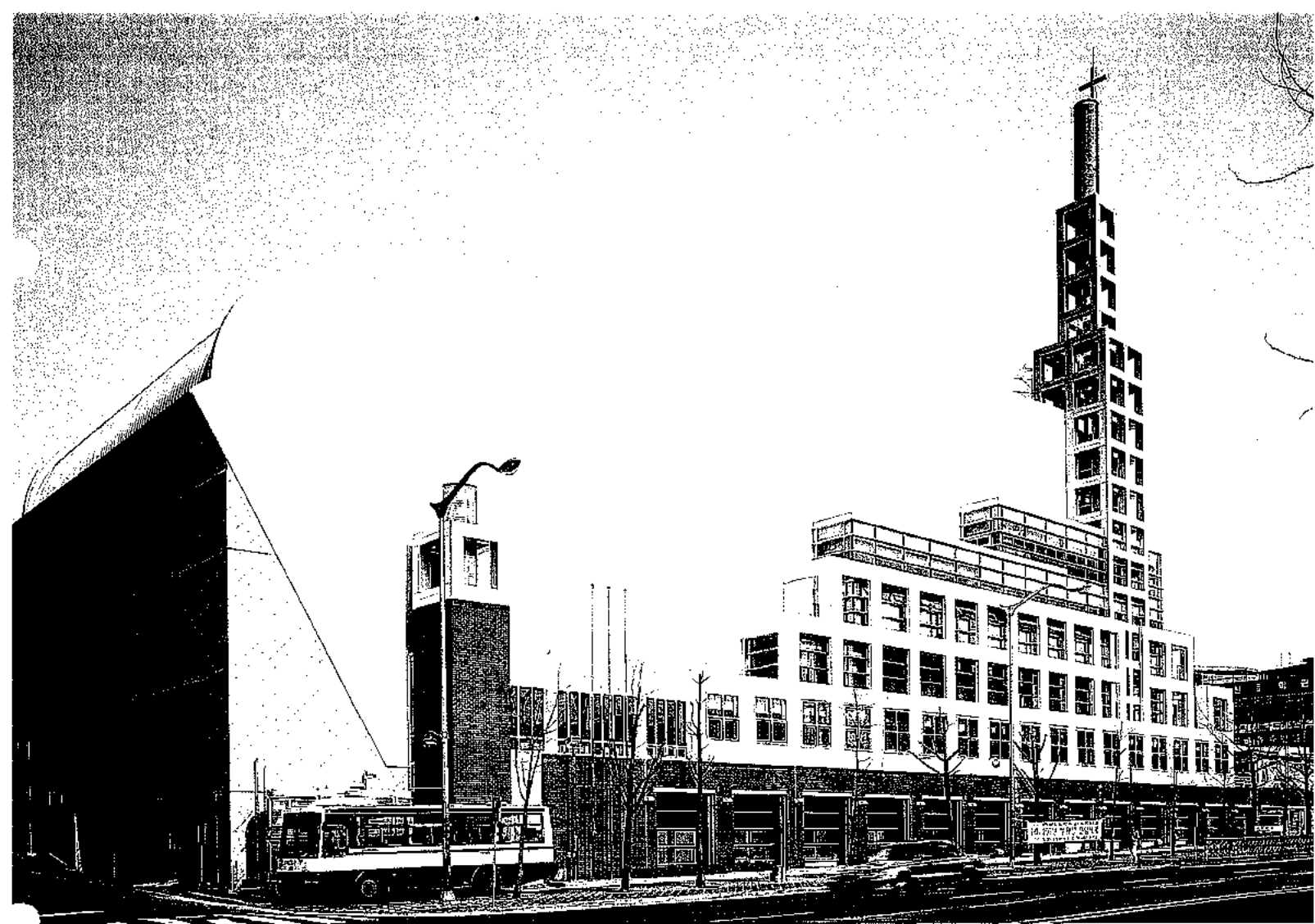
버거운 동선의 용량을 일시에 해결해야하는 교회건축의 기능에 맞는 모양새로 이해되었고, 스피디한 도로로 삼면이 포획된 컨택스트는 성막을 둘러싼 담장을 회랑으로 그 폭을 가지면서 공간의 전이를 담당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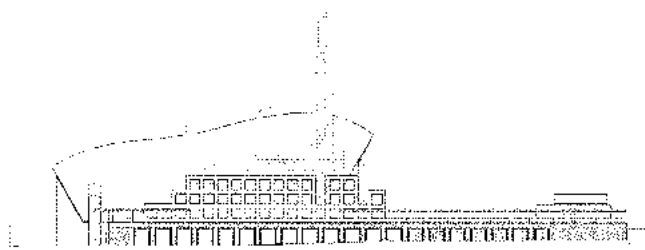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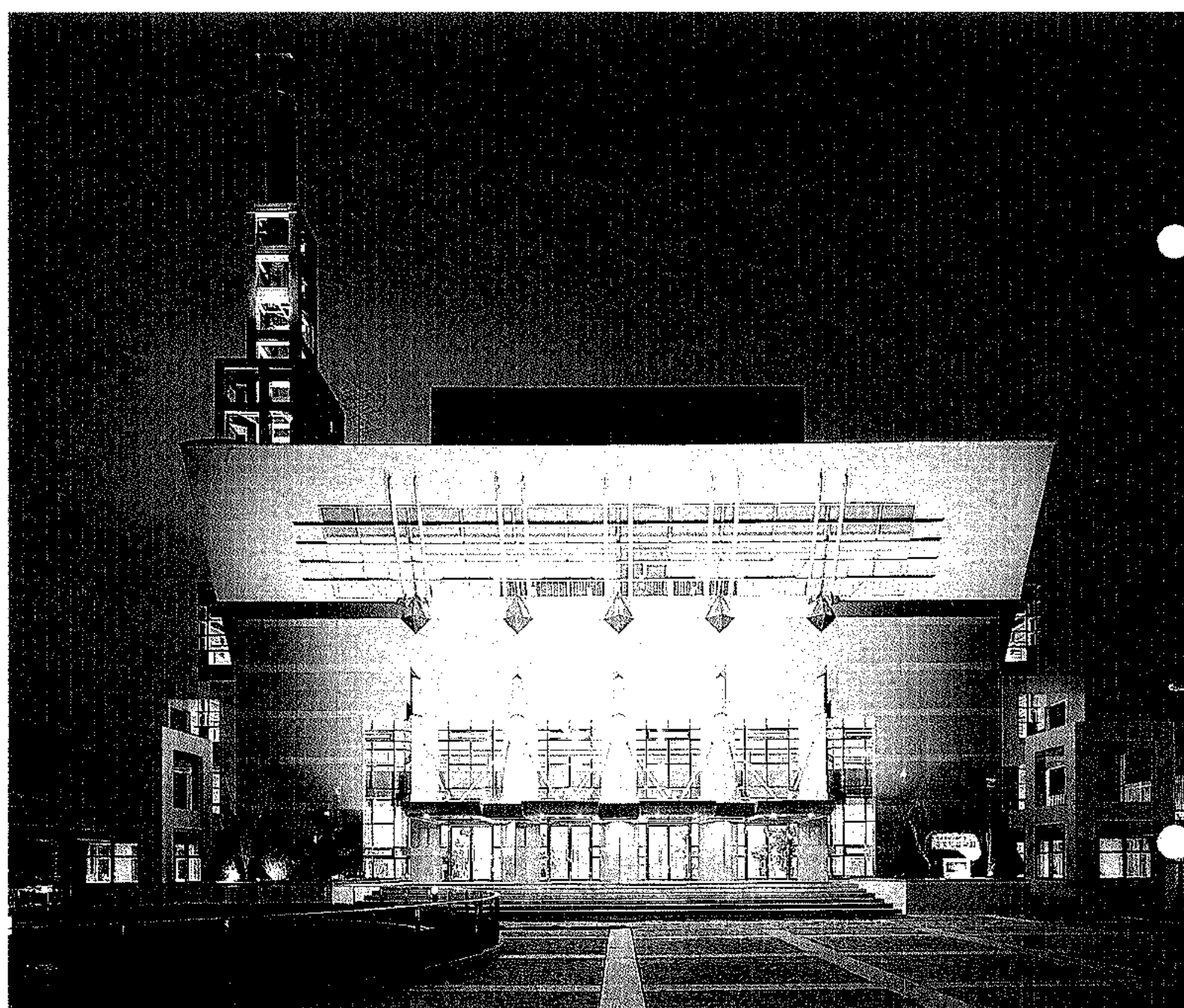
장차 교육관이 서게 되면 중정의 모습을 완성하게 될 가운데 마당은 전면도로에서는 선크이 된 낮은 마당이 되고, 뒷마당에서는 같은 높이의 마당이 되어 모두 열린 마당이 된다.

지상에는 3000석을 소화해내는 본당은 전면 로비와 양옆에는 각 레벨따라 생겨난 복도만 있다.

지하 3층까지 거실이 되어야 하는 사정들은 자연광의 유입이 이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란 믿음은 본당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부속실의 출입을 빛통로로 설정한 타원통이다.

다행히 여러 어려움에는 이 장치는 남아주었고, 이 빛우물은 그것이 안보이는 지하공간까지도 광범적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음은 지하공간에서도 감사하는 사용자의 밝은 마음이 그 이유의 전부이고, 이 건축의 건축가일지 모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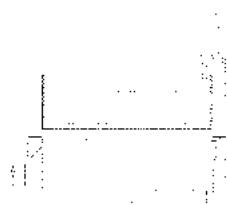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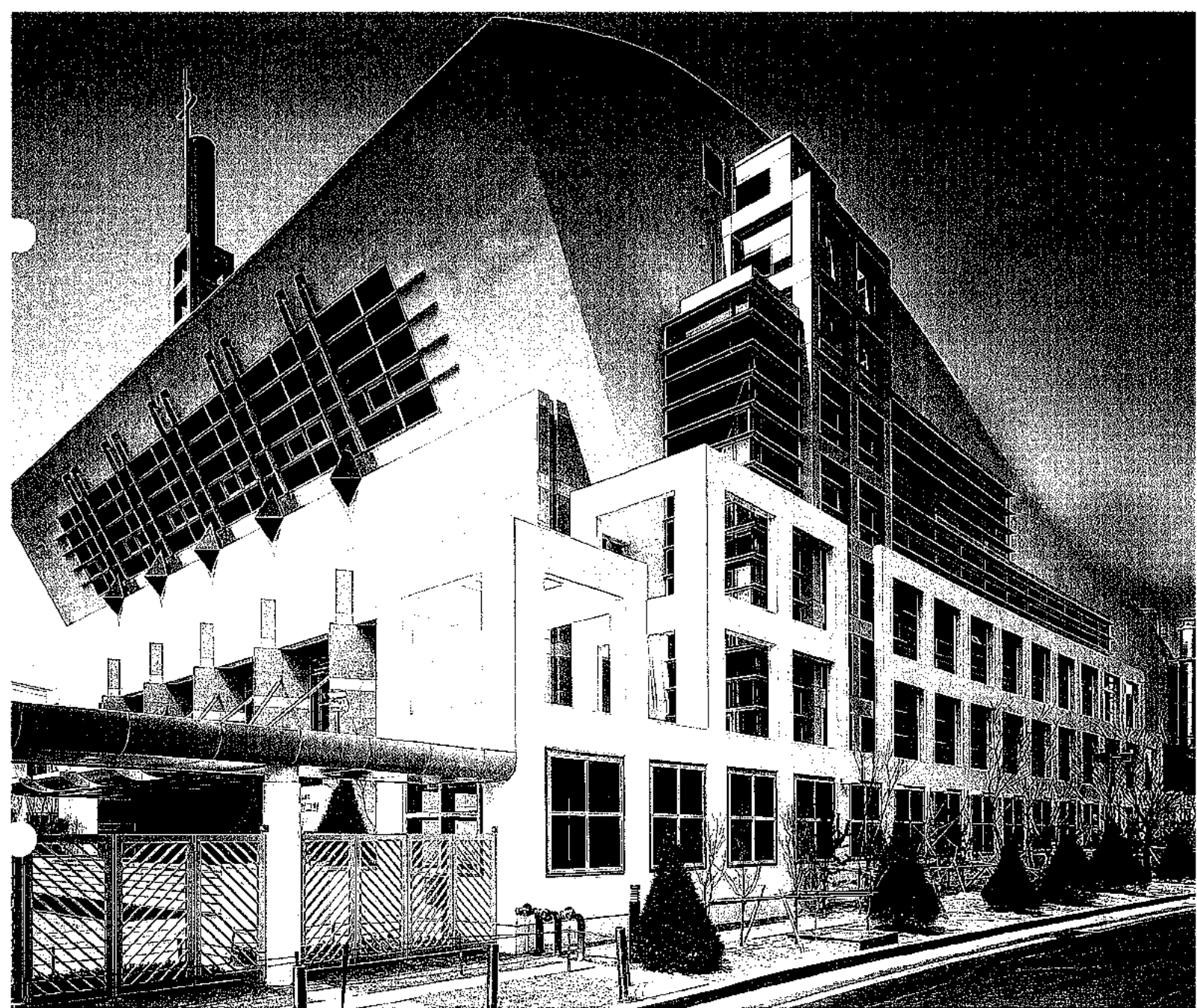


0 3 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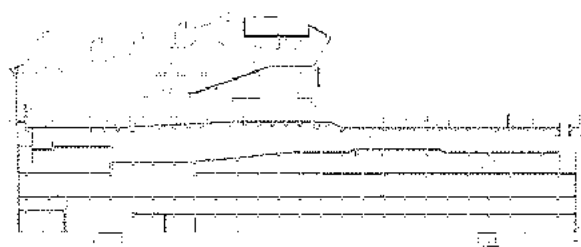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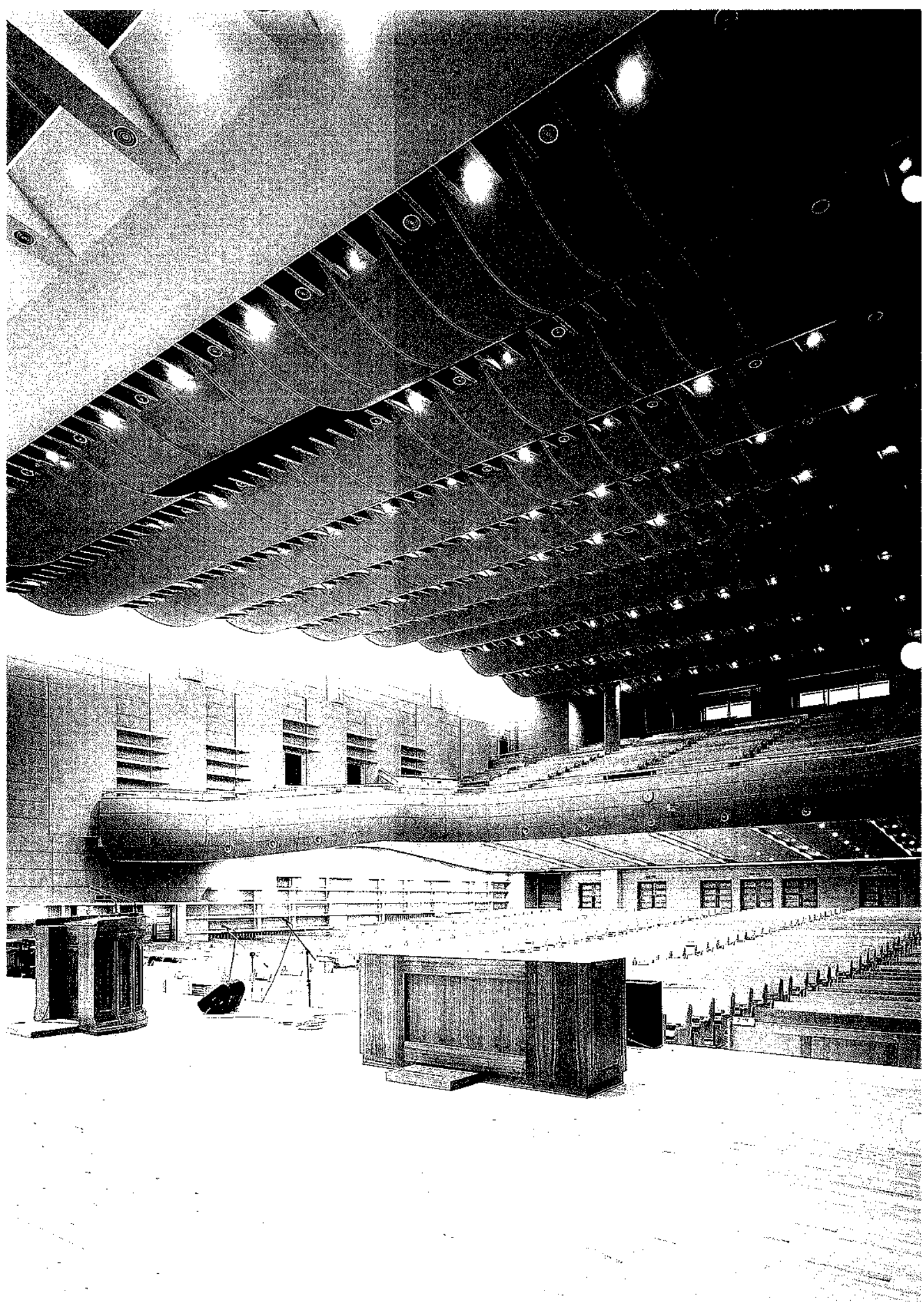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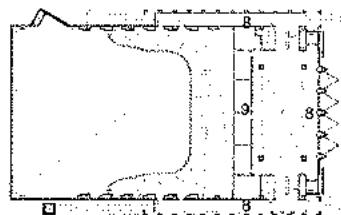


좌측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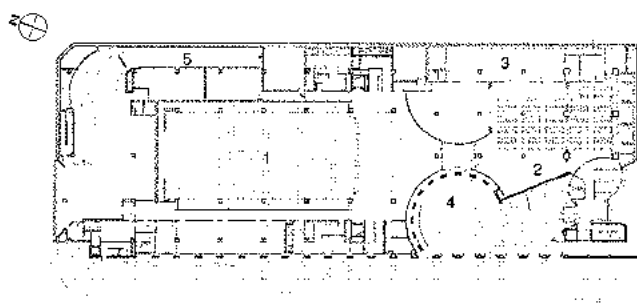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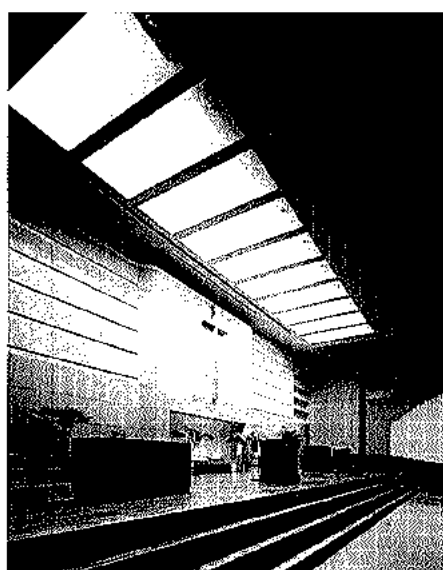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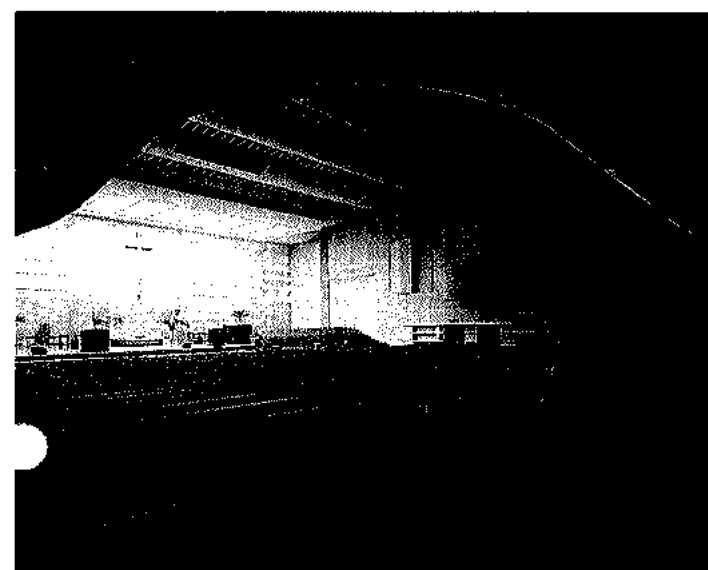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1. 중예베딩
2. 다목적홀
3. 중정
4. 강사로
5. 주방
6. 본당
7. 로비
8. 복도
9. 사무실

0 3 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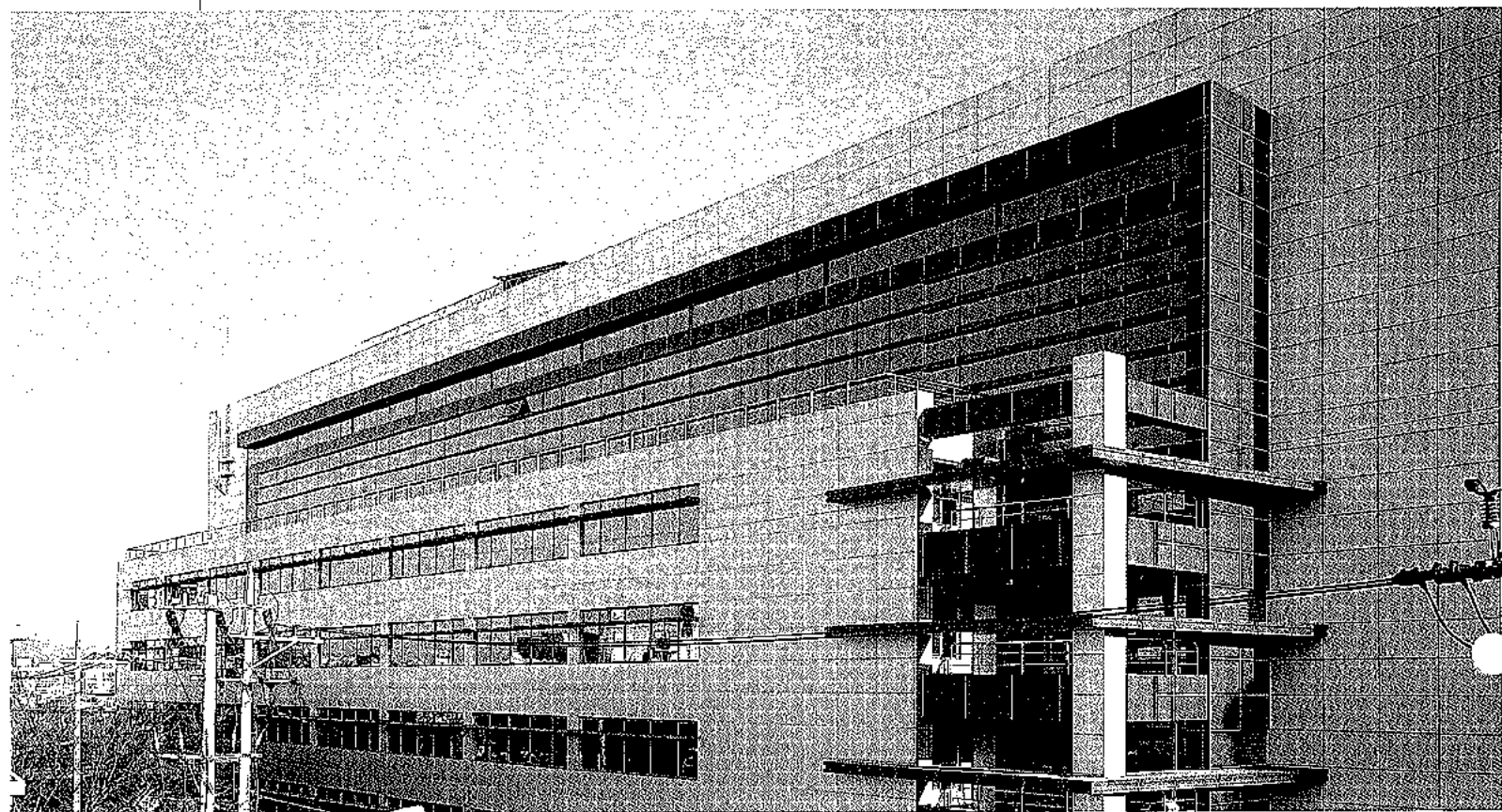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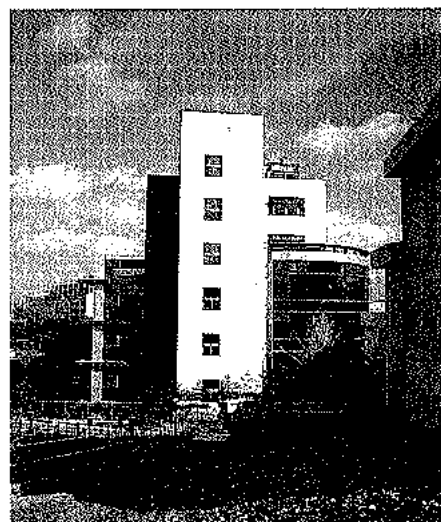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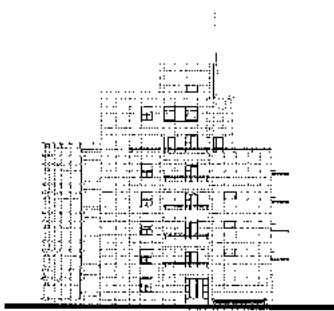
현주컴퓨터사옥 Hyunju Computer Building

김상길 · 김희옥 /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ang-Gil & Kim Hee-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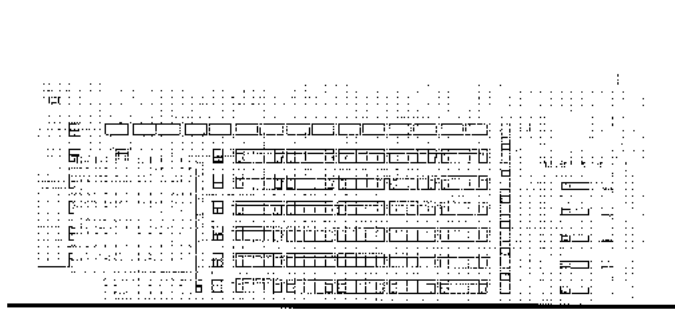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22번지
대지면적	2,975㎡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용도	공장 및 사무실
규모	지하2층, 지상7층
건축면적	1,782㎡
건폐율	59.89% (법정 60%)
지상충연면적	11,140㎡
용적률	374.5% (법정 400%)
연면적	14,831㎡
주차대수	67대 - 지하자주식 (법정 : 60대)
외장재료	알미늄복합패널 / 컬러목층유리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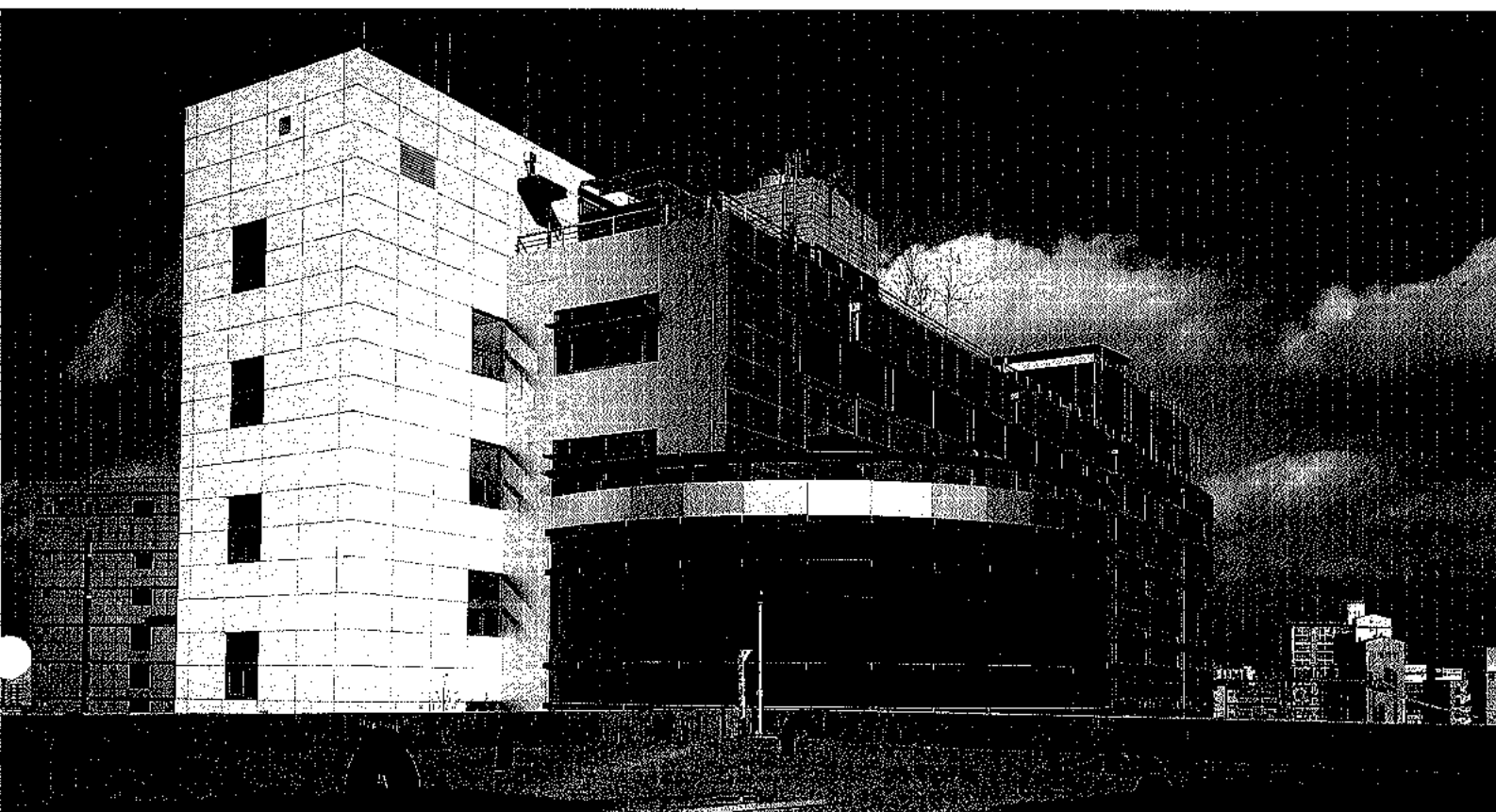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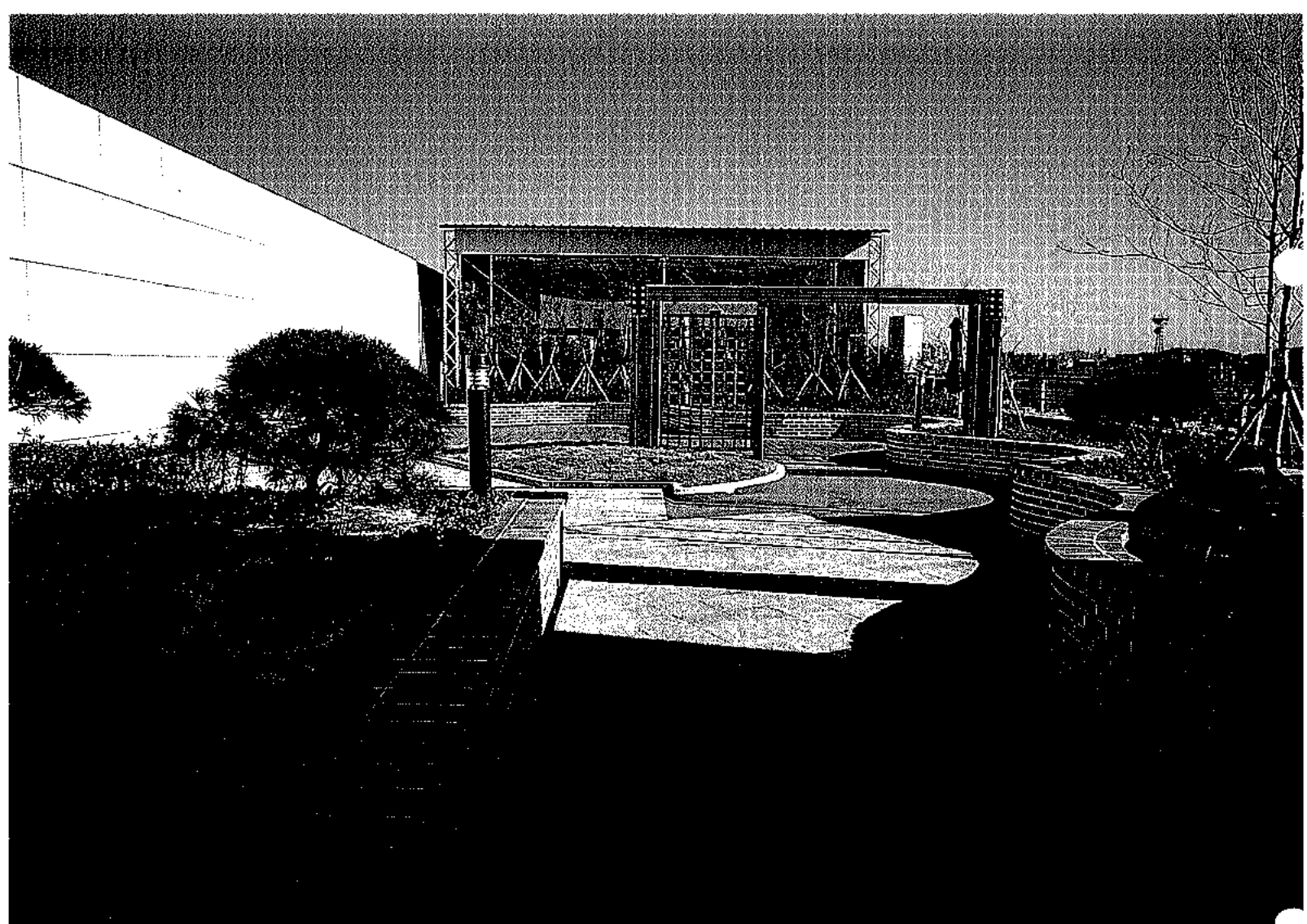
계획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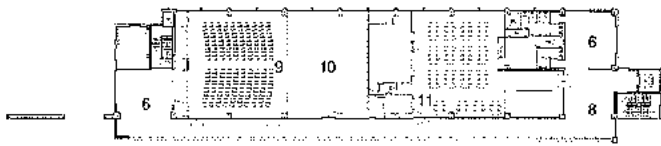
- 21세기형 초일류 종합컴퓨터 기업의 장 구현
 - 새로운 밀레니엄을 지향하기 위한 생산의 질적향상 및 기술개발의 장.
 - 현대적인 재료선택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초일류 기업이미지 창출.
- 건물효율성 극대화 위한 생산 및 업무공간구성
 - 기능분석에 따른 체계적인 동선계획.
 - 효율적인 공간활용.
 - 최상의 생산 및 업무공간 부여로 쾌적한 사옥환경조성.

배치 및 매스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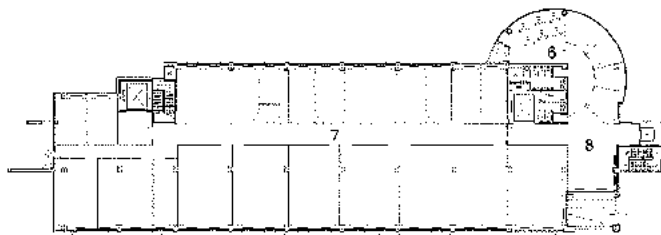
- 도로와 대지형상에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
 - 대지의 최대활용과 기능에 따른 토지이용.
 - 전면도로측에 부합하는 건물배치.
- 기능을 고려한 대지의 진출입 동선계획
 - 사무기능과 생산기능의 동선분리에 따른 출입구 분리로 효율성증대.
 - 생산라인 및 자재반입, 제품반출등을 고려한 입출고 위치 분리.
- 화물차량 및 주차장 차량의 이용 편리성
 - 물품 반입, 반출시 차량의 소통원활을 위한 공지 최대 확보.
- 건물의 상징적, 현대적 이미지 및 기능위계에 부합하는 매스형태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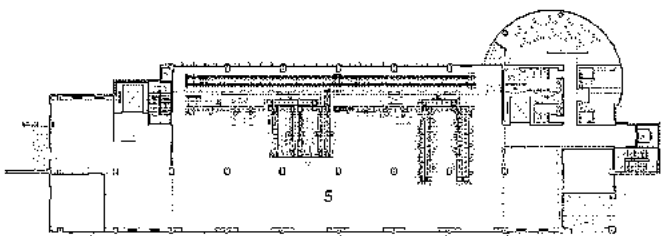




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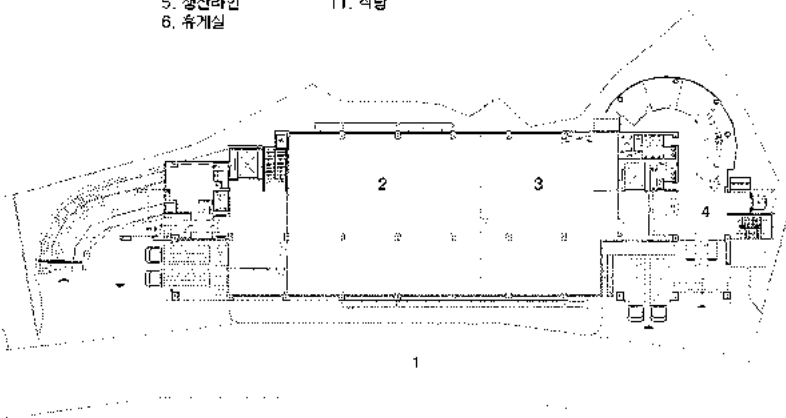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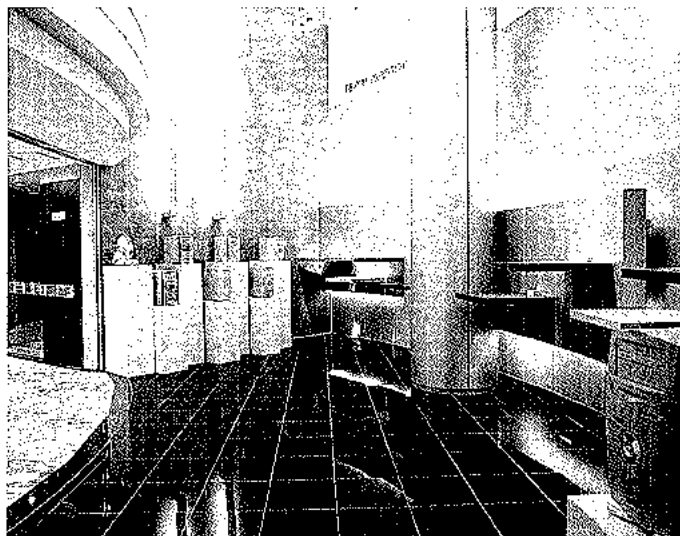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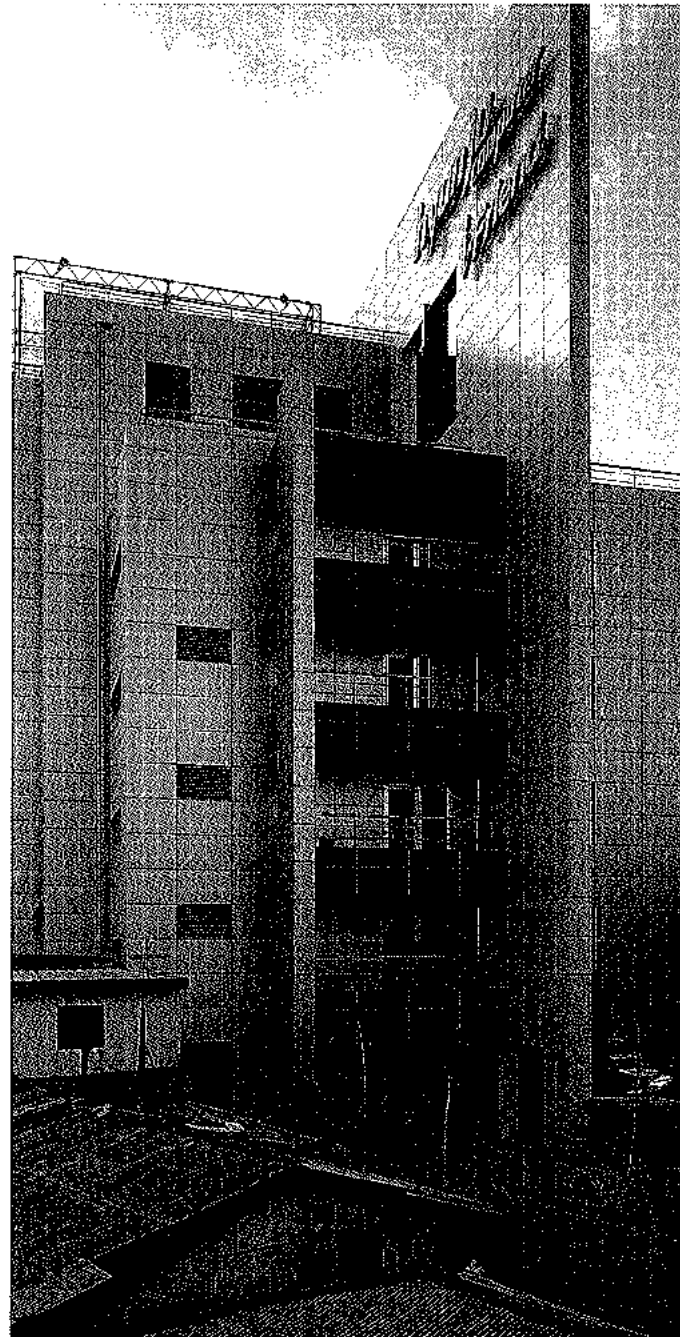


2~4층 평면도

- | | |
|-------------|---------|
| 1. 10m 전면도로 | 7. 사무실 |
| 2. 자재창고 | 8. 휴 |
| 3. 구매창고 | 9. 대강당 |
| 4. 로비 | 10. 예비실 |
| 5. 생산라인 | 11. 식당 |
| 6. 휴게실 | |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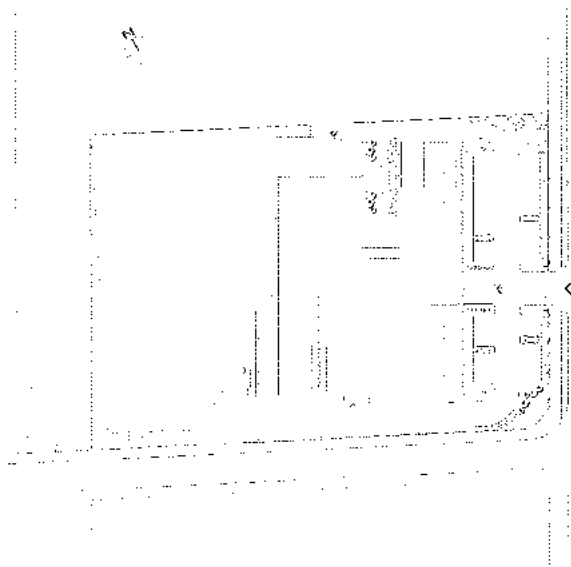
발저스한국코팅(유) 코팅공장

Blazers Coating P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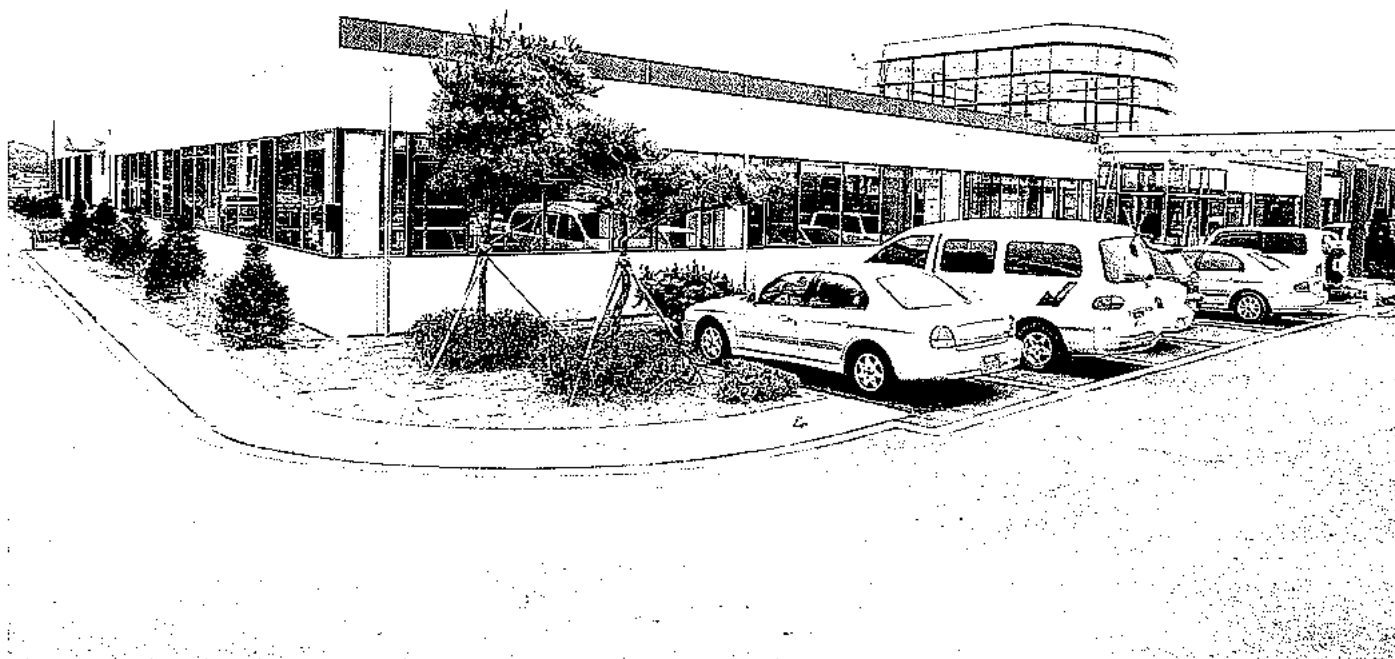
이영욱 / 탑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ung-W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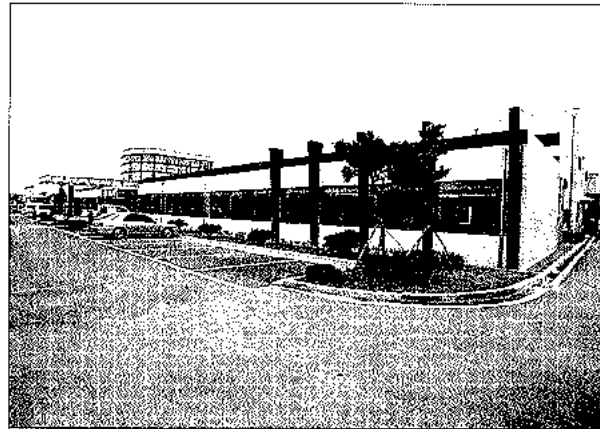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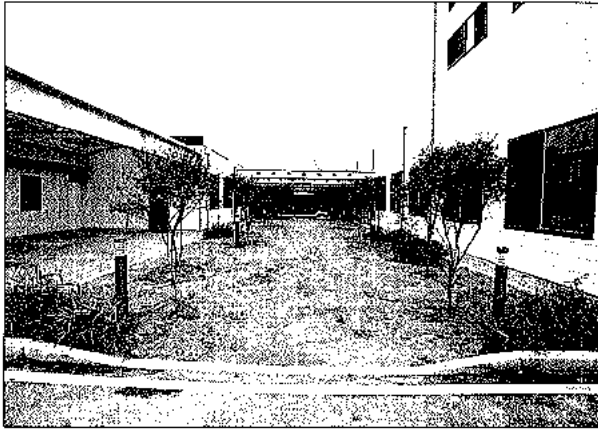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한산리 833번지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 5B-3,4,5)
주요용도	공장 및 사무, 부대시설
대지면적	8,249.80㎡
건축면적	2,595.32㎡
연 면 적	2,737.62㎡
건 폐 율	31.46%
용 적 량	33.18%
규 모	지상 2층
구 조	철골조
건 축 주	발저스한국코팅(유)
설계담당	이영진, 류재성, 황세영
설 비	무무설비설계사무소(이진열)
전 기	우보엔지니어링(임창호)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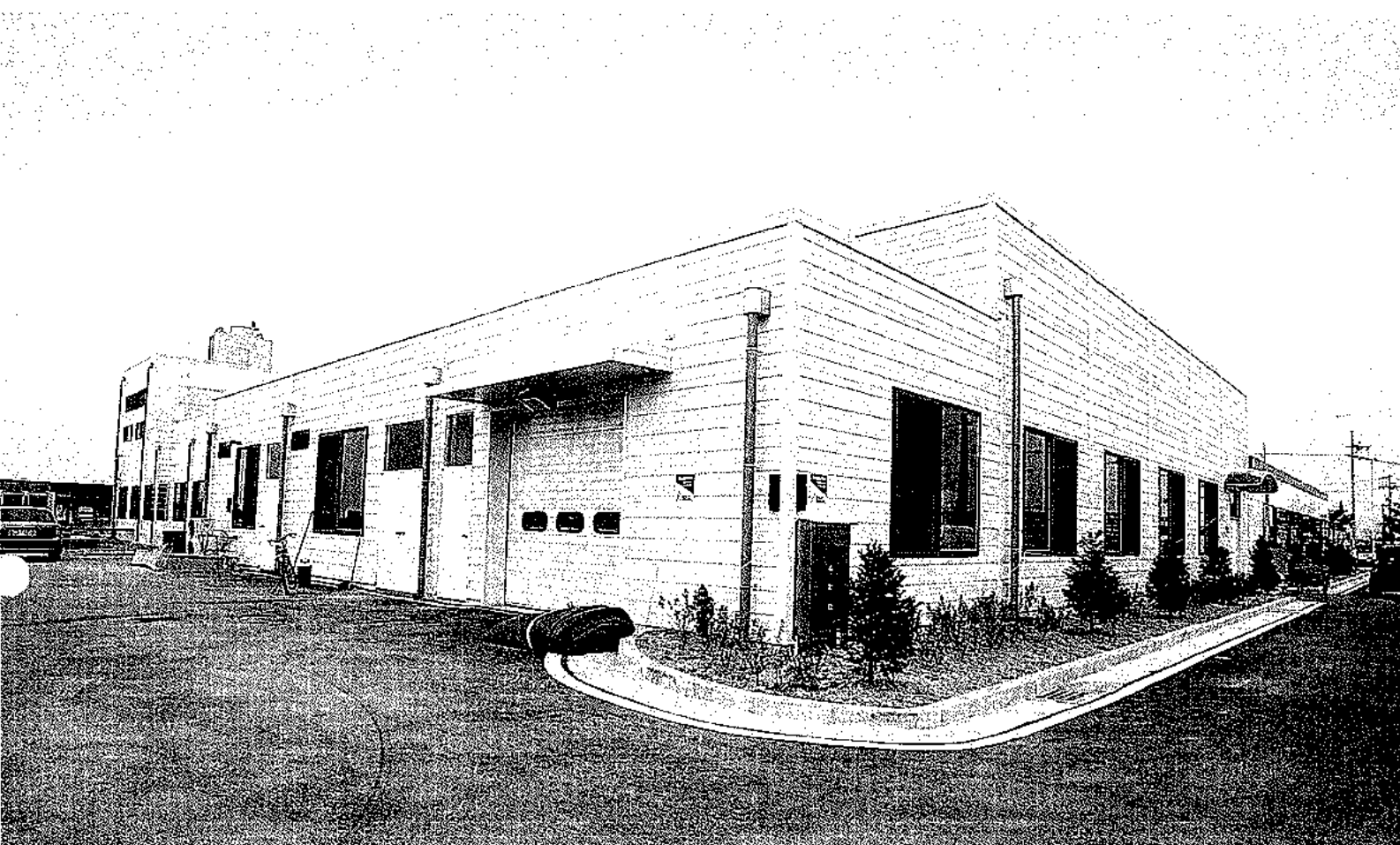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스위스계 다국적기업인 Balzers의 아시아 거점으로서,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첨단시설과 효율적이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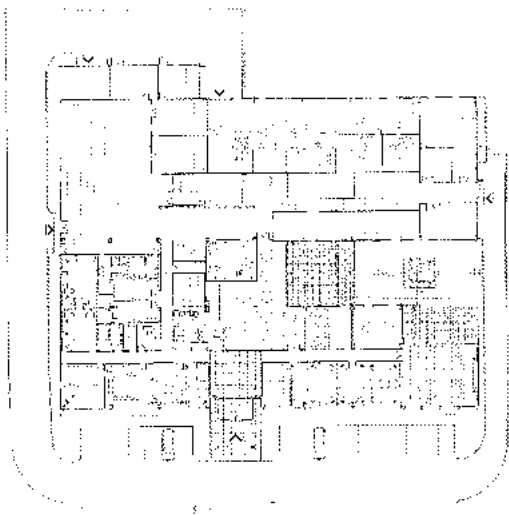
Master Plan에서는 주 도로측에 주차공간 및 정면성을 표출할 수 있는 사무동을 배치하였으며, 후면에는 공장동을 배치하여 대지후면의 증축을 고려함과 동시에 충분한 하역공간을 마련하였다. 공장동과 사무동 사이에 식당 및 부대시설을 배치하고 외부공간을 도입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기능 분리와 동시에 시각적인 개방감을 유도하였다.

전면 사무동은 지붕을 높여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중앙로 비공간을 주축으로 하여 업무의 연관성에 따라 동선의 효율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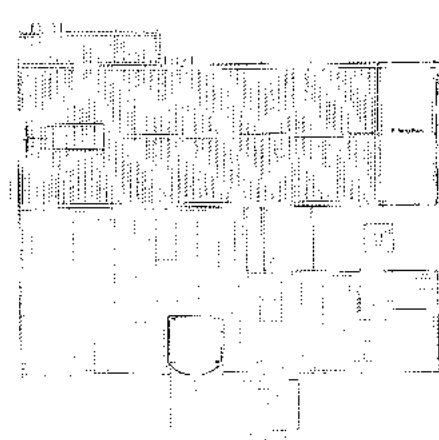
주안점을 두어 배치하였고, 유리를 사용한 내부 경량칸막이의 사용으로 투명성 및 채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공장동은 생산공정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직하고, 공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설계하였다. 식당 및 부대시설은 시각적 개방감 및 외부공간과 연계함으로써 휴식공간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Balzers의 고유색을 수평창 등 주요부분에 사용하여 기업이미지를 표출하고, 중앙부에 높은 천창을 두어 상징성 및 정면성을 강조하였다. ㉡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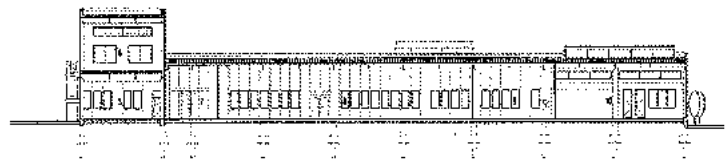


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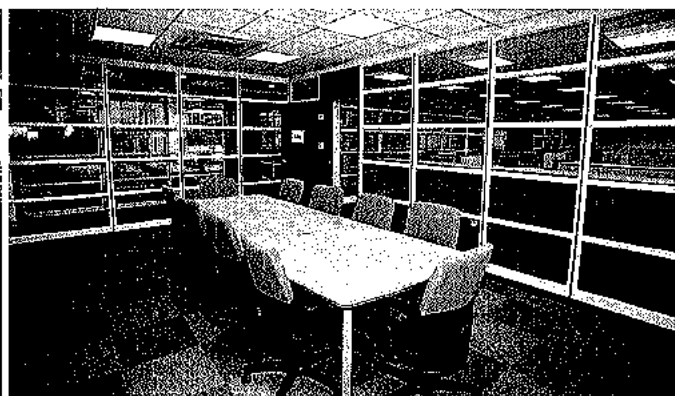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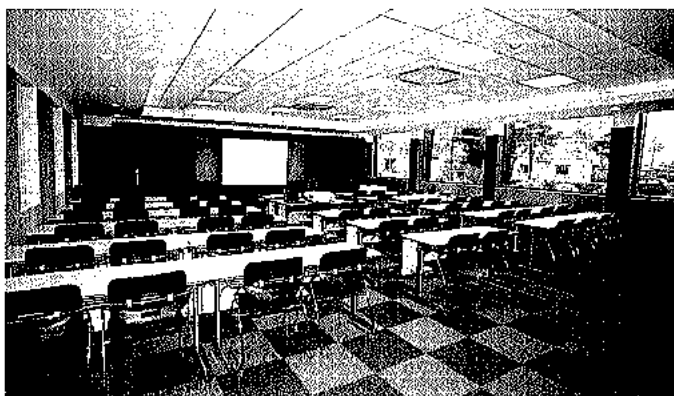




남측 입면도



동단면도



중곡동성당

Junggok Catholic Church

작품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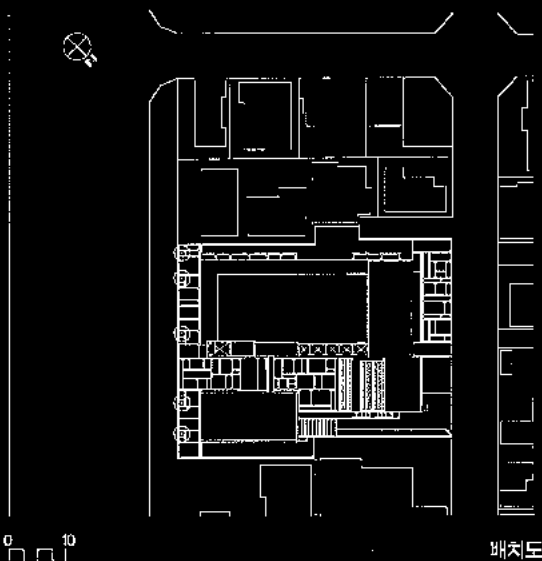
review

승효상 /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제
Designed by Seung H-Sang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165-8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4종미관지구
대지면적	1,806.1㎡
건축면적	1,058.6㎡
연면적	4,245.3㎡
건폐율	58.6%
용적률	120.3%
규모	지하2층, 지상5층
주요외장	노출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35대
구조설계	ALT구조
기계설비	세종M.E.C
전기설비	명진전기
시공	두산건설
설계기간	1996.7.~1997.10.
시공기간	1999.2.~2000.7.

사진_ 박영채 Photo_ Park Young-Chea



배치도

지난 1996년 6월부터 설계가 시작된 이 중곡동 성당은 우여곡절 끝에 2001년 초에 완공되었다. 옛날에야 성당을 짓는 일에 5년이 라는 기간이 긴 기간이 결코 아니지만 요즘으로는 사뭇 길다. 이 기간은 또한 한 건축가의 사고 내용이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기간 이어서, 5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 낯 뜨거운 일일 아닐 수 없다. 더러는 기억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마침 지난 97년 모 건축월간지에 이 중곡동성당의 설계진행과정을 필드노 트라는 형식으로 생중계를 하겠다고 연재를 시작한 적이 있어 이 를 토대로 쉼게 당시 가졌던 중요한 생각들을 소개 하고자 한다. 이 생각의 편린들은 완공된 실제의 모습과 다른 것도 있으며 심지어는 지금 내가 가진 생각과도 다른 것도 있다. 그러나 이 생각 들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중요한 배경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다.

고딕과 종교적 건축

동 서양을 막론하고 건축의 역사 속에서 종교건축은 가장 중심적 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자신의 삶과 죽음을 주관한다고 믿는 신에 대한 봉사 중에서 그 신을 모시는 건축을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간 격스러운 것이며 더욱이 이 일은 선택받은 자 아니고서는 할 수 없

는 일이었다. 당연히도 최고의 건축가가 이 일을 위해 뽑혀졌으며 그 종교건축은 당대 최고의 지식과 기술이 동원되어야 하는 일이었고 최고의 예술적 성취가 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성사였다. 서양건축의 변천사가 대체로 종교건축의 발달사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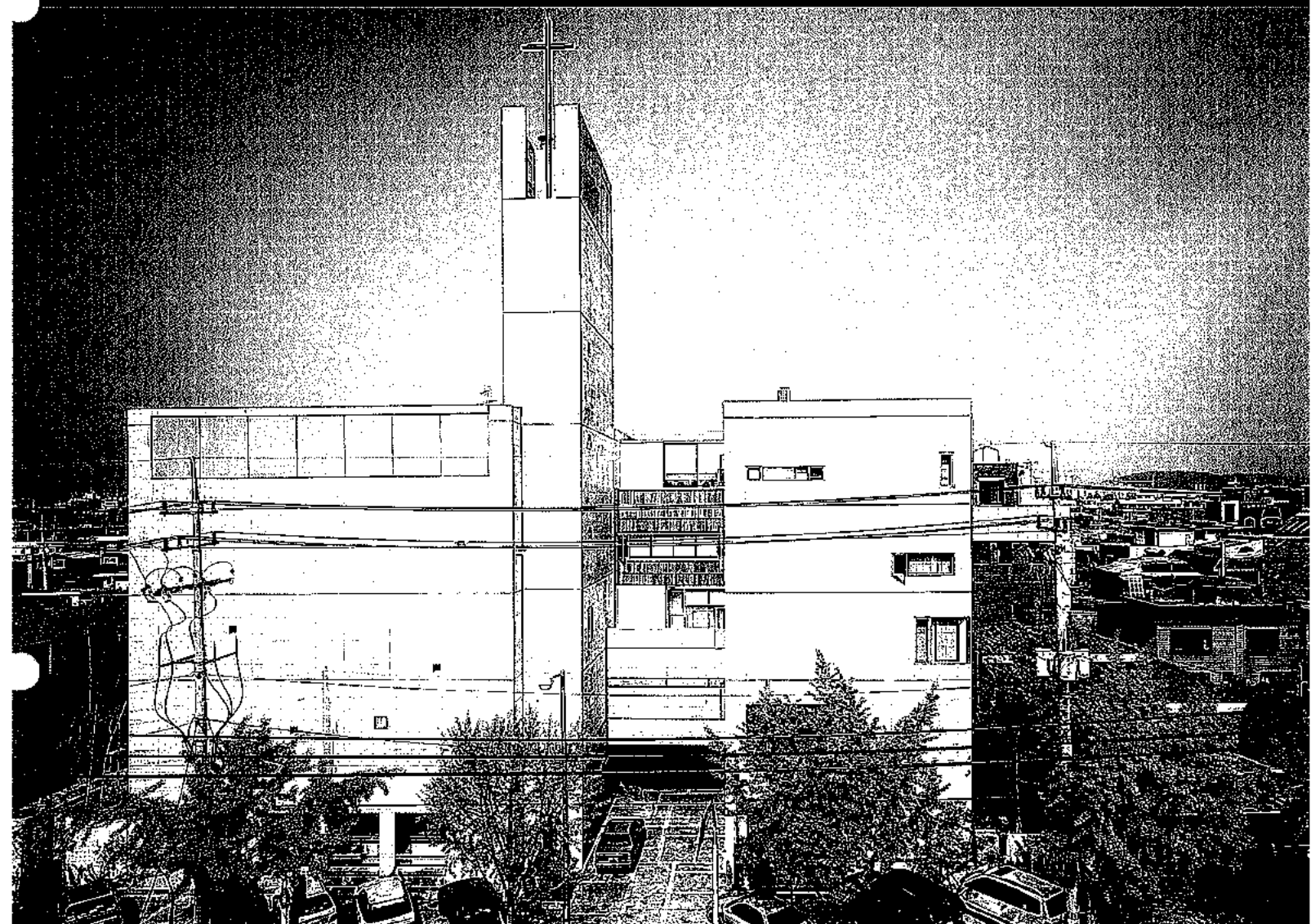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가장 탁월한 종교건축의 성취는 물론 고딕양식이다. 거대한 높이의 벽과 가느다란 피어 사이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빛과 그로 인한 교묘한 음영이 만드는 경외롭고 신비한 고딕성당은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최고의 존경이었으며 이는 종량과 공간에 대한 건축가의 승리에서 비롯되었다. 미미한 인간이 지고의 신에게 바친 존경. 이렇게 이루어진 고딕은 그 이후 전 지역과 전 시대에 걸쳐 지어져 왔으며 인간의 존제가 더 이상 미미하지 않게 된 현대에서도 고딕은 교회의 상징이 되어 있다. 역량 있는 많은 현대의 건축가들이 만드는 종교건축 대부분이 그가 비록 정통적 고딕의 형태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결국은 고딕이 갖는 위엄과 신성의 범주 안에 있으며 또한 대다수의 교인과 성직자들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형식임을 믿는다. 오히려 고딕의 뾰족탑에서 신성이 비롯되는 듯한 가치 전도가 더욱 많은 지지를 얻고 있기도 하다. 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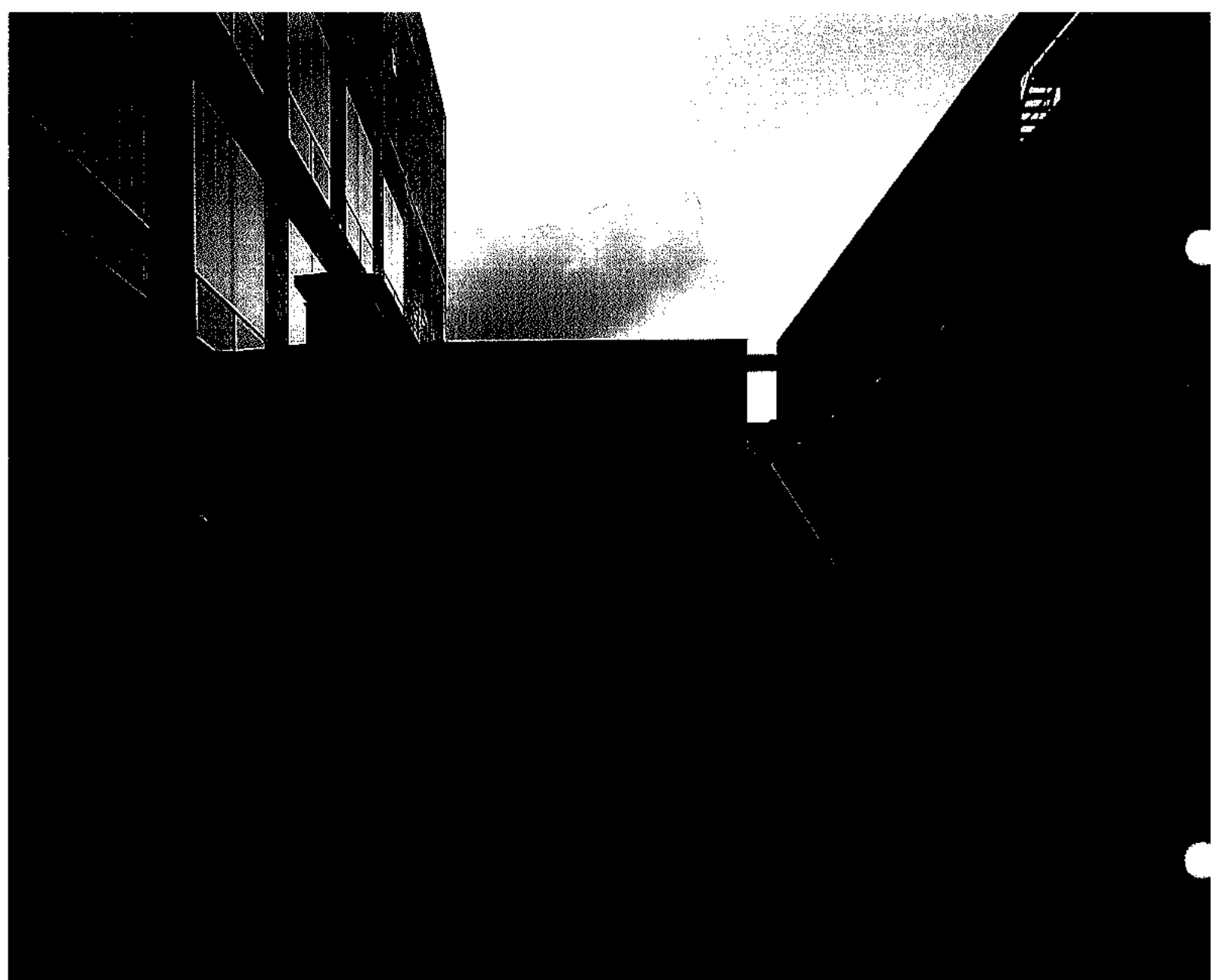
믿기로는 이는 종교-특히 기독교나 천주교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종교건축' 일 지는 욕라도 종교의 본질에 접근하는 '종교적 건축'은 아닐 수 있다.

이는 내가 종교건축을 대하면서 대략해야 하는 많은 과제 중에서 첫 번째의 것이다.

사민의 종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쩌지 다른 나라 사람들 보다 종교적이다. 어디에도 신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생사화복의 근원이 그 신에서 비롯된다고 철두철미 믿는 백성들이다. 하늘에도 산에도 땅에도 바다에도 나무에도 돌에도 집에도 심지어는 방 마다에도 다른 신들이 있다고 믿는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은 후에도 온갖 일삼사를 무신의 주도 아래 그 길흉을 조작시키기를 원해 온, 사머니즘의 지독한 영향 속에 가두어진 민족이다. 전래되었으나 우리의 전통 문화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 불교나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큰 위세를 떨치는 한국의 기독교도 이 땅에 들어와서 마삼불 이 땅에 가득 찬 사머니즘과 결합되어 있을 것이다. 물론 전교를 가장 큰 사망 중의 하나로 하는 종교의 목적 삼 그 지역에서의 토착화를 위





해 어느 정도 그 지역의 특수 사정과 타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타협이 그 종교의 본질을 넘나들 때 우리는 이런 사이비라 하며 이는 이미 타락한 종교이다. 이 타락한 종교는 그의 전통성을 강변하기 위해서 온갖 증거를 조작하려 하며 이 조작된 증거를 삼정박하려 한다.

상징과 부호에 몰두하는 종교는 산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야만 믿게 되는 종교이다. 이런 종교는 결국은 육체의 안락과 일신의 영달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해탈이나 구원 나아가 자비나 사랑의 심전 같은 종교의 본질적 요소를 흐리게 한다. 그렇다. 내가 그려야 하는 건축이 사만의 건축이 아닌 이상 종교 건축에서의 상징과 부호 또한 내가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건축 과제이다.

지역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서의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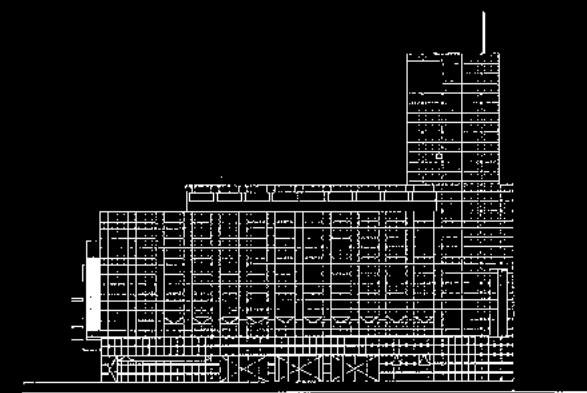
종교동 성당은 도시 내에 있는 성당이다. 순교자를 기리는 기념성당이 아니며 성사를 기념하는 순례자의 성당도 아니다. 말하자면 평범한 도시 성당이며 따라서 지역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지역적 종교 공동체이다. 지역의 종교 공동체로서의 건축 공간은 전례를 위한 내부공간인 대성당 외에 분파활동을 위한 대소 교리

실을 위시하여 관혼상제나 여러 이벤트, 혹은 교우 상호간의 교류를 위한 공간 등 다양한 종교 활동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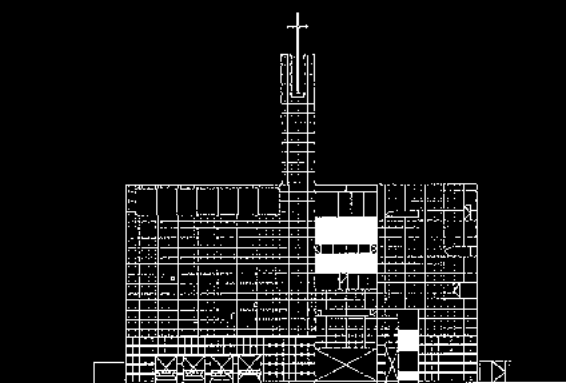
그러나 대부분의 성당건축은 이들을 내부의 층 별로 적당히 배분하고 소요되는 크기를 길막이로 구획하여 배분하는 형식을 취할 뿐이다. 마치 신은 본당 내부에만 있고 이런 곳에는 입재하지 못하는 듯 비종교적 건축의 모습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부족한 문화적 공간으로 그 성당이 전용된다 하여도 그 지역민들이 성당의 경내로 내딛는 순간 그 영역은 이미 경건의 장소이며 은총과 신비로 가득 찬 축복된 장소임을 확인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기둥과 벽체 하나에도 이 종교가 가리키는 의미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중요한 명제였다.

부르심의 기적과 응답의 은총

내가 그랬던 초기안은 본당을 지하에 두고 길다란 경사로를 통하여 접근하게 한 것이다. 경사된 본당의 지붕은 지면을 뚫고 솟아 도로로부터 직접 연결되어 성당의 중심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이 경사진 외부공간은 때로는 목의 성당으로 혹은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가능하게 하도록 적절한 크기와 경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위



남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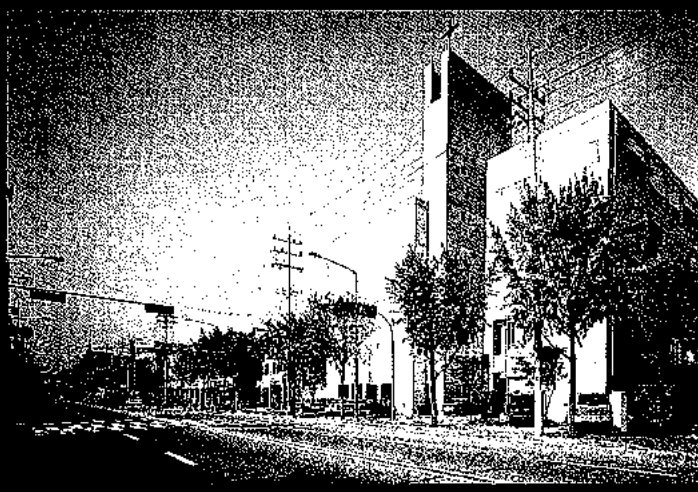
남동측입면도

를 사제님과 수녀원, 교리실이 둘러싼다.

나의 지하 성당 안을 관찰한 성당 건축위원회의 의견은 엇갈린 모양이었다. 기존의 관습을 좇아 만든 성당과 새로운 실험을 놓고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쳤다. 아무튼 나는 선택되었고 몇 가지 새로운 지침의 수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 후 나는 이 설계안을 스스로 비판다. 전체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문제도 기존 안의 불균형은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내가 나의 개념을 위해 만든 모든 장치들이 그 작위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듯 보이는 게 꺼림칙하게 작용하고 있던 것이다. 더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된 곳이 축복의 햇살이 가득 내리는 듯한 교회 마당의 정경이었다. 이는 내가 어릴 적부터 잊지 못하는 추억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를 만들 수가 없어 지상으로 다시 분당이 나오게 된다.

넓지 않은 마당을 유용하게 쓰려면 모든 동선이 이 곳에서 모여지고 흩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무실이나 만남의 방 등 많은 동선이 모이는 기능을 이 마당과 같은 레벨에 두고 본당을 들어 올리면 하는 수 없이 교리실 등의 시설들은 지하에 위치하는 기존의 성당을 답습할 도리 밖에 없다. 여전히 남은 문제는 이 교리실의 동풍과 채광의 조건이다.

그러나 본당에 접근하기 위한 데크와 마당의 공간은 이 가운데 외부 공간을 드라마틱하게 조우하게 한다. 만남의 방과 데크 사이의 3m 폭의 갤러리 공간을 통하여 마당으로 연결되는 뒷 도로에서의 접근은 이 성당이 이 도시 속에 견고



한 건축가로서는 어떤 것이든 하려고 하려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건축가로서는 어떤 것이든 하려고 하려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건축가로서는 어떤 것이든 하려고 하려는 부분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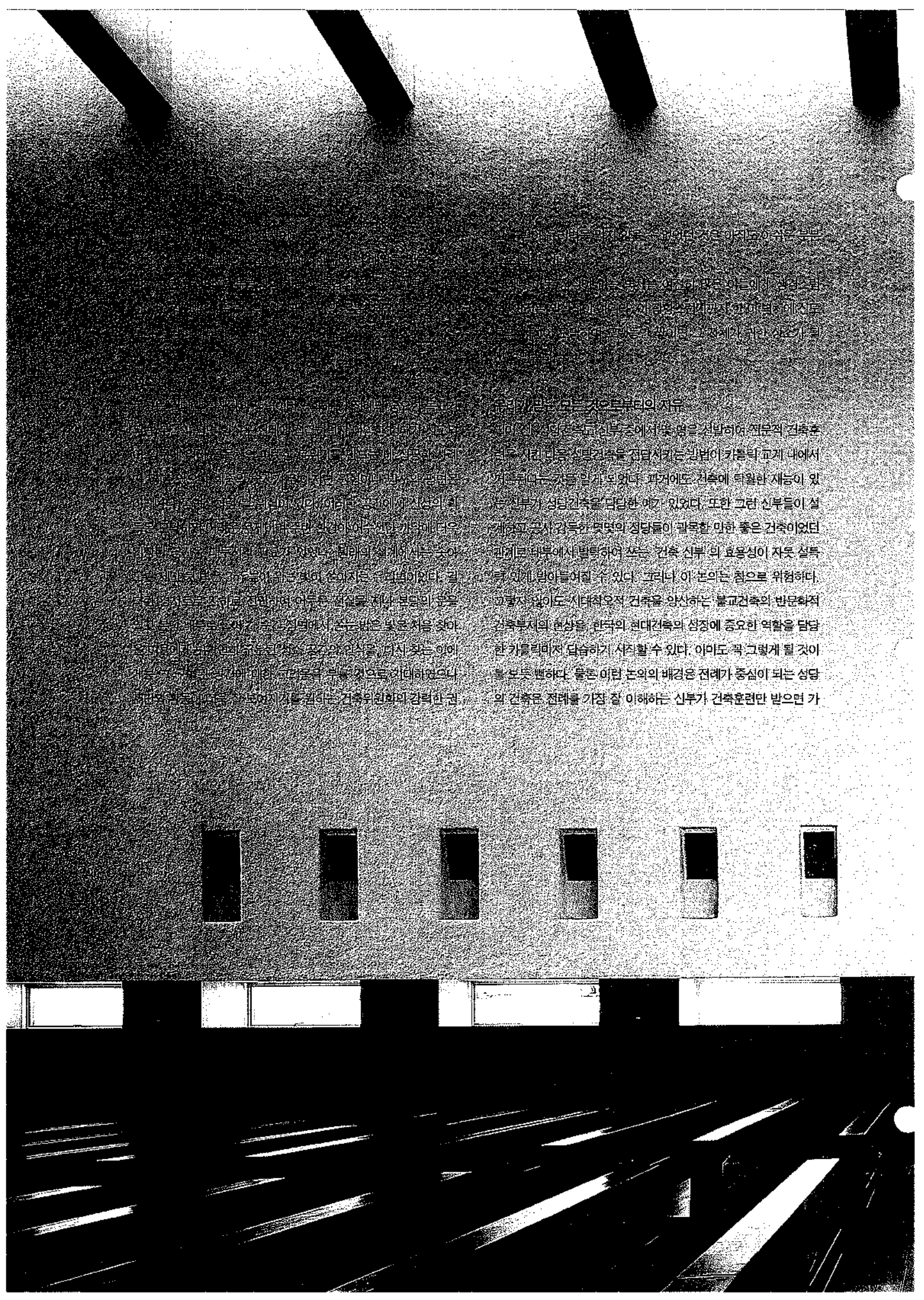
건축가로서는 어떤 것이든 하려고 하려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건축가로서는 어떤 것이든 하려고 하려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건축가로서는 어떤 것이든 하려고 하려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건축가로서는 어떤 것이든 하려고 하려는 부분도 있다.

한 건축가로서는 어떤 것이든 하려고 하려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건축가로서는 어떤 것이든 하려고 하려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건축가로서는 어떤 것이든 하려고 하려는 부분도 있다.

한 건축가로서는 어떤 것이든 하려고 하려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건축가로서는 어떤 것이든 하려고 하려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건축가로서는 어떤 것이든 하려고 하려는 부분도 있다.

유리개방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미 세운 명호측도 신부 중에서 몇 명을 선발하여 전문적 건축훈련을 시킨 다음 신명건축을 담당시키는 방법이 카톨릭 교계 내에서 거론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에도 건축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신부가 신명건축을 담당한 예가 있었다. 또한 그런 신부들이 설계하고 공사 감독한 몇몇의 성당들이 괄목할 만한 좋은 건축이었던 관계로 외부에서 발탁하여 쓰는 건축 신부의 효용성이 자못 실득할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논의는 참으로 위험하다. 그렇지 않아도 시대착오적 건축을 양산하는 불교건축의 반문화적 건축부재의 현상을 한국의 현대건축의 심장에 증오한 역할을 담당한 카톨릭마저 답습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이미도 꼭 그렇게 될 것이 틀림없다. 물론 이런 논의의 배경은 전례가 중심이 되는 성당의 건축은 전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신부가 건축훈련만 받으면 가



잘 잘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건축가가 잘못 설계하여 초래되는 낭비와 폐단을 없애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만 이해하기에는 건축은 너무나 복합적이며 포괄적 문제이다. 물론 심부도 좋은 성당을 설계할 수 있다. 만약에 어떤 신부가 그야말로 참 좋은 성당을 설계하고 지었다면 건축의 본질적 측면에서도 그 신부는 신부 이전에 독립적인 의견을 가진 건축가이며, 그가 바른 건축가라면 그의 의견이 전체를 지배하여서는 안되는 것도 이는 지성인일 것이다. 지성인. 그렇다. 건축가는 풍부한 감수성을 가지고 보편적 세계를 바라보는 지성인이라고 한다.

지성인이란 누구인가. 오리엔탈리즘의 저자 에드워드 사이드에 따르면 지성인은 '매국적 민족주의와 집단적 사고, 그리고 계급, 인종, 성적인 특권 의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며, 보편성은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실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들인 출신배경, 언어, 민족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안이한 확신들을 초월하기 위한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편성은 또한 '대외정책이나 사회정책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서도, 인간 행동의 단일 표준을 찾고 유지하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덧붙여 정의한다. 만약 우리가 사이드의 이 정곡을 찌르는 지성인의 견해에 동의한다면 건축은 그 건축을 탄생시키는 모든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건축가가 그 건축을 담당하는 것이

훨씬 올바른데 그러함으로 그는 그 본질적 건축에 더욱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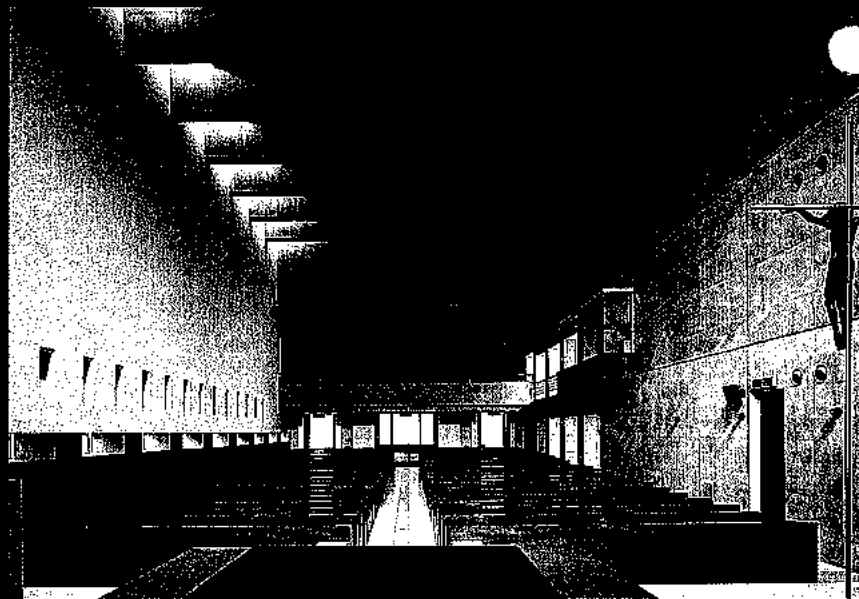
나는 이러한 이유로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건축가가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으며, 그런 이들이 만든 그런 전문적 건축이 보편적 삶을 사는 듯 대중에게 좋은 삶 터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성당 전문건축가, 병원 전문건축가, 주택 전문건축가 그들은 성당과 병원과 주택을 알지는 몰라도 건축을 아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오히려 그러한 전문적 지식과 견해가 건축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삶의 터'라는 명제를 간과할 위험이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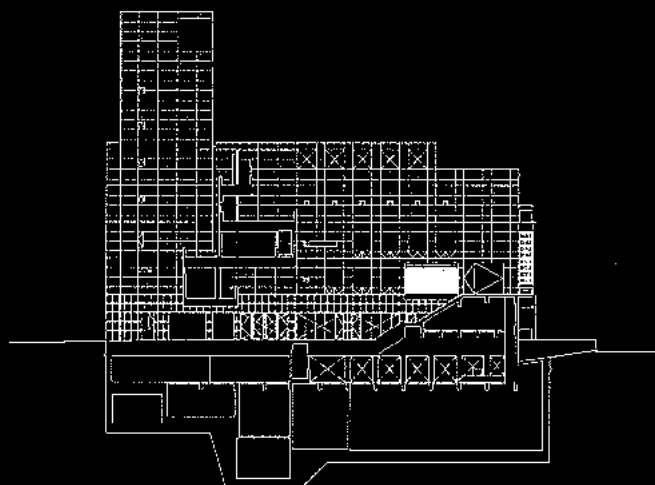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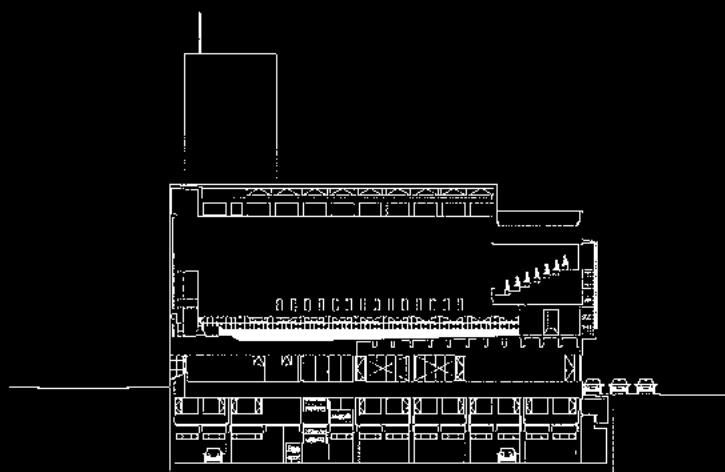
나는 어떤 프로젝트를 착수하면서 항상 먼저 풀어야 하는 숙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젝트를 건축 속에서의 경험과 그로 인한 선입관념에 대한 검증이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검증과 의심에서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그것이 그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예가 하다해 왔다.

20년 전인 지난 77년 마산성당의 설계로 김 수근 선생과 요셉 프랏츠 신부가 처음 만날 때의 일을 기억한다.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교구에서 재정을 지원하여 짓게 된 마산성당의 설계를 의뢰하는 이 신부에게 김 수근 선생은 자신은 크리스천이 아님을 처음에 전했다. 소박한 성당이 되기를 원한다는 신부는 그러함으로 기존의 성당과 다른 장소를 만들 수 있음을 얘기하며 서로 좋은 성당을 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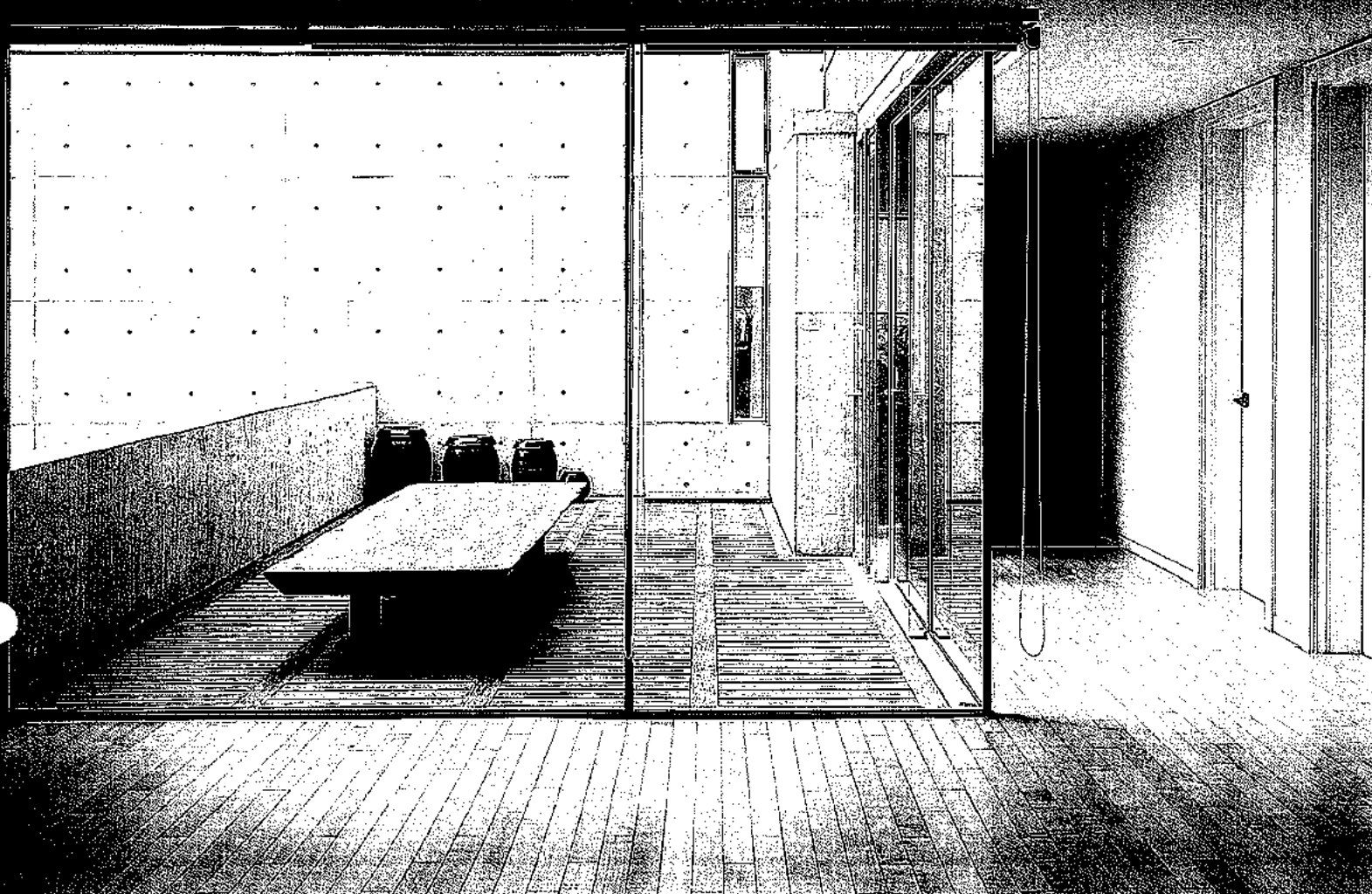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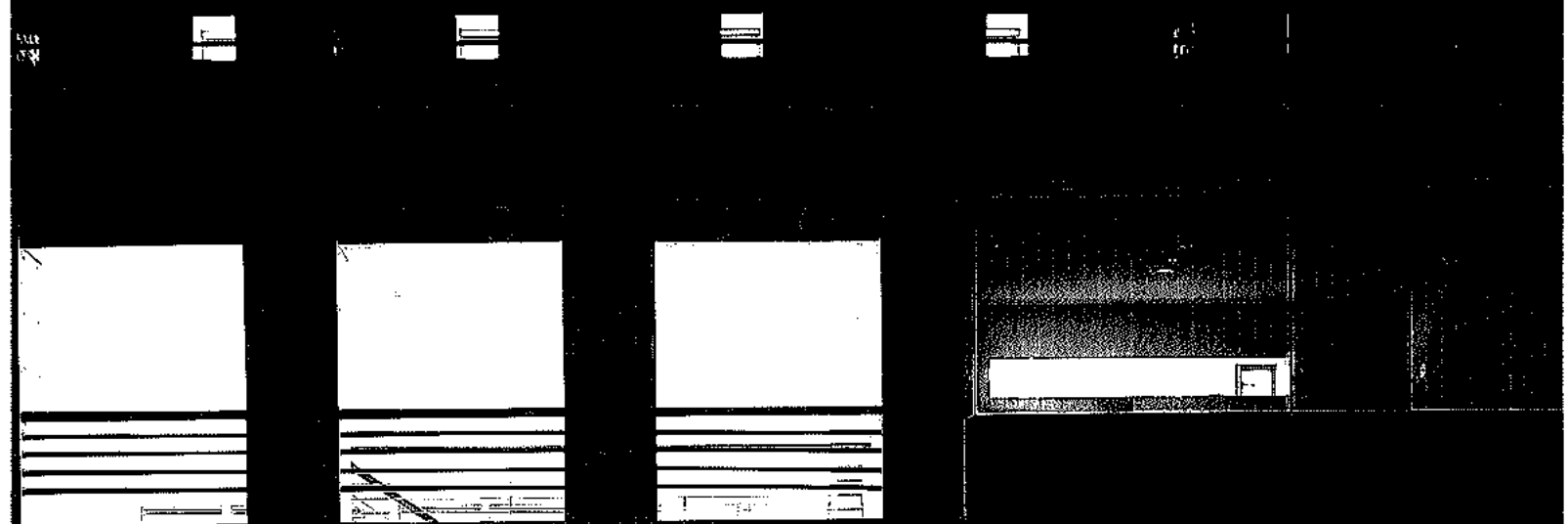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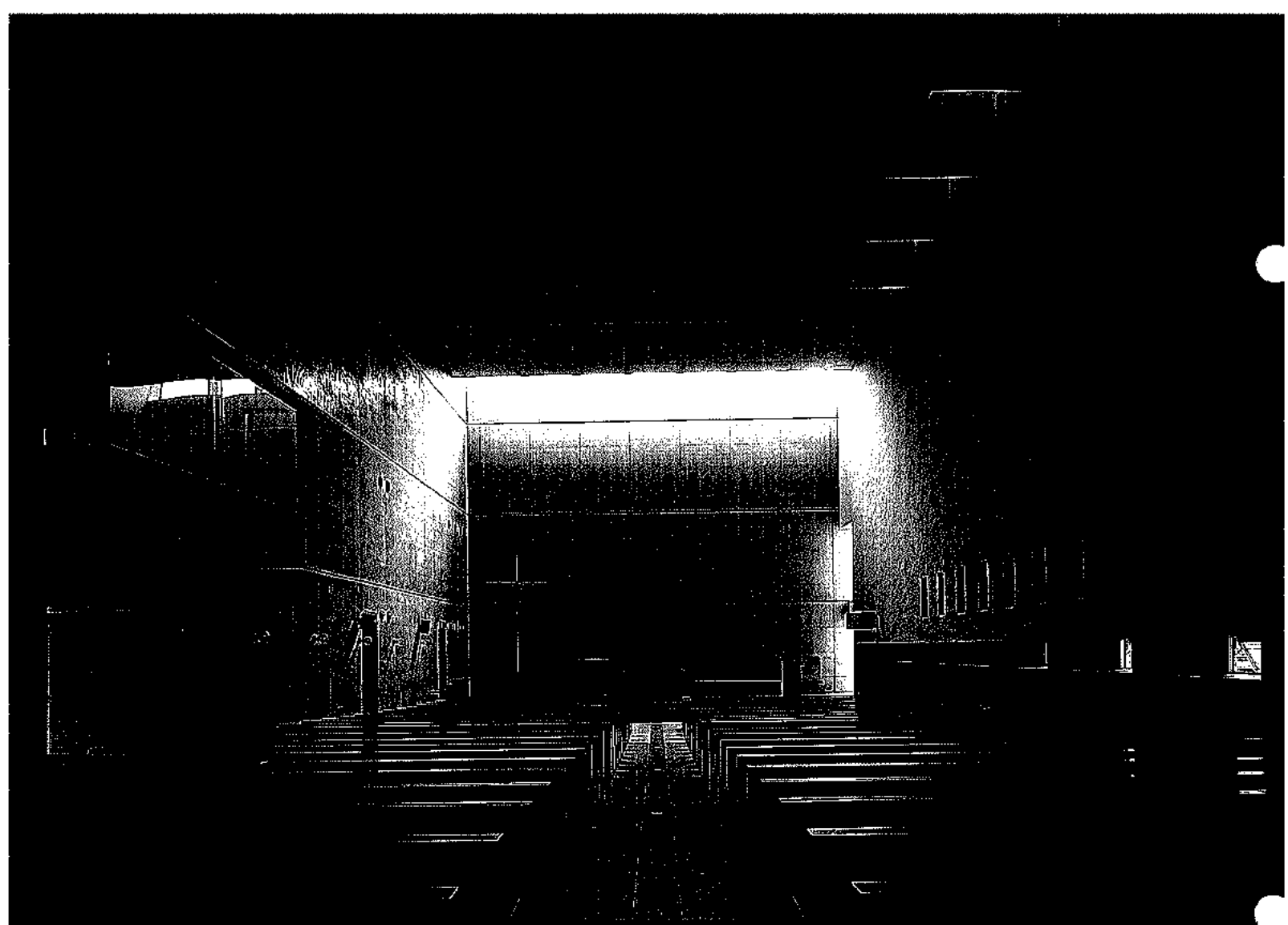
기로 다짐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후 선생으로부터 내가 듣는 질문은 '종교가 무엇이나, 카톨릭이 무엇이나'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개신교도였으며 고등학교 때까지를 교회와 더불어 생활했던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 지식이 적지 않다고 여겼던 나였음에도, 선생의 그 본질적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선생이 집착하는 종교의 본질에 도달하는 건축을 그리기까지 내가 알던 종교생활을 조목조목 되짚어 따져야 했고 내가 가진 잘못된 생각의 틀을 고치려 무진 애를 써야 했다. 그것은 내가 처음으로 받은 건축가로서의 참된 교육이었으며,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교훈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와 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좀더 건축을 중심에서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며 그 결과 참 좋은 건축을 그릴 수 있음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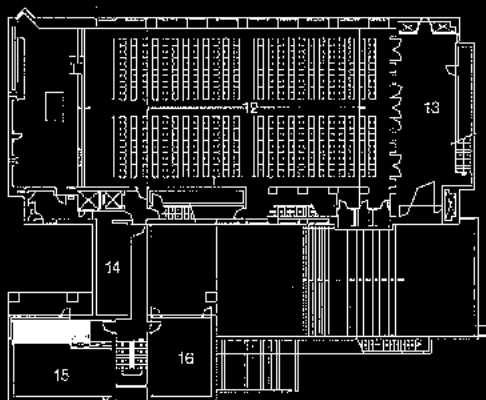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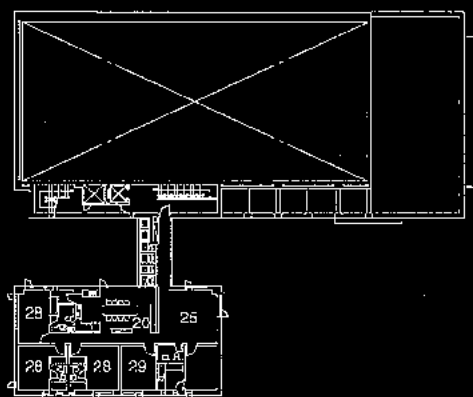
원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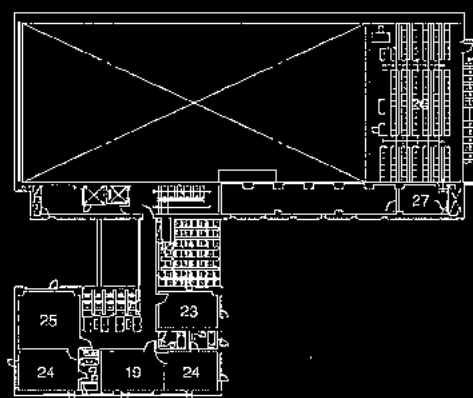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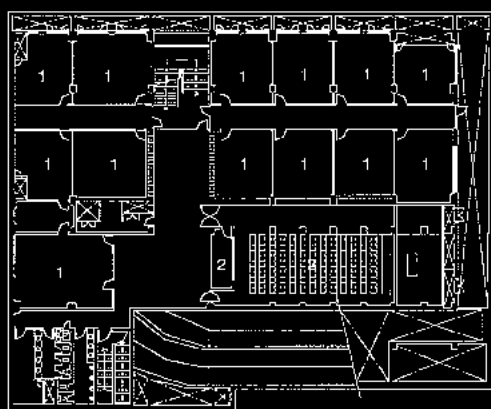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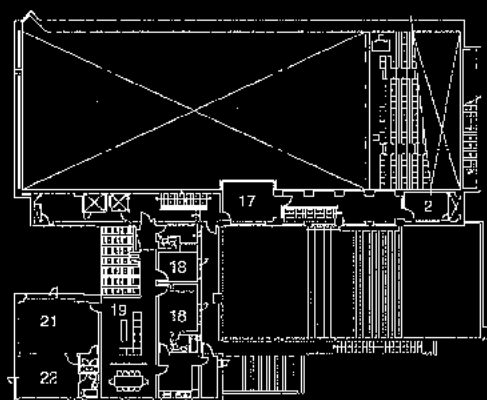
- | | | | |
|--------|----------|-----------|-----------|
| 1. 교리실 | 5. 숙직실 | 9. 목회 집회장 | 13. 전실 |
| 2. 조경실 | 6. 흡 | 10. 심도통신 | 14. 제의실 |
| 3. 대강당 | 7. 반납의 방 | 11. 유아놀이방 | 15. 성체주방 |
| 4. 사무실 | 8. 주방 | 12. 대성당 | 16. 사목위원실 |

- | | | |
|---------|----------|-------------|
| 17. 유아실 | 21. 거실 | 25. 거실 |
| 18. 식목사 | 22. 주일선부 | 26. 상가대 회중석 |
| 19. 점검실 | 23. 손님선부 | 27. 보관실 |
| 20. 식당 | 24. 보좌선부 | |



0 10

지하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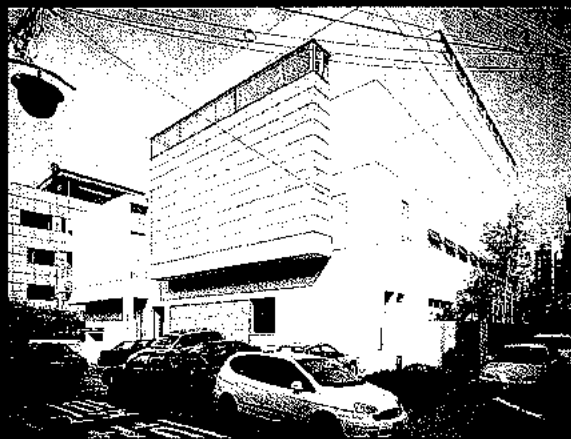
보이드의 기호, 그 모호한 경계

The Sign of Void: the Solid/Void Ambiguity

구영민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Koo Young-Min

오늘날 '신앙(worship)'은 도시사회의 기초기능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정착하게 되었으며, 근본적으로 건축의 기념비성, 상징성을 토대로 기존의 도시 컨텍스트로부터 개념적인 차별화를 꾀하는 동시에 물리적인 동질성을 내포해야하는 건축인자로서 도시 공간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종교건축(특히 교회건축)은 현대도시에 대해 건축이 가지는 근본적인 패러독스, 즉 실제와 허구의 상호관련성, 기념비성과 이에 대한 지각적 의미의 결핍, 그리고 자연(영원성)과 일시성과의 대립까지 반영해야 하는 짐을 지게 된다.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권위나 중심으로서의 신앙적 의미보다는 도시의 아경 속에서 명멸하는 빨간 네온의 십자가들이나 어중간한 첨탑들을 통해 미친 듯한 현대도시 속에 가입된 시그널(semaphore)이나 무의미한 기호 정도로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설사 건축가가 새로운 조형으로 거창한 교회양식을 재현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오늘날 도시 속에 수태되는 또 다른 형태의 기호가 될 뿐이다.

그런 면에서 종곡동 성당은 현대 도시 속에서 교회가 가지는 종교적 권위와 기존의 컨텍스트에 대한 관심을 적절하게 표명하고 있는 편이다. 비록 도시에 기록될 또 하나의 '승효상' 표 건축이라 할지라도, 여기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제도(制度)적인 대응 물(제도로부터 파생되는 물 개인화와 비인간화에 대한 양식 적인 대상)을 그의 매너리즘 안에서 찾겠다는 일종의 전략이 우연하게 적중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적어도 그의 이전 건물들에서보다는 종교적인 면에서, 그리고 도시의 일상에 대한 측면에서 승효상이 극구 주장하는 '빈자...'와 "어번 보이드"의 역할이 좀



더 명석(明皙)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당신의 옷자락은 이두우면서도 눈부시게 빛납니다.... 밑은<실락원 Ⅲ, 380>

1. 총화(厝化)된 보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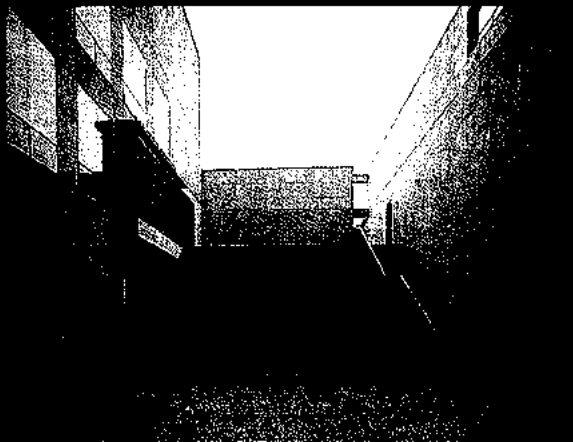
이 건물은 입면에서 보이드는 평면에서 프로그램의 의미가 좀더 정확하게 읽혀진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예를 들어, 이 성당이 소속된 한 블록을 형상과 배경의 평면(figure/ground plan-이하 F/G plan)으로 그려본다면, 종곡동 성당의 족문(足紋-footprint)이 주변의 맥락을 얼추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물의 형상은 자체의 형태보다는 주변의 배경을, 독자적 특성보다는 주변의 도시 조직을 더 강조하고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은 좁은 범위에서의 맥락적 작업(Contextualism)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주변의 맥락(상황)으로부터 형태를 도출하고, 기존하는 주변의 질서를 차용하여 새롭지만 익숙한 형상을 만들어 맥락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띠고 있다. 따라서 이 건물이 기념비적인 객체로서 읽혀지게 되는 요인은 오로지 그 건물 자체가 가지는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다.

좀더 넓은 의미에서 이 F/G plan이 제시하는 의미는 더욱 깊다. 이 지도에서는 형상과 배경간의 현상학적(現象學的) 측면, 즉 단순히 건축과 도시, 또는 공간과 물체를 인지하는 것을 넘어 Solid/Void의 역동적(逆動的)인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대지 안에서는 교형부와 공허부 중 어느 것도 상대적인 지배 성을 갖지 않고, 두 가지 양상의 불분명이 거의 같은 비율로 조합되어 있



으므로 대지자체의 개념이 매우 역동적(逆動的)이며 그들의 역할이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임을 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형 적인 매스들에 의해 둘러싸인 열린 공간이 1차 적인 이미지로 부각되는 상 마르코(San Marco)광장의 경우와 유사하다. 다시 말해서, 그 빈 공간(네거티브 또는 배경)은 주변의 강한 윤곽선을 통하여 주변에 대해 아주 중요한 형상(figure)으로서 인식되어 진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 건물에서는 그 동안 그의 건물에서 애매하게 소비되었던 보이드의 잠재성이 좀더 명료해지고 있다. 대지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보이드는 놀리(Nolli)의 로마지도에서 보여지는 거게 칠해지지 않은 건물들의 평면, 특히 판테온의 단편(Pantheon Segment)과 같이 도시공간을 재조명하게 해주는 종대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 보이드는 성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주변의 문화적 도시문맥과 차별화 시키며, 사적공간과 공공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벽'의 역할을 함으로써 내부와 외부를 재분(再分)하는 개념적인 포셰(Poche)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가로와의 연계를 통해 성당의 영역은 도시로부터 차단하는 동시에, 반쯤(semi-)연결하는 매개 공간으로 쓰여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도시의 가로가 내부로 침투하는 확장된 외부공간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도시에 대하여는 성당공간의 연장으로도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공간을 구성하는 벽, 천장, 바닥 등의 제 역할이 전이되면서 '형상과 배경'이 지속적으로 상호 교체되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 즉 이러한 결정인자들은 우리 인식의 영역 속에서 오브제로서 형상의 역할을 느끼게 해주는 반면, 벽이나 바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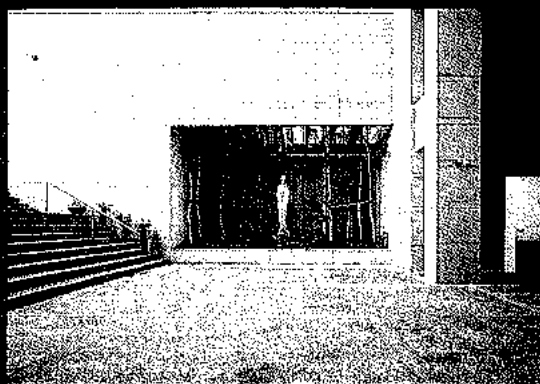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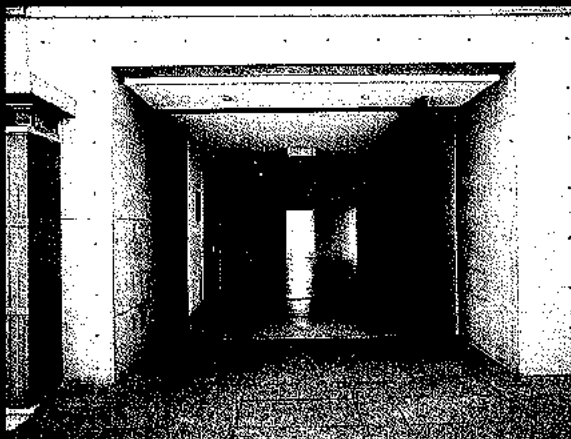


의해 조성되는 공간의 물품은 벽이나 바닥 등이 이루는 場(ground)위에 형성되고 있는 하나의 형상(Figure)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브라만테(Bramante), 라이트(F.L.Wright), 칸(Louis I. Kahn)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벽의 양면성,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로렌치안(Laurentian)교회, 또는 꼬르뷔제의 롱상성당과 라뚜레드에서 읽혀지는 공간과 매스의 모호한 관계, 즉 형상과 배경(F/G)의 양면을 교차적으로 소유하는 공간을 접하게 된다.

2. "Chora"로서의 보이드

또 다른 측면에서 이 공허부는 특별히 형상(Idea)으로부터 물질(reality)로의 전이를 중재해주는 수용자(receptacle)적 공간, 즉 코라(Chora)로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보이드와 도시의 관계 속에서 성차별화된 공간을 인지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성/남성/도시'와 '육체/여성/집'의 이분론적 공간공식(남성에 의해 체계화된)을 읽어낼 수 있으며, 중점의 성모 마리아 상과 거리와 면한 입구 부분의 성 요셉 상을 통해 이러한 성차(性差)공간 구성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서구 남성 중심적 시각문화 속에서 신화적 여성상의 하나로 각인(刻印)되어 온 성모 마리아 상의 적극적인 개입은 이 공간을 유년기 기억의 모체로서, 안락함과 부드러움의 안식처로서 장소 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성모 마리아 상은 이 공간을 익숙한 기도의 공간

1) 이종 드 보자르에서는 내부공간에 접해 외부의 경질 사이에 형성된 시단이 없는 공간의 통시기 중 포셰(Poche)라 명명하였고, 안도(Anjo: Aalto)는 이러한 공간을 그의 중요한 건축 원리로 발전시켰다. 보자르의 '빈민성'의 포셰를 건물의 외부의 공간을 연결하는 매개공간으로 보고 있는 데, 이러한 포셰에 대한 차점적설 남하의 구조·공간 및 형태가 동일시되는 근대 건축과 대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당으로 향한 계단의 지배적 이미지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플라톤이 왜곡했던 기능적인 통로로서의 코라의 의미를 해체하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전체 구성에서 이 보이드는 이데아와 현실의 간극을 뛰어넘게(또는 중재)하는 의미론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정을 차지하는 계단은 단순한 통로로서의가 아니라, 신성에 대한 특수 형이 상학적 해석으로 볼 수 있으며 마리아 삼은 그러한 공간에서 장소의 본질을 깨우치게 해주는 표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공허부는 기능적인 면, 즉 공동체를 위한 모임의 장, 또는 통로의 측면을 가질 뿐 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를 통한 장소의 발견을 함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세속과의 절대적인 단절을 외도하는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누구나 들어 올 수 있도록 배려한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공허부와 계단을 통해 신성함의 절차를 보여주는 일종의 차단 막이며, 기존의 가로를 구성하는 형상과 배경의 지도에서 판테온의 세그먼트로 인식되는 공간의 벽인 동시에 실질적인 형상(figure)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보이드는 모든 절대성과 중심의 개념을 거부하는 "실체적인 공허부"이며, 그야말로 승효상의 작업 속에서 본질적인 패러독스로 각인 되어져야 할 무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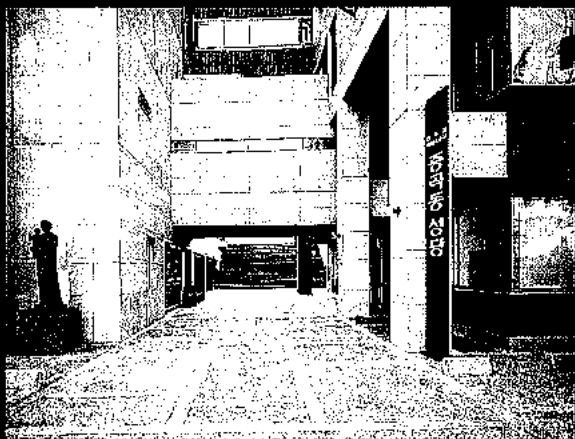
3. solid/void 다이얼로그(Dialogue)

반면 입구에 서 있는 성 요셉 상은 '이성/남성/도시'의 남성적 잣대를 상징하며 '승효상'의 건축을 장식된 헛간(Decorated Shed)으로 재조명해준다. 이 작은 제스처 속에서 라스베가스의 풍경, 다비다시옹 벽에 부조된 모듈라

상, 그리고 볼레의 국립도서관 입면에 대한 패러다임을 읽어 낼 수 있다. 이는 비 물질화된 콘크리트 벽에 대한 일종의 장식으로서 일차적으로 공간 및 구조체계와 독립하여 건물 의 목적을 알려주며, 성서적으로는 신성과 세속을 구분하는 '문설주'의 의미를 담아 성서적 사건을 기념하는 '머릿돌'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공간적으로 이 작은 물상은 세속으로부터 신성한 영역으로 통하는 '보이지 않는 문'의 경첩(hinge)과 같으며, 6층이나 되는 밋밋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거리에 던지는 공포를 감소시키는 안정제(tranquilizer-평강의 뜻을 내포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는 작은 것과 거대함의 비교체계를 통하여 건축적 대화(dialogue)를 이루게 함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하여 건축적 통일체(unity)를 성취하기 위한 디자인 전략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이얼로그는 건물의 뒷면, 즉 주거 군을 향한 입면에서도 나타난다. 중국동 성당 역시 서울의 전형적인 단위구획정리에 짜 맞춰진 건물이기에 당연히 전면의 공공적(institutional)스케일과 후면의 사적(residential)스케일을 동시에 반영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건축가는 여기서 벽이 만들어 내는 영원한 관계, 즉 안과 밖, 앞과 뒤, 그리고 관통(through)이라는 조건을 역설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중정의 계단과 만나는 넓고 거대한 벽을 관통하는 작은 발코니가 그것이다. 이 작은 발코니는 도시로부터 끌어올린 계단을 확장시키면서 벽의 의미를 중립적인 상태로 환원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벽의 뒷면은 '안정과 긴장의 동

2) 성경 속에 금기 12:7을 참고할 것



시적 순간'이 '통과의 순간'으로 전이되는 찰나를 기념하는 활인화(活人-tableau vivant)가 된다. 즉, 존 헤이덕(John Hejduk)의 벽 집(Wall House)에서와 같이 이동의 순간이 고조되는 것과 동시에 벽의 얇은 속성이 순간 성을 강조하면서 벽이면(壁裏面)의 이면(異面)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4. paradox, parasite, paradise

이제까지 승효상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중점' 공간은 그것의 스케일을 막론하고 아직은 환기적이고 도발적인 힘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읽혀지지 못했다. 식상한 애기로 바람, 비, 눈, 그리고 하늘의 이미지를 담아내는 일종의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의도는 매우 추상적이며 서정적으로 위장될 뿐이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이 된다면, 이러한 중점은 자연(나무나 풀이 아닌 절대적 추상으로서)의 세계를 무형, 무정형의 형상으로 명시하거나 표명하게 해주는 구실이 되어야 한다. 즉, 메마르고 야수적인 외부세계로부터 자연이라는 대우주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이는 자연을 주거의 영역으로 한정하여 들여다보게 하여 실리적이고 유물론적인 인간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가능성을 던져주어야 하는 것이다.

종곡동성당에서 중점은 덧없고 일시적인 도시생활 속에 자연의 영원성을 삽입하여 획득되는 패러독스적 쾌락을 통해 종교의 또 다른 측면을 경험하게 해주는 장소가 되고 있다. 위기 속에서 느끼는 피상적 사상, 또는 시적 영감이 가져다주는 이 기묘한 패러독스. 그것은 어떻게 자연의 전체성이 그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파편 화되는가를 보여주



며, 영원성과 인식성에 대한 기념비로서의 교회건축을 유지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승효상의 건축이 종곡동성당에서 단순히 코르뷔제나 칸의 콘크리트와 빛, 그리고 조형에 의지하여 신앙적 체험으로 읽혀지기에 앞서, 그리고 이렇게 강하고 격렬한 보이드를 우리 식 "마당"으로 위장하여 도시 속의 건축, 건축 속의 도시라는 소극적인 이해를 도모하기에 앞서, 오늘날 획일화되고 단명한 도시구획 속에 삽입되는 우리네 건축에서 보이드의 역할과 벽, 그리고 그 틈새공간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그 공간적 어휘를 새롭게 풍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현대도시에 기생(parasite)하게 된 종교건축의 패러독스적인 작업을 통해 승효상의 "빈자의 미학"이 패러다이스의 기막힌 장면을 연출하게 되기를 고대하는 바이다. 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성경 마태복음 5:3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완)

The Pleasant Feeling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영선암

김석환 / 터·울건축사사무소
by Kim Suk-Hwan



적조는 다당

〈 연 재 목 차 〉

1. 병산서원
2. 소쇄원
3. 선암사
4. 화암사
5. 종묘
6. 창덕궁
7. 부석사
8. 독락당
9. 영선암

봉정사 영선암

봉정사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있는 곳으로서 더 유명하다. 1972년 이 곳 극락전을 해체 수리할 때 나온 상량문에는 1363년에 중수한 기록이 있었다. 그런데 목조 건물은 건립 후 대략 150년만에 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로 미루어 이 건물이 13세기초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 연대적 의미는 건축적 우수성 여부를 떠나 오래 전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건축솜씨를 확인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곳 경내에 있는 고금당과 화엄강당은 공포가 익공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보듯 형식적 면모로만 쓰여지기 쉬운 것과 달리 여기서는 외목도리를 받치는 구조적 역할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봉정사는 전통건축의 대표적 공포형식인 주심포식, 다포식, 익공식을 한자리서 확인하기에 좋은 곳이다.

그리고 봉정사는 의상이 종이로 만든 봉황을 날려 얹은 명당에 절터를 잡았다는 전설이 전해 올만큼 자리 앉음새가 좋다. 또 입구로부터 절을 향해 오를 때의 굽이진 산길도 매우 운치 있다. 그 길을 오르다 경내가 울려 보이는 기슭에 기풍과 맵시 있는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휘어 오르는 산사 길과 잘 어울리면서 곧 달을 경내



입구 낮은 루밀을 지나서 미당으로 다기김

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한다. 그러나 것처럼 사료적 의미가 있고 지형과 어우러진 느낌도 좋은 봉정사지만 건축적 힘을 특별히 느끼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그 경내를 벗어난 곳에 아늑한 암자가 하나 있어 이곳에 발길을 내디딜 때마다 감동을 갖게 된다.

조용한 암자

봉정사 경내를 돌아보고 요사채쪽으로 나와서 계곡을 가로질러 좁은 계단길을 오르면 왼편으로 가옥처럼 보이는 건물이 서 있다. 정면에서 바라본 그 건물의 첫 인상은, 풍상으로 거무스름하게 변해서 그리 친근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루밀으로 난 입구 통로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 맑게 정제된 분위기에 의해 저절로 숨소리를 죽이게 된다. 영선암은 영화 「달마가 똥쪽으로 간 까닭은」을 촬영한 곳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화는 잘 기억하지만 영선암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지만 그 영화의 힘은 영선암의 분위기 때문에 생길 수 있었다.

사찰은 속세를 벗어나 공부하는 수행 도량이지만 여럿이 모여 살다 보면 속세와 같은 번잡함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수도자(修道者)들은 다시금 홀로 수행할 곳을 바라곤 하는데, 그러한 요구에 의해 지어진 건물이 암자(庵子)이다. 암자는 대개 모찰(母刹) 주변의 작지만 아늑한 터를 잡고 지어진 곳이 많은데, 대개 소박하게 꾸며져 있다. 그리고 전국의 주요 사찰마다 무근에 많은 암자가 달려 있었는데, 정음의 선운사가 있는 선운산만 해도 한때 79개의 암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로 미루어 볼 때 전국에 많은 암자가 있었을 것임을 짐작케 된다.

출중한 고승들은 홀로 암자에서 수행정진하여 대오한 경우가 많았다. 깨달음을 중시하는 선종의 선사들 뿐 아니라 근대의 고승이라 할 수 있는 경허, 만공, 효봉스님 등이 그러하였고, 현대의 인물인 성철스님은 백련암에서 수행에 정진하며 나오지 않은 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유명한 법어를 남겼다.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불교의 전통을 이루어 왔지만 어떤 경우이건 불교의 본래 의미는 깨우치기 위한 구도의 길이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 쉬운 대승이니 소승이니 하는 것은 불교의 본질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한다. 암자에서의 수행은 불교에서의 깨달음의 목표를 실천하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영선암에서는 인간의 몸안에 있는 원초적 습관과 순수한 자아와 일체되는 영적 맑음을 느낄 수 있다.

영선암

생애 애착이 느껴질 무렵
두려움도 찾아왔다.

세상 사람들 모두 즐거운 표정 것건만
까닭 없는 슬픔이 휘감아올릴 때
홀로 떠나왔다...

술 내음 고여드는 암자
마루턱에 앉아 머물 때
문득 세상 인연 그리움이 밀려오면
황급히 떠밀쳐 내고

수많은 날 기다려 왔건만
아직 찾아 오지 않은 느낌
기다리는 이의 눈길에 닿는
미당을 조용히 비추어가는 햇살

산천은 산짐승처럼 늘 깨어 있고
다시 찾아온 봄날
신록이 번져가는 기운이 반기워도
아직 다 떨어내지 못한 번뇌에
충만한 아름다움이 부끄러운 수도승

건축과 자연의 균형

건축은 지반에 의존하는 관계로부터 성립된다. 유람선은 집처럼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땅과 관계없기 때문에 건축이 되지 못한다. 땅과 관계 맺음에 의해 건축다움이 생기고 우주질서와 운행을 같이하며 호흡하는 사물로서 독특한 성질을 갖게 된다. 또 건축에는 인위가 수반되고 인위는 자연의 평형에 파문을 일으킨다. 그것이 다시 자연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인간의 지혜가 발휘되어야 한다. 동양사상은 자연의 섭리를 존중하고 자연질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근본 개념으로 하였다.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것을 죽음의 길로 보았고 자연을 훼손하면 화가 초래된다고 하여 터부시했다. 그리고 자연의 섭리를 따르고 그 원리를 잘 이용하는 것을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건축에 임하는 그러한 생각은 자연에 순응하고 조화되는 길을 좇게한다. 문명은 자연상태에 인간만의 편리함이 추구되는 현상이지만 문명은 자연계의 환원 안에서만 존재 가능하다. 한 방울의 잉크가 컵에 떨어졌을 때 그 오염은 제거되지 않는다. 그것이 제거되고 다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은 자연의 순환 안에서만 가능하다. 도시로 가득 채워진 지구 위에서는 살 수 없을 것이다. 아직 도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어딘가 벗어날 수 있는 자연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존 조건은 여전히 자연에 있다. 인간의 호흡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의 정화를 위해 생리적 수요의 공기가 필요하다. 현대 도시의 밀집 주택도 주택사이의 외부공기의 켜가 있음으로 해서 존재 가능한 것이다.

태초의 숨결이 남아 있는 자연은 도시문명에서 느낄 수 없는 힘이 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옛 건축에서 현대의 도시 건축과 대비되는 청량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자연의 힘이 바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현대관습상의 불편함을 감수한 채 자연의 감정에 순응해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통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과 균형을 이루는 데서 찾아진다. 건축이 둘러싼 환경에 동화되어 형태보다 정서로서 더 크게 느껴진다. 건축이 땅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입지의 효과를 누림으로서 기분 좋은 정서를 얻을 수 있다. 깊은 자연에서 발산되는 정서의 깊이는 측량할길 없다. 그리고 영선암은 자연과 관계 맺고 있는 심연한 정서를 향유할 수 있다.

적조한 햇살이 비추는 마당과 시작도 끝도 없는 공간

영선암의 마당은 건물로 둘러쳐 외부세계와 분리된 태풍의 눈처럼 고요한 상태이다. 빈 아랫마당에 면해 놓인 툇마루에 조용히 앉아 있으면 맑고 정갈한 분위기의 힘이 느껴진다. 자연의 힘을 응축해서 고이게 하는 것 같은 미묘함이 느껴진다. 그러나 이 곳의 느낌은 좀 더 치밀한 의도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위란 본질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일인데 여기서는 인위의 바탕위에서도 순길을 가하지 않은 것처럼 유연하게 느껴진다. 영선암의 배치는 건물들이 마당을 둘러치고 앉은 단순한 형식이지만 자연스런 흐름을 유도하듯이 조금씩 어긋나 있다. 전면 루밀의 지면은 마당보다 몇 단 낮고 고랑처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랫마당이 더 투명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응진전과 노전으로 오르는 계단이 생동감 있는 동선의 흐름과 분위기를 이룬다.

영선암은 시작도 끝도 없는 비원결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닫힌 구성이지만 어딘가 항시 열려져 있어서 외부와 끊임없는 호흡이 일어나고 숨결이 유지되고 있다. 항상 조용함이 유지되는 아랫 마당은 적당한 짜여짐이 있어서 바깥에서 들어오면 정제된 분위기로 바뀌는 전환이 있고, 다시 밖과의 관계로 생기는 힘이 있다. 그리고 건물들은 마당의 넓이에 비례하여 짜여짐의 힘이 지녀질 만큼의 적당한 높이로 되어 있다. 그 반면 각각의 건물의 구조는 특별히 눈에 띄어지지 않는다. 다포식인 응진전과 민도리 형식을 한 요사채의 디테일 변화는 통일 속의 다채로움으로만 작용되고 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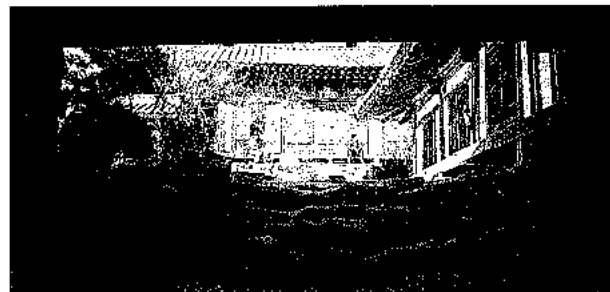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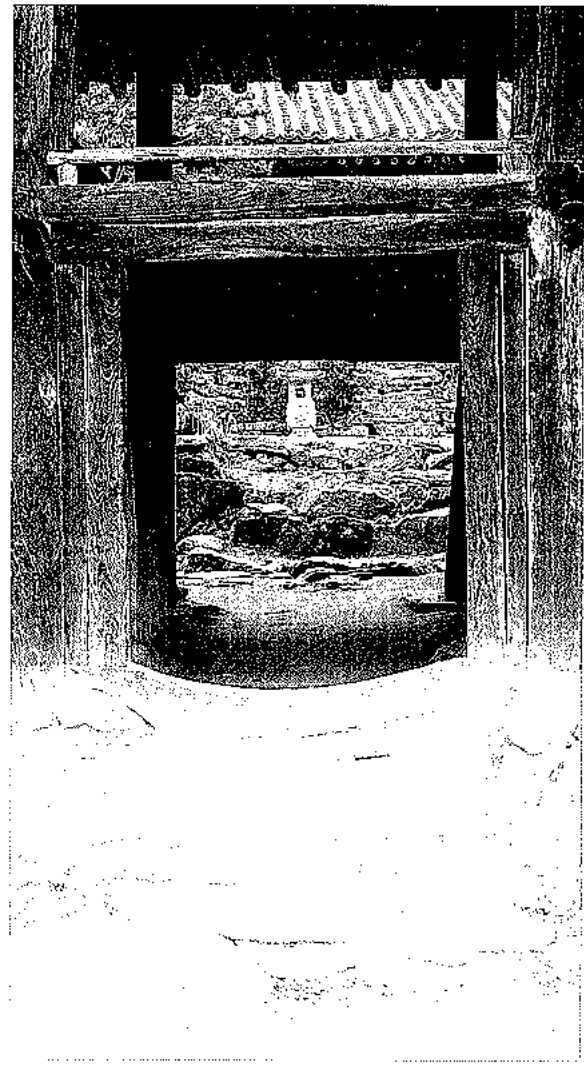
4



5

영선암은 음양의 원리처럼 안과 밖으로 서로 다르게 나뉜 두 세계의 상호 작용에 의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마치 기의 현상이 만나는 태극 구조와 같다. 마당의 영역은 둘러친 건물에 의해 경계가 한정된다. 그 경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 경계너머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경계는 밖과의 대비를 이루고 외부와 구분된 안의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진 커를 지나 밖의 세계와 하나의 숨결로 이어져 있다. 공간과 사선은 틀 안에 갇히지 않고 건물 틈에 놓여진 누마루를 타고 그 너머의 무한 공간과 호흡한다. 건물과 하늘, 그리고 건물 틈새를 언 듯 비켜 가는 사선, 햇살과 공기가 함께 어우러져 생기는 느낌이 느껴진다.

영선암은 건축의 질서를 안에서 조용히 햇살이 닿아 생기는 갖가지 정감 있는 표정, 사물 본연의 생명력과 숭고함, 맑고 순수한 느낌이 함께 한다. 경사지형을 알맞게 다듬어 이루어진 배치는 그 느낌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이다. 마당은 지형을 따라 여러 단으로 이루어져 레벨상의 위계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입구에서 보면 아래마당은 지형의 고저차를 이루는 반쯤에 걸쳐 있어서 항상 다음 단계로의 흐름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건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반쯤이 화단으로 되어 있어 자연지형과 같은 자연스런 분위기를 이룬다. 머무를 곳의 정제된 분위기와 경사진 자연지형의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서 루밀 계단을 오를 때, 불전 계단을 오를 때의 느낌이 각각 다르다. 입구 통로의 짧은 거리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어스름한 통로의 감각으로부터 좀더 다가갔을 때의 표정이 한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달라지며 생생하고 역동적으로 느껴진다.



두화루 루하의 진입 통로



6



7

1. 정종사유으로는 오르는 화단에서 집과 소나무 덩굴
2. 영선사 경내를 뒤로하고 영선암으로 향하는 길
3. 영선암 주위 소나무 숲
4. 영선암 진입신림
5. 마당으로 진입하며 그 안을 의식함
6. 불전사 영선암
7. 두화루 루하를 둘러싸고 있는 미인에서 화단아름 모습
8. 두화루의 연결된 승방의 뒷마당
9. 두화루 루하 통로의 계단 그리고 고마루의 전경
10. 어둠에서 빛을 띤 단교는 두화루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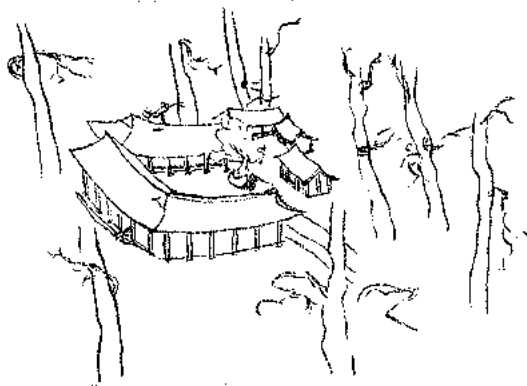


10

조용히 승방 쪽마루에 앉아 흙마당의 적조한 햇살을 느낄때면 침묵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명상에 잠겨든다. 세속을 벗어난듯이 한줄기 자의식만 마음안 깊은 곳으로 자신을 찾아간다. 계절에 따른 변화는 마당에 비춘 그림자를 더 길거나 짧게 한다.그림자가 소리 없이 건물의 창과 마루, 미당 위로 조용히 움직여 간다. 마당 한 쪽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건물의 처마자락을 살짝 건어올리듯이 서 있는데, 그 한 그루 나무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무들보다 더 큰 자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생명력과 사물과의 교감

선인들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태도로서 생명력을 얻었다. 현대사회는 계획적인 계획 수요를 확보하며 급속히 신도시를 건설하는 능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생명력을 잃는 것은 회복할 길 없다. 인위 시설로 가득해진 도시는 오염된 물마저 한방울도 새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릇과 같다. 그 결과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생명력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이곳의 명상적인 느낌은 둘러싸인 자연의 힘을 바탕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현대는 합리성을 따져서 말해지지 않는 가치들을 모두 무시되기 쉽다. 그러나 말해지지 않아도 존재의 힘은 변함없다. 계획적 측면만을 중시하다 보면 계획되지 않는 의미들을 점차 망각하게 된다. 그로서 몸의 질병과 같은 지구의 문제가 생겨난다. 눈에 보이는 가치만을 좇는 사이 인간의 직관력이라든지 상상력이 알게 모르게 많이 쇠약해져 버린다. 얇은 사물과 교감함으로써



스케치

생겨나는 감각이다. 사람들은 언어가 없던 시절에도 서로의 느낌을 표정과 동작으로 소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느끼지 않은 것을 추상적인 언어로 나타내면서 사물과 멀어지고 감각이 둔해졌다.

현대인들은 옛 사람들이 직접 식량을 얻기 위해 땀을 흘리며 느꼈던 의미와 자연과의 교감속에서 직접 사물의 현상을 의식함으로써 가졌던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다. 그 현상이 전통 건축을 보수하는 솜씨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전통건축의 질박한 물성의 느낌은 그렇게 오래 견딜 수 있는 바탕위에 시간에 따른 변화가 담겨져 생길 수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 150년만에 중수했던 전통건축을 이 시대에는 불과 몇 십년만에 다시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옛날의 장인들은 우선 자연현상과 더불어 튼튼히 지탱될 수 있는 술기를 체득하고, 보지 않는 가운데 꼼꼼히 솜씨를 발휘했다. 사람들이 그러한 자연의 존재 원리와 유리되기 시작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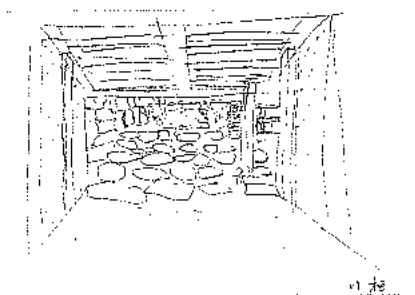
1



2



3



4



5

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농경인구보다 산업인구가 더 많아지고, 전통의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바뀐 것은 불과 30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앉아 있는 시간보다 서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

영선암은 아슬방울이 모여 웅달샘이 되듯 맑은 기운이 고여드는 곳이다. 산을 오르다 맑은 웅덩이 옆에 앉아 무심히 바라보면 계곡 물이 모래톱을 빠져나와 스며 고이고 조용히 흘러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웅덩이 물살 위에 찾아온 영롱한 빛의 떨림이 음률처럼 반짝인다. 영선암은 그 웅달샘처럼 맑고 정갈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다. 현대인의 계층적인 사고로는 영선암의 느낌을 만들 수 없다. 옛 사람들은 자연의 힘을 측정하려 하지 않았으며 단지 그로 힘입어 생기는 느낌을 의식했을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현대인보다 건축에 임하는 사고가 덜 복잡하며, 맹목적인 의식에서 생긴 것일지라도 균형에 대한 신념이 있었다. 그래서 건축에서 본질적 덕목이 지켜질 수 있었고 좀더 근원적인 힘이 발휘될 수 있었다.

그런데 작년에 이곳을 찾으면서 전과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뒷마당에 있는 요사채를 수리하면서 외벽을 새로 단장했기 때문이었다. 전에는 형상이 두드러지지 않고 저만치서 공간의 경계로만 느껴지던 건물이 현대적 솜씨로 매끈하게 마무리함으로서 그 인공적 느낌이 아랫마당까지 힘을 미치며 마치 맑은 샘으로 돌맹이를 빠뜨린 것처럼 느껴졌다. 건물을 새로 지은 것도 아니고 있던 것을 보수해 놓은 것뿐인데 매끈한 단장으로 본래 분위

기가 깨뜨려져 버린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다시 아랫마당에 있는 주지실의 보수를 시작했다.

연재를 마치며

오래전부터 필자를 알아온 사람들 가운데는 이 지면에 전통건축에 관해 연재한 글을 보며, 마치 행로를 바꾼 것인양 의아해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는 답사때에도 사람들에게 근대건축가라고 말해왔다. 근대 이전 건축의 의뢰자들은 권력자였고, 그들은 막대한 동원력과 재원을 조달할 능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서양에서의 그 영향력이 좋은 건축을 낳게 하지는 않았다. 대부분이 관습적으로 옛날 고전적 양식을 답습해오며 불필요한 장식을 가하며 좋아했다. 진정한 건축적 가치의 추구보다도 권위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작용됐다. 20세기초 서양에서 새로운 건축의 주창자들이 나타났다.

“인간의 진보는 왜이리 진부한가”... 「위대한 시대가 막을 열었다. 거기에는 새로운 정신이 존재한다. 거기에는 새로운 정신 속에 잉태된 무수한 작업들이 있다. 그것은 특별히 산업 생산 속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 ... 양식이란 허위일 뿐이다. 우리 시대에는 나날이 그 자체의 양식을 결정하고 있다...」 르 꼬르뷔제.

근대 합리주의 사상에 부응한 근대건축이 양식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 건축의 쓰임을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게 한 것은 건축사에서 진정한 진보로 생각되었다. 20세기 최대 건축가로 평가되고, 화가, 저술가, 도시계획가이기도 했던 르 꼬르뷔제는 현대미술의 새로운 표현수단을 터



6



7

1. 앞마당에서 응진전에 오르는 문선
2. 루마에 호안 건물의 안뜰과 다남의 재한
3. 우회곡과 연결된 주지실 뒷마당
4. 스캐치
5. 화랑치고 침체된 마당
6. 높이 있는 응진전 북쪽에는 루마에 상승장이 느껴짐
7. 아랫마당으로부터 오르는 트레일
8. 중심에서 비껴나 승강에 거론되는 응진전
9. 김이져 올라간 응진전
10. 조용한 느낌의 응진전 복마루



8



9



10

특하고 근대건축의 맛있는 속성에 생명력있는 조형성을 성취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르 꼬르뷔제의 새로운 시대를 향한 통찰의 말들은 필자의 사고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인간부재의 건축은 꿈도 꾸지 않았다는 말에서 더 큰 신뢰감을 느꼈다. 그리고 90년부터 96년까지 몇차례에 걸쳐 르 꼬르뷔제의 생애와 작품을 답사했었다

그러다 96년 미국과 멕시코로 르 꼬르뷔제와 루이스 칸, 바리칸 등의 건축 답사를 다녀온 후로 필자는 이 시대 건축의 추구할 방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평소 무의식적으로 느껴온 바이지만, 이 시대는 근대건축정신의 성과보다 현대문명에 의해 파생된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당면해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현실위에 건축이 멀어져가는 상황에서 현대건 과거이건 구분없이 건축적 순수와 접하고 싶어졌다.

자본주의에 의해 생성된 현대도시는 건축을 논하기 앞서 인간의 생존환경으로서 심각한 지경이다. 자본주의에 내포되어 있는 사상은 우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만을 위한 것이다. 또 인간사회에서도 남을 배려하지 않고 각자 개인만을 위하게 된다. 그리고 만인의 만인과의 경쟁을 해야 함으로서 모두가 투쟁의 길로 가고 있다. 인간만을 위한 합리주의는 자연을 파괴하고 우주 질서를 깨뜨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소멸의 길에 이르게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최근 동양사상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양에서의 동양학에 대한 열기가 종주국인 중국보다 더 높다. 그 이유는 도덕과 자연, 생명과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우리 전통건축에 그 의미가 잘 살아 있다.

오늘날 건축은 문화에 질식당하고 있다. 수요자들에게 건축의 의미는 흐릿해지고 건축공간은 그 자체로서 사람들의 감정에 작용하기보다 가전제품을 비롯한 수 많은 도구들로 채워지고 있다. 건축의 이미지는 의상처럼 유행을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요구조건을 무조건 떠받들고 있으며 시대조류로 합리화 되고 있다. 또한 기능주의를 행위에 대한 정확한 치수의 결정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건축을 제대로 하는 것인양 여겨지고 있다. 시대정신은 건축의 성격을 갖게 하지만, 건축의 본질을 형성하는 요인이 아니다. 어떤 풍습을 따라 하는 인간의 행위가 최선의 인간다움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건축에서 중요한 것은 본질적 힘으로서 감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건축은 어떤 행위에 알맞게 되기보다 인간다움의 환경과 건축 본연의 힘을 지님으로서 의미가 구현된다고 생각한다. 내재하는 건축의 힘을 발생케 하는 것은 문명 현상이 아닌 여전히 자연 현상이다. 건축적 감동은 무엇보다도 자음에 의해 발하는 느낌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다. 건축은 중력에 대응할 때부터 우주의 성질을 고려하게 된다. 하나의 건축의 지어짐은 우주 질서와 관계맺는 것이며 지음에 대한 경탄스러움은 그로부터 생기는 감각이다. 그리고 전통건축은 지음에서 비롯되는 힘과 자연과의 교감에 의한 힘을 함께 지니고 있다.

놀랍도록 많은 수의 건물이 지어지는 이 시대에 진정한 건축이 추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인류역사의 어느 시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축의 숭고한 의미를 의식하고 함께 지향한 때가 있었다.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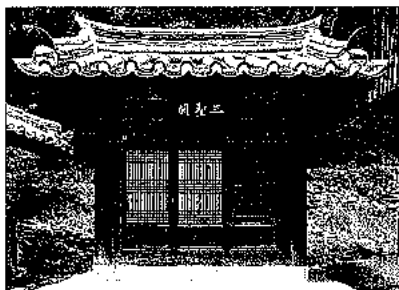
인공 밖의 소중이 이루어진 우미루

그래서 대부분의 건축이 건강한 성과로 나타날 때가 있었다. 사람들의 정신이 좋은 건축을 이루게도 하고 반대로 나타나게도 하였다. 결국 좋은 건축을 남게 하는 것은 삶의 태도이다. 우리가 전통건축에서 발견하려는 것은 우열이 아니라 시대환경에 의해 기록된 건축의 건강성에 있다.

필자는 이 연재를 통해서 전통 건축이 갖는 건축적 성격과, 그렇게 이루어진 배경,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의 좋은 가치를 나름대로 설명하고자 했다. 전통건축의 좋은 의미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재에 대한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건축과 자연이 호흡을 같이 하게 한 데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의 가치를 중시한 동양 사상은 그러한 의식을 남게 하였다. 그러므로써 건축이 자연과 균형을 이루는 힘을 발휘케 된 것이 중요하다. 전통건축을 대하면 맑고 깨끗함, 투명함, 생명력, 자연과의 호흡이 충만한 일체감 등의 덕목

이 느껴진다. 그것은 특히 인위로 가득해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온다. 필자가 생각하는 한국전통건축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압축적으로 말하자면 자연과의 균형, 그리고 생명력이다. 그리고 이 연재에서 선택한 아홉군데는 답사때 가장 귀히 여겨진 곳이었다. 그러나 단지 전체중 일부분의 의미가 아니라 이 글을 쓰는 동안 한국전통이 지니고 있는 전체 가치의 보편성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기도 했다.

그 동안 부족한 글솜씨로 지면을 채워 왔다. 건축가로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직시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건축은 말로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말로서 나타내야 했다. 그리고 연재를 하는 동안 침묵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설새 없이 떠든 꼴이 되었다. 이제 다시 조용한 침묵에 빠져들고 싶다. 그리고 닫혔던 창고를 열었을 때 햇살을 받은 땅바닥에서 새싹이 돌아났음을 보고 신기할 때가 있듯이, 망각후에 다시 사람과 새롭게 만날 때가 있기를 바란다. 때때로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의 격려를 들을 때마다 더 책임감을 느끼고 분발할 때도 있었지만 본래의 미움을 넘어서는 수 없었다. 원고를 넘기고 얼마 있다 책으로 되어진 것을 받으면 부끄러움이 앞섰다. 그리고 책임감속에 매달 지면을 통해 만나는 동안 공인이 된 기분이었지만, 9월 호에 예정되었던 부석사는 그 호에 지면이 남쳐 심지 못하고 한달 미뤄질 수 밖에 없었는데, 본의 아니게 약속을 어긴 게 되어 송구한 마음을 가졌다. 그 동안 부족한 글을 읽어 주신 여러 회원님들과 제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圖



4



5

1. 전체의 다도의 느낌
2. 공진전과 삼성각 사이에서 무뎠어 느껴지는 아랫마당
3. 승로의 측면
4. 삼성각
5. 보수중 기와를 깔아낸 주차장 모습
6. 공진전과 승방사이의 뜰
7. 보수중 노전의 모습
8. 보수후 노전의 모습



6



7



8

건축사의 특별검사업무, 안전점검업무에 대해 할 말 있다

A Note on the Architect's Special Examination and Safety Inspection Duties

건물의 유지관리와 건축사 업무영역

조인철 / 건축사사무소 자연과 건축

by Zo In-Cheol

필자는 금번의 건축사에 의한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 업무를 하였고 특별검사원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그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점을 기록하고자 한다. 이런 기록이 필자 개인만의 의견 일 수도 있고 이 업무를 하였던 많은 회원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우선 이번의 업무를 적은 인원과 경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사시킨 건축사협회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한다.(필자주)

특별검사원제

1) 보수의 문제(신청자에게 부담시키는 법개정이 필요)

특별검사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많은 경로를 통해서 거론 된바가 있으므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지도 모른다. 더욱이 건축사 협회에서는 이의 개선을 위해서 2번째 이상의 동일건에 대한 점검을 나가게 될 때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검사비용을 부담시키는 쪽으로 법개정을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는 보수의 문제가 이제도의 정착에 주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몇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필자는 동일 건에 대하여 두 번이상의 사용검사업무에 대하여 보수가 지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고 그것은 건축사협회와 서울시와의 협약사항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특별검사원의 업무를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현행의 감리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재정부담하여 바로잡고자하는 만큼 더 이상의 비용부담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듯하다. 서울시의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사실 특별검사나 특별검사원제니 하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누가 말했듯이 특별검사원제가 필요없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검찰의 업무에서 특별검사가 필요하듯이 지금은 어쨌든 특별검사원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특별검사원의 활동을 보장 해주고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부분의 검사원의 경우에 한번의 검사로 끝나기가 어렵고 거의가 두 번 이상의 점검을 요하는 상황이라 검사원에게 시간과 경비의 문제에 있어서 부담을 주고 있다. 필자는 어떤 구청에 가서는 왜 두 번씩이나 검사를 나왔는데 수당을 한번밖에 주지 않는다고 항의 한 적도 있다. 특별검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두 번이상 동일 건에 대해서 와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라면 시정 사진을 첨부하여 검사원의 사무실로 방문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어쨌든 현행의 상황으로는 볼 때 건축사협회에서도 인정하듯이 "특별검사의 업무는 건축사 발전을 위한 일련의 봉사과 희생적인 업무로서 업무정상화에 대한 사명감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현실(비용, 시간 : 건사협서울기술 2250-816)"이다.

2) 책임과 권한의 문제

특별감사원의 업무를 하다보면 같은 회원을 고발하는 경우에 직면하게 된다. 아직도 고질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대충 어떻게 그 상황만 얼버무리면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의 대다수는 이런 변명을 한다. 변명의 첫째는 그 정도의 설계비를 받아서는 필요로 하는 도면을 모두 그릴 수가 없고 현장상황과 도면을 맞출 수가 없다고 한다. 둘째는 소위 업자가 나에게 설계 일을 가져오는데 냉정하게 감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회원들을 만나면 정말 특별감사원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필자는 현장을 가면 적법여부를 따지기 전에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으면 법적여부와 관계없이 지적을 한다. 경미한 사항이 아니냐고 반문을 하더라도 지적을 하고 도면의 조정을 요구한다. 이러한 회원들의 비협조로 느끼는 업무 부담외에는 "관계공무원의 부당한 부탁(건사협서울기술 2250-816)" 등도 감사원이 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 부담을 느끼게하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특별감사원제가 지속되어야하는 취지는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이다. 필자는 공사업자의 도면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시키는데 그 첫 번째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설계도면이나 시방의 내용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시공하는 풍토에서는 설계자나 감리자의 대우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생각이다. 시공상의 이유 때문에 창문의 크기, 문의 여는 방향, 난간의 디자인, 세면기의 위치따위를 변경해야한다면 반드시 설계감리자와 의논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특별감사원은 업무지침에도 있듯이 적법여부의 지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보고를 허위로 한 것이 되어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실 위의 규정은 주어진 권한에 비하여 책임이 너무나 가혹한 것이 사실이다.

3) 제도적인 보완문제

특별감사원으로 현장에서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기준이 설정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가 허가신청의 도면을 그대로 사용승인신청도면으로 제출된 경우인데, 허가도면의 작성은 대지의 현황측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도상의 경계선을 확대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렇다면 시공을 하면서 현황측량을 하였을 것이고 그에 따라 건축물의 배치도 조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것이다.

그 다음 건축물의 입면에 관한 사항인데 허가제출도면은 2면이상의 입면도가 있으면 된다. 하지만 공사를 하거나, 사용승인검사를 받으려면 최소한 각면의 입면도가 모두 있어야하지 않을까? 2면만 제시하면서 온갖 변명을 하는 회원을 만나면 참으로 한심스러운 생각이 든다.

특히 베란다의 기준은 애매한 것이므로 법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확실한 용어정의 및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동주택에서는 허용되는 것이 단독(다가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등의 불합리한 기준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현황측량의 지점을 보존채하고 사용검사의 도면의 제출부분(사실상 대부분은 소위 AS BUILT DWG. 으로서 시공자의 부담으로 작성해야하는 부분이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안전점검의 업무

안전점검의 업무는 사실 서울 홍제동 다가구주택의 화재현장(2001. 3. 4)에서 노후주택의 붕괴로 소방관 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것이다. 국가가 붕괴가 우려되는 사유(私有)의 주택을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수선할 수는 없다고 하여도 최소한 어떤 건축물이 어느 정도로 노후화 되고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의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하지 않겠는가의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내년에 월드컵개최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많은 외국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을 때 혹시라도 노후건물이 붕괴되어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안전점검요령 설명회(2001. 8. 31)에 참석하고 안전점검을 시작하여 사무실의 위치에서 가까운 동송동, 명륜동, 혜화동 일대를 훑어 총 280여건의 20년 이상 경과한 4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점검하였다. 아마 회원 중에는 500건에서 600건 이상의 안전점검을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다. 사무실 부근의 대학로에는 원래의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건축물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원래 고급주택가로 이루어진 곳이었는지라 불량한 건축물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방문에도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간혹 마당에 무서운 개가 물어뜯을 듯한 기세로 달려와 줄행랑을 치던 일이나 고급주택 일수록 "집이 무너지면 나의 집이 무너지지 무슨 간섭이나"는 식의 거부반응

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건축사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런 업무를 계속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안전점검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하고 간단한 음료를 내놓으면서 집의 유지관리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을 만날 때면 건축사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대문을 나설 때는 뿌듯한 보람을 느낀 적도 많았다. 조사대상의 여러 건물들을 찾아다니는 동안 실제 대장상의 구조나 층수가 잘못된 곳도 많이 있었고 일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증축등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듯한 것도 간혹 발견할 수 있었다. 오히려 이러한 위법사항의 노출을 꺼려하여 일부 주택에서는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였던 것 같기도 하다. 같이 안전점검을 했던 일부 회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구역이 있었는데 사진을 찍으려다 봉변을 당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번의 서울시에서 시행한 안전점검의 업무는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사무실이 있는 부근의 지역에 대해서 그 동안 내가 무관심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건축사로서 남이 나에게 해줄 것만을 바랬지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사회를 위해서 나누어줄 생각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내가 속한 지역을 살살이 찾아다니고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해지는 느낌을 가졌다.

아래의 신문기사(문화일보, 2001.9.2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안전점검업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회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 노후건축물 점검 결할기

김순환 기자/soon@munhwa.co.kr

서울시내 노후·불량건축물 21만여동에 대한 안전점검이 육안에만 의존, 단기기간에 끝나 '수박겉핥기식' 점검에 그쳐며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총예산 36억여원을 들여 시내 20년 이상된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규모 상가 등 노후 건물 21만여동을 대상으로 건축사 500여명을 투입,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안전점검은 추석 연휴와 공휴일을 제외하면 총점검일수가 30여일에 불과해 형식적인 점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건축사 한 사람이 하루에 11동 이상의 노후 건물을 육안으로만 점검하는 강행군을 하는 등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김모 건축사는 "불특정 지역에 흩어져 있는 건물을 하루 10동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단순한 육안

점검에 그칠 것"이라며 "육안으로 건물 붕괴 가능성을 점검하는 일은 전문가들이 아닌 건축직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수십억원의 인건비를 들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단순 육안 점검에 그치는 건물 안전검사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구청별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정밀 안전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진단 결과를 토대로 불량 판단을 받은 건물은 12월부터 정밀진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kr

이러한 의견 외에도 실제의 점검기간중에 느낀 몇가지의 우려되는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자신의 집이 오래되어 안전점검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었다. 따라서 말쑥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헐고 새로 지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설계라는 업무로 생존해야하는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헐고 새로 짓는 것을 유도 해야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몇 백년씩 생명을 유지하는 목조전통건축물에 비해서 요즘의 건축물들이 20년도 안되어 헐리는 것을 보면 왠지 가슴이 아프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작업들이 정말 너무나 소모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이번의 업무가 조금 더 계획적으로 준비단계를 거쳐서 종합적인 측면의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너무 붕괴우려의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하다 보니 폭넓은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자료로는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니었나싶다. 필자가 조사한 관내에는 잡지에도 소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김수근 선생이 설계한 주택이 있었고, 몇몇 보존 가치가 있어 보이는 훌륭한 건축물들이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건축사의 안목이라면 20년 이상의 오래된 붕괴우려의 건축물을 찾아내는 것 외에도 보존가치가 있는 대상건축물도 구분해낼 수 있다. 건축설계를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오래되고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꾸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안전점검의 업무는 낡은 건축물을 없애고 새로 건축물을 짓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어진 건축물의 유지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번 안전점검의 안전도의 판정에 중점을 둔 체크리스트의 양식은 근본적으로 조정되어야하지 않을까? 건축물의 안전은 건축이후의 유지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고 이것은 속전속결(速戰速決)의 자세와는 아주 먼 거리를 두어야한다. 건축물의 유지

관리는 설계당시부터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아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안전점검의 대상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실상 안전점검은 저층 조적조에도 필요하지만 5층 이상 철근콘크리트조의 건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조적조의 건물은 균열에 대하여 직접적인 보강의 방법이 없는데 비하여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경우는 균열의 부분에 대하여 각종재료로서 보강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건축주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알려주고 하자가 변형이 더 심해지기 전에 간단한 방법으로 보강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안전점검의 업무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며 종합적인 관리체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기타의 유지관리의 업무에서의 건축사의 역할

(건축물의 계획 - 건축 - 유지관리-멸실의 전단계에서의 건축사의 역할)

1) 건축사의 전문영역(종합조정관리자로서의 건축사)

앞에서 언급한 특별검사원제는 구청간의 교차점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것이 사후의 지속적인 관리 체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특별검사원제나 안전점검업무의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고 국가경제와 국민 안전확보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제도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좀더 종합적인 유지관리체계로 발전해야 한다.

건축사는 사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건축설계의 업무를 주로 하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다. 설계도를 작성하고 계획하기 위해서 여러분야를 조율, 조정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그래서 건축사는 어떤 좁은 분야를 아주 깊이 알기보다는 건축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능력을 가진 전문가 아닌 전문가이다. 지금 모든 분야가 아주 세분화 전문화 되어가는 시대가 되었다. 예전의 건축사의 업무 영역이었던 분야들이 점차 세분화된 전문가 그룹에 모두 넘겨주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문제에 관한 한 세분화된 형식으로 관리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건축사가 책임자가 아닐까 한다.

2) 건축물의 안전

건축법의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되어 있다. 그중에서 건축물의 안전은 제일 중요하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항목은 크게 두가지로 대별된다. 붕괴에 대한 안전, 화재에 대한 안전이 그것이다.

가) 붕괴에 대한 안전

건축물을 건축(신,증,개,재,이전)시의 안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상당히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데 반해 건축물의 사용상에 있어서의 안전은 거의 도외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고 몇 년뒤에 필요에 의해서 건축물을 수선해야 할 경우에 무자격 보수업자가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종래의 건축구조가 훼손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수선의 범위(기둥등의 주요구조부 3곳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아주 조그만 변형이라도 모두 허가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이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지 모른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은 규제의 강화라는 측면만 부각될 뿐 실제의 효과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이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없이는 정말 어렵다고 본다.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측면이나 건축문화의 창달은 정부주도로 이룰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정부의 단속으로 모든 것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건축주의 수시로 변화하는 욕구에 대한 해소방안이 필요하다. 건축주와 건축사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된다면 건축주의 욕구의 분출을 건축사가 정상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유지관리의 체계 속에다 포함시키면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나) 화재에 대한 안전

건축법상 화재에 대한 안전에 대한 내용은 익히 알고 있듯이 건축물의 재료, 방화구획, 피난시설등이다. 화재와 관련된 내용중 건축법에서 제외된 것은 소화 즉 불을 진화하는 내용이다. 불의 진화는 행정자치부 소속의 소방관들이 하는 업무이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도된 과거의 많은 건축물의 화재는 화재의 예방적인 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의 관리가 소홀해서 일어나고 대형의 인명피해가 생긴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건축물의 화재와 관련된 점검은 소방관들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건축적인 사고가 부족하여 소화기나 소화전등의 점검 외에는 실질적인 점검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너무 소방관에게만 화재

에 대한 안전의 문제를 떠 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볼 문제이다. 내년부터는 청소년수련원과 학원등의 층수,면적에 관계 없이 소방공동시설세가 현재의 2배가 된다고 한다. 행정자치부는 소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발생시 사고위험이 높은 이들 시설을 중과세할 것이라고 한다.(조선일보,2001.11.20)

3) 건축물의 기능에 관련된 문제

건축물의 기능은 설계자가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고심하는 부분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설계의도대로 건축물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마비의 상태가 된다면 설계자로서는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가) 장애인편의시설을 똑바로 설치하고 똑바로 관리하자

대표적인 예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들 수 있는데 내년의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시설 확충작업을 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건축설계자로서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본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과연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있는가? 먼저 충분한 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이 검토되고 설계도면에 의해서 공사가 시행되어야 할 텐데 대부분의 시설공사가 시공업자부터 예산 검적을 받고 도면상의 검토 없이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다. 많은 경비를 들여 설치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는 것 못지 않게 제대로 관리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나) 주차장의 설치 관리,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점검

서울시에서는 새해부터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가구당, 세대당 1대로 주차장의무비율을 높힐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주차장의 문제는 정말로 해답이 없는 것일까? 주차장의 문제는 다가구주택이 밀집해있는 지역의 경우에 주거환경의 개선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아꼈든 주차장의 문제는 설치하는 것 이상으로 유지관리가 중요한 문제이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으로 만들어진 곳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주차장의 용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도 현행의 법으로서는 모든 것을 규제할 수 없고 파악조차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현행법상으로 신고도 필요없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국가경제의 통계차원에서도 뭔가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건축물의 미관

건축물의 미관의 문제는 많은 설계자들이 고심하는 부분 중의 하나이다. 어렵게 디자인 한 건축물의 입면이 얼마 뒤 옥외 광고판으로 도배가 되어 버릴 때는 참으로 건축물의 디자인의 효용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최근 들어 옥외광고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었다. 이것 또한 내년에 개척되는 월드컵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단속하는 입장이나 철거해야하는 광고주나 양쪽이 모두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인가? 무슨 국제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물론 공무원이 매일 각건물에 대해서 단속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가끔 건축물에 부착되는 광고판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건축물의 디자인과 설치되는 광고판의 디자인이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이나 지속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5) 건축물과 관련된 환경문제

환경에 관련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독 건축사들만이 이문제에 소외되어 있는 느낌을 가진다. 건축물과 관련된 환경문제라면 건축공사시의 발생하는 분진, 소음문제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 모르겠다.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환경문제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문제와 수질오염의 문제이다. 에너지의 문제는 건축물의 단열성능의 부분과 냉난방부분의 점검이 수반 되어야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건축물의 단열성능은 저하되고 그것을 보강하기 위하여 건축물자체에 대한 보수보다는 좀 더 성능이 높은 냉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냉동기의 소음문제로 이웃간의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물탱크등의 위생적인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물 뿐만아니라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원에 대해서도 정화시설의 구조와 기능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요약

1) 건축시험화차원에서 할 일

가) 교육의 문제 : 위에서 언급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업무는 건축사라고 모두가 지금 당장 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일정부야에서는 일정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건축사 협회에서는 계획하고 주관하여 꾸준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도 건축설계전공학과는 앞으로 외국의 수준에 맞추어 5년제가 된다고 한다. 5년을 이수하여 어렵게 공부하여 사회에 배출된 그들에 대해서 우리 선배들은 전문가로서의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하지 않을까?

나) 제도개선의 문제 : 건축법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부분을 대폭 손질하여 건축사의 종합적인 지식과 경험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잘 활용되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사가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해야하는 명분과 논리를 개발하고 건축사의 책임과 권한을 균형있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회가 해야할 일은 중요하고도 필수적이다.

다) 정부각부처와의 조율문제 :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건설교통부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화재예방차원의 유지관리는 행정자치부, 장애자편의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보건복지부, 환경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환경부, 그외에도 문화관광부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각 부처와의 협의 조율은 건축사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협회차원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2) 정부 각 부처에서 할 일(지속가능한 유지관리)

정부의 각부처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쟁력확보의 차원에서 부처 이기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부분이 종합적인 체계 속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도 이제는 새로운 건설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부일선부처의 인력감축으로 정부만의 인력으로 이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업무를 개발하여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에 이관된 건축허가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도 지역내의 소속건축사들에게 윤번제로 일임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만일 건축물과 건축사의 관계를 건축할 때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끝까지 인연을 가지는 것으로 연결시켜줄 수만 있다면 해결가능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건축물을 변경하고 싶은 건축주의 욕구가 있을 때마다 정상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 욕구를 해소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건축물의 신축후에 유지관리단계에서의 불법이나 안전의 위해 요소가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욕구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적인 행사나 무슨 대형사고가 날 때만 무슨 대책마련에 골몰하지 말고 이제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3) 요약

건축사 개개인의 발상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건축사는 법적인 보호 아래에서 가능한 권한만 가지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내외의 눈총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설계업무만으로 생존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건축사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정신이 필요한 때이다.

이제는 위의 업무와 관련해서 권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누구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위의 유지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만일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교육받을 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번 안전점검에 임하는 회원들의 자세와 열의를 볼 때 이제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무르익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공감대를 어떻게 결집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건축사협회의 몫이다.

유지관리의 업무는 여성건축사들에게 특히 적합한 일이 아닐까한다. 특유의 꼼꼼한 여성적인 장점을 살려 그 능력을 십분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검사원의 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유지관리의 업무나 특별검사원의 업무 등에 대해서 의견을 취합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검사원제는 건축물의 건축시점에서 위법행위를 최소화시키는데는 상당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금번 시행한 안전점검의 업무는 2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지금의 시점에서 한번 파악해본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하지만 특별검사원제나 안전점검의 업무가 이러한 좋은 취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관적인 시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별검사원제와 이번 안전점검업무의 한계는 소위 말하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특별검사원제나 안전점검의 업무의 지속가능한 기능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중국 건설시장의 현황과 전망(2)

The Present and Prospect of Construction Market in China

청도시(靑島市)의 경험을 중심으로

안길원, 이승조 /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by Ahn Gil-Won & Lee Seung-J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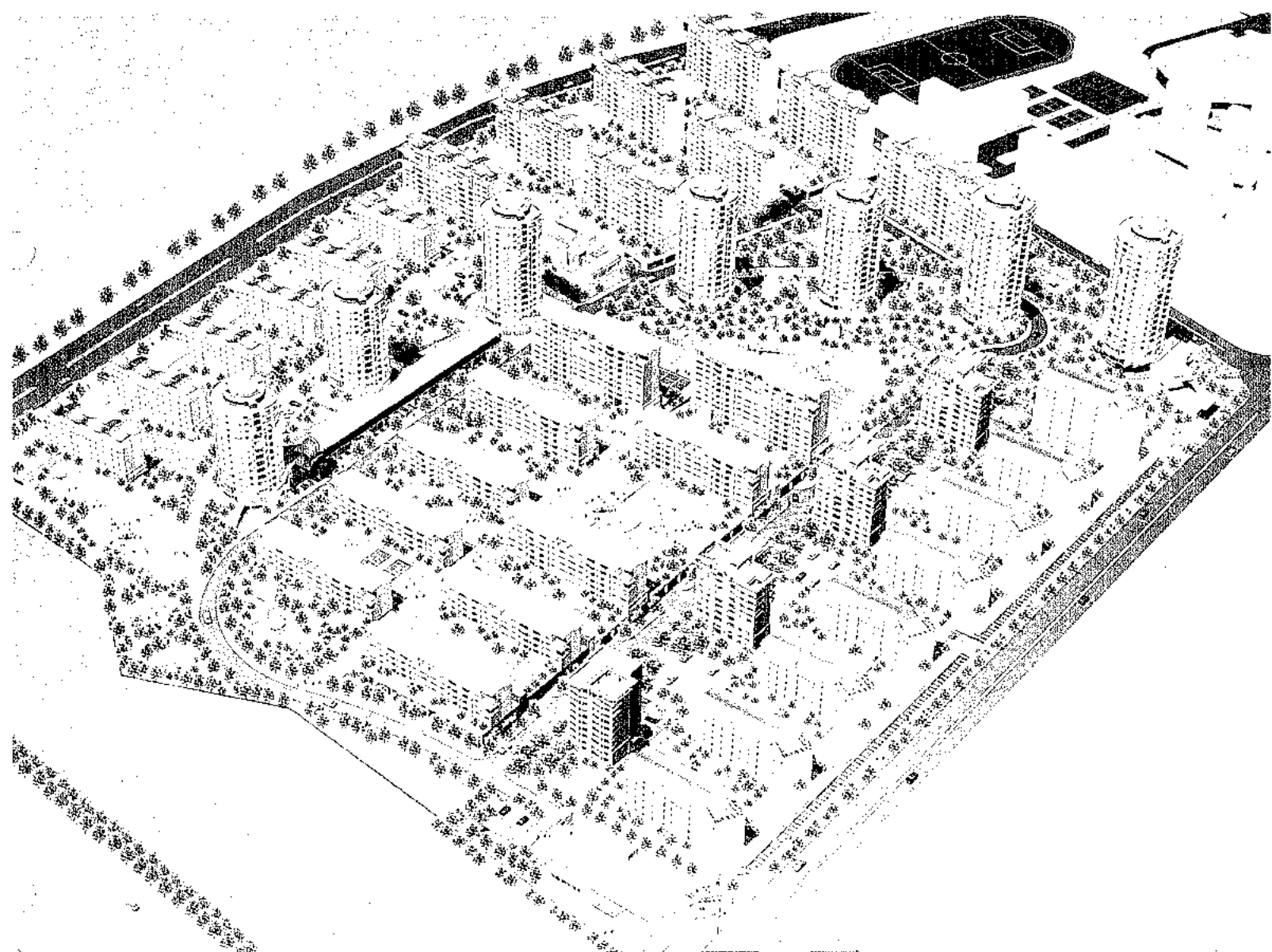
- I. 중국 청도의 도시와 건축
- II. 무영건축의 경험 (1)
- III. 무영건축의 경험 (2)
- IV. 중국 건설시장의 현황과 전망



많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되돌아 오지만, 한편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에 대한 관심을 단적으로 짐작하게 한다. 중국의 GDP(국내총생산)은 1978년 개혁 이후 22년간 연평균 9.5%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며, 2000년을 기점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 G7의 나라별 GDP규모가 대체로 1조 달러를 넘어선다는 것으로 이 수치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중국이 미국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에 대해, 지금과 같은 8%의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2050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보다 훨씬 이른 2020년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중국은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50년에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의 경제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아시아 경제위기 발생 이후 미국과 중국이 세계경제 속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뚜렷이 동반 상승했다는 것이다. 당시 일부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투기성 자금을 동원, 아시아 금융위기를 고의로 터뜨렸다는 소위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어쩌면 세계경제가 조만간 미국과 중국의 '쌍궤'에 의해 움직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청도는 이러한 중국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이며, 이미 지난 호에서 청도의 경제상황과 역사, 그리고 도시와 건축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는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의 합자회사 설립과정과 운영, 전망, 그리고 진행 프로젝트를 소개할 것이다. 먼저, 합자회사인 TMI의 설립과정과 운영, 그리고 첫 프로젝트인 양광해안 주거단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양광해안 주거단지 조감도

TMI의 설립과정

무영건축의 안길원 대표는 지난 1988년부터 매년 중국을 방문해 왔다. 그가 이처럼 중국에 관심을 갖게 된 요인으로, 이미 그 당시 식생활 문제가 해결되었고 문화권이 동일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1998년부터는 지역명문 대학인 연변과학기술대학에 매년 1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등 중국과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였다.

2000년 여름, 국내 컨설팅 업체인 K&C는 중국 천태그룹의 의뢰를 받아 협력관계를 맺을 국내 설계사무소를 물색하였으며, 중국시장에 대한 열정과 여러 관련분야 인사의 추천으로 무영건축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Tiantai Group(天泰集團)은 청도에 소재하고 있는 개발 업체로, 청도시 국제청 건설을 통하여 중국 최고의 건축상인 료반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의 건설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그 동안 캐나다의 설계사무소와 설계용역 계약을 맺었으나 지리적 거리차와 문화적인 이질감 등으로 인해 국내 설계사무소를 합작기업 대상으로 찾게 되었다고 한다.

2000년 10월, 천태그룹은 양광해안 주거단

지의 개념설계를 요구하였으며, 무영건축은 풍부한 국내 주거 계획 경험을 반영하는 동시에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중국의 주거문화를 이해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계획안에 대한 만족으로 천태그룹이 합자회사 설립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이다.

2001년 2월, 무영건축과 천태그룹은 서울에서 합자회사 설립 의향서에 서명하고, 합자회사명을 'TMI'로 정하였다. TMI는 'Tiantai Mooyoung International'의 머리글자이며, 공식 명칭은 'Tiantai Mooyoung International Design & Consulting'이다. 행정적인 등록절차가 순조롭지 않았기에 2001년 8월에서야 합자회사 등록을 마치게 되었다. 설립기념식은 청도에서 진행하였는데, 이 자리에 청도시 부시장을 비롯하여 지역 언론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TMI의 운영

TMI는 천태그룹의 '시장'과 무영건축의 '기술'을 상호 보완시킨 형태이다. 합자회사의 조직은 기존 천태

그룹의 시장부를 모체로 하며, 경영진 구성은 천태그룹이 사장을, 무영건축이 부사장을 각각 추천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이미, 지난 8월에 첫 이사회를 청도에서 개최하여 경영진 임명을 승인하였으며, 파견직원의 대우문제와 같은 민감한 현안을 처리한 바 있다. 현재는 무영건축의 건축사 한명이 부사장으로 파견되어 있다.

개발업체인 천태그룹은 TMI에 설계용역을 전적으로 맡기는 동시에, 여타 건설개발의 설계용역도 주선하게 된다. 무영건축은 TMI의 프로젝트 중에서 대규모의 설계를 담당하며, 업무 범위는 기본 계획안에서부터 실시설계 이전 단계까지이다. 그런데, 계약서에도 명시된 바, 무영건축은 TMI의 설계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점진적으로 국내에서 작업하는 업무량을 줄여나갈 것이다. 이는 합자회사 설립의 기본 취지이기도 하지만, 적은 설계비용으로 전체 설계작업을 국내에서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합자회사의 자본금은 20만 달러이며, 무영건축과 천태그룹, 그리고 K&C는 운영 이익금을 일정 지분에 의해 나누어 갖게 된다. 또한, 설계비용의 일정 부분을 TMI의 지분으로 책정하여 합자회사의 운영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익분배 방식은 합자회사 설립에 참여한 무영건축과 천태그룹, K&C, 그리고 합자회사인 TMI가 프로젝트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편, 계약서 내용에는 설계비와 설계면적이 언급되어 있는데, 설계비는 건축물의 용도와 수주 여건에 따라 이사회에서 협의하며, 설계면적은 TMI로부터 2001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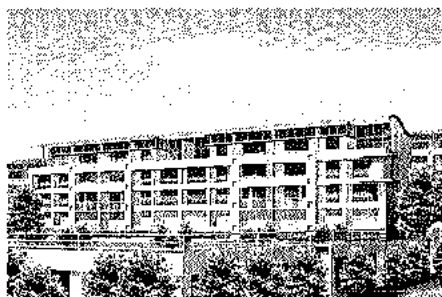
약 15만평 이상, 2002년에 약 21만평 이상, 2003년에 약 30만평 이상이 될 예정이다.

설립과정 및 운영의 난제

TMI는 그 설립에 있어서 무영건축과 천태그룹의 신뢰를 중시하였고, 운영에 있어서도 합자회사의 이익을 양 사의 이익에 우선하는 유연성을 기반으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례가 없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 밖에 없었다.

우선, 합자회사를 등록하는 일 자체가 가장 힘든 일이었다. 외국 설계사무소와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일이 산둥성 정부로서는 처음의 일이었기에 행정적인 절차가 순조롭지 않은 않았다. 통상적으로 2개월이면 충분한 등록기간이 4개월이나 걸렸던 것이다.

합의한 용어와 업무방식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예컨대, 업무 범위에 있어서 '무영건축의 업무 범위는 실시설계 이전 단계까지'라고 합의하였으나, 기본계획을 마칠 무렵에는 중국의 '실시설계 이전 단계'의 업무범위가 국내 실정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문제로 계약서 협의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또한, 건축 허가와 심의 제도의 차이점 때문에, 일정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불필요한 작업을 반복하는 일도 많았다. 특히, 지적도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지적도를 받고서는 배치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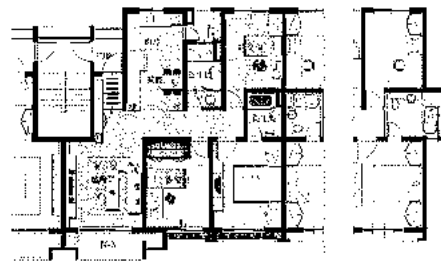
중국의 건설방식과 그 사용자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일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 예를 들면, 중국의 건물에는 평면과 입면에서 원형이 많이 사용되고, 입면과 지붕의 조형물은 작위적이고 과도하기까지 하다. 이 때문에 직선형의 계획안에 대해서는 미학적인 관점이 다르다며 부드러운 이미지를 요구하기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의 입면 및 지붕계획에 대해서는 시공비용을 고려하여 획일화 또는 단순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계획하는 건축물이 중국의 시공 기술과 미학적 기준 그리고, 생활 양식에 적합한 것인지 항상 자문할 필요가 있으며, 때로는 현재 자국의 건축 형태에 익숙한 그들에게 다소 이국적인 형태 미학과 시공 방법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소개

(1) 양광해안 주거단지

위 치 : 중국 청도시 황도구
 대지면적 : 160,733 m²
 연 면 적 : 167,929 m²
 용 적 륜 : 115%
 규 모 : 지상 4층~18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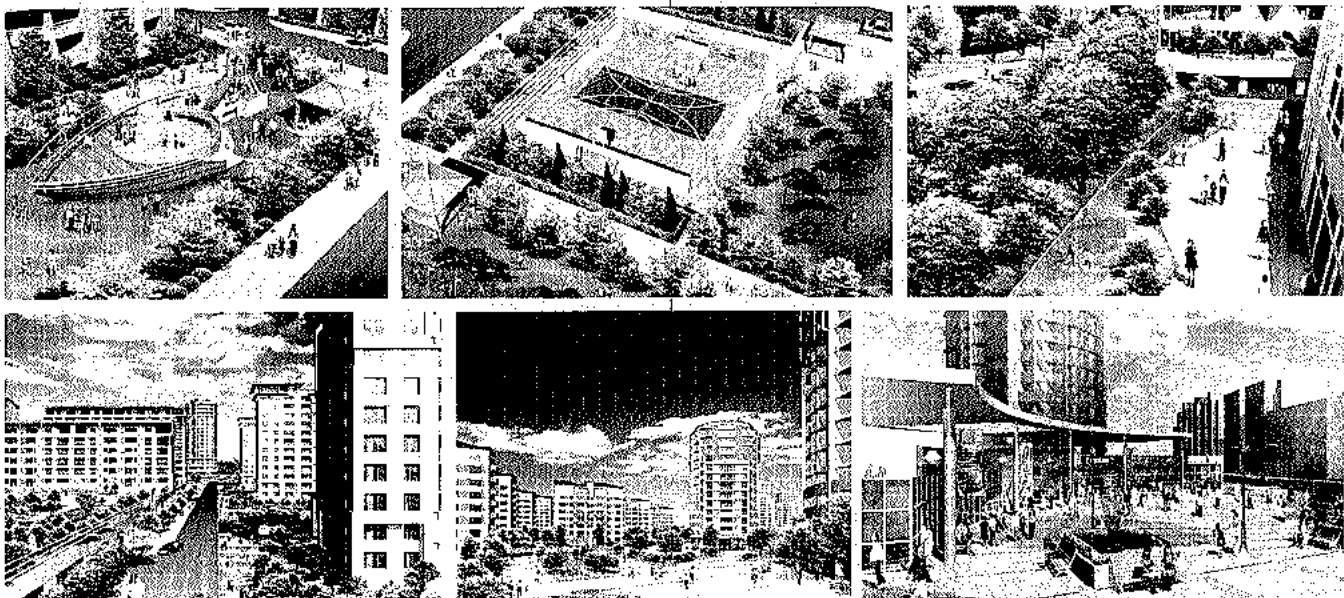


양광해안 주거단지 단위세터 평면도

양광해안 주거단지는 무영건축이 청도에 진출한 첫번째 프로젝트로서, 앞에서 언급했던 각종 시행착오를 가장 많이 경험하게 하였다.

이 주거단지 계획의 주요 개념은 다음의 세 가지였다. 즉, 주변의 도시맥락을 고려한 도심주거단지 계획,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 친환경 주거단지 계획, 중국의 주거문화를 반영한 주거유형 제시 등이다.

주거단지 건설은 대지의 북동쪽에서 남쪽을 잇는 원형타워의 열을 기준으로 1기와 27로 구분된다. 일련의 원형타워의 열은 단지를 구분하는 상징축이자 북쪽의 커뮤니티 타시설, 공원과 남쪽의 경찰청, 시외버스 터미널, 쇼핑센터 등을 잇는 동선축이 된다. 단지의 외부공간은 중국의 전통 원림의 개념을 재해석한 Dragon Park에서 시작된 수공간과 다양한 개념의 외부공간으로 구성되며, 잔디블록을 이용한 프로그램 주차장, 지형차를 활용한 데크시스템 등이 적용되었고, 중수 이용과 태양열 활용 등과 같은 친환경 요소가 반영되었다.



양광해안 주거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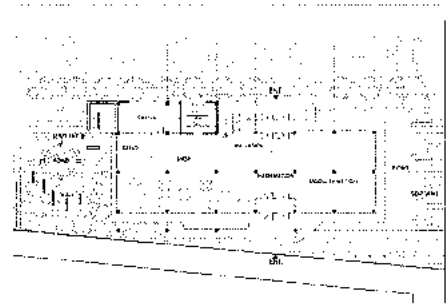
타워형과 판상형을 혼용한 주동계획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와 높이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였고, 필로티 공간을 마련하여 거주자의 휴식과 보행동선의 연속성을 확보하였다. 단위세대는 10개 유형이 있는데, 주간 영역과 야간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면을 구성하였다. 또한, 1층 세대를 위한 전용출입구, 전실, 화단, 다락방 등 중국에서는 새로운 요소를 적용하였다. 대지의 동측과 서측에는 선형의 가로상가를 두어, 단지의 외부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는 동시에 도시가로를 활성화시키는 요소로 계획하였다.

(2) 양광해안 주택전시관

위 치 : 중국 청도시 황도구
용 도 : 모델하우스/관리사무소
대지면적 : 978 m²
연 면 적 : 1,532 m²
규 모 : 지상 3층
외부 마감 : 알루미늄판넬, 투명복층유리

양광해안 주거단지의 모델하우스로 사용되며 주거단지가 완공되면 관리사무소와 주민 편의시설로 쓰일 본 건물은 가변적인 공간구성과 효과적인 진시계획 그리고 천테 그룹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간결한 대공간으로 실을 계획하여 경량 간막이에 의해 자유롭게 공간구성이 되도록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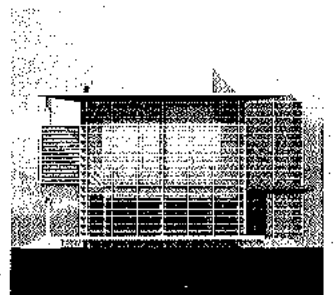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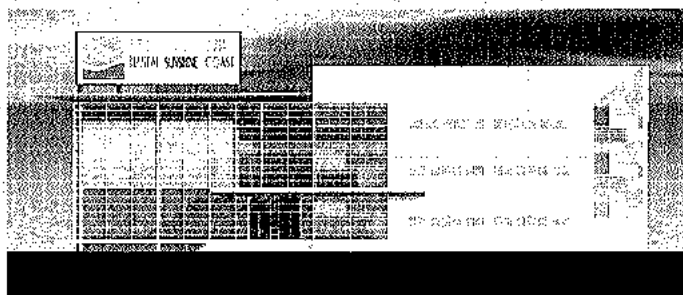


양광해안 주택전시관 1층 평면도

였고, 모델하우스로 사용할 경우에는 간선 도로측이 정면이 되고 분양 후 관리사무소로 사용할 경우에는 단지측이 정면이 될 수 있도록 양면에 정면성을 부여하였다.

보통의 경우 모델하우스가 실내만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 본 계획은 주거 단위세대 외관과 1층의 단지 전체 모형까지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주거단위세대와 모형전시 공간 둘레를 투명유리 커튼월로 감싸는 디자인을 하였다.

이러한 유리커튼월을 통해 천테그룹의 투명한 기업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유리커튼월 위에 떠있는 듯한 웅장한 지붕을 계획하여 주거단지의 고품격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지붕은 전통 중국건축의 현대적인 인용이며 건물 주변의 데크계획과 연못은 중국 원림건축의 낭만을 표현한 것이다. ㉠



양광해안 주택전시관

건축계소식 / 80

해외잡지동향 / 84

현상설계경기 / 90

2001 건축가 미술전 / 112

건축계소식 archi-net

주차장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세대당 1대로 강화

서울의 다가구, 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현행 세대당 0.7대에서 1대로 대폭 강화된다. 또 도시계획시설인 노외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부대시설을 현행 유수지나 하천을 복개한 노외주차장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개정, 앞으로는 유수지나 하천을 복개한 노외주차장에서는 이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지난 12월 1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31일까지 의견조치를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전화(02-3707-9794)나 팩스(02-3707-9809) 또는 이메일(sinsun@seoul.go.kr)로 내용을 전달하면 된다.

주차장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2월 10일

문화개혁시민연대 공간개혁위원회는 건축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관심을 통한 공간환경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건축네트워크'라는 의

사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12월 10일 발족식을 갖고 정식 출범한 이 모임은 상식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낭비적인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뤄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민관 협력을 통해 행정 분야의 부족한 전문인력 및 지식을 지원하며, 단계적으로는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사, 제기하여 전문인력 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제공함으로써 도시건축 환경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의: www.spaceNGO.net

02-773-7707

제1회 '추모의 집' 설계 현상공모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국장묘문화개혁신국민협의회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1회 '추모의 집' 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한다. 장묘시설로서의 '추모의 집(납골시설)'에 관한 창작으로 하되 우리나라 장묘문화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도시나 산지 등 장소와 구조물의 형태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며, 부지면적 및 규모는 주변 납골 수요 예측에 따라 타당성 있게 선정하되 건축으로 할 시에는 대지면적 2,000평 이내에서 자유롭게 구상하면 된다. 출품자격은 전국대학교(2년제포함)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200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이고, 참가원서는 2002년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하며, 작품은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받는다.

문의: www.jangmyo.or.kr

02-765-8111

2001인천시건축상

최우수상에 연수구청사

2001년도 인천시건축상에서 공공건축물 부문 최우수상에 지역주민을 위한 중심공간으로서 사용자 편의성을 도모한 공간구성이 호평을 받은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연수구청사(변 응, 원도시건축)」가 선정됐다. 이 외에 공공건축물 우수상에는 「인천부흥초등학교(이응선,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기획)」, 일반건축물 우수상에는 「강성교회(황순우, 건축사사무소 바인)」와 「이오빌딩(김기영, 모토건축사사무소)」이 선정됐다. 그리고 주거건축을 장려상으로 「기차길옆 공부방(이일훈, 건축사사무소 후리)」이 선정됐다. 이번 행사는 2001인천건축도시주간 행사의 연계로 지난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인천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됐다.



공공건축물 최우수상(연수구청사)



공공건축물 우수상(인천부흥초등학교)



일반건축물 우수상(강성교회)

파주출판도시 2차 건축전시회

2002년 1월 15일까지

파주출판도시 2차 건축전이 파주출판도시 인포룸에서 2001년 12월 15일부터 2002년 1월 15일까지 열린다. 2000년 12월 1차 전시회가 출판도시의 건축유형 소개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전시회는 그간의 진행을 점검하고 도시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기획된다. 한편 지난 12월 14일 공동성의 가치라는 주제로 국외 건축가를 초빙한 국제심포지엄이 연세대 공학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제10회 태양열건축설계 공모전

최우수상에 「내츄럴 디자인 - 우리 마을을 위한 디자인」

한국태양에너지학회가 주관하는 태양열 건축설계 공모전이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동민회관'을 주제로 개최되어 심사결과 최우수상에 김병준, 한 군(아주대)의 '내츄럴 디자인 - 우리 마을을 위한 디자인'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이동훈, 안병익, 이효대(충북대)의 '지역 커뮤니티의 오픈 스페이스', 박성민, 손정화, 오정욱(울산대)의 '자연의 힘속으로', 신동수, 이도학, 김영기(울산대)의 '유기적 동선', 정석현, 김대성, 김진수(세명대)의 '어번 커뮤니티' 등 4점이 선정됐다. 그 외 기작 6점, 장려상 13점이 각각 선정됐다.

'도시건축을 통한 도시르네상스' 세미나 개최

스리랑카건축사협회 2002정기총회 때

스리랑카건축사협회는 2002년 정기총회를 2002년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BMICH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스리랑카건축사협회는 이 기간중에 해외 유명 건축사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2월 22일 Colombo Colloquium에서 '도시건축을 통한 도시르네상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초청연사는 다음과 같다.

초청연사 :

Prof Amos Rapoport (Distinguished Professor Emeritus, School of Architecture & Urban Planning, University of Wisconsin, Milwaukee, USA)

Arch Josep Acebillo Marian (Chief Architect, Barcelona City Council, Spain)

Archt Manuel Ar. Guzanon (Vice President, UAP Area C, Philippines)

Dr Nihal Perera (Associate Professor, Director Cap Asia, College of Architecture & Planning, Ball State University, USA)

Dr Ranjith Dayaratne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Bahrain, Bahrain)

Dr Harsha Munasinghe (Centre for Urban & Regional Planning, 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 Finland)

Archt Madura Prematillake (Senior Lecturer, University of Moratuwa, Sri Lanka)

참가신청 및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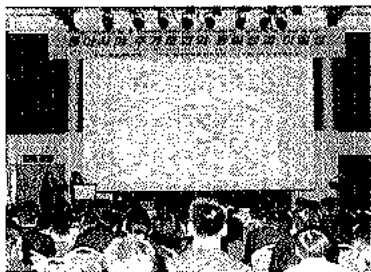
스리랑카 건축사협회(Sri Lanka Institute of Architects)

120/7, Vidya Mawatha, Colombo 7

Phone : (94-1) 697109
Fax : (94-1) 682757
E-mail : sliagen@sltnet.lk

2001 동아시아 주거문화 국제학술심포지엄

'동아시아 주거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 을 주제로



지난 11월 23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2001 동아시아 주거문화 국제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대한건축학회가 주최하고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가 후원하며, 인하대학교 건축학부가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국내외 학교 및 건축설계사무소, 각 연구소 등 관련 분야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배 국제학술심포지엄 준비위원장(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의 개회사와 노건일 인하대학교 총장, 정재철 건축학회 회장, 안길원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국내외 학자 7명(한국 3인, 중국 2인, 일본 2인)의 논문 발표로 진행되었다. 이 국제학술심포지엄의 목표는 동아시아 한, 중, 일 3개국의 주거문화를 비교 분석하여 건축행위의 출발점이자 궁극적인 목표로서의 주거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는데 있다. 이미 인하대학교 건축학부는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의 후원으로 국내 건축과 교수들과 더불어 중국 내 조선족 주거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하여 국내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자생적인 민가에 대해 실시간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적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국내 자료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한 우리 민족의 주거문화에 대한 연구를 한 차원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동아시아 범위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동아시아 주거문화에 대한 국내 연구사례와, 중국의 러우칭시 교수의 중국내 주거문화 연구, 일본의 아사카와 시게오교수의 선사주거에 관한 연구, 안도 구니히로교수의 일본민가 연구, 김준봉교수의 중국 연변의 조선족 주거에 관한 연구 등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주거문화의 특성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향후 이상적인 주거문화의 창출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제8회 청암건축사진아카데미

2002년 2월 6일부터

제8회 건축사진아카데미가 청암건축사진연구소(대표임정의)에서 개최된다. 건축과 관련된 실무자들을 위한 이 강좌는 여러가지 기능가운데 사진의 역할이 건축작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간 : 2002년 2월 6일~4월 24일 (12주)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8시30분

장소 : 서울 광진구 구의동 206-2호 / 청암연구소 (02-2201-6610)

인원 : 12명(선착순 온라인으로 입금된 분)

비용 : 30만원(외환은행 024-18-29934-0 임정의)

신청 : 온라인 입금후 이름,주소,연락처 등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됨

imfoto@hanmail.net

준비물 : 카메라와 삼각대

일정 및 내용

- 1- 2월 6일 - 건축을 보는 눈 (건축사진의 전반적인 이해)
 - 2- 2월 12일 - 건축사진의 이해 (각종 주제들의 촬영방법)
 - 3- 2월 19일 - 빛의 이해 (자연광과 인공광의 색조정의 변화)
 - 4- 2월 26일 - 건축사진의 표현과 테크닉 (테마별 촬영기법)
 - 5- 3월 2일 - 건축물 촬영실습 (토요일 오후 3시~8시까지 고건축과 현대건축촬영실기)
 - 6- 3월 5일 - 각종 건축물의 촬영방법 (각종필터의 이용과 인테리어촬영방법)
 - 7- 3월 12일 - 모형촬영이론과 실습 (준비물과 조명방법에 따른 촬영실기)
 - 8- 3월 16~17일 - 건축답사실습촬영 토요일출발-일요일까지 (1박2일)
 - 9- 3월 19일 - 흑백작품사진의 표현방법(흑백필름 현상 및 각종 흑백사진의 표현기법)
 - 10- 3월 26일 - 흑백사진 테크닉-1(버닝과 닷징기법)
 - 11- 4월 2일 - 흑백사진 테크닉-2(축소 확대에 따른 인화방법)
 - 12- 4월 9일 - 포트폴리오 제작 및 총평
- * 현대건축촬영과 건축답사 장소는 추후결정

신간안내

건축이라는 우리들의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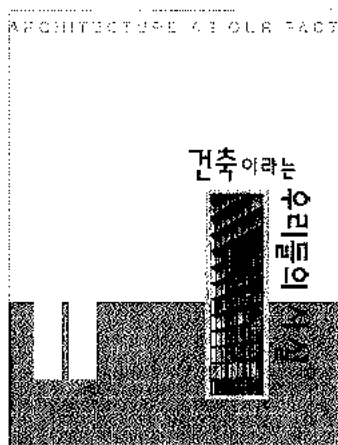
◇ 건축이라는 우리들의 사실

처음 시작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것과 관련된 숙담이 많은 만큼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건축이라는 한 분야에서 수 천년 이상 축적된 많은 건축 지식들을 책을 통해 건축에 첫발을 내딛는 입문자가 짧은 시간안에 두루 느끼게 하는 일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건축 입문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건축가들은 저마다의 특정한 분야에 집중해서 집필하는 경향이 농후한 실정이다.

이 책은 국민대학교 박길룡 교수가 건축학과 저학년생을 위해 자술한 것으로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 있다. 첫째, 건축은 사회속에서 주위와 어울리거나 배타적으로 자리잡으며, 그 사회를 나타내는 거울 역할을 한다는 명제를 독자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둘째,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동서양의 건축물을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해 주며, 현재의 건축이 어떠한 시간적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지 알려준다. 셋째, 공간, 형태, 구조, 빛, 재료, 장소 등과 같이 조형예술로서 건축을 아름답게 하는 수단을 이야기해 준다.

건축비평가로서 박길룡 교수는 이론가

로서는 드물게 낭만적 필치를 구사하며, 그의 이러한 점 때문에 그의 글이 난해하다고들 했다. 그는 이 책에서 기존의 현란한 어휘와 독특한 문체보다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집필해서 널리 유용하게 했다. 특히, 그가 즐겨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사실'이라는 말은 이 책을 통해서 그 의미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건축계에서 여러해 동안 요모조모 고민해 왔던 이들에게는 이 책의 내용이 빠르게 전개되어서 심오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건축에서 애그리거가 많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길룡 지음/ 304쪽/1만5천원/
도서출판 발인(02-929-3546)펴냄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당일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6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3425) · 강서구건축사회/(661-8809)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8-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6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8-5781) · 도봉구건축사회/(964-1253)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5)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66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7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영선구건축사회/(717-6807) · 은평구건축사회/(368-1486)
- 종로구건축사회/(737-3030)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0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8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39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3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0
- 오산건축사회/(031)375-8646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0-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6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8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5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3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3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3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3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신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김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52-8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3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8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8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시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3)85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a+u

신건축

Architectural Review

World Architecture

a+u

2001년 11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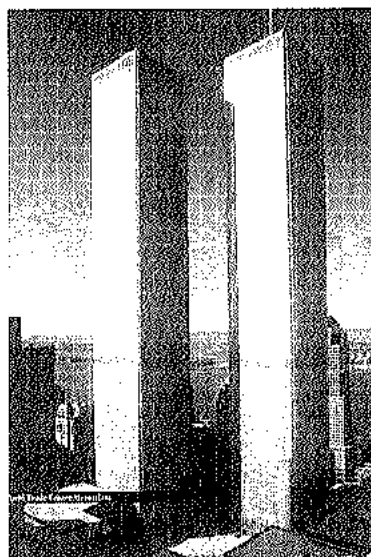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
는 자하 하디
드 (Zaha
hadid)의 작
품들을 특집
으로 다루고
있다. 피터 쿡
의 에세이와



1999년 이후 그녀의 최신작들 11개, 그
리고 그녀의 약력과 작품리스트들이 소
개되고 있다. 또한 지난 9.11 테러로 붕
괴된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빌딩에 대한
월드 트레이드 센터 메모리엄이 권두
에 실려 이 건물에 대한 건축가들의 기억
과 남다른 감상이 소개되고 있다.

■ 월드트레이드센터 메모리엄(World Trade Center Memoriam)

붕괴된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주임건축
가였던 미노루 야마시카가 설계 당시 남
긴 글과 그와 1950년대 중반 함께 작업
한 돈 히사카(Don M. Hisaka)의 야마
시카에 대한 회고는 붕괴된 건물이 미국
의 자존심이나 민간인의 대량 살상일 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만 아니라 정열적인 건축가의 소중한 작
품을 잃게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한다. 야마시카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두고 '무역은 세계평화를 의미하
며, 따라서 이 건물은 세계평화를 상징하
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소 감상에 젖은
발언이기는 하나, 테러로 인한 붕괴로 끝
을 맺은 건물의 운명과 비교해 볼 때 너
무니도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인 결말이
었음을 되새겨 준다. 돈 히사카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야말로 야마시카의 인간
미 넘치고 신사적인 품성이 그대로 담긴
건물이라고 하면서 테러의 비극을 더욱
안타까워하였다. 이밖에도 KPF의 대표
인 폴 카츠(Paul Katz)는 테러 사태 이후
고층 건물에 대한 공포심과 경계심에 대
해 초고층 건물이 여전히 미래의 도시생
활에서 수행할 역할에 대한 확신을 피력
했으며, 건축과 도시를 전문으로 하는 역
사가이자 스카이스크레이퍼 박물관의
창설자겸 감독인 캐롤 윌리스(Carol
Willis)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광경을 이
야기하며 도시의 나침반을 잃은 슬픔을
언급했으며, 뉴욕의 건축가인 엘리자베
스 딜러와 리카르도 스코피디오
(Elizabeth Diller and Ricardo
Scorfidio)는 붕괴된 건물을 재건하지 않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지워진 것
을 지워버리는 것 만큼 비극적인 것은 없
다고 하였다. 이러한 글들은 월드 트레
이드 센터의 당당한 모습과 그곳에서 움
직이는 수 많은 뉴욕의 사무원들의 분주
한 모습을 담은 흑백사진과 함께 소개되
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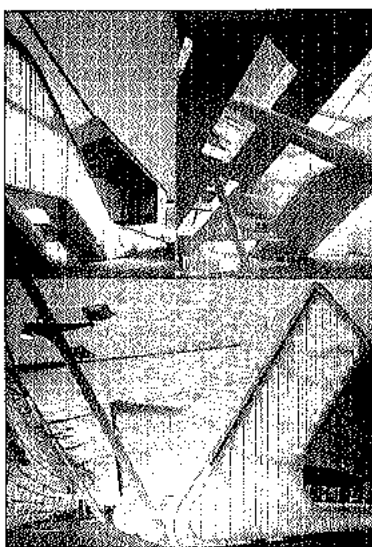
■ 특집: 자하 하디드(Zaha Hadid)

▶에세이: '자하하디드의 출현' - 피터 쿡
(Peter C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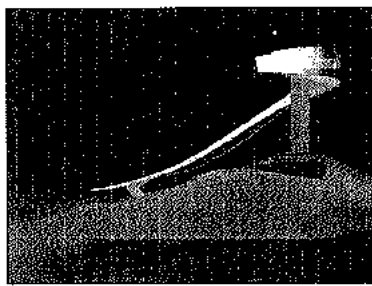
AA스쿨을 졸업하고 현재 바틀렛
(Bartlett)건축학교의 교수이자 학부장인
피터 쿡은 자하 하디드를 두고 건축계의
스티븐 부할의 기수로 칭하고 있다. 건축
이 존재하는 도시에는 대체로 대학이나
아카데미 등이 창설되어 그러한 곳에는

불문율과 같이 신처럼 추앙받는 인물들이 있다. 빈에서는 로스의 망령이 돌아다니고, 마드리드에서는 모네오, 일본에서는 단게의 영향을 뚜렷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젊은 건축가들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신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어왔다. 이 가운데 AA스쿨 출신의 젊은 건축가들이 자신의 개성을 유감없이 드러내며 주목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자하하디드를 꼽을 수 있다는 것이 북의 지적이다. 하디드는 레온 클리에에게 배웠으며, 림 콜하스와 함께 OMA의 결성멤버였다. 80년대부터는 OMA의 주체자 리스트로부터 노골적으로 제외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콜하스와 우정은 변치 않았고, 둘의 작품은 서로 종종 비교되며 건축계의 큰 주목을 받아왔다. 하디드와 같이 개성이 강한 건축가가 페이퍼 워크에서 실제로 실현되는 프로젝트를 맡게되고 구조기술자 피터라이스와의 협력 등 이제는 실제로 건설되는 다수의 작품을 보유하게 된 하디드의 궤적을 소개하고 있다.

▶ 소개된 작품들로는 이미 완공된 자하하디드 라운지(2001, 독일), 스트라스부르크 路面電車 터미널과 주차장(1999-2001, 프랑스), 마인드 존-밀레니엄 돔(1999, 런던), 빌라 메디치의 정원에서의 설치작업(2000, 로마) 등과 완공을 눈앞에 두고있는 볼스부르크 과학센터(독일, 1999-), 베르키젤 스키 점프대(1999,



마인드 존-밀레니엄 돔(1999, 런던)



베르키젤 스키 점프대(1999,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국립 소피아왕비 예술센터(1999, 마드리드), 왕실미술관(1999, 마드리드), 로마현대미술센터(1999), 로젠탈 현대미술센터(2001-2003, 미국), 살레르노의 페리 터미널(1999, 이탈리아)이다.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계획된 작품들은 주로 급이치는 선형의 매스들이 서로 얹히는 모습을 보여 그녀의



국립 소피아왕비 예술센터(1999, 마드리드)

초창기 때의 작품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가장 최근의 디자인인 로젠탈 현대미술센터는 앞으로의 새로운 변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작품으로 보여지지만 모든 작품에서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녀의 성향은 변함이 없다.

신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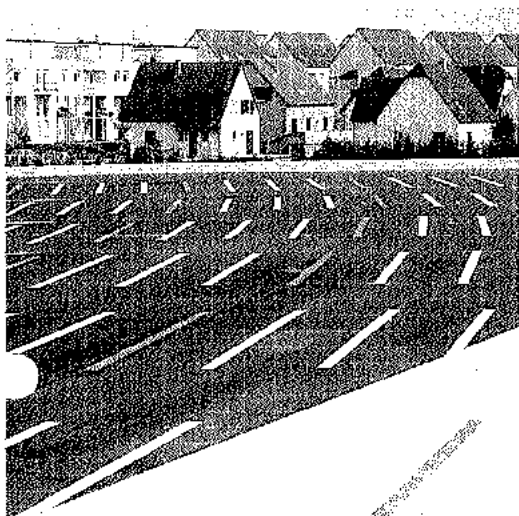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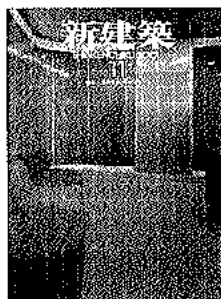
2001년 11월호

특집 기사를 자주 다루지 않는 신건축에서 '진화하는 워크플레이스(workplace)'라는 특집을 마련하였다.

변화해가는 사무공간의 이모저모를 사무가구의 디자인에서부터 오피스 빌딩의 설비와 계획, 인테리어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다루고 있다. 최신 작품의 소개로는 나이토 히로시의 린리(倫理)연구소의 후지고원연구소가 목조천장의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소개되었고, 안도 타다오의 오오사키부립 시야다이케(狭山池)박물관 등이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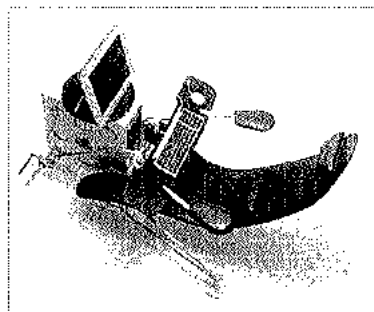
■ 특집: 진화하는 워크플레이스

이번 특집에서 다루는 내용은 정말로 다양하다. 먼저 '2003년의 오피스 공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기사로 시작되는 특집은 2003년까지 완공될 동경에 완공될 오피스들의 기준층평면들과 각종 통계자료의 그래프로 서두를 장식하고 있다. 이어서 '변형도상의 워크플레



스트라스부르크 路面電車 터미널과 주차장(1999-2001, 프랑스)

이스'라는 기사에서는 비즈니스 인프라로서 오피스가 갖는 중요성과 오피스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실험되고 있는 논테리토리얼(non-territorial) 오피스 등 새로운 오피스문화와 물리적 환경 개선 운동들이 소개되고 있다. 지난 2001년 2월에서 4월까지 뉴욕의 MoMA에서 열린 전시회 'workspheres, design and contemporary work styles'의 내용을 두고 MoMA의 건축·디자인 부장이자 위 전사의 큐레이터였던 파올라 안토네티와 켄 타다시 오오사마와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으며, 이밖에도 IT화에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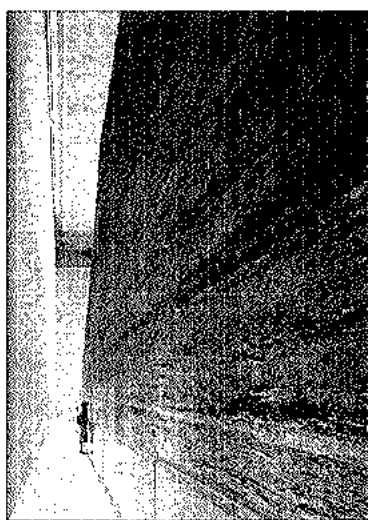


파올라 안토네티와 켄 타다시 오오사마와의 인터뷰

반되는 인프라정비의 현장, 쿼터스켈리톤이라는 발상, 바람이 통하는 워크플레이스 등 오피스의 물리적 환경의 질을 좌우하는 건축설계분야의 기사들이 다수 게재되었다. 실제 작품 소개로는 클라인 다이썸(Klein Dytham)아키텍츠의 gin-gin wing(버진아틀란틱항공 오피스)과 와쿠와쿠 사바쿠(신명나게 팔아치운다는 말-譯註, AMP오피스), 오르피(Orfi) 아키텍트 앤 디자인의 일본 휴렛팩커드 이치가야 오피스와 어빅스, 이이다 토시마로의 오피스 TAS 등 소개되었는데, 오피스 빌딩 전체가 아닌 사무공간에 초점을 맞춘 특징인 만큼 사무공간조직의 개념과 인테리어 디자인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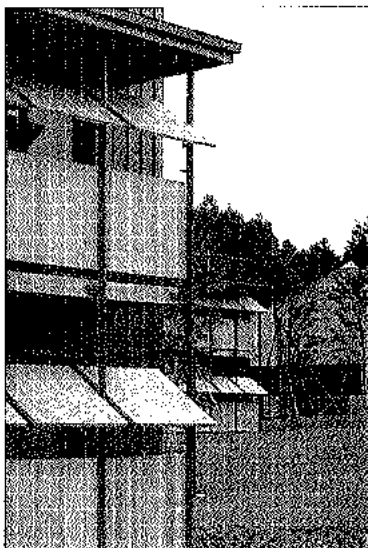
■ 최신작 소개

▶안도 타다오의 오오사카부립 사야마이케(狹山池)박물관
일본 최고(最古)의溜池인 사야마이케(狹山池)의治水공사가 행해진 1993년,



안도 타다오의 오오사카부립 사야마이케(狹山池)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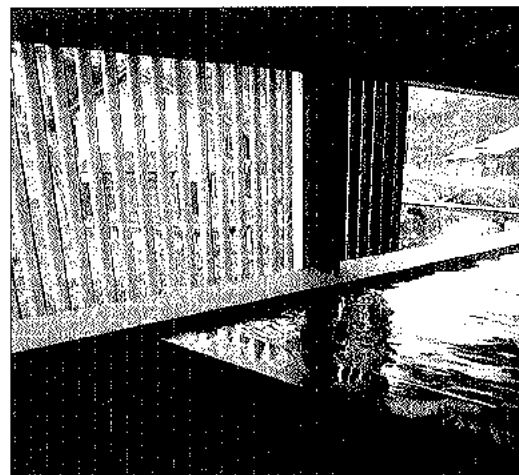
鎌倉시대의 유적이 출토되었으며, 이 지역의 재조사결과 제방의 단면에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에 걸쳐 행해진 개수공사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에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할 박물관을 세우기로 오오사카부가 결정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건물은 연못의 가장자리에 세워졌으며, 연못과 관련된 건물인 사이트인 만큼 안도타다오의 물을 이용한 공간연출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전사물의 가장 큰 볼거리이자 이 건물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은 제방의 단면을 얇게 썬 조각을 세워 전시한 공간으로서 이 얇게 세워진 흙덩어리를 위해 거대한 상자모양의 전사공간이 만들



나이토 히로시(内藤廣)의 린리(倫理)연구소의 후지고원연구소

어졌으며, 인도가 즐겨쓰는 램프에 의한 공간연출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나이토 히로시(内藤廣)의 린리(倫理)연구소의 후지고원연구소(사진10)는 목재를 주된 구조체와 내·외장재로 사용하면서 철제 강판을 외피에, 노출 콘크리트를 내부에 혼합하여 건물을 구성하고 있다. 건물은 2층으로 구성되어 'ㄷ'자형의 평면형태를 띠며 침엽수림으로 둘러싸인 초지(草地)위에 넓게 펼쳐져 있다. 나이토는 이 작품을 통해 건축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형태에서 구축에 대한 문제로 돌리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목조 부재의 결구방식 등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쿠마 겐코(常研舎)의 '시로가네湯'은 간산(銀山)은 천지대의 지극히 작은 규모의 공중목욕탕으로서, 벽체의 일부분을 목재 루버로만 처리, 노천탕의 느낌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혼(日本)설계의 '氷生生物保存센터'는 외벽을 와이어메쉬로 된 박스에 식물과 암석을 채워 넣어 상징성을 강조하였다.



쿠마 겐코(常研舎)의 '시로가네湯'

Architectural Review

2001년 9월호

최근 완공된 대형 프로젝트인 Alexandria 도서관 계획을 검토하면서 예술과 공공성 문제를 돌이켜 보고 있다.



■ 예술과 공공성

예술을 위한 건물은 개인과 사회의 미묘한 관계들의 직조물이며 그것을 설계하는 것은 건축가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임무이다. 인터넷과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에 의해 도서관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과 그 안에 채워지는 책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문화는 지식의 단순한 축적이나 조합이 아니라 보다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 Snøhetta의 Alexandria Great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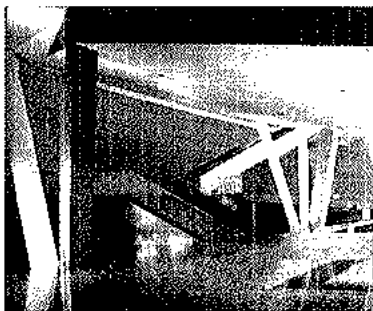
디자인의 기본 계획은 매우 단순하다. 거대한 은색 원판이 도서관의 경사진 지붕을 이루는 형태로, 원형 평면으로 이



Snøhetta의 Alexandria Great Library

뤄져 있다. 도서관의 원형 평면은 Sydney Smirke의 영국 박물관 도서관과 Erik Gunnar Asplund의 스톡홀름 시립 도서관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보다 훨씬 큰 규모이며, 전혀 다른 컨셉을 가지고 있다. Bentham의 판옵티콘에서 제시된 감시의 가장 효율적 형태로서 원형이 채택된 여타의 도서관과는 달리 이 도서관은 반경 160m에 달하는 거대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자리를 점유하여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거대한 규모와는 대조적으로 내부의 가느다란 기둥다발과 계단식 열람실 등은 인간적 스케일에서 조직되었다. 고대이집트의 로투스 형식의 기둥과 형태적 유사성을 갖는 주두 형태는 직접적인 유추라기보다는 구조, 기능적 요구에서 나온 자연스런 결과라 할 수 있다.

▶ Bolles+Wilson의 로테르담 Theater



Bolles+Wilson의 로테르담 Theater

시 중심부의 낡은 항구가 발전해 나가면서 문화적 시설의 증설이 필요함을 깨달은 로테르담시는 1996년 주변 방파제 지역의 복구와 선박출입 통제 타워계획안을 포함하는 현상설계를 개척하였다. 음악당과 타워는 각각 대조적인 스케일과 기능으로 짝을 이뤄 라인강 하부에 새로운 시티스케이프를 만들고 있다. 대지는 다소 협소한 면적이었지만 오디오 리움을 대지에서 들어올리고 포이어에 이르는 수많은 계단이 관객들의 이동을 수월하게 하고 있다. 각각 원하는 방향에 따라 놓여진 계단을 따라 그들이 원하는 객석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새로운 의 원리와 수법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전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남측면을 따라 감아올라가는 램프이다. 바닥면에 가까이 찢어진 슬릿창으로부터 들어온 빛이 램프면을 밝게 비춘다. 각 공간의 시간적 경험은 다양한 크기의 창과 세심한 프레이밍에 의해 한층 풍부함을 얻는다.

그밖에 ▶McCullough Mulvin의 아일랜드 Sligo Art Gallery ▶Heikkien Komonen의 헬싱키 Audio-visual Center ▶Sverre Fehn의 노르웨이 오슬로 Ørsta Museum ▶John McAslam의 모로코 Volubilis 관광안내소 등이 소개되었다.

■ Archiprix International

네덜란드 국내 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Archiprix가 그 대상을 넓혀 Archiprix International로 작품을 공모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행사의 목적은 각 학교 간 상호 교류를 넓히고 젊은 디자이너들의 관심주제들을 표출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각 학교들의 우수 졸업작품을 제출, 전시하며, 건축교육과 사회에서의 건축의 위상 등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심사위원들은 지역적이고 토착적인 문제보다는 세계적인 관심을 제시하는 보다 보편적인 사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9개의 우수작품을 선정하였다.

■ 재료 탐구 -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의 토코 Hermes Building 이 건물에 대한 영감은 상업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보다 문화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건축주인 Hermes사의 장인 정신과 최고 품질의 추구라는 원칙이 그 저변에 깔려있다. 유리 불럭으로 이뤄진 외피는 지상 2층부터 건물전체를 감싸고 있지만 그것을 지지하는 구조재가 보이지 않음으로써 중력의 존재를 의심케 한다. 가로세로 450mm크기의 유리 불럭은 이 건물을 위하여 특별히 주문 제작되었다.

World Architecture

2001년 10월호

100호 특집으로 마련된 이번 호는 스위스의 최신 건축 작품과 아울러 최근 지어진 새로운 형태의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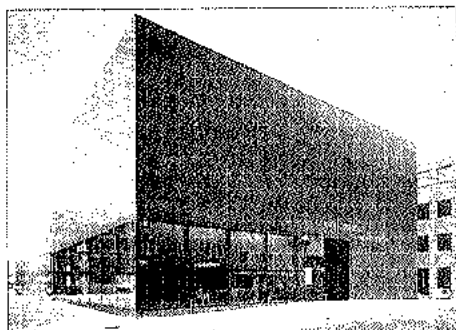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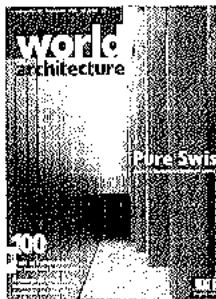
건축도 소개하고 있다.

■ 스위스 최신 작품 소개

최근 스위스 출신으로 국제 건축계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Herzog & de Meuron이지만, 이외에도 많은 젊은 건축가들이 스위스 건축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 있다. Herzog & de Meuron의 스위스 바젤 St. Jakob 스타디움을 비롯하여 다른 몇 작품을 들여다 보았다.

▶Morger Degelo and Kerez의 리히텐슈타인 미술관

검정색 외관이 매우 인상적인 이 미술관은 40cm 두께의 콘크리트 벽으로 지어졌다. 숲과 철성분의 시멘트와 현무암이 혼합된 골재가 건물 특유의 색을 만들어내었다. 방문자가 예술과 단돌이 있게 하는 것이 건축가의 주된 의도였다. 건축가는 보여주기 위한 모든 기술적인 조작들을 원하지 않았다. 건축이 예술과 방문자와의 관계사이에 끼여들



Morger Degelo and Kerez의 리히텐슈타인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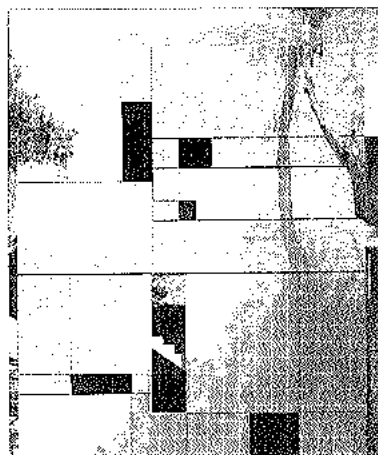
지 않아 방문자가 그곳을 떠날 때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생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이기도 하였고, 그 결과로 인테리어는 매우 단순하다.

▶Béatrix & Consolascio Architekten의 스위스 Zug 스포츠센터

노출 콘크리트를 이용한 회색과 노란색의 목재 및 도장을 이용한 색채 계획이 특히 두드러진 이 작품이다.

■ 주택

최근의 공동 주택 작품으로 ▶WoHa Architects의 싱가포르 세 주택, ▶Josep Lluís Mateo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신창 부근 공동 주택, ▶Jones Coulter Young의 오스트레일리아 Perth 기숙사 리노베이션이 소개되어 있다.



Jones Coulter Young의 오스트레일리아 Perth 기숙사 리노베이션

■ 루이스 칸

World Architecture 100호와 더불어 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Louis Kahn's Situated Modernism의 저자 Sarah Williams Goldhagen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전후 나찌즘의 멸망, 냉전 시대, 미 중산층의 소비주의 확산 속에서 건축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려고 했던 칸의 의도를 그의 작품과 연결해 검토해보았다.

■ 교토 의정서 이후의 건축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각 나라 정부의 합의하에 체결된 교토 의정서가 취지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건축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실질적인 공해의 감소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 기후에 대응하는 건축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거대한 태양열 반응 지붕을 가진 양골라의 Agostinho Neto 대학 등을 소개하면서 공학적으로 고려해야 할 측면들을 검토해보았다.

■ 기타

▶파리에 지어진 Herzog & de Meuron의 첫 작품, ▶Arup의 런던 템스 강 보행자용 다리 계획, ▶4년 반 동안 시공된 네덜란드의 유리 주택 Laminata 완성 소식, ▶Michael Wilford의 신작인 독일 Melsungen Braun사 본사, ▶환경 건축가 Bill Dunster와의 인터뷰, ▶Burley Katon Halliday의 요트 인테리어 계획, ▶최신의 화장실 설비 제품들이 소개되어 있다.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속초시립민속박물관 / 90

강원지방경찰청사 / 96

중앙대학교 복합건물 / 102

군산항국제연안여객선터미널 / 106

속초시립민속박물관

Popular Customs Museum
of Sokcho

▶ 당선작 / 한인건축사사무소
(이관영 · 이상래) + 시공테크
+ 삼성에버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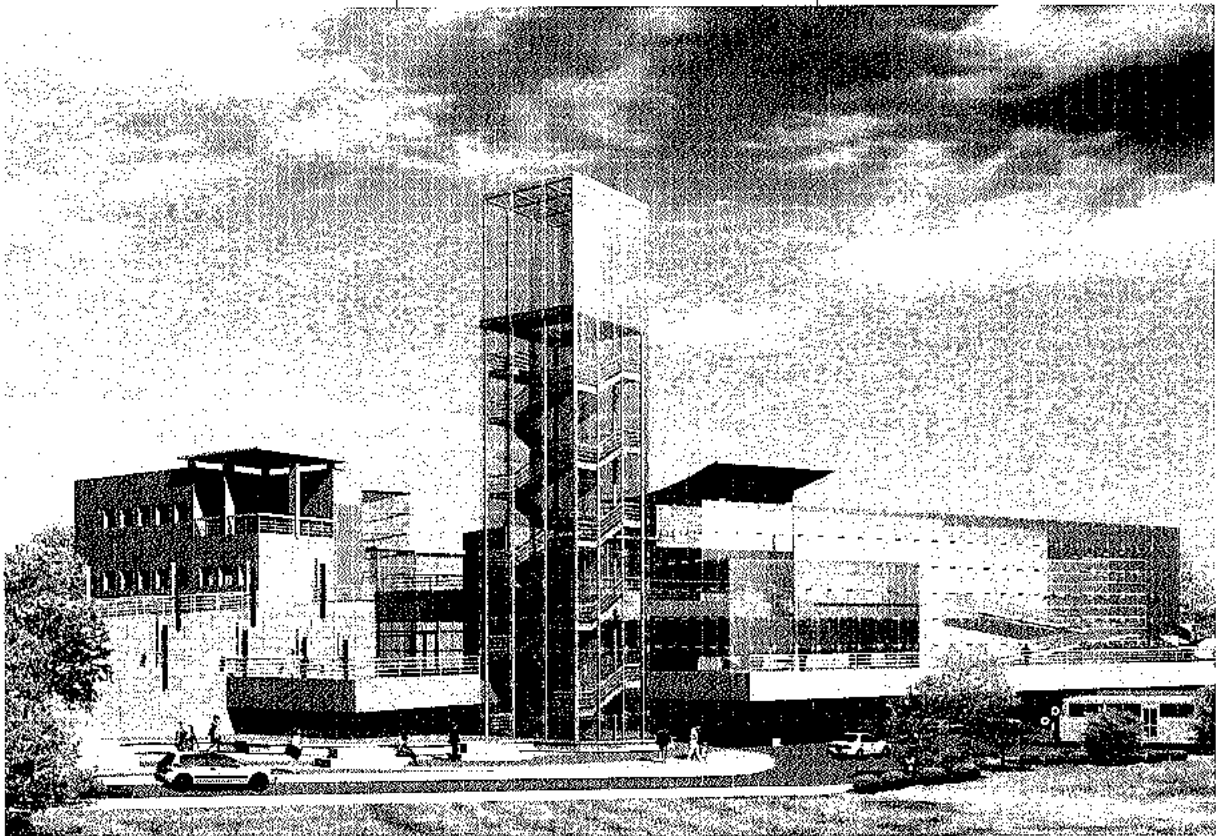
대지위치	강원도 속초시 노화동 산 161-2 번지와 2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용도	문화시설(박물관)
부지면적	65,263㎡(19,137.06평)
연면적	총 3,071.51㎡(929.13평)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2개동
주차대수	총 39대(옥외주차장 : 대형 6대, 소형 6대, 옥내주차장 : 28대)

배치계획

- 계단식 시설배치로 자연지형을 최대한 수용.

한 수용.

- 상이한 성격의 두 시설의 차별화와 상호보완적 역할을 동시에 기대.
- 빈번한 옥외 행사가 예상되는 문화촌을 접근로에 우선 배치하여 동선 간소화.
- 문화촌과 박물관사이에 완충공간을 배치하여 두 영역의 상호간섭 최소화.
- 장래 시설의 수평증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의 융통성 고려.
- 단계적으로 옥외광장을 충분히 확보하여 경사지의 동선을 완화하며 다양한 시퀀스의 변화를 경험하며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
- 충분한 옥외공간의 배치로 다양한 이벤트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
- 강한 시선축선을 갖는 배치로 이용객의 동선을 유도.
- 외부전시공간과 체험공간은 관광문화촌과 민속박물관이 연계하여 이용 효과를 극대화한다.
- 성황당, 돌무덤, 장승 등 옥외민속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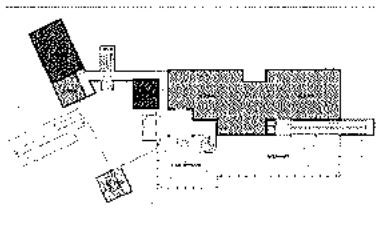


료의 활용으로 자연스러운 조경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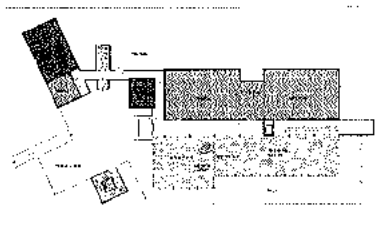
- 원경인 천산로에서의 인지가 용이하도록 강한 상징성 부여.
- 설악산과 울산바위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시야개방.
-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차량진입의 편의성과 충분한 주차공간 고려.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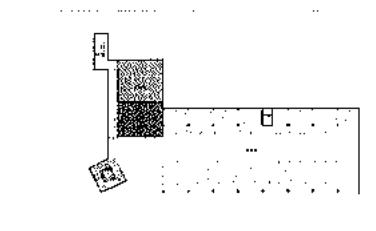
- 경사지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기다란 평면형태가 불가피 하였다.
- 토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공대지 시설물을 건축하고 테크하부를 주차장 및 기계실로 활용한다.
- 관광문화촌의 주거스케일과의 조화를 위하여 관리동과 전시동으로 분리하여 매쓰의 대형화를 피한다.
-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극대화하여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한다.
- 외부전시공간과 체험공간은 관광문화촌과 연계하여 이용효과를 극대화한다.
- 시설의 수평증축을 고려하여 융통성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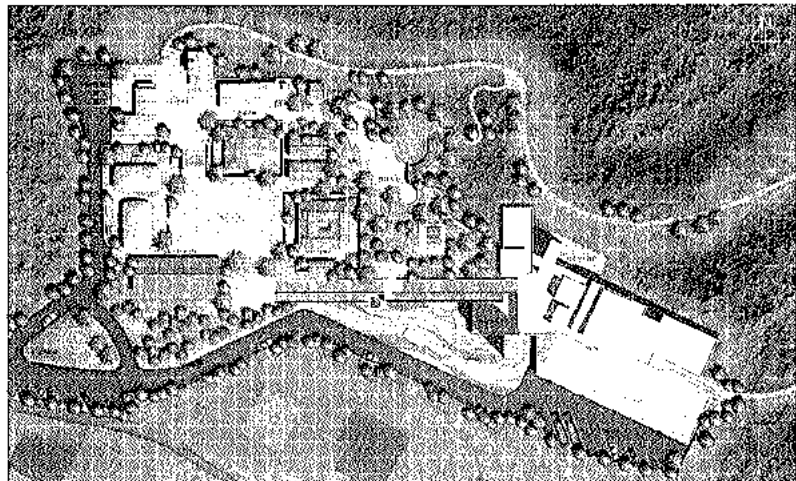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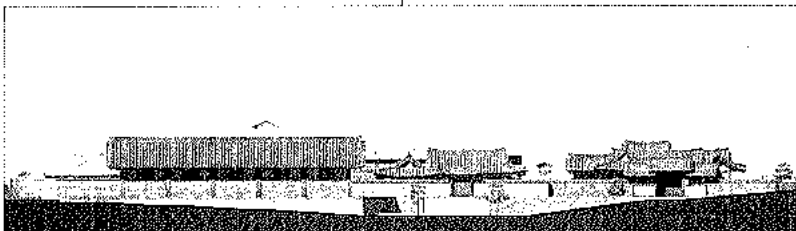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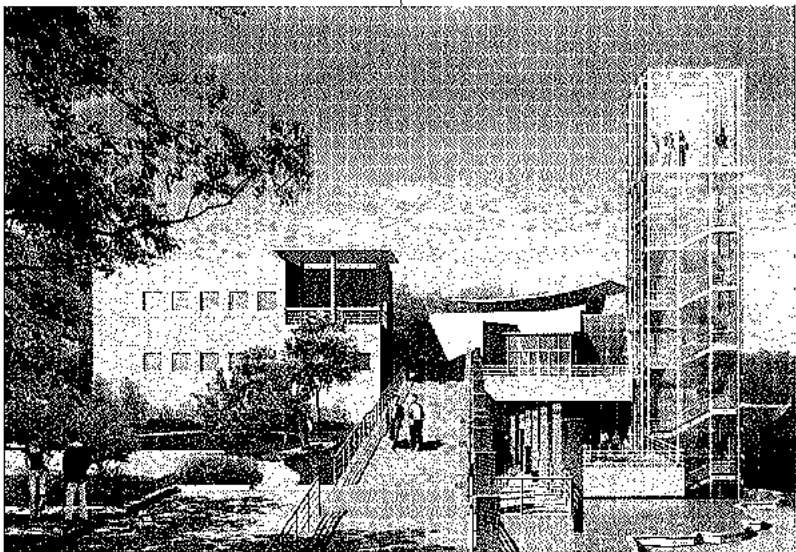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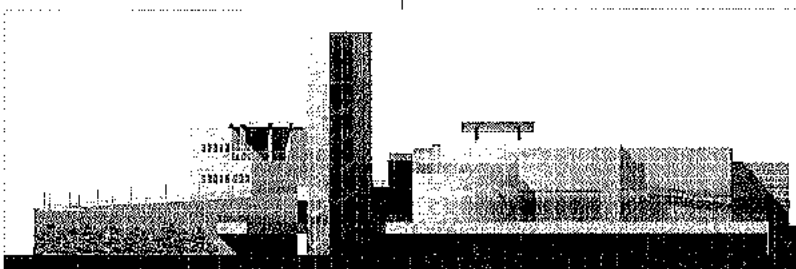
배치도

- 원경에서의 인지성과 상징성을 갖도록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을 그라쓰타워로 계획하고 상부에 전망기능을 갖도록 한다.

- 현대적인 디자인과 재료를 구사하여 관광문화촌과 차별화하고 전통과 현대사이의 역사성을 형태적으로 구현한다.



외측입면도



정면도

▶ 우수작 / 삼풍엔지니어링건축
(인정환) + 엑스포디자인 + 경일
기술공사

대지위치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산 161-1번 지 외 2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구
용도	박물관, 관광 문화촌
대지면적	63,263㎡
건축면적	1,965.40㎡(594.53평)
연면적	3,306.44㎡(988.35평)
건폐율	3.11%
용적률	5.22%
규모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목조
주차대수	40대(장애인 : 3대, 버스 : 5대)
외부마감	화강석 바너구이, 목재루버 자방-폴리테크 판넬 시스템
설계팀	이규혁, 구기원, 김종성, 김경학, 신성욱, 임창수, 하금평, 김민수, 김자애, 김태경

설계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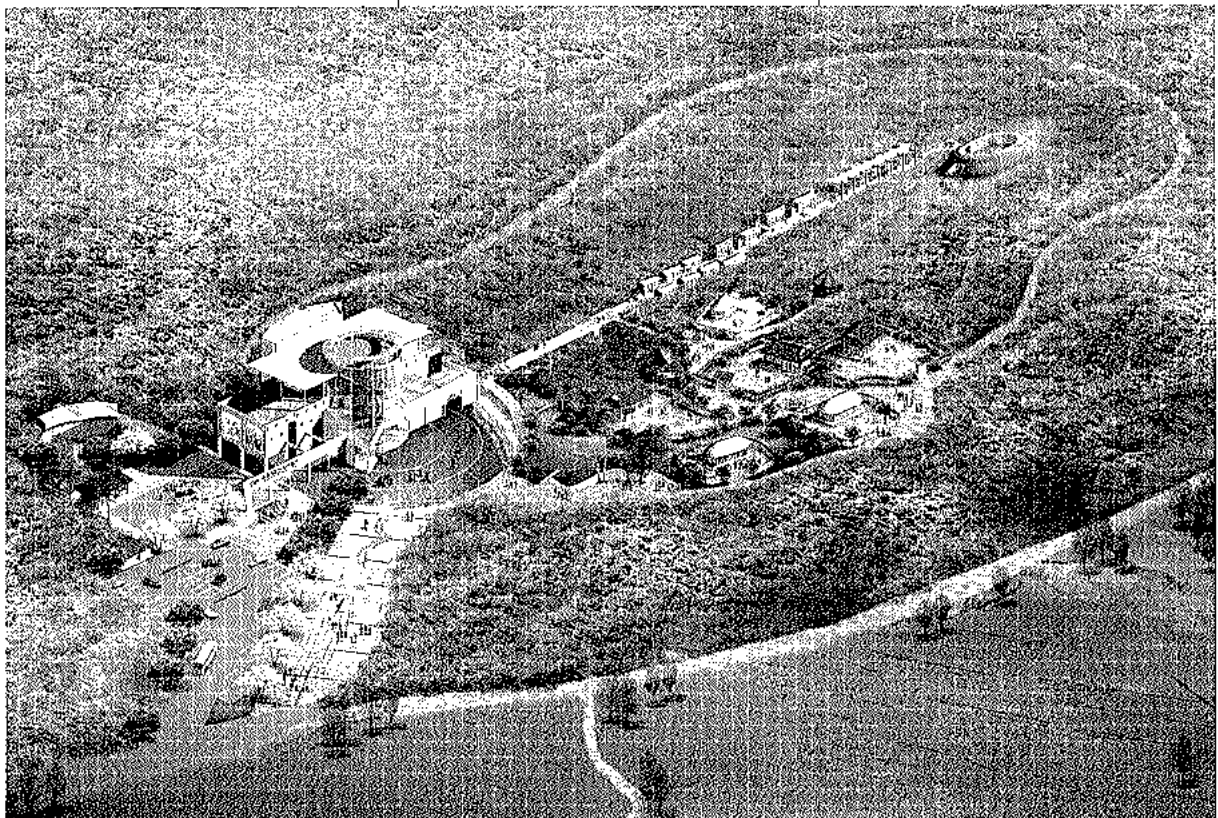
희(喜) : 새로운 희망의 발견
속초시립박물관의 건립을 통하여 속초
의 과거 · 현재의 민속문화를 재현하고,
새로운 희망의 속초를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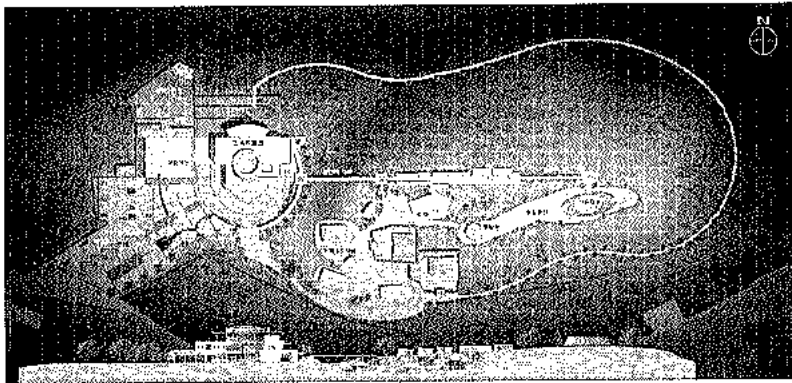
노(怒) : 조국 분단의 노여움
자연적 형태에 의하여 생기는 계곡에 상
징적 의미의 다리를 설치하여 조국분단
의 아픔을 표현한다.

애(哀) : 실향민의 망향에 슬픔
이북5도 가족과 실향민 마을을 복원하
여, 고향의 그리움과 실향민의 삶에 애환
을 표현하고 야외전시공간인 망향의 길
을 통하여 이북5도 풍습 및 신천과 실향
민의 생활모습을 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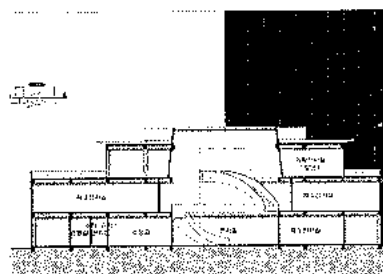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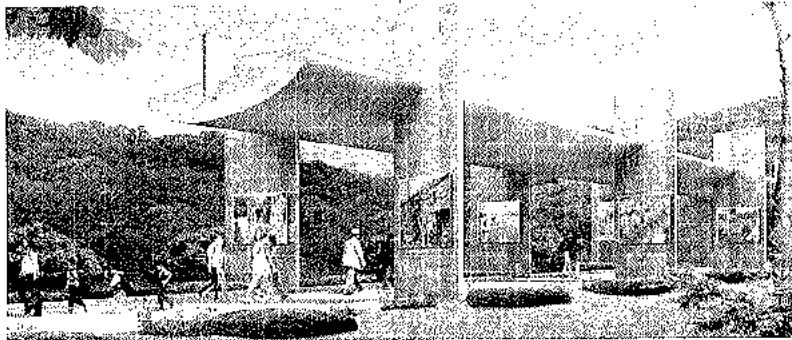
락(樂) : 통일의 즐거움
부지 내에 동산을 보존하여 통일동산이
라 명하고, 그곳에 통일을 염원하는 상

징적 정자인 통일정과 실향민의 율품(유품)을 보관하여 통일 후 고향에 전달할
수 있도록 타임캡슐을 설치하여 실향민
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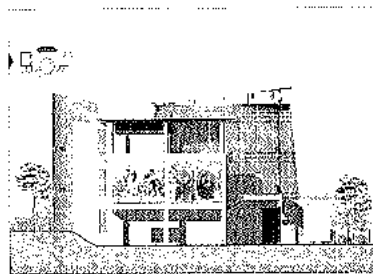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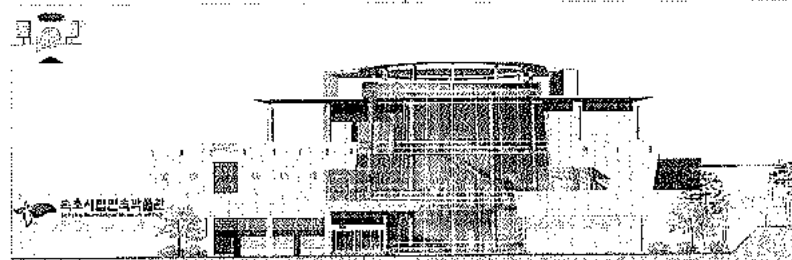
개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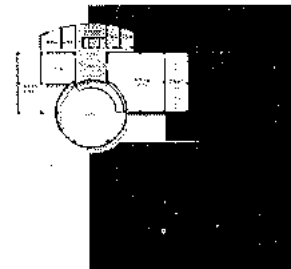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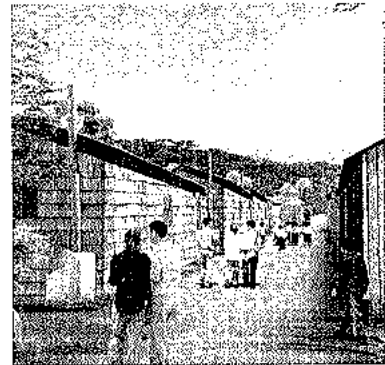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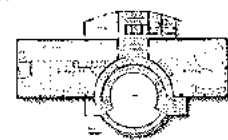
외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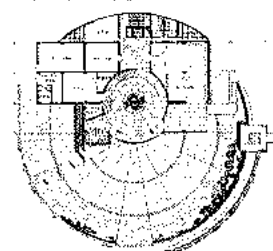
정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가작 / 예전건축사사무소 (최동호)
+ 네오디자인 + 에스케이임업

대지위치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산161-1 번지외 2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구
대지면적	63,263㎡
건축면적	3,515.05㎡
연면적	3,328.11㎡
건폐율	5.56%
용적률	4.86%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마감	화강석, 노출콘크리트, 부식동판

마당이 있는 박물관 - 바깥마당과 안마당
그리고 사랑마당
이 박물관은 전통건축에서처럼 마당이
있다. 그리고 그 마당에서 속초시립만속
박물관은 시작한다. 현대 건축에서처럼
현관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
마당에서 이 박물관은 시작된다. 즉 바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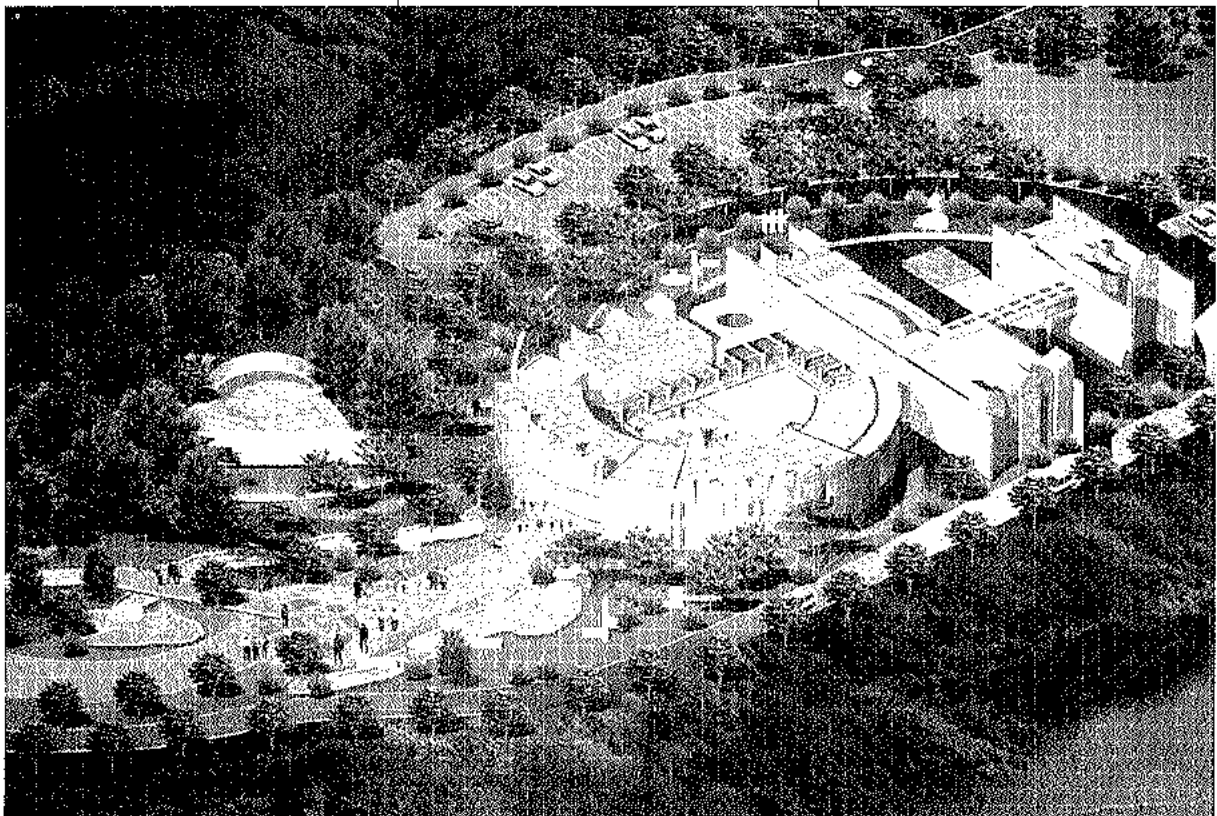
마당과 안마당 그리고 사랑마당이 있다.
바깥마당의 바람소리
처음 이곳으로 진입하게 되면 마치 설악
산에 오르듯이 오르며 된다. 따로 진입문
이 없다. 누마루 허부를 통과하여 들어오
게 된다. 입구를 들어오면 바로 바깥마당
과 접하게 된다. 이곳은 원형으로 되어있
다. 이곳은 탐들이 마당이라고 명명하였
다. 그것은 중심에 탐이 있기 때문이다.
입구로 들어오면서 석탐이 바로 보인다.
그리고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어 툇마루
의 느낌도 갖게 된다. 이곳은 자유롭다.
어떤 제약도 없다. 누가 나가라고 그러지
도 않는다. 이곳은 야외전시도 되고 원형
의 바깥마당의 가운데에 탐도 놓여져 있
다. 박물관의 바람소리를 듣고 싶으면 이
곳 바깥마당에서 있으면 된다. 아주 여
유롭게.

안마당의 울산비위소리
바깥마당 옆에 있는 안마당은 이 박물관
의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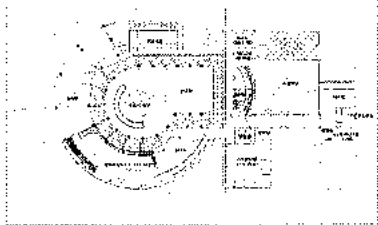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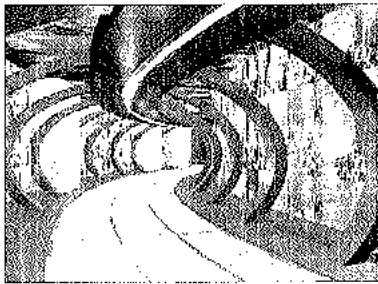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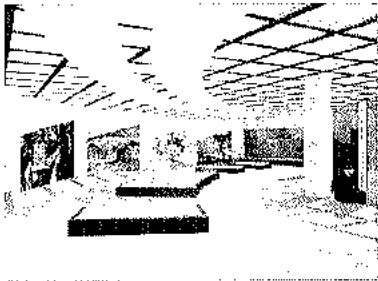
곳은 설악의 정신이 내포되어 있는 바로
그런 곳이다. 이 안마당은 바로 한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정신적인 공간이
되는 장소이다. 그냥 이곳은 푸근하다.
내가 앉고 싶은 곳에 앉으면 된다. 그냥
안마당에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된다.
그리고 설악을 바라보면 된다. 또한 설악
루에 오르면 정말 한눈에 울산비위가 들
어온다. 어떤 날 이 안마당에서 전통혼례
식이 거행되면 이곳은 완전한 축제의 장
이 된다. 아주 훈훈하게... 그러다가 실
내 상설전시실로 가고 싶으면 입구로 들
어가면 된다.

사랑마당의 파도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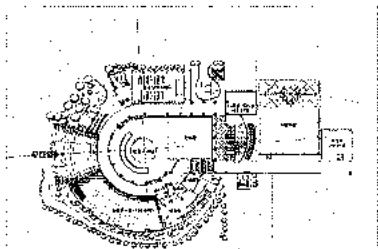
안마당에서 회랑을 통하여 다시 누마루
를 통과하듯이 기획전시실 방향으로 가
면 야외공간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가 바
로 사랑마당이다. 이곳은 조금은 시끄러
워도 된다. 퍼포먼스도 행해지고 야외 출
판도 벌어진다. 더욱이 이곳은 동해가 보
이는 곳이다. 그 동해바다의 파도소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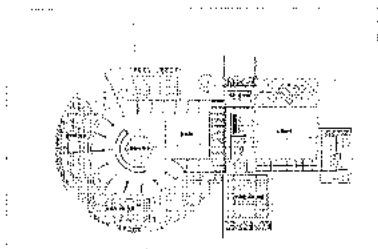
들리는 곳이다. 사랑마당은 예부터 집안의 대소사가 열리는 그런 곳이었다. 그 곳은 조상들이 만든 공간 중에서 행복한 축제의 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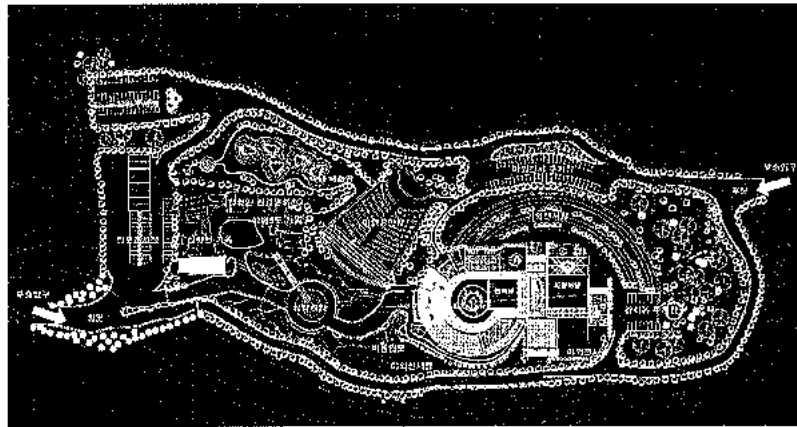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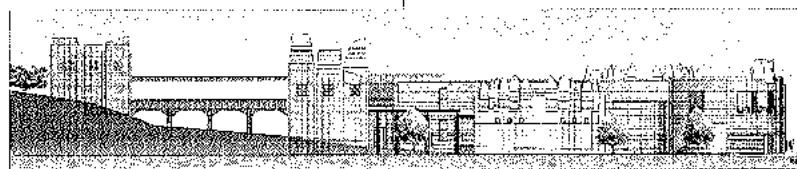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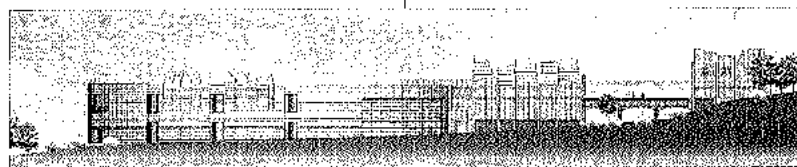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배치도



외측면도



우측면도



정면도

강원지방경찰청사

Gangwon Provincial Police Agency

▶ 당선작 / (주)업&이종합건축사
사무소(이근표·김영찬) + (주)종합
건축사사무소산(한광호)

대지위치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293-4번지 외 4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9,070㎡ (8,793.68평)
건축면적	3,659.93㎡ (1,107.13평)
연면적	21,971.58㎡ (6,646.40평)
조경면적	9,054.77㎡ (2,739.07평)
규모	지하 1층, 지상 8층
건폐율	12.59%
용적률	50.26%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주차대수 202대 (지상: 70대, 지하: 132대)
설계팀 이주형, 박경진, 박민웅, 김종훈,
양진석, 복갑수, 허성녕(산건축)

계획의 주안점

본 현상설계는 대지조건과 건물용도의 특성상 배치와 형태에 무게를 두고 계획하였다.

• 건물배치 - 정면성 그리고 향과 조망
계획대지는 춘천시 도심에서 약 3km정도 떨어진 외곽지역으로써, 소양2교를 건너 소양강댐으로 가는 20M 현행도로를 북서측에 접한 남서향의 비교적 평탄한 대지이며, 남측에는 20M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었다.
대지조건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린 문제는 도시적 측면에서의 정면성과 현황도로상에서의 정면성 중의 선택이었으나,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대지여건상 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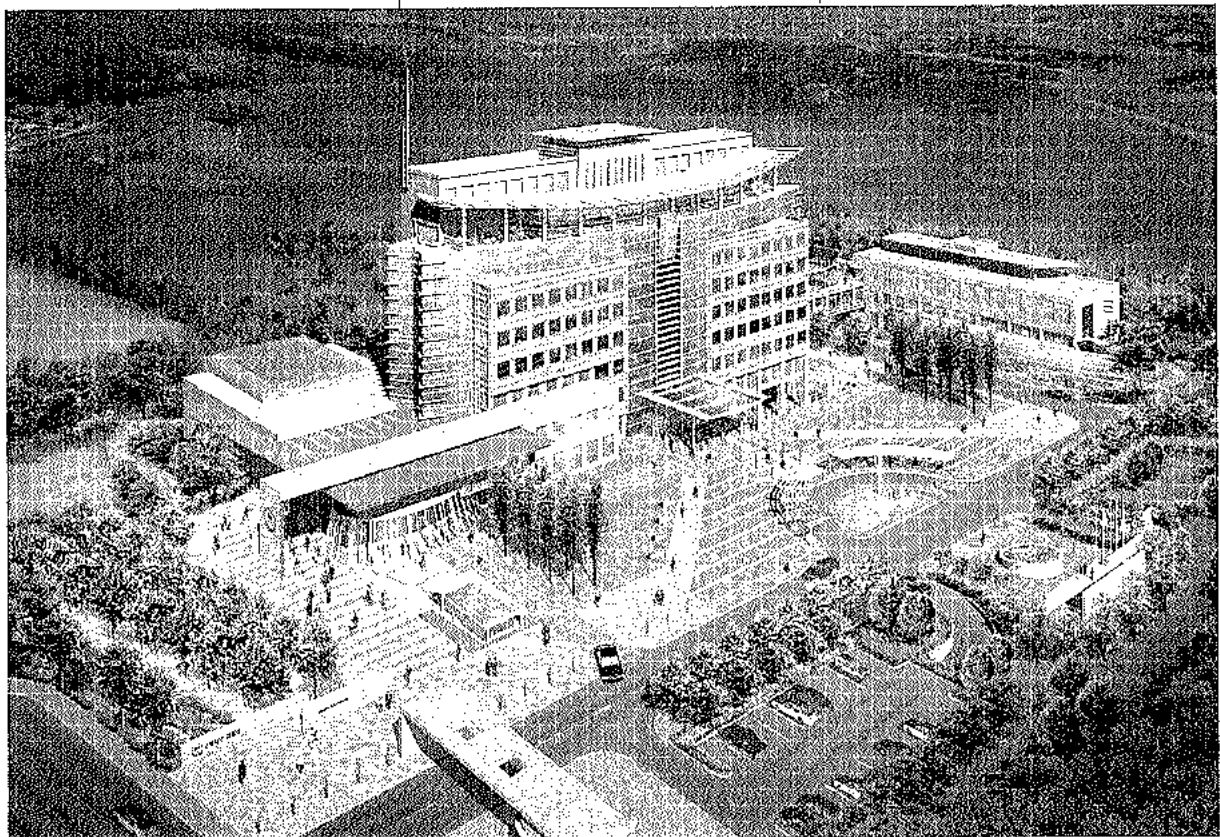
로 접근하면서 인지되는 정면성이 현황 도로에서만 정면성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주변건물들의 배치현황과 향후 개설예정인 도시계획도로등 도시적 맥락을 고려하면 그 해답은 명백하였다. 실례로 본 대지의 서측에 지어진 강원도교육청의 경우를 보면서 판단은 더욱더 쉬워졌다.

그리고 향과 조망은 건물의 배치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도시적 측면의 정면성을 선택함으로써 북서향을 피해 남서향을 취할 수 있었고, 조망 또한 소양강과 북한강이 합류되는 의암호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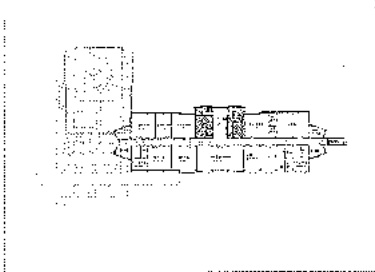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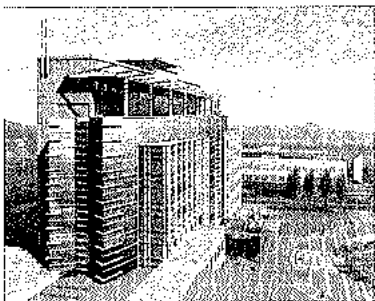
• 건물형태 - 상징성

경찰청사라는 이미지에서 오는 위압감이나 경직성을 탈피하면서 공공건물로서의 상징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따라서 본관 건물은 대청형태를 취하면서 별관과 강당등 일련의 건물들과의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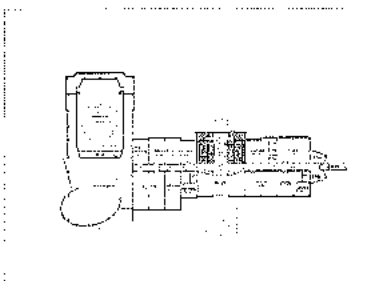


계 및 비례를 고려하여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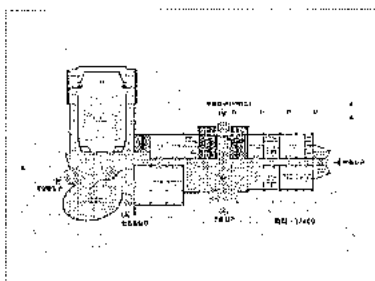
또한, 휴게공간·식당등은 그라스커튼 윌을 사용한 곡선형태의 매스로 친근감을 유도하였고, 업무공간등은 직선형태의 매스에 편청창을 사용하여 기능성을 강조하였다.활성화를 유도하여 주변의 택견수련관, 우륵당 그 각자의 아이덴티티를 지니면서 연계적인 문화체육 종합단지로서 그 면모를 명실공히 자랑할 수 있는 건물이 되기를 기원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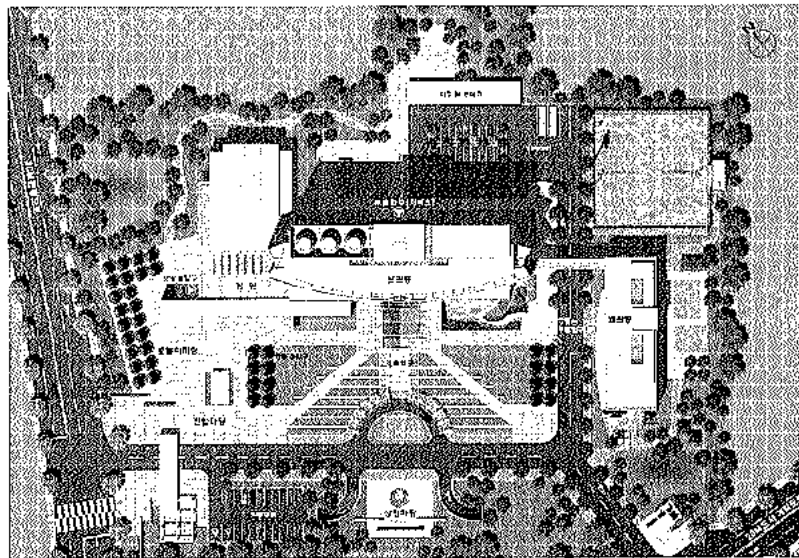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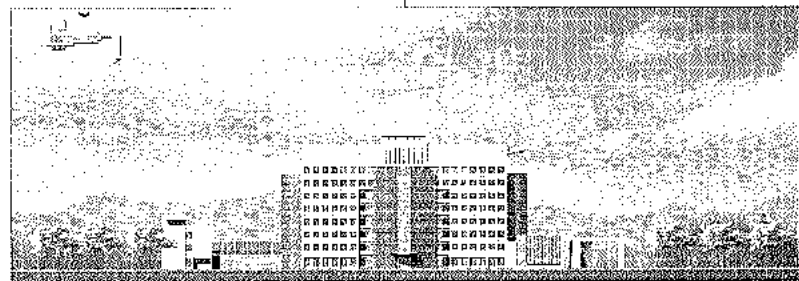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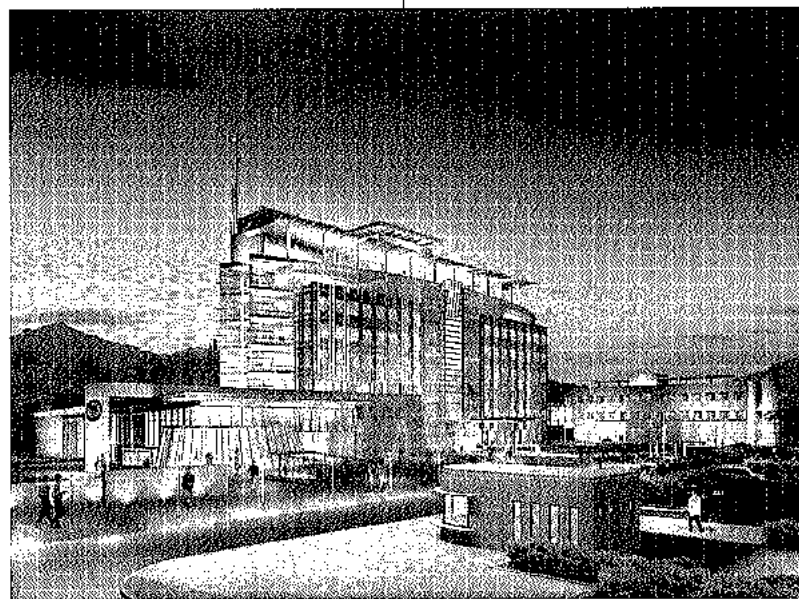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배치도



경면도

▶ **우수작 / (주)무영종합건축사
사무소(안길원) + (주)제이앤씨이
건축사사무소(최종찬) + 서울대학교
(황태주)**

대지위치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293-4번지 외 3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9,070.00㎡ (8,793.68평)
건축면적	3,983.78㎡ (1,205.09평)
연면적	21,155.44㎡ (6,399.52평)
건폐율	13.70%
연폐율	45.42%
규모	지하 1층, 지상 7층, 옥탑 2층
주차대수	267대 (법정 116대)
외부마감	THK24 컬러복층유리, 알루미늄 쉬트, 화강석마감
설계팀	(주)무영건축 : 이순환, 이태열, 이용민 (주)제이앤씨이건축 : 이천우, 김기평, 강석진, 박종일, 정수련

계획의 목표

- 지역사회의 중심점 역할을 하는 경찰청
의 위상 확립
- 방문자를 위한 열린 공간 계획으로 민주
사회의 개방적 경찰상 표현
- 자연친화적인 계획수립으로 경관 향상
및 주위 환경과의 조화 추구

배치계획

- 도시적 맥락 개념에 의한 '정면성' 과 대
지의 향이 계획 초 대립되었으나 경찰
청의 상징성과 공공성, 도시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정면성'에 의한 25M도로를
전면측으로 하는 배치를 선택하게 되었
다. 이러한 도시축에 의한 건물주축의 설
정으로 민원인 동선의 적극적인 유도과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공간계획이 가능
하였으며 접근의 편의성이 고려되었다.
전면부에 있는 상징광장은 적극적으로
유도된 민원인 동선과 직원동선을 조화
롭게 분리시켜주는 절충공간의 역할뿐
만 아니라 경찰청사로서의 상징성도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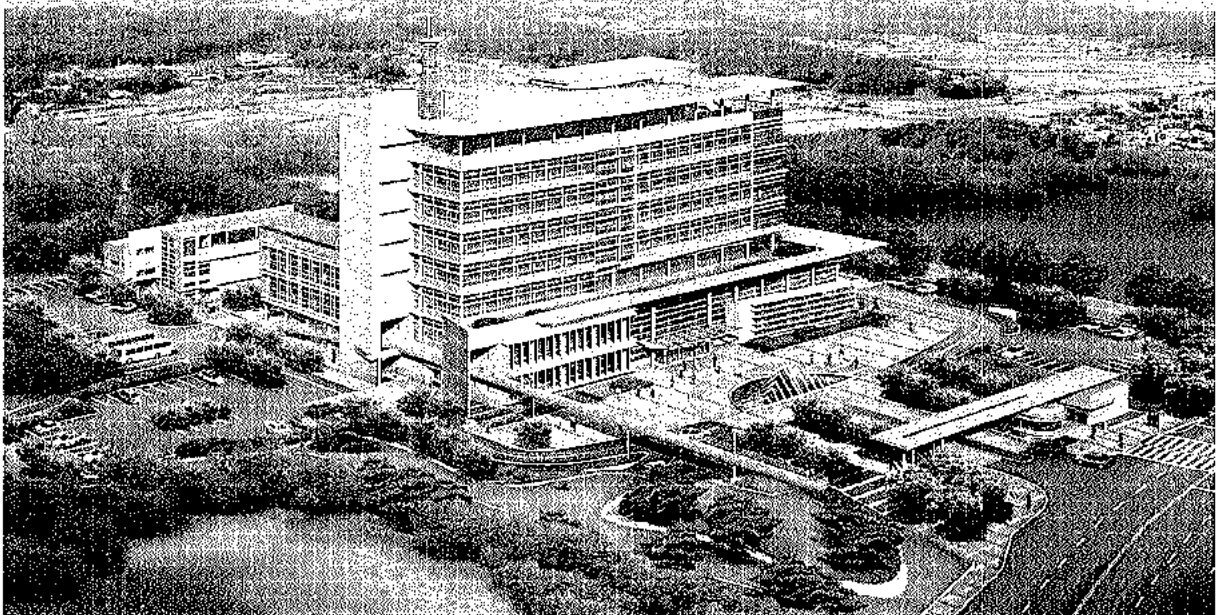
타내고 있다. 또한, 매스배치를 대지 주
축을 따라 상징광장-본관(저층부 민원)-
강당, 선관가든, 교육동-숙소동으로 이
어지는 순차적 배치 형태로 취하여 공간
별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였다.

평면계획

- 각 실들의 배치를 유사기능별로 구획하
여 공간의 효율성, 능률성 향상 도모
- 중앙로비를 중심으로 한 아트리움을 통
해 자연채광이 충분히 유입되어 에너지
절약은 물론 쾌적한 업무환경을 이루도
록 계획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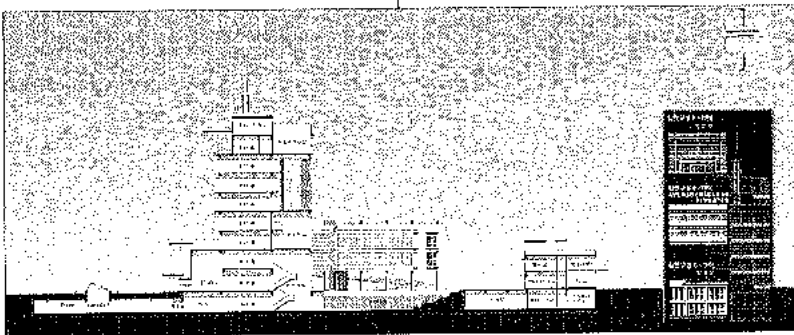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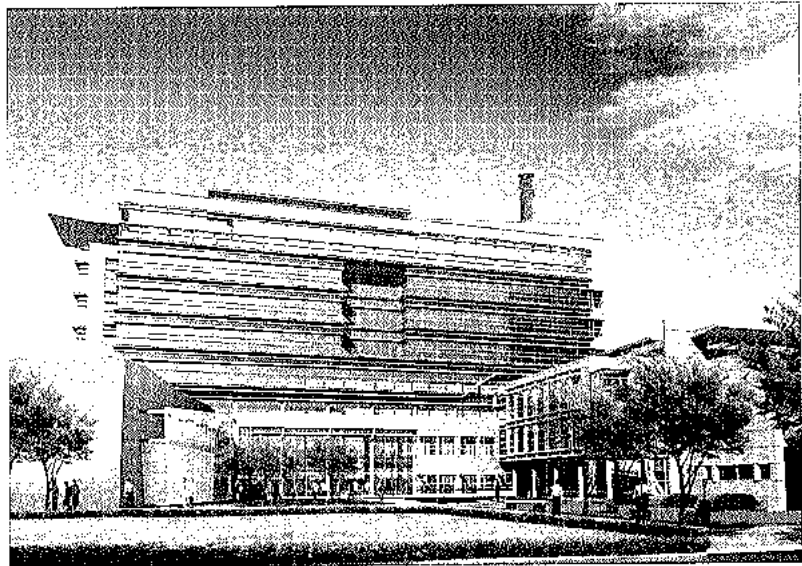
- 방문객이 차분하고 친밀한 이미지를 느
낄 수 있도록 재료와 색상을 선택하였으
며 위압감, 중압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저층기단부에 분절요소를 도입
- 전체적으로 수평적 이미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수직적 요소를 중첩시키면서 경
찰청사로서의 위상을 표현하고 균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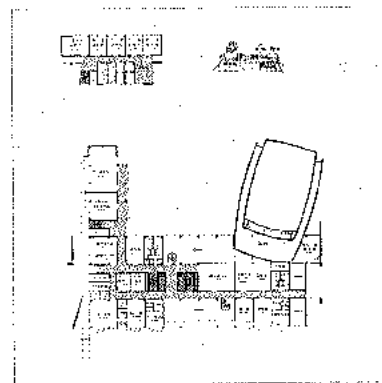
절제, 조화를 이루는 간결하고 명료한
입면을 구성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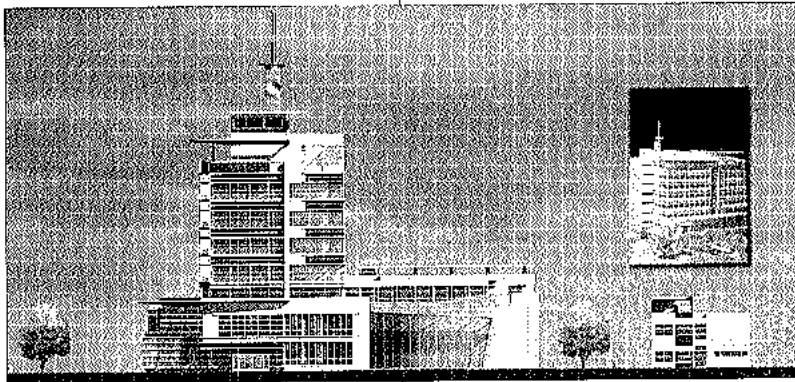
- 본관에 남동측으로 아트리움을 구성하여 내부공간에 상승감을 부여하고, 저층기단부와 본관 기준층을 단형으로 구분하여 위압감을 해소
- 지하주차장은 상징광장의 채광창을 통해 빛을 유입시킴으로써 내·외부공간의 연속성을 확보
- 본관 후면에 계획된 선로공간을 중심으로 식당, 무도장 등이 유기적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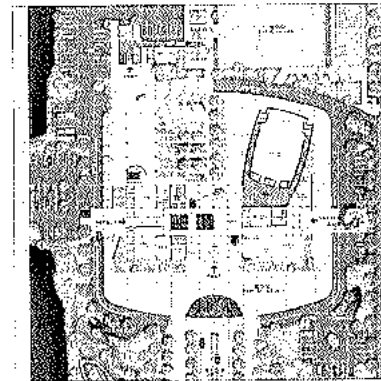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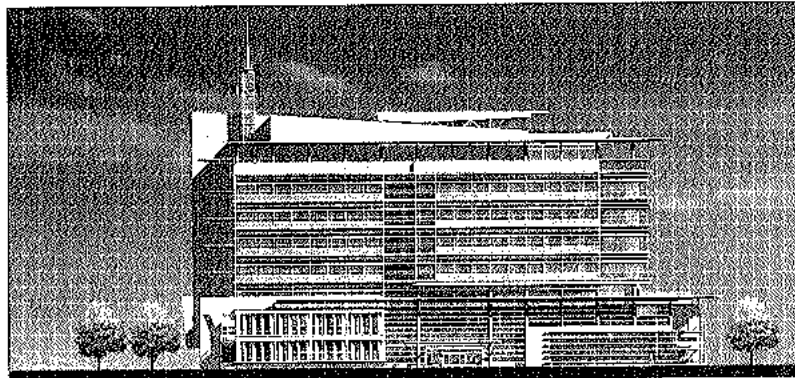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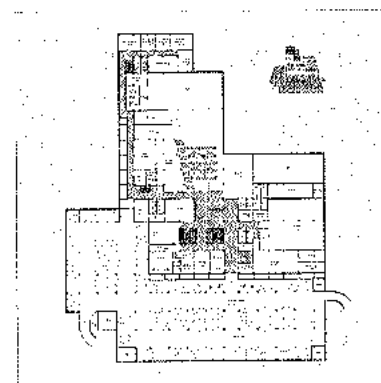
우측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시하중 평면도

▶ 가작 / (주)건설종합건축사
사무소 (노형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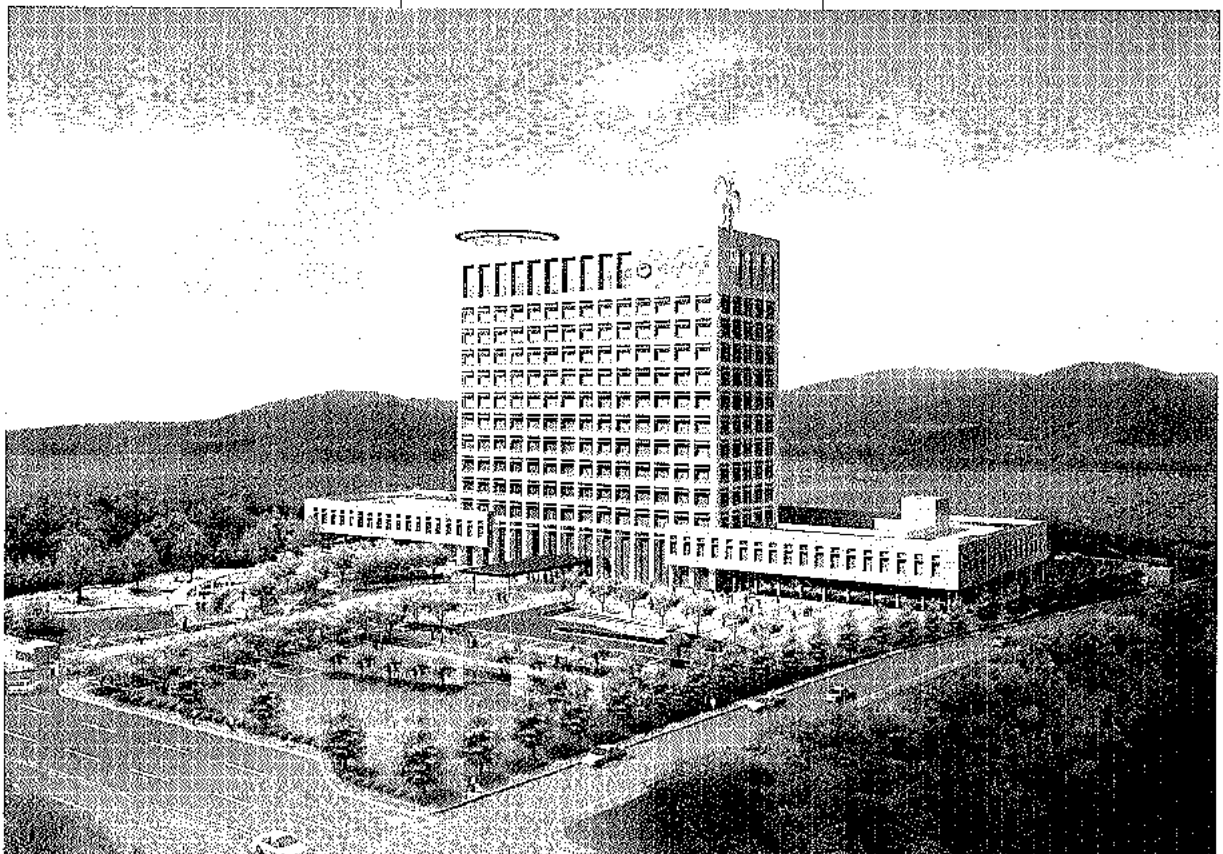
대지위치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293-4
대지면적	27,711㎡(8,382평)
건축면적	3,708.76㎡(1,121.89평)
연면적	21,983.20㎡(6,649.18평)
건폐율	13.38%
연폐율	51.83%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12층
주차대수	160대(대형주차 5대, 장애인 4대 포함)
외부 마감	화강석 고운다듬, THK24 복층 유리
설계팀	고종준, 박종술, 주영준, 신익주, 어창훈, 허 한, 김동원, 원종석, 송기환, 권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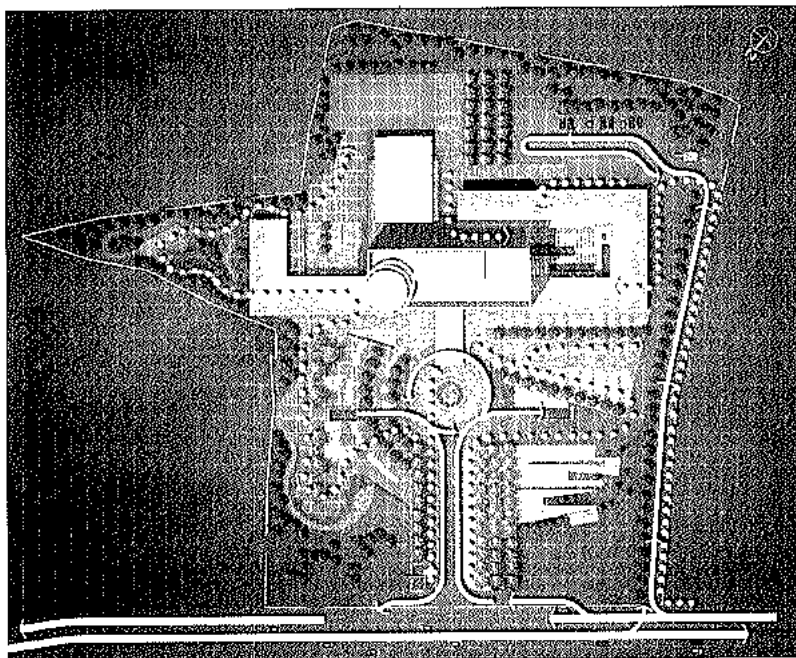
남쪽으로 춘천시가가가 보이는 곳에 위치한 부지는 레벨의 차이가 거의 없는 평지로 도심과 약간 떨어진 거리에 도청과 함께 위치해 있다. 본 계획은 전면도로와 향과의 상반된 관계를 건물의 배치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개된다.

- 향 - 남향은 채광, 일조와 에너지절약에 유리하며, 남향으로 춘천시가가가 위치하고 있어 도심의 조망이 가능하나, 적절히 향의 문제를 수용 가능한 남서향에 비해 열린 전망과 토지이용에 극히 불리하다.
- 접근/정면성 - 주 접근이 이루어지는 전면도로는 대지의 남서측에 위치해 적절한 향의 조건을 만족하며, 주 접근의 관계와 정면성이 좋다. 그러나 남측방향은 이면도로를 통해 접근이 이루어지며 측면부로 접근이 이루어져 정면성에 좋지 않다.
- 토지이용 - 전면도로에서부터의 깊이가 긴 장방향의 대지는 건물배치가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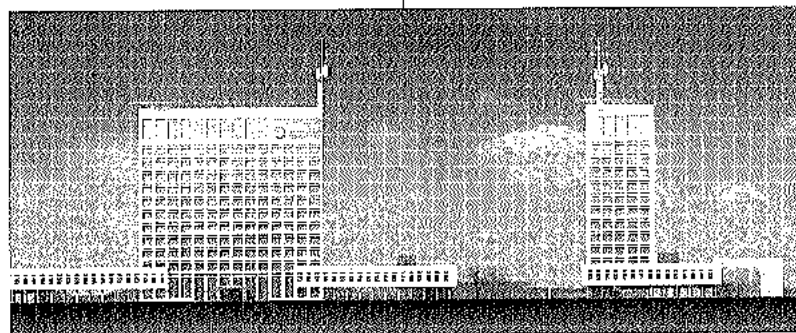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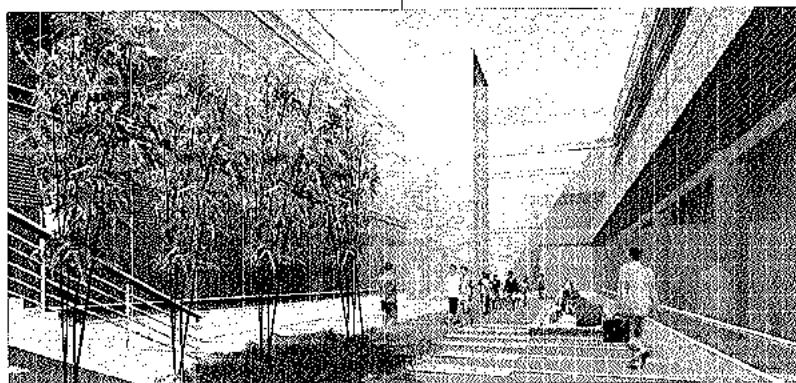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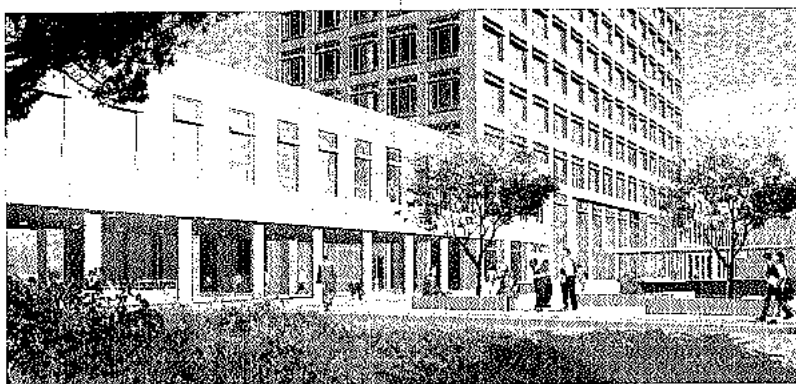
동향일 경우 가로세로비례가 심한 외부 공간들로 불명확한 기능의 사용상에 문제가 있고, 전면도로를 정면으로 배치하게 되면 본 계획건물 전·후면의 공간들로 외부공간의 기능을 적절히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지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 배치 - 본 건물은 크게 본관과 자경대, 그리고 대강당의 큰 기능으로 나누어지며 넓은 부지를 전면 진입 및 휴게공간과 후면부의 체육시설 및 행정지원공간으로 나누어 건물과 외부공간과의 밀접한 연계와 함께 각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선크마당 - 일부 지하에 배치된 식당과 체육, 훈련시설 부근에는 선크마당을 계획해 풍부한 채광과 환기, 그리고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입면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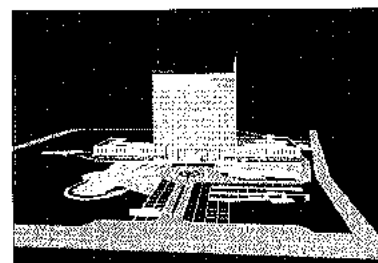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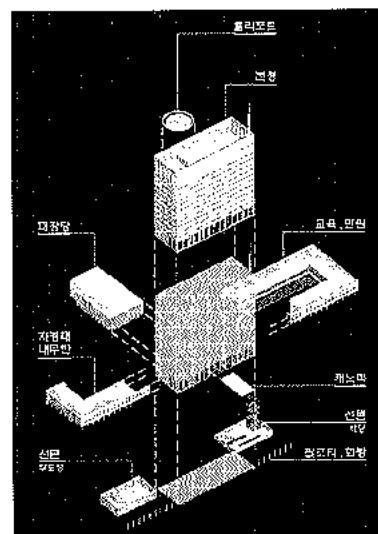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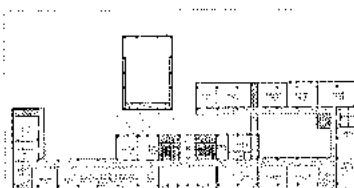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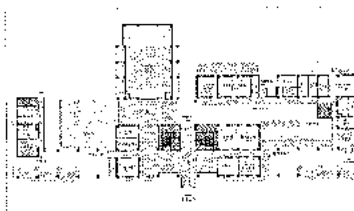
입면도



기중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중앙대학교 복합건물

Coniplex Building in Chun-Ang University

▶ 당선작 / (주)건정종합건축사
사무소 (노형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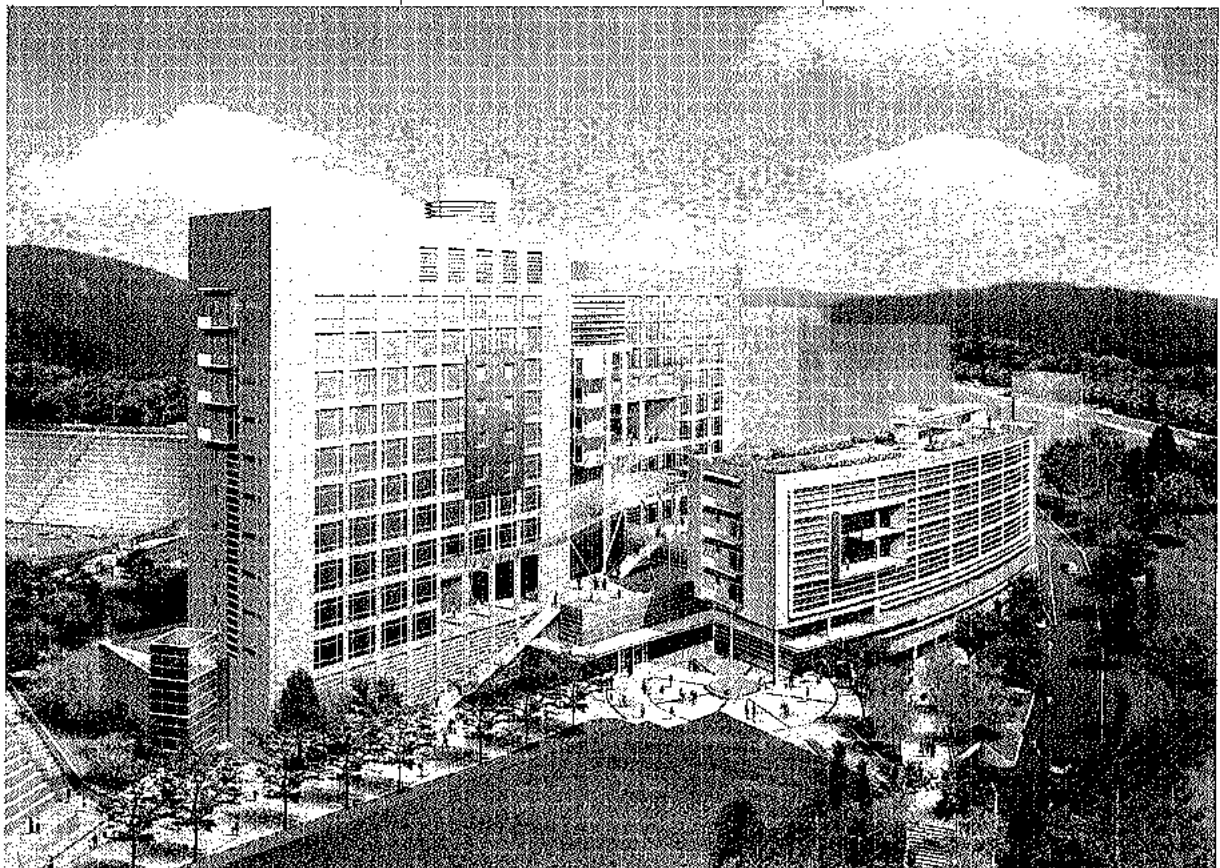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 지 중앙대학교 부지 내
건축면적	3,708.76㎡(1,121.89평)
연면적	28,025.37㎡(8,477.67평)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모	지하 2층, 지상 12층
주차대수	152대(장애인주차 4대 포함)
외부마감	화강석, 고운다듬, THK18복층유리
설계팀	고종준, 박종술, 주영준, 신익주, 이창훈, 허 한, 김동원, 원종석, 송기환, 권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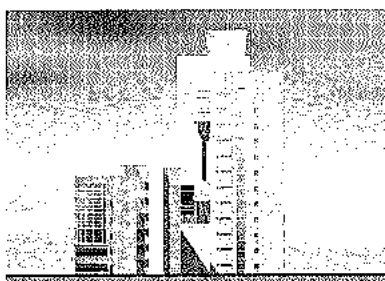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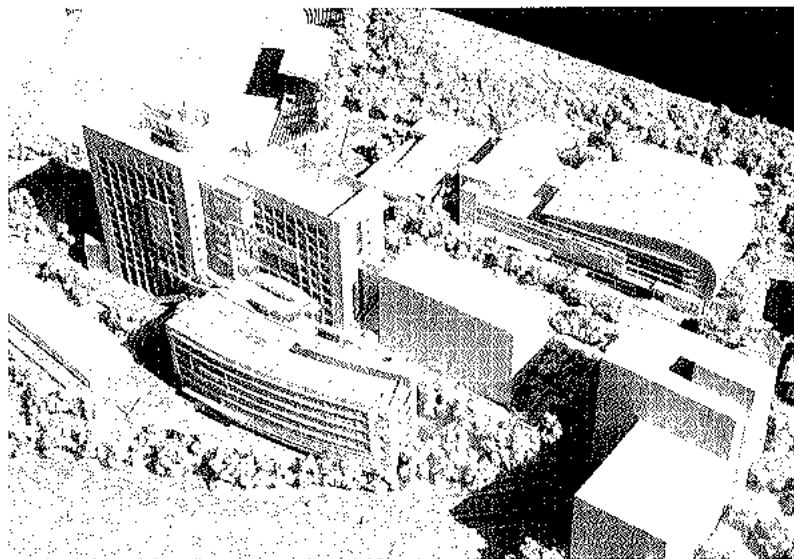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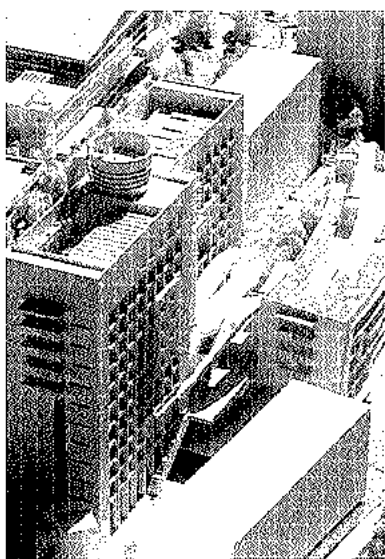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중앙대학교 흑석동 캠퍼스 내에 기존의 대학극장과 학군단 건물을 철거후 3개의 단과대(법대, 경영대, 정경대)를 위한 복합건물을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이는 2018년 중앙대학교 개교 100주년을 목표로 시행되는 캠퍼스 장기 발전계획의 첫번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계획건물은 이제 기억 속에서 잊혀질 대학극장 건물과 급한 경사로 아래 자리 나무줄기처럼 뻗어나간 길들의 흔적 위에 협소한 대지, 주변 건축물 군, 급한 경사와 고저차 등의 부지여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존 후문의 가로축을 주축으로 서라벌 홀과의 관계도 고려한 직선과 곡선형의 매스로 계획을 진행하였으며, 크게 세 동의 매스로 전후면의 서로 다른 레벨들과의 연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며, 외부의 미당들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내부로 끌어들이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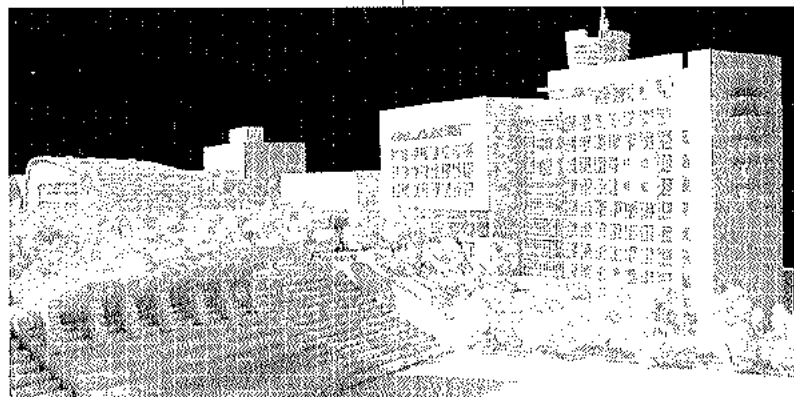
또한 본 계획은 한 건물에 세 개의 단과대학이 같이 사용하게 됨으로 각 대학의 독립성을 제공하는데 주안을 두었으며, 법대와 경영대는 타워형으로 각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경대는 주매스와 분리된 곡선형의 매스로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결절점에는 완충 공간인 휴게실과 카페테리아 등을 배치해 각 단과대학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본 계획과 관련해 급경사의 기존대지에 있던 외부 공간과 동선들을 건물과의 연계를 고려해 적절히 수용하여 캠퍼스 장기발전계획에도 부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 계획을 통해 각 단과대학의 독립성이 확보되며 다양한 공간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건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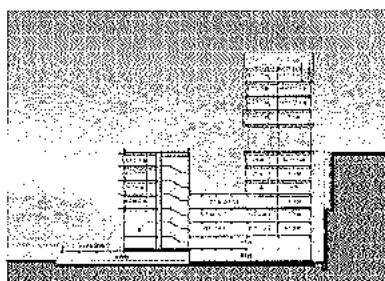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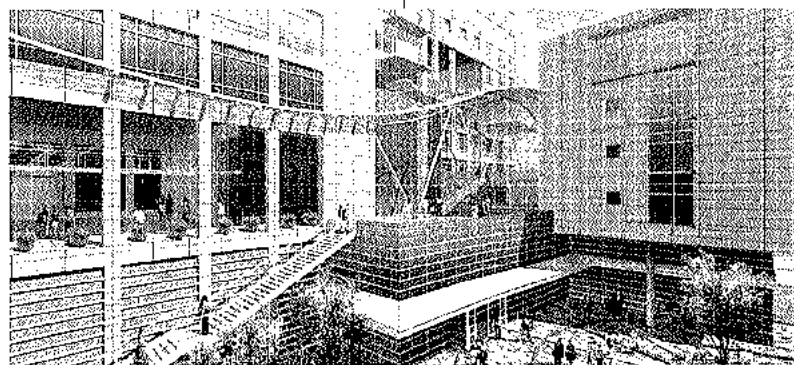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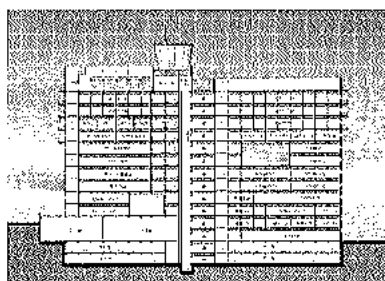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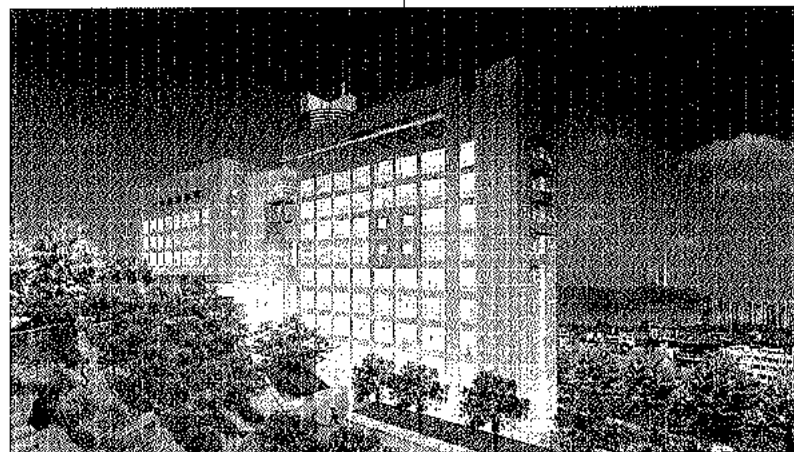
서쪽면도



북쪽면도



중단면도



위도면도

▶ 가작 / (주)창조종합건축사
사무소 (김홍철)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학교시설용지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2,443㎡(739평)
연면적	29,312㎡(8,867평)
규모	지하 2층, 지상 12층
주차대수	121대(법정 120대)
외부미감	베이스페널 위 불소수지도장, THK18 복층유리
설계팀	총괄 - 옥태범 계획 - 박용범, 이대천, 박봉준

초기배치안

본 배치에 있어서 주안점으로 삼았던 것은 기존 캠퍼스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정문 진입시와 후문 진

입시의 레벨차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또한 기존 건물들과의 독립성과 조화로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향후 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적합한 건물배치를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였다. 채택안은 사범 대학과 대학원 사이의 대지만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배치는 대지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외부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개발에 따른 합리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매스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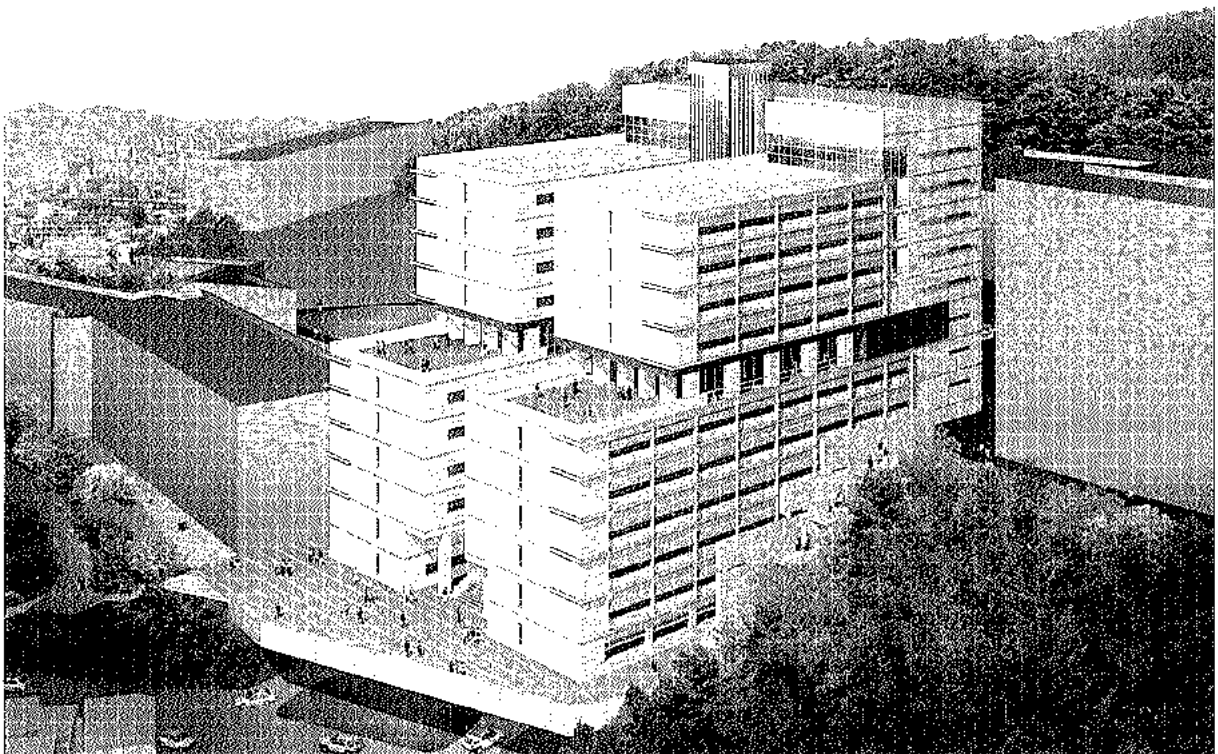
본 복합건물은 크게 3가지 매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매스는 지면의 하부레벨에서 상부레벨까지 6층 규모이며, 두 번째 매스는 지면의 상부레벨에서부터 5층 규모의 매스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매스와 두 번째 매스 사이공간은 필로티를 형성하여 상부레벨에서의 진입시 시야

를 개발하여 주고 조망을 확보한다.

세 번째 매스는 아트리움으로 계획되며, 상징성 및 수직동선의 역할을 하며, 지면의 상부레벨과 하부레벨을 연계시켜 준다.

매인컨셉

- 집약적 토지이용
 - 기존건물과의 간섭을 최대한 줄인다.
 - 주변 대지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며, 향후 발전계획에 따른 대지의 효용성을 살린다.
- 한강을 향한 조망권 형성
 - 후문 진입시 레벨에 맞추어 필로티를 형성하여 시야의 개방성을 확보한다.
 - 휴게공간을 형성하여, 한강의 조망을 확보한다.
- 고저차를 극복하는 동선연결
 - 정문 진입시와 후문 진입시 레벨차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부 계단 및 수직아트리움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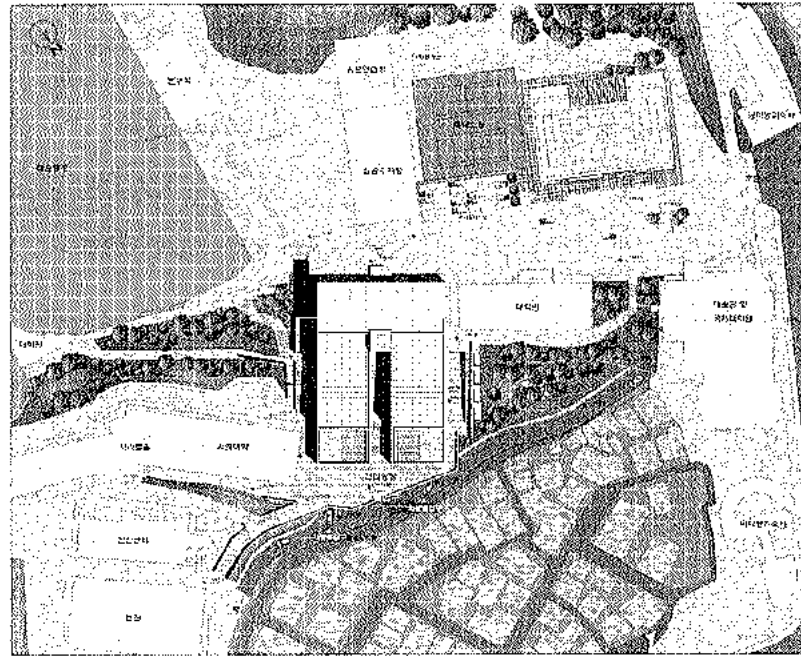
- 계단을 통한 상승이라는 상징성을 제시한다.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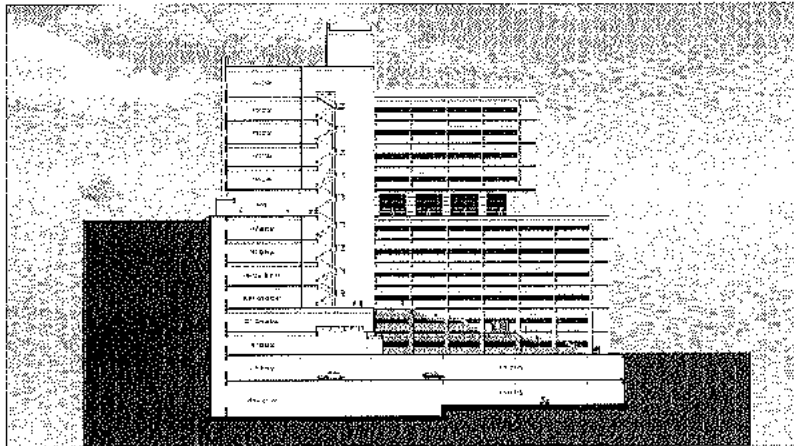
학교부지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집약적인 평면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토지이용을 최대한 도모하면서 요구 프로그램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3개 단과대학의 공존이라는 특성상 층별로 수직적인 단과대학의 분리를 꾀하였다.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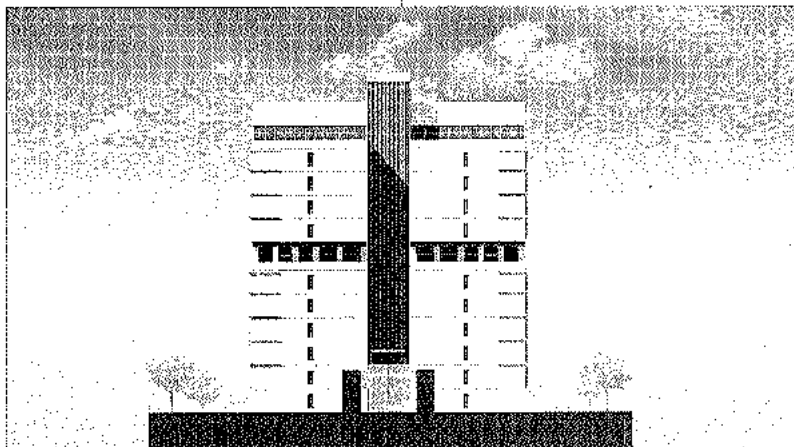
각 단과 대학별로 구분되어 보이면서 또한 하나의 매스로 읽히도록 입면을 계획하였다. 한강을 향한 북측면을 게이트 (Gate, 한자의 門자를 표현)와 같은 형태의 이미지로 표현하여 중앙대학교의 관문으로서의 상징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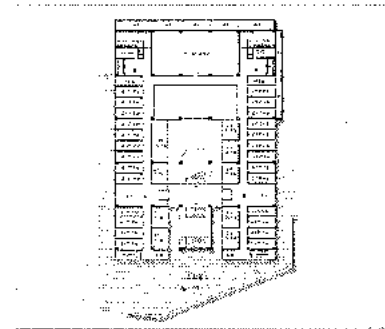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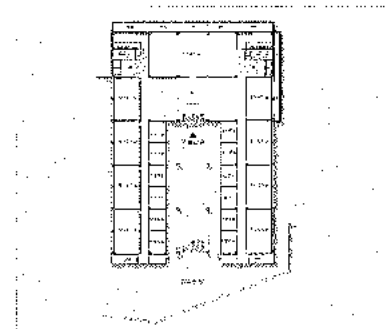
층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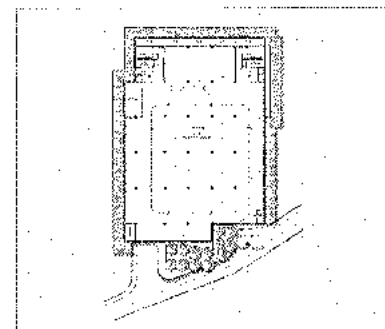
절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군산항국제·연안여객선터미널

Kunsan Seaport Passenger Terminal

▶ 당선작 / (주)까치종합건축사
사무소(김정식·채재학·장윤규)

대지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665와 7필지
지역지구	전용공업지역, 항만시설지구
주요용도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판매 및 영업시설)
대지면적	78,903㎡(23,868평)
건축면적	국제여객터미널 / 4,140㎡(1,252평), 연안여객터미널 / 1,854㎡(561평), CFS 및 화물창고 / 1,975㎡(597평), 합계 / 7,969㎡(2,410평)
연면적	국제여객터미널 / 7,215㎡

건폐율	10.10%
용적률	15.2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규모	지상 2층
주차대수	160대(장애인주차 6대포함)
내부마감	바닥/화강석+카펫, 벽/알루미늄 패널+목재패널, 천정/알루미늄 패널+압면흡음텍스
외부마감	지붕/스테인리스스틸, 외벽/컬러 복층유리
설계팀	박정근, 주현진, 변진성, 박병준, 장운갑

계획방향

서해안의 거점항만인 군산항이 위치한 금강하구에 지역적인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적인 이미지와 함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국제·연안여

객선터미널을 계획하여 여객터미널의 기능을 충족하고 이용여객 및 지역민의 문화·관광·휴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치계획

CONCEPT - 파도의 띠(B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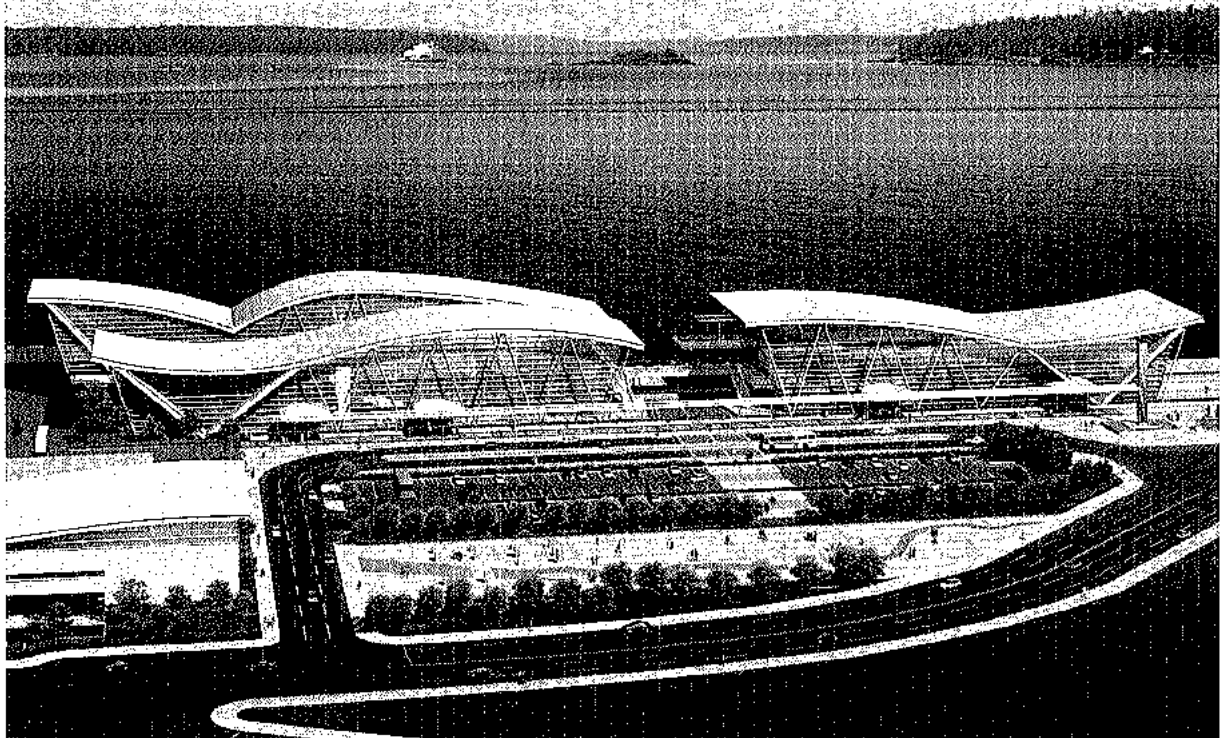
바다로부터 밀려오는 파도의 띠를 상징하는 수평의 띠(Band) 개념을 도입하여 공간들을 통합하고 재구성하여 혼재된 기능과 다양한 구성요소에 의미있는 위계와 질서를 부여하였다.

외부공간의 구성

바다공간, 터미널공간, 선형의 이벤트 광장(보행자도로)공간, 차량이동공간, 주차광장공간, 이벤트광장 공간 등을 수평의 띠(Band)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외부동선체계

보행자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하고 내부접근 차량동선을 일방통행으로 처리하고 공공차량(버스 및 택시)과 개인차



Korean Architect 2001.12 **107**

▶ 우수작 / (주)협연종합건축사
사무소(나승민)

대지위치	전북군산시 소룡동 1665번지와 7필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전용공업지역, 항만시설지구
대지면적	전체대지면적 78,903.00㎡ 계획대지면적 27,559.00㎡
건축면적	11,410.50㎡
연면적	11,865.73㎡
건폐율	41.40%
연폐율	43.06%
구조	SRC/철근 콘크리트
설계팀	이세웅(총괄), 심중재, 양희범, 임효택, 이세형, 백우진

배치계획

- 국제선과 연안선 기능축 혼재 완화형태로의 접근
- 각각의 기능분화와 공유의 유추

- 하나의 지붕으로 공유기능 성격 강화
- 매개광장(어울마당)을 중심으로 영역의 분리와 통합
- 외부공간 접근성을 높이고 바다와 연계하고자 함
- 차량동선의 접근성을 높이고 간소화 함 (일방통행 기능)

평면계획

- 국제선과 연안선 기능 분리
- 식당/송영대는 공유기능으로 유도하고 일몰조망을 겸할 수 있는 위치 계획
- 직원,관리자 동선분리로 기능성 강화
- 국제선 입출국은 총별분리로 동선혼재 방지
- 매개광장(어울마당)은 가변적 운용 가능
- 대합실 바다측 조망 최대 확보

입면계획

- 21세기 관문항 이미지 부각과 상징성을 위한 입면형성

- 바다를 상징한 파도와 고래의 형상화 이미지
- 금속과 유리의 적절한 사용으로 하이테크한 미래적 인상연출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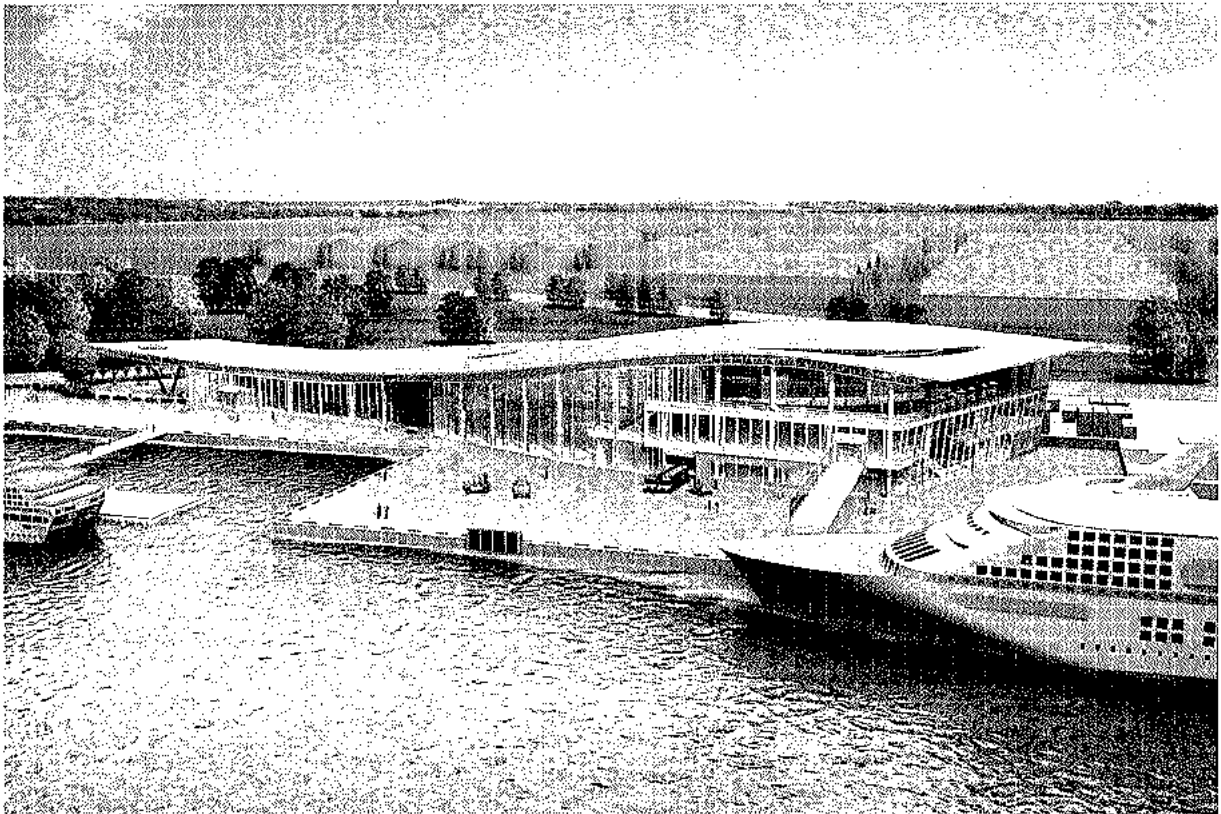
- 대합실을 대공간으로 구성하여 개방감 확보
- 휴게공간 지붕 OPEN하여 채광확보와 유기적 공간연출
- 상층부 루버설치로 자연환기의 적극적 유입

동선계획

- 입국과 출국동선의 입체적인 분리
- 이용객과 직원의 동선분리 및 조닝계획
-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의 분리
- 셔틀마당-이벤트마당-어울마당의 연계성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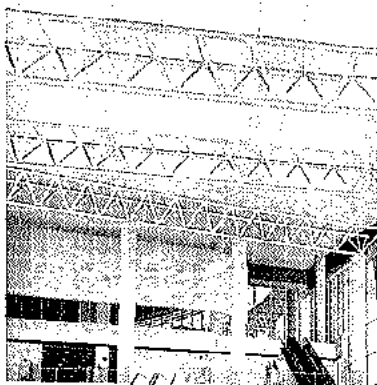
외부공간계획

- 이벤트마당 - 행사등 불거리제공과 토



산품 판매/포장마차 등과 연계, 바다와 연결

- 심터마당 - 휴식제공 공간으로 소공원화
- 어울마당 - 국제선과 연안선의 출발점이자 두공간을 하나로 이어주는 유기적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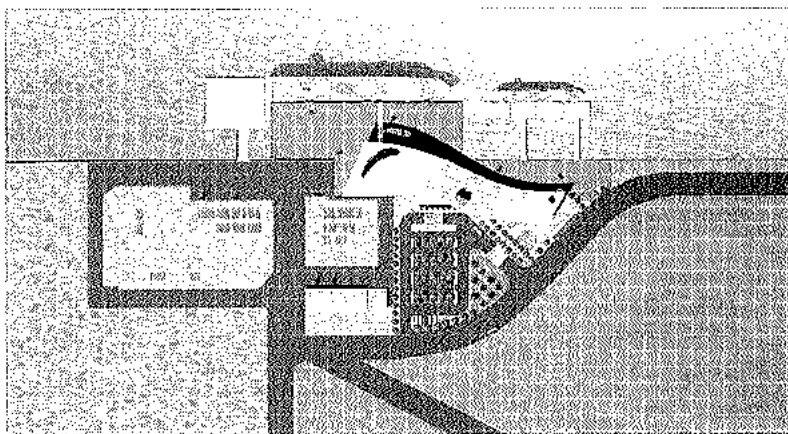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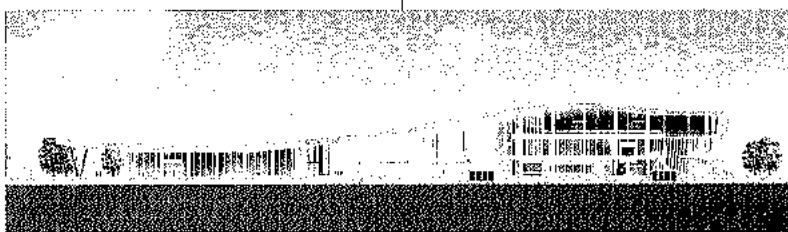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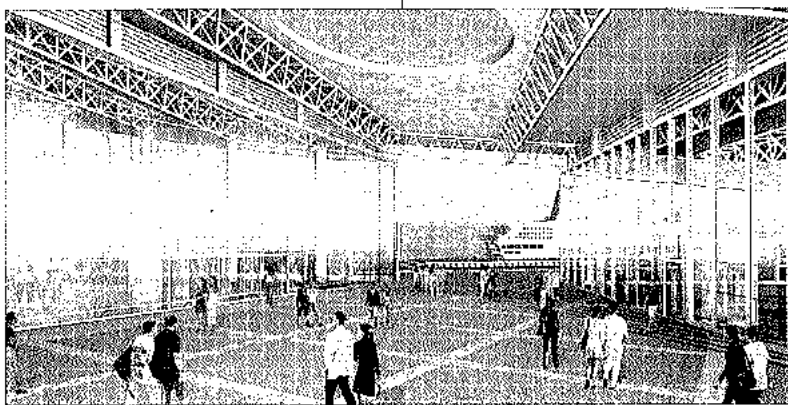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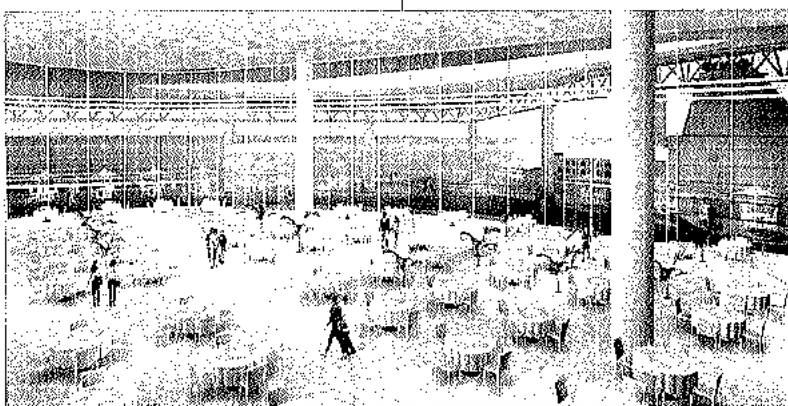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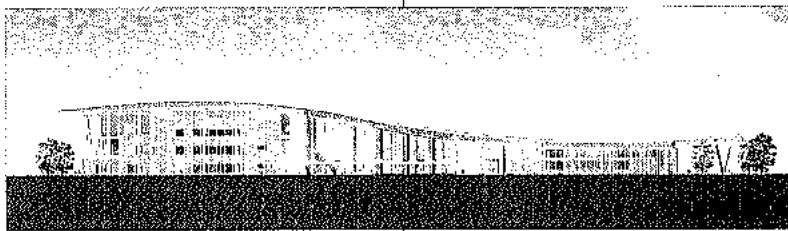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배치도



바다측 입면도



육지측 입면도

▶ 가작 / (주)건설종합건축사
사무소 (노형래)

대지위치	전북 군산시 소룡동 38-4번지 일대
지역지구	도시지역, 전용공업지역, 항만시설 지구
대지면적	78,903㎡ (23,868.16평)
건축면적	9,652.15㎡ (2,919.78평)
시설면적	- 국제여객터미널: 7,214.04㎡ (2,187.25평) - 연안여객터미널: 2,511.43㎡ (759.71평) - C.F.S 및 화물창고: 2,028.00 ㎡(613.47평)
주차대수	248대 (장애자주차 5대, 대형차주 차 1대 포함)
구조	철골조, 강판트러스
외부마감	로이복층유리, 스테인레스 스틸 판넬
설계팀	고종준, 박종술, 주영준, 신익주,

이창훈, 허 한, 김동원, 원종석,
송기황, 권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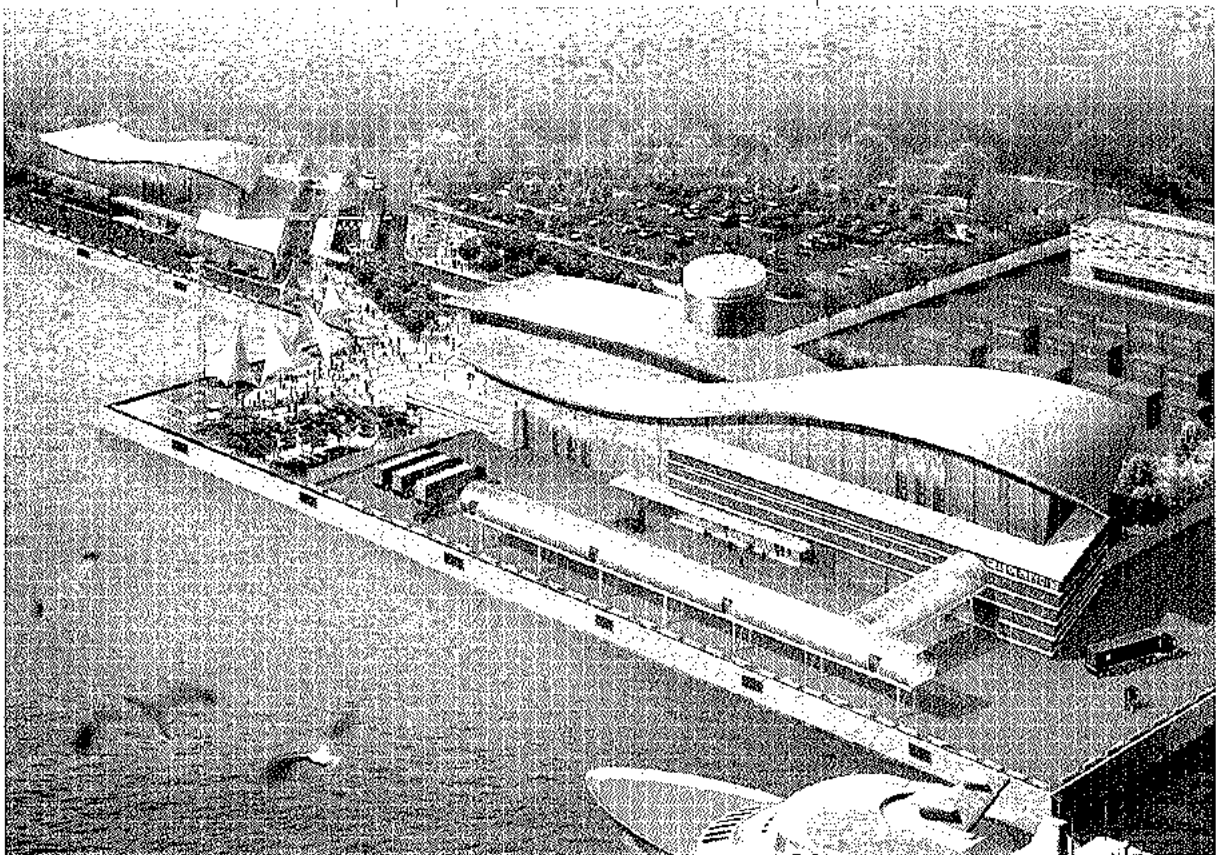
21세기 서해안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본 계획은 내륙으로 들어오는
첫 발걸음과 같이 육지로 들어오는 관
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첫인상을 결
정지을수 있는 중요한 위치가 된다. 군
산의 지역적 특성과 컨텍스트를 수용하
면서, 더욱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
는 터미널의 상징적인 역할이 중요한
계획요인이 된다.

• 상징 - 상징은 바다를 주제로 끊임없
이 유동하며 거친 힘과 부드러운 잔잔
함을 지닌 파도의 다양한 변화감 있는
모습과 바다위를 날고 있는 갈매기의
날개 짓과 유연함이 주는 선의 흐름을
주요한 모티브로 디자인을 전개했다.
본 계획은 크게 국제여객선터미널,

국내연안여객선터미널과 C.F.S창고
의 3가지 건물로 이루어지며, 국제와
국내여객선터미널을 같은 디자인 컨
셉으로 통일성을 줄 수 있도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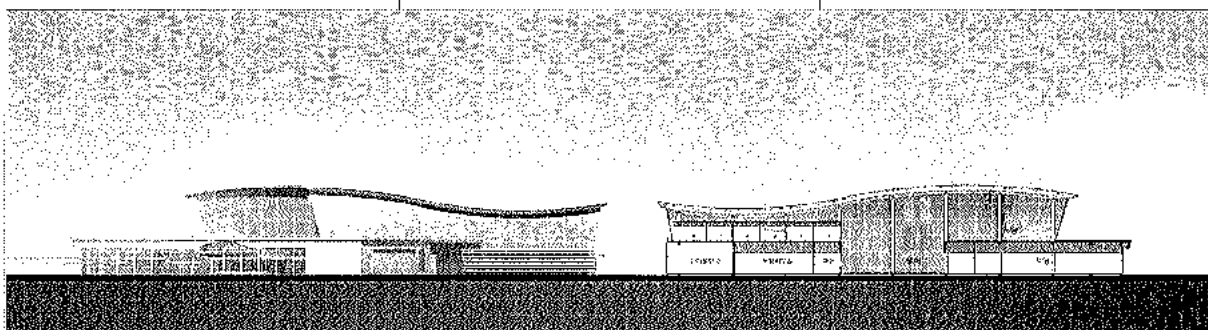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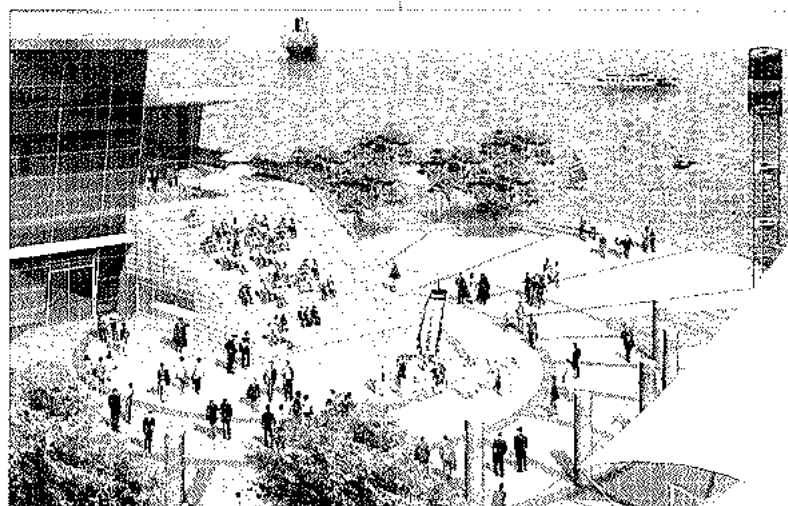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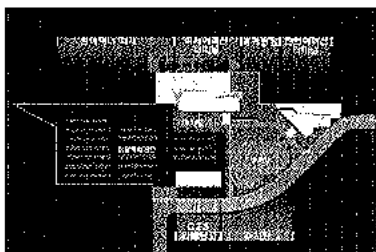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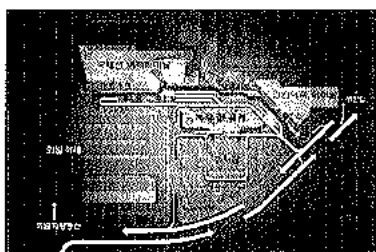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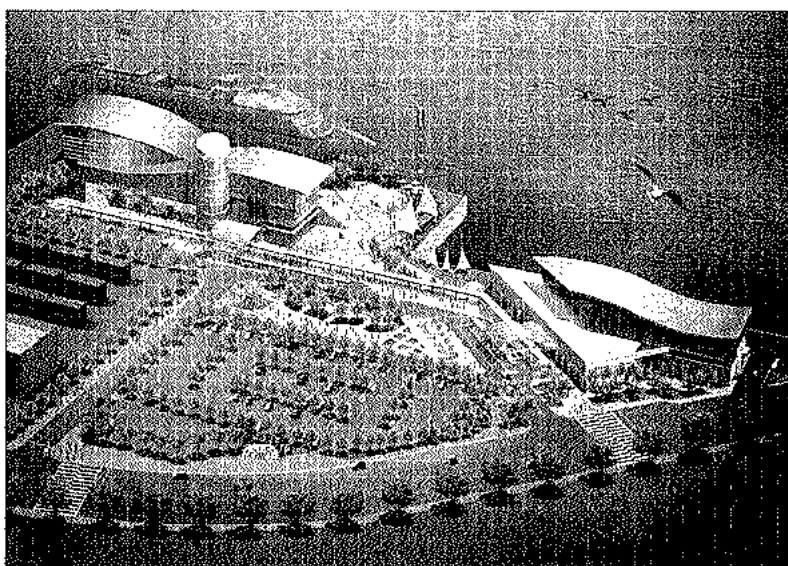
• 다양한 동선체계 및 접근성 - 터미널
과 C.F.S창고 시설의 주진입을 분리
해 일반인과 화물의 접근을 나누었으
며, 대지 내 도로를 지나며 본 계획건
물의 다방향을 다이나믹하게 볼 수 있
도록 하였다. 승하차장과 주차장은
터미널 양 시설을 잇는 중심에 위치하
고, 화물적재 및 승하선 동선과 일반
동선의 혼잡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려
해 효율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였으며,
조경 및 휴게공간 등의 외부공간이 활
성화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 기능의 분리와 연계 - 국제 및 국내
여객선터미널의 기능과 시스템의 이
해를 기반으로 명확하게 기능을 분리
해 각 기능들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 시설의 공유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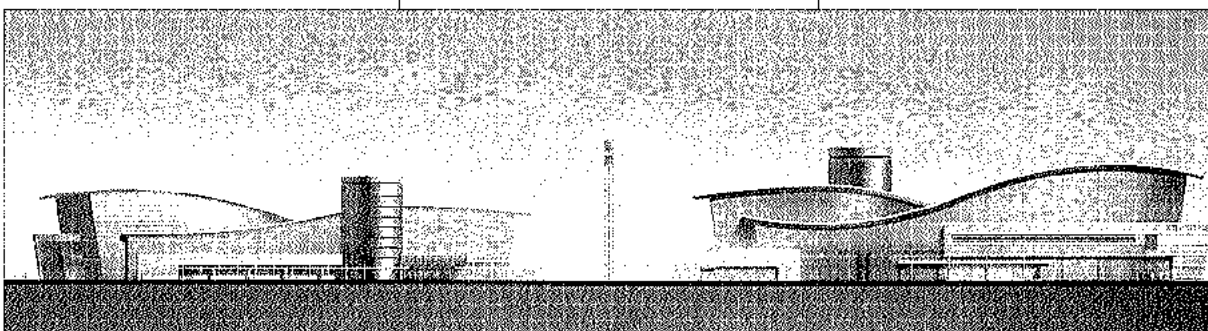


간인 입출국자를 위한 승하차장을 인접배치하고, 사이에 수변공간을 계획해 다양한 입출국자의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확보하였다.

- 자연친화적 연계시설 - 해안에 인접한 특수성을 고려해 친수 및 녹지시설을 계획하였으며, 부분적 시선의 차단 연출기법을 사용하여 녹지시설을 조성하였다.



연안 여객선터미널 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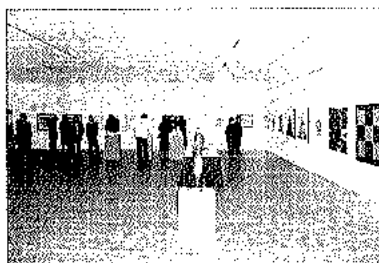
국제 여객선터미널 입단면도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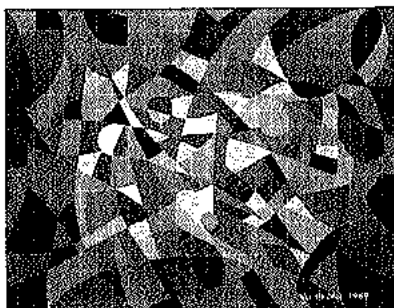
제10회 건축가미술전 2001

The 10th Art Exhibition by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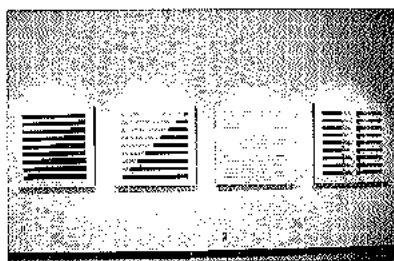
기간 : 2001. 12. 3~12. 11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Architect's
Gallery



전시회 풍경



유희준 | PAINTING(for peace of mind) |
Acrylic on canvas | 32×41cm | 1989



조성렬 | 구미준 그래픽 | 그래픽 |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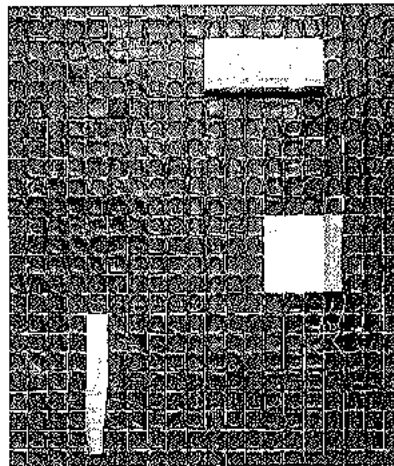
손석진 | Touch Five | Acrylic | 30×90cm |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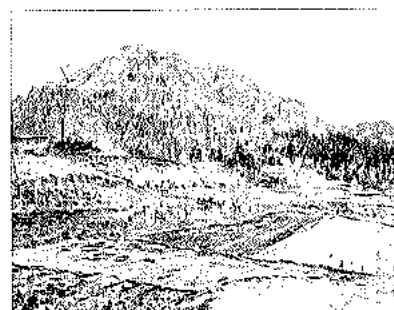
강성익 | 수채화 | 72×53cm | 2001



김낙동 | 크로키 | 59.7×42cm | 2001



김낙동 | ALPHA의 해체-II | paper and acrylic |
60×70cm | 2001



김석환 | 더지의 봄가을 | 유화 | 2001



김용집 | 오형갯벌 | 수채화 | 53×40.9cm |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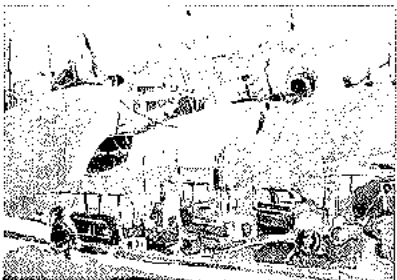
김재열 | 한구 수채화 | 20호 | 2001



김호경 | Human's Lelation II | 수채화 | 75×60cm | 2001



이상은 | 백령도 해변 | 12" | 2001



이관직 | 주문진항 | 수채화 | 49.5×34cm | 2001



이기범 | 回廊(佛光寺 入口에서) | 유화 | 53.5×45.7cm |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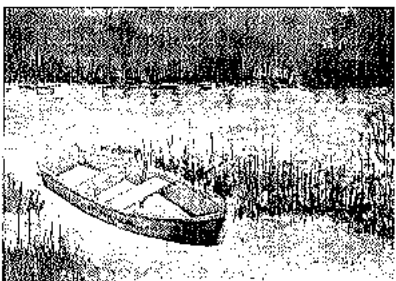
최영권 | 차악산의 가을 | 수채화 | 12F |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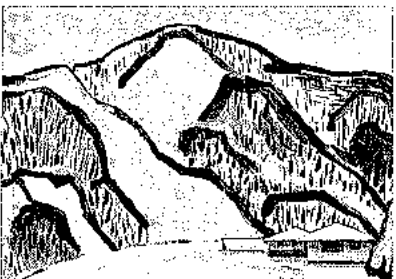
신길웅 | 단풍계곡 | 서양화 | 10P |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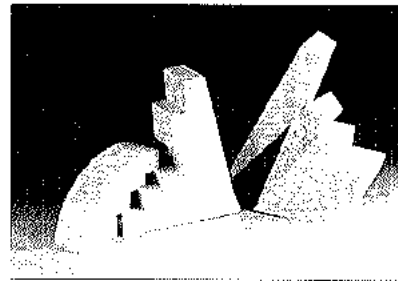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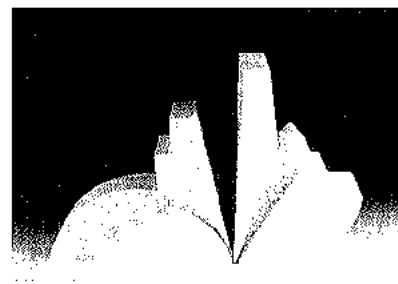
김용현 | 월정사의 미소 | 수채화 | 74×54cm | 2001



이민희 | 구일 | 수채화 | 2001



함정도 | 거울산 | 서양화 | 60×42cm | 2001



이호진 | 건축과 도메 | 1300℃원원소성, 백자 | 580×100×350cm | 2001



이호진 | 건축과 도메 | 1300℃원원소성, 백자 | 580×100×350cm | 2001



최종문 | 문경탈매 | 서양화 | 40F | 2001